



논산지역의 언어

정경일

발간사

PREFACE

한 지역의 언어는 그 지역의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언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보편적 교육으로 표준어를 쓰는 세대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줄여 쓰고 자기들만의 신조어도 있어 기성세대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까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논산 지역의 언어 또한 많이 사라지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위기감에 3년 전부터 건양대학교 정경일 교수님께 의뢰하여 사라져 가는 논산지역의 언어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충청도 말의 특징은 ~유로 끝나며 느리고 온화한 말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산 사람들은 ~유로 끝나는 어말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충청도 서부지역보다는 그 사용 빈도가 덜하고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논산을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한 분씩 선정하여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녹취 전사하는 과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산에서 70년 이상 터전을 지키며 살아온 세대의 삶의 여정을 엿볼 수도 있고,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요즘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의 다른 점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세대의 언어에서 그 특징과 의미를 알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의 언어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논산지역의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논산 지역의 언어』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건양대학교
정경일 교수님과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신 논산시와 충청남도예 감사드립니다.

2017. 11.

논산문화원장 류 제 협

■ 발간사	007
I. 지역 언어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013
2. 조사지점과 제보자	015
3. 전사방식	020
II. 지역 언어 조사 내용	
1. 이*순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025
2. 최*기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134
3. 류*강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224
4. 최*환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325
III. 논산 지역 언어의 특징	
1. 논산 지역 언어의 위상	415
2. 논산 지역 언어의 특징	422
2.1. 논산 지역 언어의 소리	422
2.2. 논산 지역 언어의 어휘	430
3. 마무리	432



I

지역 언어 조사 개요

I. 지역 언어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지역 언어¹⁾를 조사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하나는 질문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구술발화 방식이다.

질문지 방식은 어휘중심 조사 방식으로 사전에 조사하고자 하는 어휘 목록을 선정된 뒤 제보자로부터 해당 어휘의 지역어를 발음하도록 하여 지역 언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어휘 목록을 만들고 이를 하나하나 질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어휘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1) 지역 언어 또는 지역어는 방언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서울 중심의 표준어에 대비되는 말을 방언 또는 사투리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서울 중심의 중앙문화와 지방의 지역문화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역문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 등으로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표준어에 비하여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방언이라는 용어를 한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지역어 또는 지역 언어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어 또는 지역 언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 많이 활용되어 온 방식이다. 그러나 어휘만을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지의 환경과 조사방법, 조사자의 능력에 따라 제보자의 응답이 달라지거나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구술발화 방식은 어휘 중심이 아니고 제보자에게 일정한 주제를 제시한 뒤 이에 맞게 제보자가 자유로이 구술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언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제보자에게 지역의 지명, 전설, 설화나 관혼상제와 관련한 이야기, 농사 또는 일상적 삶 등에 관해 자유로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체계적인 어휘 수집에는 약점이 있으나 어휘를 넘어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 설화, 생업 등에 관한 서사적 접근이 가능하고 제보자가 자유로이 개인의 경험을 구술하기에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두 가지 조사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조사방식의 결정은 조사의 목적과도 관계가 있다. 즉 조사의 목적이 순수하게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학술연구라면 질문지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언어 조사는 주로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여 왔으며 질문지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연구자 개인이 개발한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개발한 질문지가 주로 활용되어 왔다.

반면 지역 언어는 단순히 언어학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모습과 역사 등을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구술발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방식이 효율적이다. 2004년부터 10년 계획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였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언어를 지역 주민의 발화를 통해 생생하게 녹음하고 이를 문자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언어적 자료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논산문화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구술발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제보자의 자유로운 발화를 최대한 채록하고 이를 음소표기에 의한 전사와 표준어 전사를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논산 지역어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순수하게 논산지역의 언어조사라기보다는 논산 지역의 언어를 통해 살펴 본 논산지역의 문화 이야기라고 하는 편이 더 온당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4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지역의 옛 어른들의 살아온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조사는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정경일 교수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조사책임은 정경일 교수가 맡아 총괄적인 진행과 전사 자료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였고, 조사원은 디지털콘텐츠학과 4학년 윤주연, 송운선, 김유리 등 3명으로 이들은 조사의 보조, 녹음, 촬영 등의 업무와 녹음 자료의 1차 전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지점과 제보자

논산시는 2읍, 11면, 2동 등 모두 15개의 읍, 면,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읍, 면, 동 단위 별로 각각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조사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이 가운데 4개 지역만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점의 선정은 15개 지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의 4방향의 지역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벌곡면, 성동면, 가야곡면, 광석면

등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각각 1분씩의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제보자는 일반적인 지역어 조사에서 제보자 선정의 조건으로 활용되는 다음의 원칙에 맞는 분을 논산문화원과 지역의회 의원, 지역 행정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제보자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 해당 지역에 3대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고, 그곳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분으로 70세 이상이신 분
- * 가능한 고등교육을 받지 않으시고, 타지로의 출타나 접촉이 많지 않으신 분
- * 지역의 사정에 밝고, 전달력이 뛰어나신 분
- * 구강과 청력이 양호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데에 무리가 없으신 분
- *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시간 조사에도 체력적인 부담이 없으신 분

이러한 기준은 지역어 조사에서 항상 준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에 완벽히 부합되는 분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교육수준을 논하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지역어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현대에 들어와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최근 노령인구의 건강상태는 이전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제보자의 건강상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분의 제보자가 선정되었다.

2.1. 2015년 조사 제보자

2.1.1. 논산시 성동면 지역

- 성명: 이*순
- 연령: 74세²⁾ (1942년생)
- 출생지: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탑동
- 거주지: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 직업: 없음
- 학력: 초등학교 졸업
- 경력: 18세에 서울 이주, 결혼 후 대전 거주, 34세에 논산 이주
- 특기 사항: 기억력과 언변이 좋아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족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함. 리더십이 있고 사회성이 뛰어난. 조사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
- 건강상태: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음성 특징: 목소리가 크고 빠르며 구강 건강이 양호하여 제보나 대화에 전혀 지장 없음.

2.1.2. 논산시 벌곡면 지역

- 성명: 최*기
- 연령: 80세 (1936년생)
- 출생지: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 거주지: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오작실
- 직업: 농업 (30대에는 농산물 유통에 잠시 종사)

2) 연령은 조사 당시의 연령. 이하 같음.

- 학력 : 연산중학교 1회 졸업.
- 경력 : 18세에 벌곡면으로 이주하여 계속 현 지역에 거주. 현재는 장남과 대전 거주.
- 특기사항 : 조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다양한 민속과 지역 유래 등을 제보함. 언변이 뛰어나고 무언가를 제보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함.
- 건강상태 :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다만 약간의 천식 기운이 있어 기침이 가끔씩 나왔으나 제보에는 지장 없음.
- 음성 특징 : 청력과 이해력이 우수하며 목소리가 정확하고 치아를 비롯한 구강 건강이 양호하여 제보나 대화에 전혀 지장 없음.

2.2. 2016년 조사 제보자

2.2.1. 논산시 광석면 지역

- 성명 : 류*강
- 연령 : 78세 (1939년생)
- 출생지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 거주지 : 충남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 직업 : 없음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경력 : 가야곡면 거주 중 결혼 후 광석면으로 이주하여 평생 논산에서 거주.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 생활
- 특기사항 :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격.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질문 내용

에 국한하여 답변을 하는 성격임.

- 건강상태: 양호함. 특이한 질병 없고 기억력 좋음. 나이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음성 특징: 목소리가 작고 낮으나 청취 가능함. 구강 건강이 양호하여 제보나 대화에 전혀 지장 없음.

2.2.2. 논산시 가야곡면 지역

- 성명: 최*환
- 연령: 76세 (1941년생)
- 출생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 거주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 직업: 농업
- 학력: 초등학교 졸업
- 경력: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음. 농업을 하면서도 19세부터 목수 일을 함. 마을 이장, 농협과 축협의 대의원, 이사 등 지역사회 지도자로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해 옴.
- 특기 사항: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인 성격임.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조적임.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함.
- 건강상태: 매우 양호함. 고령이나 직접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할 정도로 건강함.
- 음성 특징: 구강 건강 양호하고 목소리가 정확하며 청력도 우수함. 제보나 대화에 전혀 지장 없음.

2.3. 조사일정

위의 4지역에 대한 조사 일시는 다음과 같다.

- 1차: 성동면 이*순씨 면담 : 2015. 5.23 (토) 10:00~15:00
- 2차: 벌곡면 최*기씨 면담 : 2015. 5.30 (토) 10:00~12:30
- 3차: 광석면 류*강씨 면담 : 2016. 6.4 (토) 10:30~12:30
- 4차: 가야곡면 최*환씨 면담 : 2016. 6.11 (토) 10:30~13:00

3. 전사방식

이번 조사는 구술발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술 내용은 녹음 되어 자료로 삼았으며 내용은 전사되어 기록되었다. 녹음 자료의 전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 아래 진행되었다.

발화의 기록은 두 가지로 하였다. 하나는 녹음된 제보자와 조사자의 발화 내용을 발음 그대로 표기하여 기록하였다. 또 하나의 기록은 발화 내용을 표준어로 변환하여 표기함으로써 지역어와 표준어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서체를 달리 하였다. 즉 제보자와 조사자의 발화 내용은 HY중명조체로 하였고, 표준어 기록은 한컴돋움체를 사용하였다.

한편 구술 발화의 전사는 발화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띄어쓰기의 원칙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제보자 발화의 경우 소리가 이어지는 지점에서의 형태음소적 음운변동을 무시한 채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어의 참 모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띄어쓰기의 원칙을 무시하고 기록된 경우도 있다.

단락의 구분은 제보자의 발화 내용을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제보자와 조사자의 대화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발화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단락을 구분한 경우도 있다. 문장부호는 최소한 의미의 구별을 위한 자리에서만 표기하였다. 주로 마침표(.)와 쉼표(,)가 사용되었고 드문 경우 물음표(?)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네 분의 녹취기록을 전사하고 감수하는 과정에서 논산문화원 류제협 원장의 도움이 매우 컸음을 밝혀둔다. 류제협 원장은 논산에서 출생하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으로, 전사와 감수과정에서 필자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지역어와 지역의 독특한 표현들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II

지역 언어 조사 내용

1. 이*순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조사자 : 할머니, 사라 오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할머니, 살아오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보자 : 저년 어려쓸 때년 부여군 석성면 혈래리 탑똥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쎄요. 그래고 여덟싸레 석성초등학교를 가고 유교사벼 늘 아홉살 때, 유교사벼니라는 큰 날리가 이쎄쎄.

<저는 어렸을 때는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탑똥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덟 살에 석성초등학교를 가고 육이오 사변을 아홉 살 때, 육이오 사변이라는 큰 난리가 있었어.>

그때 학교를 가니까 참 일녀는 재미께, 여덟살때는 아참 담박질 두 해두 일똥하구 선생님들 보면 조코 그케 하다, 유기오 아홉살 때는 선생님드리 피난두 가구 제대로 공부를 모대쎄.

<그때 학교를 가니까 참 일녀는 재미있게 여덟 살 때는 아참 달음박질¹⁾을 해도 일등하고 선생님들 보면 좋고 그렇게 하다, 육이오 아홉 살 때는 선생님들이 피난도 가고 제대로 공부도 못 했어>

1) 급히 뛰어 달려감. 달리기의 다른 말.

유기오 뒤에 열쌀 머거써서 거기는 논 가튼것뚜 조치 안쿠, 성동 드리 조타구해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열쌀 머거서 이사를 와썴요. 완는데 그때마내두 참 모등게 사능게 어려우니까 학교는 모까구 썩캐러 냉이캐러 저 우건니 벌판까지를 가썴.

<육이오 뒤에 열 살먹어서 거기는 논 같은 것도 좋지 않고, 성동 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 친정 아버지가 열 살먹어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그때 만 해도 참 모든 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학교는 못 가구 썩캐러 냉이 캐러 저 우곤리 벌판까지를 갔어>

인저 열쌀 때는 동생들 두리써꾸 나하구 세시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사르션는다, 살다보니까 동생이 나서 여서시어써, 용남 매 용남매서 내가 맏따리어꾸.

<이제 열 살 때는 동생들 둘 있었고 나하고 세 식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살으셨는데, 살다보니까 동생이 나서 여섯이었어, 육남매 육남매에서 내가 맏딸이었고.>

어치게 사르야하나 그래 열세살머거서 공장을 가썴. 요 강경에 옴나레 개성썴온 소창²⁾ 짜는 공장이 이썴썴어. 그래가주 거기가 제일 즈그니까 실도 감꾸 또오 또 자브라라능거뚜 감꾸 차차루, 학교 이랑년썴부태루 당계루 올라가야 돼유 그거뚜. 그래 비로소 열다섯살 머거서 직주를 썴썴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 열세 살 먹어서 공장을 갔어. 요 강경에 옛날에 개성에서 온 소창²⁾ 베 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제일 작으니까 실도 감고 또 자브라라는 것도 감고 차차로, 학교 일학년서 부터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비로소 열다섯 살 먹어서 직조를 썴어.>

2) 이불의 안감이나 기저귀감 따위로 쓰는 피륙.

조사자 : 아, 강경에 공장이 있었습니까?

<아, 강경에 공장이 있었습니까?>

제보자 : 예, 강경에 마내씨유. 개성씨 피나논 양반더리 그런 공장을 하기에, 인저 잘 다녀서 버려서 참 부모님도 도움고.

<예, 강경에 많았어요. 개성에서 피난 온 양반들이 그런 공장을 하기에, 이제 잘 다녀서 벌어서 참 부모님도 돕고.>

그 당시는 비가 안 와써여. 삼녕가늘 비가 잘. 모 시물때 모내기 할 때 비가 아와 가지구 노네다 매무를 가라써요. 삼녀늘 또.

<그 당시는 비가 안 왔어요. 삼년간을 비가 잘. 모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비가 안 와 가지구 논에다 메밀을 갈았어요. 삼년을 또.>

조사자 : 매무리요?

<메밀이요?>

제보자 : 매무리라고 이써요. 매물꽃필무렵 그런 매물.

<메밀이라고 있어요. 메밀꽃 필 무렵 그런 메밀.>

조사자 : 예.

<예.>

제보자 : 매무리라는 그걸 쌀 대신 그걸루 양시글 해가지구 할머니 아버지가 맏도레 가랏써. 맏도레 가랏췌써. 채라는 걸루 해가지고. 향끼는 그걸 떡국처럼 썰어서두 끄려 먹꾸 뭐랄때는 고구마 수늘 따서 여꺼서 다아 매다랏따 그걸 쌀마서 가루 쪼끔 너코 주글 써야 여러시 먹찌.

<메밀이라는 그걸 쌀 대신 그걸루 양식을 해가지구 할머니 아버지가 맏돌에 갈았어. 맏돌에 갈았었어. 채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끼는 그걸 떡국처럼 썰어서도 끓여 먹고 뭐랄 때는 고구마 수늘 따서 엮어서 다아

매달았다가 그걸 삶아서 가루 조금 넣고 죽을 쑤어야 여럿이 먹지.>

일고비나 여덟 식구가 고로케 어려운 시저를 사랐쎄요, 갱장히. 그런데 인저 나야 비로소 어렵게 살았지만 동생들마는 학교에 보내야 할꺼 가태서, 동생은 인저 초등학교를 보내고, 남동생 딸 네 시여. 다 아들 또 용남매루 커쎄. 우리 남동생을, 남동생을 갈켜야 쟈따는 마음미로 참 막 이 베를 하눌하눌 올가서 찌는 소창을 하루에 백자씩 짤 때는 얼마나 빨리 짜졌쎄요?

<일곱이나 여덟 식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나야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동생들만은 학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고, 남동생 딸 넷이여. 다 아들 또 육남매로 컸어. 우리 남동생을, 남동생을 가르쳐야 쟈따는 마음으로 참 막 이 베를 한 올 한 올 엮어서 찌는 소창을 하루에 백자씩 짤 때는 얼마나 빨리 쟈졌어요?>

조사자 : 기계가 이쥘꺼 아니예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보자 : 예, 기켓빠가 이쎄요. 자동 전기가 아니라 수죽끼여 바디질 하가물대서, 그르다보니까 아유, 인저 이것또 하기도 실쿠 이거 버르면 도니 안대. 이거 버러가꾸, 어연간 동생은 중학교를 드러가게 대구 남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도 이꾸,

<예, 기계 베가 있어요. 자동 전기가 아니라 수직기여 바디질 해가면서, 그르다보니까 아유 이제 이것도 하기도 싫고 이거 벌면 돈이 안돼. 이거 벌어 갖고, 어연간 동생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남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도 있고,

내가 큰 따리 누나자 언니이지만 엄마여카를 해쎄. 진짜 소창 가튼걸 떠서래도 사다 동생들 오당가지래두 다 지어서 입께 하고,

<내가 큰 딸이 누나이자 언니이지만 엄마 역할을 했어, 진짜 소창 같은

걸 떠서라두 사다 동생들 옷 한가지라도 다 지어서 입게 하고,>

어머니가 이건 아녀 그래. 어끄저께도 교수님 완는디 마를, 예레
덜쌀 머거서 내가 서우레 가써, 에라 나도 서우레가서 한 번 사라
봐야게따 하구서.

<어머니가 이건 아녀 그래. 옛그제도 교수님 왔는데 말을, 열여덟 살
먹어서 내가 서울에 갔어, 에라 나도 서울에 가서 한 번 살아 봐야겠다
하고서.>

처으메 인저 친척가주머니가 동대문 사라서 거기 저뽈늘 두고
쓴다고 너가트내가 피료하다개서, 인저 이모할머니라는 할머니
를 따라서 서울역 기차를 강경덕써 타구 일곱 시가늘 가써요. 와냉
널차. 가서 보니까 저녁때 한 네시경 쫘 내련나?

<처음에 이제 친척 아주머니가 동대문 살아서 거기 점원을 두고 쓴다고
너 같은 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모할머니라는 할머니를 따라서
서울역 기차를 강경역에서 타고 일곱 시간을 갔어요. 완행열차. 가서 보니
까 저녁 때 한 네시 경 쫘 내렸나?>

따악 서울려게 내려보니까, 따악 보는 디에는 드레쓰 미싱 그
미싱 회사여 미싱, 그게 이쓰른 지까지까지까 도라가는 그게 다
왜냐면 싱기해유.

<따악 서울역에 내려 보니까 따악 보는 데는 드레스 미싱³⁾ 그 미싱 회사
여 미싱, 그게 있으면 지까지까지까 돌아가는 그것이, 다 왜냐하면 싱기해
요.>

참 이 상꼬레서 차도 여가내서 모뽏다 보니까 막 자가용이 와따
가따 다니지, 그 드레쓰 미싱이 절거적절거적, 또 어트개서 한폴
짜글 뜰레벌겨려보니까 미원 아지노원 빨간색 파란색 그게 정광

3) 재봉틀을 뜻하는 'sewing machine'을 일본에서 'ミシン(mishin)'으로 받아들인
말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말.

파니 나와.

<참 이 산골에서 차도 여간해서 못보다 보니까 막 자가용이 왔다 갔다 다니지, 그 드레스 미싱이 절거절거적, 또 어떻게 해서 한편 쪽을 두리번 거려 보니까 미원 아지노모도 빨간색 파란색 그게 전광판이 나와.>

빠쓰는 인저 오나 아노나도 풀는디 하두 싱기해서, 그 할머니가 애, 재수니여, 내가. 이재순, 재수나 이 풀레얼거따 차 못 타거따, 인저 동대문 가가지구 아줌니네가서 보자.

<버스는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하두 싱기해서, 그 할머니가 애, 재순이여, 내가 이재순, 재순아이 두리번거리다 차 못 타겠다, 이제 동대문 가가지고 아주머니네 가서 보자.>

그래서 인저 빠쓰를 타구 동대무네 내리니까, 참 옛날 동대문 남대무니 거그가 침봐찌, 동대무늘 지나서 가니까 그 아줌마넨 떠를 하나하믄, 여주 이천씨 땅콩을 사다 땅콩을 막 기계다 보까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동대문에 내리니까, 참 옛날 동대문 남대문 이 거기가 처음 봤지, 동대문을 지나서 가니까 그 아줌마네는 뭐를 하나하면, 여주 이천에서 땅콩을 사다 땅콩을 막 기계에다 볶아요.>

조사자 : 아! 네.

<아! 네.>

제보자 : 보까서 대빠기로 팔구 이런 공기로 팔구 그래요. 그럼 그 할머니는 저를 데려다 주고 연무대 사르시는데 딸네 지빙게 오시구, 참 아점니 아자씨 오빠 언니 인는디 낫뚜 설구, 그래 인저 저는 가게에서 점위녀, 얼마 치 달라믄 상각봉지다 쪼곰도 주고 쪼곰 마니 달라믄 요만씨근 대빱이 대유.

<볶아서 뒷박으로 팔고 이런 공기로 팔고 그래요. 그럼 그 할머니는 저를 데려다 주고 연무대 사시는데 딸네 집이니까 오시고, 참 아주머니 아저씨 오빠 언니 있는데 낫도 설고, 그래 이제 저는 가게에서 점원이여,

얼마 치 달라 하면 삼각봉지에다 조금도 주고 조금 많이 달라하면 요만씩 한 뒷박에 되요.>

그 시저른 쪼고마난 대빱 큰 대빠근 지그미로 한 오처넌 댐나? 큰 대빱 요로케 봉지너서, 어떤 아저씨드른 에휴 쪼꼬마내두 어치게 땅콩찌바가씨는 인상이 조와, 그냥 지나갈래두 아가씨 인상이 조아서 쪼꼬미래도 사가꾸 갈라구 드루신디야, 어째튼 행복차.

<그 시절은 쪼그마한 뒷박 큰 뒷박은 지금으로 한 오천 원 댐나? 큰 뒷박 요렇게 봉지에 넣어서, 어떤 아저씨들은 에휴 쪼그만해도 어떻게 땅콩 집 아가씨는 인상이 좋아, 그냥 지나가려 해도 아가씨 인상이 좋아서 조금이라도 사 갖고 가려고 들어 오신대. 어째튼 행복해.>

그기서 내가 인자 월그블 바다 가지구 동생은 여동생더른 그냥 성동초등학교를 잘 가르키구 남동생 강경상고를 나와써요. 근디 남동생이 누나가 어려웁게 가르킨다는 생가기루 자물 안자고 공부해, 그때는 으냉에 가야 최고여써, 으냉, 항구그냉인가 시험봐서 낙써늘 해써.

<거기서 내가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동생은 여 동생들은 그냥 성동초등학교를 잘 가르키고 남동생은 강경상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누나가어렵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잠을 안자고 공부해, 그때는 은행에 가야 최고였어, 은행 한국은행인가 시험 봐서 낙선을 했어.>

근데 애가 실망을 해, 실망하지 말고 기회는 이쓰니까 열씨미만 또 사라보자, 그래떠니 우리 동생이 무슨 온만드는 공장 공장으로 가서, 가서 온만드능걸 어느 정도 눈 이켜보다 군대를 가서, 삼너닝가 제대하고 와 가꼬서 자기가 서른 두살 때 공장을 시자개써요, 봉젯공장.

<근데 애가 실망을 해, 실망하지 말고 기회는 있으니 열심히만 또 살아보자.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무슨 옷 만드는 공장 공장으로 갔어, 가서

옷 만드는 걸 어느 정도 눈 익혀 보다 군대를 가서, 삼년인가 제대하고
와 갖고서 자기가 설흔 두살 때 공장을 시작했어요, 봉제공장.>

그래 가지구 마악 아주머니 할머니드를 쓰문 자보넵씨 어려움
께 어려움께 항게 얼마나 힘들거써유, 지그믄 어여탄 크로코다일
사장니미 돼써 그렇게 누나 매형,

<그래 가지고 막 아주머니 할머니들을 쓰면 자본 없이 어렵게 어렵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어엿한 크로코다일 사장님이 됐어 그
렇게 누나 매형,>

조사자 : 크로커다이리네요.

<크로커다일이네요.>

제보자 : 예 다 우리 옷 하나 하나를 동생이 다 사 줘, 그리고 엄마가튼
누나라 궁게 지금 행복하고, 그때 그 겨로를 안쿠 나는 동생들 가르
키고 친정어머이 아버지를 위해 사라보거따 하는 생각이래,

<예 다 우리 옷 하나하나를 동생이 다 사 줘, 그리고 엄마같은 누나
라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고, 그때 그 결혼을 앓고 나는 동생들 가르키고
친정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이래,>

친정아버지가 여기 조은 총각이 이쨌게 겨로를 하얀대, 그래 비
로소 봉계 동네 총각이여 아저씨가 동네 총각이여, 아버지 저는
시러유. 어려서 시골 사는 것도 힘드런디 서울 좀 겨로내서 사라
보거따, 가따,

<친정아버지가 여기 좋은 총각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한대, 그래 비
로소 보니까 동네 총각이여 아저씨가 동네 총각이여, 아버지 저는 싫어요.
어려서 시골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서울 좀 결혼해서 살아 보겠다, 가만,

또 우리 아주머니가 그양 발도 널루꾸 그러셔서 친구분들도 엔
나레 피나와 가지구, 평화시장에는 동대문시장은 이복써온 아줌

머니드리 순 다 장사여씨, 궁계루 며느리라구 삼꾸십따했따, 다.

<또 우리 아주머니가 그냥 밭도 넓고 그러셔서 친구분들도 옛날에 피난 와가지구, 평화시장에는 동대문시장은 이북에서 온 아주머니들이 순 다 장사였어, 그러니까 며느리 삼고 싶다 했대요, 다.>

아부지가 조은 총가카나 마타 나쫘게 너는 서우레서 시집 간다가문 나는 너 딸로 인정 앙커따, 그러케 자라시던 아부지가 그 말 쓰믄, 아부지 말쓰믄 따르거써유,

<아버지가 좋은 총각 하나 말아 놓았으니까 너는 서울에서 시집간다고 하면 나는 너를 딸로 인정 안 하겠다, 그렇게 잘 하시던 아버지가 그 말쓰믄, 아버지 말쓰믄 따르겠어요.>

돈 버러서 가정 아부지네 주야지 동생들 좀 또 쥐야지 하다 봉계 스무릴고비여, 그때 스무릴고비면 노처녀라고 해써유. 예리들 여라호베 겨로늘 하고 그랜는디 겨료나구 일녀네,

<돈 벌어서 가정 아버지네 쥐야지 동생들 좀 또 쥐야지 하다 보니까 스물일곱이여, 그때 스물 일곱이면 노처녀라고 했어요. 열 여덟 열아홉에 결혼을 하고 그랜는데, 결혼 하고 일년에,>

음녀 정월 스무하룻 나리라는 겨론싱나를 자마서, 구시기지 뭐 원삼 족뚜리 쓰구, 잉,

<음력 정월 스무하룻날이라는 결혼식 날을 잡아서, 구식이지 뭐 원삼 족뚜리 쓰고, 잉,>

조사자 : 그때 주례 가뜱게 있쨌나요?

<그때 주례 같은 게 있었나요?>

제보자 : 이, 주례 업쨌써유. 그냥 동네서 우리 집 애드라빠는 가마가 튼 사령부 이르케 네시 칭구드리 해서 와서, 친정이 바로 덧찌비여. 여기서 열두시에 예를 지내는디 전날부터 누니 이르케 싸이써요. 정월 스물 하룻날인디, 택씨를 불런는디 택씨를 드러들 모단다

능거여. 그러니 우리 친구들 부투기루 새색씨가 거러서 바루 요너 멩게 시지블 가씨.

<예, 주례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우리 집 애들 아빠는 가마같은 사령부 이렇게 넷이 친구들이 해서 와서, 친정이 바로 뒷집이여. 여기서 열두시에 예를 지내는데 전날부터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정월 스무 하룻 날인데 택씨를 불렀는데 택시를 들어 오질 못 한다는 거여. 그러니 우리 친구들 부축으로 새색씨가 걸어서 바루 요 넘어니까 시집을 갔어.>

일너늘 살다 보니까 서우레서는 그래두 그 땅콩찌비구 한 공장 을 샌베 가게찝 하나는 싱노품가게 가게를 세슬 노코 점원드를 세 슬 두구, 여르메도 쌀바블 먹꼬 부윳하게 살던 지비 사란는다, 시 고레 오니까 깡보리바베 저너게는 주걸 쓰야여, 시짐녁시 좀 어려 웅게, 시고른 어렵자녀

<일년을 살다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래도 그 땅콩집이고 한 공장을 전 병4) 가갓집 하나는 식료품 가게 가게를 셋을 놓고 점원들을 셋을 두고, 여름에도 쌀밥을 먹고 부유하게 살던 집에 살았는데, 시골에 오니까 깡보 리밥에 저녁에는 죽을 쑤어야해, 시집 역시 좀 어려우니까, 시골은 어렵잖 아요.>

일년 살다 도저이 이래선 안 돼거따 시퍼서, 일년 딱 사른 가던 멸로 나이는 머거서 바로 애기 이씨서 가으레 따를 나씨 첫따를, 첫따를 나쿠 사는데, 우리집 애덜 아버지도 별 능력기 없꾸 그냥 형님들 농사 진는 데서 농사 지꾸 하니까 저년 쓸 도니 이씨야져, 이러케 살담 이건 아니다 시퍼씨.

<일 년 살다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일 년 딱 살은 가던 길로 나이는 먹어서 바로 애기 있어서 가을에 딸을 낳았어 첫 딸을, 첫 딸을 낳고 사는데, 우리집 애들 아버지도 별 능력이 없고 그냥 형님들 농사짓는

4) 전병(煎餅). 쌀가루나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납작하게 구운 과자. '샌베이'는 전병의 일본식 발음.

데서 농사짓고 하니까 저는 쓸 돈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견 아니다 싶었어.>

정월 보름 때가 인저 시고레서는 명질이자나여 여자 명질, 애기를 참 업꾸 강경여게 가서 엔날가치 기차 와냉을 타구, 일곱 시가 늘 타구 신초네 서울 마포구 신초니라는 데가 친정 자그나부지가 사르셔유.

<정월 보름때가 이제 시골에서는 명질이잖ాయ 여자 명질, 애기를 참 업고 강경역에 가서 옛날같이 기차 완행을 타고 일곱 시간을 타고 신촌에 서울 마포구 신촌이라는 데가 친정 작은 아버지가 살으셔요.>

조사자 : 몰래 가싱거예요?

<몰래 가신 거예요?>

제보자 : 아라씨유. 애기들 친정 자근 지블 다녀 오케따구 시어머니 한티 큰동새님드른 다 허락반꼬, 가면 언제 올래? 기르면 오일 짧르면 한 사밀 이따 올께유 하고 가가지고서, 서울려게서 내려서 참 신촌 흥대입꾸여 가가지고,

<알았쥬 애기들 친정 작은 집을 다녀 오겠다고 시어머니한테 큰 동서님들은 다 허락반고, 가면 언제 올래? 길면 오일 짧으면 한 삼일 있다 올께요 하고 가가지고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참 신촌 흥대입구에 가가지고,

자그나부지 도저히 저 시고레서 못쌀거씨유, 그럼 어치깁래, 아유 방만하나 어들꺼 이쓰면 지가 며럴 해서래두 서울 사라쓰면 조 کنندي 방으들 도니 이씨야지,

<작은 아버지 도저히 저 시골에서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아유 방만 하나 얻을 것 있으면 제가 무엇을 해서라도 서울 살았으면 좋겠는데 방 얻을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자그나부지가 그러타 너야 진짜 시골살기 아깝다, 서우

레 오븐 뒤를 해두 살쭈 이쁘니까 오능건 조은디 그러타고서 시택
식구드라고 의상하지 앙케 잘 상으해서 오고 시프면 와, 그러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그렇다 너야 진짜 시골살기 아깝다, 서울에
오면 무엇을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오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시택 식구들
하고 의상하지 않게 잘 상의해서 오고 싶으면 와, 그러셔.>

조사자 : 그럼 아저씨하고는 그런 얘기 아니셨쎄요?

<그럼 아저씨하고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보자 : 안코 그냥 친정간다고 하고 갔쎄요.

<안 하고 그냥 친정간다고 하고 갔어요.>

조사자 : 그냥 훅 가싱거예요?

<그냥 훅 가신 거예요?>

제보자 : 예, 얘기만 데렸꼬.

<예, 얘기만 데리고.>

조사자 : 대다니 용가마션네요.

<대단히 용감하셨네요.>

제보자 : 용가마지유, 용가마게 사랏쎄요.

<용감하지요. 용감하게 살았어요.>

조사자 : 그러다 쫓겨나면 어찌시려구?

<그러다 쫓겨나면 어찌시려구?>

제보자 : 그때 생가게는 쫓겨 나두요, 저는 시골서는 도저히 못 싸려.
(사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우리 친정 아버지시고 이게 우리 큰 동
생, 크나들, 자그나들, 이게 용남매, 우리 여동생 잘 사라유 갱장히
잘 사라요. 그런데 우리 자그나부지가 친정 외사초노빠 오손자 오

손네 가족사지니여.

<그때 생각에는 쫓겨 나도요, 저는 시골에서는 도저히 못 살아. (사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우리 친정 아버지시고 이게 우리 큰 동생, 큰 아들, 작은 아들, 이게 육남매, 우리 여동생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친정 외사촌 오빠 외손자 외손녀 가족 사진이여.>

조사자 : 친손자는 어디써요?

<친손자는 어디 있어요?>

제보자 : 친손자는 아직 읍씨 인자 여덟짜리여.

<친손자는 아직 없어 이제 여덟살이여.>

조사자 : 네

<네>

제보자 : 그때는 황갑 때니까 점지요.

<그때는 환갑 때니까 젊지요.>

조사자 : 오손자들만 인네요.

<외손자들만 있네요.>

제보자 : 우리 친손자가 저기 노은뉴치원 다니다 학교 드려 간는데 이러케 잘 생겨써, 우리 자그나부지가 이따애 그러지 말구 동대문 아줌니한테 가 상의해 보라

<우리 친손자가 저기 노은 유치원 다니다 학교 들어 갔는데 이렇게 잘 생겼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있다가애 그러지 말구 동대문 아줌니한테 가 상의해 보라.>

이게 친정 어르신네 구시베 도라 가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점자나시고, 우리 자그나부지 친정 자그나부지 자그너머니 이

게 다 막 우리 이질덜 조카들 다 그래유, 우리 조카딸, 이 동생이 크로크다일 사장이자 강경상고 총 학생회장이라나, 그러니까 강경상고에서 남녀공학기자나 학생들 졸업파면 막 이 동생보고 취직시켜 달라가구 그렇게 가나 봐, 헤헷.

<이게 친정 어르신네 구십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점잖으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 친정 작은 어머니 이게 다 막 우리 이질들 조카들 다 그래요, 우리 조카딸, 이 동생이 크로커다일 사장이자 강경상고 총학생회장이라나, 그러니까 강경상고에서 남녀공학이자나 학생들 졸업하면 막 이 동생보고 취직시켜 달라고 하고 그런게 가나 봐, 헤헷.>

조사자 : 아이구, 이부는 누구예요?

<아이구, 이분은 누구예요?>

제보자 : 우리 제부요, 동생 남편 이 부부여.

<우리 제부요, 동생 남편, 이 부부여.>

(이하 가족 소개 종략)

우리 자그나부지가 하시면서 그랴 나는 도니 엄꾸 니가 그렇타면 동대문 아줌니한테 가서 의노내보능게 어떨까 그래유, 그래 애기를 업고 동대무니라는 데를 가니까, 아줌니 아저씨가 딸처럼 생각해서 우리 재수니는 똥도 버리기 아깝다구.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하시면서 그래요 니는 돈이 없고 네가 그렇다면 동대문 아주머니한테 가서 의논해 보는게 어떨까 그래요, 그래 애기를 업고 동대문이라는 데를 가니까, 아주머니 아저씨가 딸처럼 생각해서 우리 재수니는 똥도 버리기 아깝다고.>

아저씨한테도 그런 신녀를 받꼬 아줌니한테두, 가게 시여서서 저녀게 돈 통에서 돈 나오면 아들 며느리도 못 드리오게 하구 저하

구 아저씨 아점니 돈 추리는 기여, 저는 내서 추리믄 아저씨넌 얼마 지그므로 마라면 뱅마넌씨기라던지 딱딱 꼬무밴드로 해서 금고다 딱딱 너, 저를 미드니까 이모 손녀가 아니모 우리 아주머니가 너가튼 애 며느리 삼꾸 시꿨따구

<아저씨한테도 그런 신념을 받고 아주머니한테도, 가게 세어서 저녁에 돈 통에서 돈 나오면 아들 며느리도 못 들어오게 하구 저하구 아저씨 아주머니가 돈 추리는 거여, 저는 꺼내서 추리면 아저씨는 얼마 지금으로 말하면 백만원씩이라든지 딱딱 꼬무밴드로 해서 금고에다 딱딱 넣어, 저를 믿으니까 이모 손녀가 아니면 우리 아주머니가 너같은 애 며느리 삼고 싶었다고>

그 당시 오빠는 서울대하글 다니는데 지가 쳐다나 보겠썬요? 우리 아주머니가 지가 인상 조코 좀 차캉게 아주머니는 그런 생가게 너가 이모 손녀만 아니모 며느리로 얼마나 재밌게 사를까?

<그 당시 오빠는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제가 쳐다나 보겠어요? 우리 아주머니가 제가 인상 좋고 좀 착하니까 아주머니는 그런 생가에 너가 이모 손녀만 아니면 며느리로 얼마나 재미있게 살까?>

아줌니는 별 소릴 다해유, 선생며느리 어드셔서 참 잘 사셔,
<아주머니는 별 소릴 다하세요, 선생며느리 얻으셔서 참 잘 사셔,>

그러니 아주머니가 너는 와라 너 가트내 시골 살기 아깝다, 니가 돈 꿍달라면 얼마고 꿍준다, 그래서 가마니 생각 그럼 그때는 참 마넌도 굉장히 컷썬썬요.

<그러니 아주머니가 너는 와라 너같은 애 시골살기 아깝다, 네가 돈 꿍달라면 얼마든지 꿍준대요, 그래서 가마니 생각 그럼 그때는 참 만원도 굉장히 컷었어요.>

서우레서 와 가지구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우리 둘째 시수기, 참 우리 지수씨가 똑똑캉게 그런 생가간다고 막 쌀 열까마니를

비슬 어더다 주는데, 돈 삼마년이야 삼마년, 엔나리.

<서울에서 와 가지구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우리 둘째 시숙이, 참 우리 제수씨가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한다고 막 쌀 열 가마니를 빗을 얻어다 주는데, 돈 삼만원이야 삼만원, 옛날에,>

그래 쌀 열까마 가블 가꼬 우리 아주머니가 지그므로 마라면 천 마너늘 꺾준거여, 너는 할 쭈 있따는 내 마음 하나루, 그리 신촌 흥대입구다 조그마난 방을 하나 어더 가지구 아저씨하고 나하고 미싱 하나 시지볼 때 해각꾸 시지볼때 미싱하나 갖꾸 이사를 간네.

<그래 쌀 열 가마 값을 갖고 우리 아주머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천 만원을 꺾준거여, 너는 할 수 있다는 내 마음 하나로, 그래 신촌 흥대입구에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아저씨하고 나하고 미싱 하나 시집 올 때 해 가지고 시집 올 때 미싱 하나 갖고 이사를 갔네.>

조사자 : 미싱이 뭐죠?

<미싱이 뭐죠?>

제보자 : 자방틀, 에, 드레스미싱, 그저니는 참 미싱만 해가꾸 가면 잘 해가꾸 간다 그랬쎬요. 그러니 내가 살려고 그랬나 가니까 흥대 입구에 저 철길 당인니 발썸소라는디 가는 철길 미테에 판잣집뜨리여 다 스리트 집뜰,

<재봉틀, 에, 드레스미싱, 그전에는 참 미싱만 해 갖고 가면 잘 해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살려고 그랬나 가니까 흥대입구에 저 철길 당인리 발썸소라는데 가는 철길 밑에 판잣집들이여 다 스레트집뜰,>

그런디 막 그래두 다행히 충나메서는 그르케 어려운 사라미드 래두 아노는디 절라도에서 아자씨드리 다 애드라고 짐 싸가꼬 와 가지구 건축 노동이를 할 때 흥대입꾸로 그 아우산 그루 그냥 움마글 파고서 사르시능거여 다,

<그런데 막 그래도 다행히 충남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안 오는데 전라도에서 아저씨들이 다 애들하고 짐 싸가지고 와 가지고 건축 노동일을 할 때 흥대입구로 그 와우산 그곳으로 그냥 움막을 파고서 사시는 거예요 다,>

오디 갈때가 읍승께 피난 강저처럼 싸가꼬 와서 이르케 땅을 파고서 위이다 어쁘게 저쁘게 하고서 애더라고 그냥 살구 그랴, 누가 이리래두 가자 그러믄 건추기라는데 이제 잡뿌지, 저 벽돌도 얼마 와라 그러면 벽돌도 가고 또 세멘도 버무리라면 버무리게 오시 얼마나 잘 망가져,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피난 간 것처럼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땅을 파고서 위이다 어떻게 저떻게 하고서 애들하고 그냥 살고 그래, 누가 일이라도 가자 그러면 건축 일하는데 이제 잡부지, 저 벽돌도 얼마 와라 그러면 벽돌도 가고 또 시멘트도 버무리라고 하면 버무리니까 옷이 얼마나 잘 망가져,>

옌나레는 나이롱이 아니고 면 마 오시니까 잘 떠러졌써, 다행이 나는 미싱을 하나 가꼬 가끼 때미 우리집, 애들 바지를 좀 꼬매 달래유, 막 형거를 마니 대서 디 마 누비고 면도칼로 여기 싹 찌저서 무릎 판파나게 무조건 니벼만 주면 조아요 안떠러지게,

<옛날에는 나이롱이 아니고 면 마 옷이니까 잘 떠러졌어, 다행이 나는 미싱을 하나 가지고 갖기 때문에, 우리집 애들 바지를 좀 꿰매 달래요, 막 형겅을 많이 대서 뒤 마 누비고 면도칼로 여기 싹 찢어서 무릎 판판하게 무조건 누벼만 주면 좋아요 안 떨어지게,>

이르케 대서 니벼 주면, 그르케 하믄 지금 내가 처년만 오배건만 달라고, 실까비지 그려 쪼끔 수공이지, 하면 경희엄마 너모 고마오 하고 이처년 정도 주써, 우리 또 가꼬 갈라믄 또 꼬매쥬 그레 인자 또 꼬매쥬.

<이렇게 대서 누벼주면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천원만 오백원만 달라고, 실값이지 그러 조금 수공이지, 하면 경희엄마 너무 고미워 하고 이천원 정도 주었어, 우리 또 갖고 갈라하면 또 꺾매쥬 그래 이제 또 꺾매쥬.>

나야 그르케 버는디 우리집 아자씨를 추지글 시켜야 할꺼 아니여, 가가지고서 이래이래 거기 지베 아자씨 가는 지베 우리집 애 드라빠 가면 안델까? 공계 아이고 그런니를 할 수가 이쓸까 절라도 마리니까 그래유. 아유 하게찌 똥니를 모다게써 살라픈 하야 지여.

<나야 그렇게 버는데 우리 집 아저씨를 취직을 시켜야 할 것 아니요, 가가지고서 이래 이래 거기 집에 아저씨 가는 집에 우리 집 애들 아빠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전라도 말이니까 그래요. 아유 하겠지 무슨 일을 못 하겠어 살려면 해야지요.>

그럼 내일 일찍 가시자고 하자고. 건충니른 아침 한 여섯씨경에 나가유. 새벽게. 가서 사미를 하드니 우리집 실랑 하년 마리 바븐 몬머저도 나는 이 짓 모다거따는기여, 소니 다 망가지고 막 그 보로꼬 들고 막 거친니를 하니까,

<그럼 내일 일찍 가시자고 하자고. 건축 일은 아침 한 여섯시 경에 나가요. 새벽에. 가서 삼일을 하더니 우리집 신랑 하는 말이 밥은 못 먹어도 나는 이 짓 못 하겠다는 거요, 손이 다 망가지고 막 그 불록⁵⁾ 들고 막 거친 일을 하니까>

나는 용남매서 만따리고 우리집 아자씨는 용남매서 망내아덜러 엄마 겨티서 호강하게만 커따, 서우리라는데 어느날 가서 노가대여 한 마디루 공계 막 쪼끔 느리면 빨리 오라고 막 아냈겼쥬요?

<나는 육남매서 만딸이고 우리집 아저씨는 육남매서 막내 아들로 엄마 곁에서 호강하게만 컸다, 서울이라는데 어느날 가서 노가대여 한 마디루

5)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직육면체의 건축 자재.

그러니까 막 조금 느리면 빨리 오라고 막 안 했겠어요?>

조사자 : 그때 이사 가실 때가 연세가?

<그때 이사 가실 때가 연세가?>

제보자 : 그때가 스물 여덟살, 스무릴고베 겨로내서 하네 시골써 살
구 그 이드매 갔써.

<그때가 스물 여덟살, 스물 일곱에 결혼해서 한 해 시골에서 살고
그 이듬해 갔어.>

조사자 : 대다니 용가마셨쎄요. 하하하.

<대단히 용감하셨어요. 하하하.>

제보자 : 그래 가지구 가마니 생가강계, 사미를 그러게 하드니 모다
게때유, 그럼 뭐하나 또 아는 사람게다 말항게 부잣집 사장네집 정
원수 다듬꾸 이르케 할쑤인냐? 연못, 그 부잣찌비니까,

<그래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삼일을 그렇게 하더니 못 하겠대
요, 그럼 뭐하나 또 아는 사람에게 말하니까 부잣집 사장네 집 정원수 다듬
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연못, 그 부잣집이니까,>

사미를 하드니 아니꼭고 그것도 모다거때. 싱모가 자기네드른
호이호시글 하면서 짜장며늘 시켜다주더래, 이제 일꾸닝개 바끼
로, 내가 왜 이런 대저블 바꼬서 사리아지, 사을가더니 안꼬 서 인
능거야.

<삼일을 하더니 아니꼭고 그것도 못 하겠대. 식모가 자기네들은 호의
호식을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다주더래, 이제 일꾼이니까 밖으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서 살아야하지, 사흘 가더니 안 하고 서 있는거야.>

나는 얼마나 죽겠써, 막 마으메 내가 이사를 가자고 가 가지고서
그르케 하니까,

<나는 얼마나 죽겠어, 막 마음에 내가 이사를 가자고 가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인저 아는 형부가 동남합성공업주식이라는 회사 부자 회사 자가용 기사여, 그 언니한테 쫓차갔써, 저 언니 이러이러 해서 시대게서 제금 내중것또 아니고, 내가 도저히 저공을 모다거써서 나 완는데 우리집 경희아빠는 암껏두 모다것대,

<또 이제 아는 형부가 동남합성공업주식이라는 회사 부자 회사 자가용 기사여, 그 언니한테 쫓아 갔어, 저 언니 이러이러해서 시대에서 제금 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어서 나왔는데 우리 집 경희아빠는 아무 것도 못 하겠대,>

나는 어려서부터 쓴맛 단미슬 알기 때무네 뭘 그 당시 나는 식모 빨래 하래도 할쭈 이썬유, 그뻐 뭘 세탁기가 이간? 다 빠르야, 어떤 일도 나는 할쭈 인는다 우리지비 아저씨는 호강이로 커서 모대,

<나는 어려서부터 쓴맛 단맛을 알기 때문에 뭘 그 당시 나는 식모 빨래 하래도 할 수 있어요, 그뻐 뭘 세탁기가 있었나? 다 빨아야,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있는데 우리집 아저씨는 호강으로 커서 못 해,>

언니 그 형부 동남합성공업주식회사라는 회사 다니니까 그럼 우리집 애드라빠 점 취직시켜줘, 한번 내가 형부한테 아라보께, 언니한테 무조건 자래써유, 막 애들도 데리꼬 오면 막 바배 매기구 그냥 언니를 쌀뜨야 우리집 애드라빠를 취지글 시킬꺼가타서,

<언니 그 형부 동남합성공업주식회사라는 회사 다니니까 그럼 우리집 애들 아빠 좀 취직시켜줘, 한번 내가 형부한테 알아볼께, 언니한테 무조건 잘 했어요, 막 애들도 데리고 오면 막 밥 해 먹이고 그냥 언니를 삶아야 우리집 애들 아빠를 취직을 시킬 것 같아서,>

그러게 자라니까, 마라니까, 채소한도 동남합성공업주식회사면 일보나구 우리나라 합작 해산디 약품 제주 해사래, 채수한두로

고등학교 중학생 중학교는 나와야 된대,

<그렇게 잘하니까, 말하니까, 최소한도 동남합성공업주식회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합작회사인데 약품 제조 회사래, 최소한도로 고등학교 중학생 중학교는 나와야 된대,>

나왔깐? 초등학교 조리바구 지베서 그냥 형들 미테 엄마 미테서 호강하구, 그진마를 해써, 나는 중학교 조립반 인정서를 어뜨케 동네루 해가지고 해서 취지글 해써요 거기를 그 당시.

<나왔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그냥 형들 밑에 엄마 밑에서 호강하구, 거짓말을 했어, 나는 중학교 졸업반 인정서를 어떻게 동네로 해 가지고 해서 취직을 했어요 거기를 그 당시.>

조사자 : 그 아주머니 께로 하싱거죠?

<그 아주머니 께로 하신 거죠?>

제보자 : 예 그러케 해서 그 당시 어디 영등포 당산동이라는데서 당산동, 어쨌면 회사를 드러간능게 오슬 또 자래서 아치메 출그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어디 영등포 당산동이라는데서 당산동, 어쨌면 회사를 들어 갔으니까 옷을 또 잘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간다매 애기를 업꼬 동대무네 가서 겨란늘 열다섯 파늘 막 사는 거여, 사서 막 가꼬 와서, 건충니라니까 남편덜 알 후라이해서 주고 시풍게 겨란드를 한판씩 잘 사, 거기서도 쪼꼼씩 장사 누늘 띄 거여 또, 겨란 이러케 팔고 나지 때는 쓰봉 막 누벼주고 하문 돈주지,

<간 다음에 애기를 업고 동대문에 가서 겨란을 열다섯 판을 막 사는 거여, 사서 막 가지고 와서, 건축 일하니까 남편들 알 후라이해서 주고 싶으니까 겨란들을 한판씩 잘 사, 거기서도 조금씩 장사 눈을 뜬거야 또, 겨란 이렇게 팔고 낮에는 바지 막 누벼주고 하면 돈 주지,>

실랑이 인저 회사 취지개쓰니까 조은 마으므루, 인저 이게 정식

지귀니 아니네, 임시지귀니라 날푸미여 빨간 글자는 생업서요, 내가 제일 시러하는 다리 시월따리어써. 시월따리, 시월 사밀 개천절, 한글날 뭐해서 빠지면 이료일 뭐 빠지면 이십날 월급도 못 가져,

<신랑이 이제 회사 취직 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게 정식 직원이 아니네, 임시직원이라 날푸미여 빨간 글자는 소용없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달이 시월 달이었어. 시월 달이, 시월 삼일 개천절, 한글날 뭐해서 빠지면 일요일 뭐 빠지면 이십날 월급도 못 가져,>

남편니 버러 옹건 하나 안 쓰고 저추글 해써. 내가 이 미싱 꼬매 주고 겨라니래두 팔구, 참 나 사라온 인생 생각카른 진짜 어렵게 사라써요.

<남편이 벌어 온건 하나 안 쓰고 저축을 했어. 내가 이 미싱 꿰매주고 계란이라도 팔고, 참 나 살아온 인생 생각하면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 그래 가지고 남편 월그블 꼬박꼬박한다디, 어느날 누가 그려, 경희엄마 경희엄마 우리 저리 지반번 아라보러갈까?

<그래 그래 가지고 남편 월급을 꼬박꼬박했는데, 어느날 누가 그래, 경희엄마 경희엄마 우리 저리 집 한번 알아 보러갈까?>

내가 도늘 줌 모여농길, 인저 버러서 가가지구 계를 왕주를 또 내가 헨네. 계를, 돈계 왕주해가지고 동대문 아줍니 비즐 가프양께, 갑꾸 버러서 또 느쿠 거서 풍녀네 그래도 어느 정도 도늘 또 모여써유.

<내가 돈을 줌 모아 놓은 걸, 이제 벌어서 가가지고 계를 왕주⁶⁾를 또 내가 헨네. 계를, 돈계 왕주해 가지고 동대문 아주머니 빚을 갚아야하니 까, 갚고 벌어서 또 넣고 거기서 풍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또 모았어요.>

6) 계주의 다른 말. 계주는 계를 조직하고 그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사람.

누가 경희 엄마 경희 엄마 그래, 저 실림동이 서울대하꼬가 실림동으로 이사가는디 아피로 거가 발팔될꺼 가튼디 쪼꼬만 지비래 두 한 번 우리 가 보까?

<누가 경희 엄마 경희 엄마 그래, 저 신림동에 서울대학교가 신림동으로 이사 가는데 앞으로 거기가 발달될 것 같은데 조그만 집이라도 한 번 우리 가 볼까?>

가자, 버스를 타고 신촌써 얼마를 가 내리니까 실림동 내리니까 산꼐짜기지, 하얀 꼬무시늘 신꼬 간는디 호기 다 빠져써요. 트럭 도자 막 그릉게 학교 서울대하글 거기 이사가려고 종로 오가 동송동에 인는 서울대하글 거기 실림동 서울대하그로 갈랑게, 막 하니까 막 그 큰 덩뿌트러기 와따가따하니까 기리 엉망이지.

<가자, 버스를 타고 신촌에서 얼마를 가서 내리니까 신림동 내리니까 산꼐짜기지,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흙에 다 빠져졌어요. 트럭 도자 막 그런 게 학교 서울대학을 거기로 이사가려고 종로 오가 동송동에 있는 서울대학을 거기 신림동 서울대학으로 가려니까, 막 하니까 막 그 큰 덩뿌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엉망이지.>

가서 딱 보니까 압싼쪼근 서울대하글 진다고 막 미러 대는디, 이쪽 야사는 뭉개구 딱 예레섯평씩 딱딱 떼가꼬서는, 꼬패찢드를 지캐끄를 해 놔써요. 무러봉게 인저 쌀까게도 인자 생기고 그래서, 으디서 완나? 그래서 고향은 부여구닌데 겨론은 논산시루 논산구니로 시지봐 가꾸 서울로 살러 와따,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튼 사라미 오안다구 이집도 배주고 저집도 배주고 지블 보여줘유.

<가서 딱 보니까 앞산 쪽은 서울대학을 진다고 막 밀어대는데 이쪽 야산은 뭉개고 딱 열 여섯평씩 딱딱 떼어 가지고는 고패집⁷⁾들을 지을 수 있게

7) 일자로 된 집체에 부엌이나 외양간 따위를 직각으로 이어 붙여 ㄱ자 모양으로 지은 집.

해 놓았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쌀가게도 이제 생기고 그래서 어디서 왔나? 그래서 고향은 부여군인데 결혼은 논산시로 논산군으로 시집 와가고 서울로 살러왔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 같은 사람이 와야 한다고 이 집도 보여주고 저 집도 보여주고 집을 보여줘요>

올타 하나 눈 찌거 놔써. 그 지비 지그므로 마라면 처니백쫂 달라나, 그게 마메드러서 메칠 뒤에 또 오거따구 딱 하구서,

<올다 하나 눈 찌어 놓았어. 그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이백쫂 될러나, 그게 맘에 들어서 며칠 뒤에 또 오겠다고 딱 하고,>

인자 오니까 시어머니가 칠쫂 칠쫂 생시니어, 며느리니께 오야지, 큰동생 시어머니 시자거머니 동서덜 친정어머이 땅건 도눔써 모다구 고무신 열커리럴 사가꼬 가써, 그래두 내 생가게는 큰마으 므루 고무신 사면 일년시너써, 그때마내두 구여서, 신발 한커리쫂 만 디려써두,

<이제 오니까 시어머니가 칠십 칠십 생신이어, 며느리니까 와야지, 큰동생 시어머니 시작은 어머니 동서들 친정어머니 다른 건 돈 없어 못하고 고무신 열 쫂레를 사가지고 갔어, 그래도 내 생각에는 큰 마음으로 고무신 사면 일 년 신었어, 그때만 해도 귀해서, 신발 한 쫂레씩만 드렸어도,>

아이구 경희 엄마는 암껏도 업씨 서울 가더니 이런 조은 신바를 사가꼬 참 욱봐따고 으른드리랑 치사를 하시대,

<아이고 경희 엄마는 아무 것도 없이 서울 가더니 이런 좋은 신발을 사가지고 참 욱 봤다고 어른들이랑 치사를 하시대,>

그래 이쁘니까 우리 시누넌퍼니 손수 아버지 도라 가셔따고 사모제 지내따구 상보글 입구 장모님 생시닝게 인사를 오셔써유, 인사를 하면 아이고 크니를 당하셔서 얼마나 서우나시냐고,

<그래 있으니까 우리 시누 남편이 손수 아버지 도라 가셨다고 삼우제 지냈다고 상복을 입고 장모님 생신이니까 인사를 오셨어요, 인사를 하면

아이고 큰일을 당하셔서 얼마나 서운하시냐고,>

처나무대근 서우레 가서서 뭘 어찌케 사르시냐 알다시피 돈도
읍씨 갔다며 어찌케 사르시냐구 딱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처남댁은 서울에 가서서 뭘 어떻게 살으시냐 알다시피 돈도없이 갔다
면서 어떻게 살으시냐구 딱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어렵게 가서 어렵게 살고 있쥬. 긍게, 저한테는 그 말만 묻
떠니 처나만티 무러요. 너는 어디 댕기며 니 월그블 얼마나 받꾸
향께, 아직 정식도 안 되구 어려운 회사라 임시지귀느루 다니는
디, 월그비라두 인냐, 이르게 받는당께 얼른 노코 대저니루 오래
요.

<그냥 어렵게 가서 어렵게 살고 있쥬.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말만 묻더
니 처남한테 물어요. 너는 어디 댕기며 네 월급을 얼마나 받고 하니까,
아직 정식도 안 되구 어려운 회사라 임시직원으로 다니는데, 월급이라도
있냐, 이렇게 받는다니까 얼른 놓고 대전으로 오래요.>

그래 그 양바는 뭐하냐면 건축 오야가다여, 매형이 그거 받아가
꼬 어치게 사냐구, 이 양바니 기가 솔고다니 우리 집 실랑이.

<그래 그 양반은 뭐 하나면 건축 오야가다여, 매형이 그거 받아가지
어떻게 사냐고, 이 양반이 귀가 솔깃하네, 우리 집 신랑이.>

나는 참 재미여 가서 그 서우레 지벌 내 지비라구 사가지고 또
자라문 발전되믄 큰 지비루두 갈수 이꾸, 조은 소기로 꾸물 가꼬
인저 완는데, 매형이 그는 소리하능게, 아유 그럼 마양 한번 대전
가보거따.

<나는 참 재미여 가서 그 서울에 집을 내 집이라고 사가지고 또 잘하면
발전 되면 큰 집으로도 갈수 있고, 좋은 속으로 꿈을 갖고 이제 왔는데,
매형이 그런 소리하는 게, 아유 그럼 매형 한번 대전 가 보겠다.>

오늘 시어머니 생시니랑 내일 서울 가는기리, 시누 뉘퍼니 대전

가서 가꼬 처남대근 지비 기셔유, 하고 우리 집 신랑을 데루꼬 현장을 네 간대라고 대저네 무슨 식당 여관 진다지? 또 무슨 저 하권 하나 마트셔따지, 동명중학꼬를 저 지금 부사동께다 동명중학꼬 현장이 며깨라구, 처나미 와따가따 내 심만 봐줘도 조타구,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랑 내일 서울 가는 길에, 시누 남편이 대전 가서 가지고 처남댁은 집에 계세요, 하고 우리 집 신랑을 데리고 현장을 네 군데라고 대전에 무슨 식당 여관 짓는다지? 또 무슨 저 학원 하나 맡으셨다지, 동명중학교를 저 지금 부사동께에다 동명중학교 현장이 몇 개라고, 처남이 왔다갔다 내 힘만 봐줘도 좋다고,>

공계 이는 매양 현장도 가만히 생각캥게, 거기서 공대 나오고 공과 나온 사람드리 순 영어로 약푸물 다하는데 얼마나 답답파게쎄요. 영어 한자를 몰르고, 공계 나때매는 땡기고 그 우리 형부가 너 준 사람 채며느로는 빠티므 다녀도 자기 마으른 힘드러쎄유 몰르능건,

<그러니까 이 이는 매형 현장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서 공대 나오고 공과 나온 사람들이 순 영어로 약품을 다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어 한자를 몰르고, 그러니까 나때문에 다니고 그 우리 형부가 넣어 준 사람 체면으로는 버티며 다녀도 자기 마음은 힘들었지요 모르는건,>

조사자 : 무서웠나보네요.

<무서웠나보네요.>

제보자 : 허허허허, 인저 심들게 다니다가 매양이 그러니까, 얼른 대저니루, 아유 나 그럼 대저느로 오게따, 그러믄 한번 당시니 조타면 가보자고,

<허허허허 이제 힘들게 다니다가 매형이 그러니까 얼른 대전으로, 아유 나 그럼 대전으로 오겠다, 그러면 한 번 당신이 좋다면 가보자고,

대전 오니까 내가 대전 오면서요 지가 머리는 이쎄쥬. 그럼 여보

서우레서 번 도는 절대 안 가꼬 갑니다. 서우레 으냉에다 잘 너 노
코 대전 가서 살면 놀러 살고 못살면 서울로 오자고 대전씨도 서울
버러 먹고 살라고 오는데 왜 서울 살다 대저니로 가냐고,

<대전 오니까 내가 대전 오면서요 제가 머리는 있었죠, 그럼 여보 서울
에서 번 돈은 절대 안 가지고 갑니다. 서울에 은행에다 잘 넣어 놓고 대전
가서 살면 놀러 살고 못 살면 서울로 오자고 대전에서도 서울 벌어 먹고
살라고 오는데 왜 서울 살다 대전으로 가냐고,>

대저니로 이사를 참 오는데 이우지서니가 한삼년 사라씨도 정
이 드러서 무슨 동지간가치 막 울구 조은 애기 엄마가 떠난다능거
여 이녀니 이쓰면 이다메 또 오고,

<대전으로 이사를 참 오는데 이웃 사람이 한 삼년 살았어도 정이 들어서
무슨 동기간 같이 막 울고 좋은 애기엄마가 떠난다는 거여 인연이 있으면
이담에 또 오고,>

조사자 : 그때는 애는 여저니 하나?

<그때는 애는 여전히 하나?>

제보자 : 하나, 하나여꼬, 삼 년 딱 살아쫓게, 대저네 딱 보메 이사를
완는데, 세 사례 그 대저놔서 이씨씨 크나드를 나씨, 근저 매양이
랑 아침 우리 지비 실랑은 여서씨에 나가서, 녀보다 일찍 가야자
네, 현장 감도기.

<하나, 하나였고, 삼년 딱 살았으니까, 대전에 딱 봄에 이사를 왔는
데, 세살에 그 대전 와서 있었어 큰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매형이랑 아침
우리 집의 신랑은 여섯시에 나가서, 남보다 일찍 가야 하잖아, 현장 감독
이.>

나제는 일찍가서 매형이 시키는 대로 하야고, 바메는 야방까지
하네. 현장 그 나므며 가따놓거,

<낮에는 일찍 가서 매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밤에는 야방까지 하

네. 현장 그 나무며 갖다 놓은 것.>

그 형님네 지비서 이쓰니까, 우리 형님네 깨까지, 시누님네 입꾸 저레나 가서, 시누 남편 그저 사어베 그 현장에 잘 데려다 날마다 저레 가문 청소하고 생질려 세서, 다 형제 간 빨래, 일따는 싱모가 트쥬,

<그 형님네 집에서 있으니까, 우리 형님은 깨끗이, 시누님은 입고 절에 나가서, 시누 남편 그저 사업에 그 현장에 잘 데려다 날마다 절에 가면 청소하고 생질려 셋이여, 다 형제간 빨래, 일단은 식모 같쥬>

내 살림은 다 창꼬다 다 서울써 나름대루 살던 살림은 창꼬다 너 노코, 어휴 시러유 시능게 넘드리 나가문, 아유 저 아무개 외숭 모는 세서 얼마나 못 사르서 시누네지브로 싱모 완나, 하능거 가터 내자시는 그게 아닌데,

<내 살림은 다 창고에다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살던 살림은 창고다 넣어 놓고, 어휴 싫어요 사는 게 남들이 나가면, 아유 저 아무개 외속모는 세상에 얼마나 못 살아서 시누네 집으로 식모 왔나, 하는 거 같아내 자신은 그게 아닌데,>

그래 그 시누네서 한 삼 개월 사라쥬, 형님 형님미 잘 모대서가 아니라 나 넘들 보는 눈초리나 제 자시니 형님네서 살기가 그렇게 방을 하나 은고시벼요 따로 살믄 어떠까요?

<그래 그 시누네서 한 삼 개월 살았어, 형님 형님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나 넘들 보는 눈초리나 제 자신이 형님네서 살기가 그러니까 방을 하나 얻고 싶어요, 따로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자네가 그런다믄 방 으드라고 보문산 케블카 인는 꼭대기루 땡기므 스리또집 누뵙 깔고 우슨 지블, 나는 형님미 어더주야 능 도니 하나도 읍씨 서울서 온주랄고 삼마너네 삼치년 사글세를 으들라고 드러가쥬, 어때? 나와, 또 이집 가따 나와 저집 가서 또 봐.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다면 방 얻으라고,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꼭대기로 다니면서 슬레이트⁸⁾집 루핑⁹⁾ 깔고 우스운 집을, 나는 형님이 얻어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서울서 온 줄 알고 삼 만원에 삼 천원 사글세를 얻으려고 들어갔어, 어때? 나와, 또 이 집 갔어 나와 저 집 가서 또 봐.>

형님 나 하나 마떼 안드러, 그래 형니미 화를 내면서 자네 어츠갈라고 그려? 뭘 도니 이따구 비싼 방을 은긋냐고, 우리 집 항구아버지 건축사장이라고 해도 건축니라고 돈 안 나오믄 빗지기 조타구 건축갑짜 생화리 얼마나 어려운지 아라?

<형님 나 하나 맘에 안 들어, 그래 형님이 화를 내면서 자네 어떻게 하려고 그려?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방을 얻겠냐고, 우리 집 항구아버지 건축사장이라고 해도 건축일하고 돈 안 나오면 빗지기 좋다고 건축업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아니 형님 내가 형님 보구 방 어더 달라곤 아냈자녀, 댄 데 가보셔 저 돈 이만이만 서우레이쑹게, 카아암짜 놀래유 어뜨게서 그려케 매났냐,

<아니 형님 내가 형님 보고 방 얻어 달라고는 안했잖아요, 댄 데 가보셔 저 돈 이만이만 서울에 있으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아 놓았냐,>

지가 옛때부테 그래두 알뜨라게 모이고 모이능건 소지리쑤유, 항게 짐만 조은 집 보여줘요 항게, 보문산 올라가는 송미여관 아피라미 지아지베다 아랫 찬데 조아 아랫찬데, 그거 은게따고 항게 형니미 깜짜나,

8) 슬레이트(slate).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고압으로 찍어낸 사각 골 판재로 지붕에 많이 쓰였으나 석면의 해로움이 알려져 요즘은 쓰지 않음.

9) 루핑. 섬유제품에 아스팔트를 처리한 얇고 부드러운 방수포로 원래는 방수용으로 지붕의 마감재 속에 깔았으나, 허술하게 짓는 집의 지붕 마감재로도 쓰임.

<지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알뜰하게 모으고 모으는 건 소질 있어요, 하니까 집만 좋은 집 보여줘요 하니까, 보문산 올라가는 송미여관 앞이라며 지하집에다 아래채인데 좋아 아랫채인데, 그거 얻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깜짝 놀라,>

편지 그때 전화가 이씨? 편지로다가 인제 그 자그나버지 자그나버지 이러이러한 돈 해서 대전 우체국으로 부쳐주셔유 저 방 어더, 그러타구 딱 부쳐주셔서 참 잘 으던네

<편지 그때 전화가 있어? 편지로다가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러이러한 돈 해서 대전우체국으로 부쳐주셔요 저 방 얻어, 그렇다고 딱 부쳐주셔서 참 잘 얻었네.>

조사자 : 대저느로 이사를 오싱거죠?

<대전으로 이사를 오신 거죠?>

제보자 : 예 와서 이씨 가지구 그해 가을에 아드를 낳으유, 대저네서 인저 인는데 가마이 일녀늘 이씨 보니까 건충닐이람 이래유, 하루 일당 버릉게 날 줄땀 가서 하서 월급 일케 하드믄, 비 오는 날 안 가믄, 머겨야지 겨우리는 추우니까 모대

<예 와서 있어 가지고 그해 가을에 아들을 낳았어요, 대전에서 이제 있는데 가만히 일 년을 있어 보니까 건축일이 이래요, 하루 일당 버니까 날 좋을 때는 가서 하고서 월급 이렇게 하지만, 비 오는 날 안 가면, 먹어야지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 해.>

삼녀늘 살다 보니까 애는 이제 여섯살 머꼬 조금 아드른 세 살 머건는디 이르게 살다는 암껏도 아녀 모이능게, 서울씨는 나름대 루 내가 그래두 바느지리라도 해써. 벌고 모연는디 대전에선 여 르메 벌면 겨우레 그거 머그면 마이너스에여, 고대로여 이래서 안 대겨써

<삼년을 살다 보니까 애는 이제 여섯 살 먹고 조그만 아들은 세 살 먹었

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 것도 아녀 모이는 게, 서울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바느질이라도 했어. 벌고 모았는데 대전에서는 여름에 벌면 겨울에 그거 먹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대로여 이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가마니 생가가다 이건 아니여, 고로자 시어머니가 치럴 다레 도라 가서썬요. 치럴 칠성날 도라 가서썬 시어머니 칠씨비 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이건 아니여, 그러자 시어머니가 칠월달에 돌아 가셨어요. 칠월 칠석 날 돌아가셨어 시어머니 칠십 이세에>

딱 와 가지고서는 시어머니 가신데 우리두 그냥 송충이는 솔니 플 먹꼬 사르라랬다고 나나 당시니나 시고레서 나서 시고레서 커 썬게 우리 시골서 살자며

<딱 와 가지고서는 시어머니 가신데 우리도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으라 했다고 나나 당신이나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컸으니까 우리 시골서 살자며 >

시고레 뭐해서, 서우레 저 대저네 전세 그거 빼다 가마이짜는 가마이트라고 내가 또 마 서우레서 돈계를 해서 비슬 갑꼬 도늘 버러찌만 시고레 와서는 쌀계 시골 쌀계를 한다고,

<시골에 뭐해서, 서울에 저 대전에 전세 그거 빼다 가마니 짜는 가마니 틀 하고 내가 또 마 서울에서 돈계를 해서 빚을 갚고 돈을 벌었지만 시골에 와서는 쌀계 시골 쌀계를 한다고,>

와 가지고 이 지비 그냥 초가지비 우서썬유, 이 지베 친정아버지 지베 초가지비 조치는 안쿠 인제 담지비다 지비 망가지게 생겨썬 게 쌀 여덜까마 감만 내 노쿠 자기는 조 미테 이층짱 부분에 이층 짬블 저 가꼬 가면 일 녀늘 베풀썬요.

<와 가지고 이 집이 그냥 초가지집이 우스웠어요, 이 집에 친정아버지 집에 초가지집이 좋지는 않고 이제 담집¹⁰⁾에다 집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쌀 여덟 가마 값만 내 놓고 자기는 저 밑에 이층집 부분에 이층집을 저
가지고 가면 일 년을 비어 놓았어요.>

시어머니 도라가서 친정을 사룽게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아부
지가 대저네 어떠냐? 내 인제 기부니 활달하덜 안코 초라항게 아
부지가 그래 너 서우레서 살 때만 모다다구, 아버지 마지 모태 살
지 대저네 정이 안 가네유. 야 이 이한성이네 집 쌀 여덟가마에 판
다더라 그래유,

<시어머니 돌아가서 친정을 사니까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가
대전에 어떠냐? 내 이제 기분이 활달하지를 앓고 초라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 서울에서 살 때만 못 하다고 아버지 마지 못 해 살지 대전에 정이
안 가네요. 야 이 이한성이네 집 쌀 여덟가마에 판다더라 그래유>

애기를 업구서 이러케 둘러 봉게 보미 집 짓구 간 지비니 치렬인
게 호방녕쿠레 풀밭 쏘기자나, 가만 여기 와서 잘 어쁘게 노니래두
어쁘게 또 선재래도 또 소장농이래도 짓고 살면, 동기가났꼬 낫찌
아닐라나?

<애기를 업고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봄에 집 짓고 간 집이니 칠월이니까
호박 넝쿨에 풀밭 속이잖아 가만 여기 와서 잘 어떻게 논이라도 어떻게
또 선자¹⁾라도 또 소장농이라도 짓고 살면 동기간 있고 낫지 않으려나?>

조사자 : 선재 선재를 저요?

<선자 선자를 저요>

제보자 : 예 하네 사능게 이씨유, 한 해, 인저 아주 살라믄 비싸두 하네
는 쌀 두가마만 주면 일 년 저, 멩능건 살 쭈 이씨유.

10) 옆이나 뒤의 벽을 흙과 잡석을 섞어서 지은 집. 대개 토석담을 의지해 짓는
경우가 많음.

11)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소작료.

<예 한해 사는 게 있어요, 한해 이제 아주 사려면 비싸도 한 해는 쌀 두가미만 주면 일 년 지어, 먹는 건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가글 하고서 그름 아버지 한번 그 양반한테 가서 진짜루 파나 한번 흥정해보셔유, 아라따, 하고 가시대. 그러더니 인자 하룻밤 큰 집 가서 자는데, 꾸물 꾸니까 꾸미 지가 이 지비 어떤가 나지 저녁때를 지가 와서 봉게 저 싸리 울타리도 암꺼뚜 업섯서.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아버지 한번 그 양반한테 가서 진짜로 파나 한번 흥정해보셔요, 알았다, 하고 가시대. 그러더니 이제 하룻밤 큰 집 가서 자는데, 꿈을 꾸니까 꿈에 제가 이 집이 어떤가 낮에 저녁때를 제가 와서 보니까 저 싸리 울타리도 아무 것도 없었어>

일케 디다보니까 호박 녁쿠리 막 뜰팡이로 해서 엉망인 지빈디 꾸미 이지블 와써유. 꾸메 이지블 와서 방무늘 방이 어떻게 열어봉게 이지비 살던 할머니가 노란 삼베치마를 입꾸서는 내가 깜착 놀랑게 놀래지 말라고 이집 오래유, 보기는 지빙게 노란삼베치마를 이븐 할머니가 이지블 오랴, 보겼는 지비라구.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호박넝쿨이 막 뜰로 해서 엉망인 집인데 꿈에 이 집을 왔어요. 꿈에 이 집을 와서 방문을 방이 어떤가 열어 보니까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노란 삼베치마를 입고서는 내가 깜짝 놀라니까 놀래지 말라고 이 집 오래요, 복 있는 집이니까 노란 삼베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이 집을 오래, 복 있는 집이라고>

그 꾸물, 지블 아버지보고 무러봐 주시라고 하고서 그날 저녁게 큰 지베서 자는데 아 과연 그지븐 나하고 우니 만는 지비 아닝가 노란삼베 이븐할머니가 나를 불러드려유 오라고,

<그 꿈을, 집을 아버지보고 물어봐 주시라고 하고서 그날 저녁에 큰 집에서 자는데 아 과연 그 집은 나하고 운이 맞는 집이 아닌가 노란 삼베 입은 할머니가 나를 불러드려요 오라고,>

아버지 지가 사거써유, 그래떠니 그래 니가 사면 좋치, 대전가서

그 지블 내 노코서 계약끄믄 인자 얼마 가따 계약글 치르야자나?
쪼끔 주고써 하고서 그 지블 파라가꼬 이리 이사를 오모 다 끌고
치고 이쁜 대배지사다 도배하고 장판 잘 깔구 마루 자랑게 대굴가
트지, 아무리 조은 집두, 풀도 뽀바찌만 자알 다 하고 친정아부지
가 따리 온당게 또 얼마나 자래주셔, 보기 부뚜마게 소뚜채 걸게
하고 연탄고래도 하구, 아유 조아주꺼써 인저 대전써 가으레 이사
를 와써유.

<아버지 제가 사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니가 사면 좋지, 대전 가서 그
집을 내 놓고서 계약금을 이제 얼마 가져다 계약을 치러야 하잖아? 조금
주겠오 하고서 그 집을 팔아갖고 이리 이사를 오면서 다 쓸고 치우고 이쁜
도배지 사다 도배하고 장판 잘 깔구 마루 잘 하니까 대궐 같지, 아무리
좋은 집도, 풀도 뽑았지만 잘 다 하고 친정 아버지가 딸이 온다니까 또
얼마나 잘해 주셔 부엌에 부뚜막에 솔 두채 걸게 하고 연탄고래도 하고,
아유 좋아 죽겠어 이제 대전에서 가을에 이사를 왔어요.>

조사자 : 대전 먼 년 사신거예요?

<대전 몇 년 사신 거예요?>

제보자 : 대전서 삼년.

<대전서 삼년.>

조사자 : 대전서 삼년?.

<대전서 삼년?>

제보자 : 서울써 삼년 살구 대전서 삼년 살구.

<서울에서 삼년 살고 대전에 삼년 살고.>

조사자 : 그러면 서른 네사레 이사를 오신 거네 서른 네사리니까,

<그러면 서른 네살에 이사를 오신거네 서른 네살이니까>

제보자 : 그렇가 봐요
<그런가 봐요>

조사자 : 대다나시네.
<대단하시네.>

제보자 : 이제 대전서 올 때 땅건 업써두 애기 때 세발 자정거가 이썬
슈. 자정거 하나 사써, 큰 따리 그걸 타구 동생 태우고 다녀야 이를
하지 내가
<이제 대전에서 올 때 다른 건 없어도 애기 때 세발 자정거가 있었어
요. 자정거 하나 샀어, 큰 딸이 그걸 타구 동생 태우고 다녀야 일을 하지
내가>

조사자 : 딸 때는 안 사고 아들 나서 상거예요?
<딸 때는 안 사고 아들 나서 산거예요?>

제보자 : 아들 나서, 아들 세 살 여섯 살 때
<아들 나서, 아들 세 살 여섯 살 때>

조사자 : 딸드리 드르면 서운하겐네.
<딸들이 들으면 서운하겠네.>

제보자 : 그러게 마리에유. 우리 따른 착캐가지구유 중학꼬 가머부터
자기 오순 양말 자기 교복 카라 세 개 맞췄는디 소고슬 다 빠라 이뻐
써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딸은 착해가지고요 중학교 가면서부터
자기 옷은 양말 자기 교복 카라 세 개 맞췄는데 속옷을 다 빨아 입었어요.>

이사를 와서 가마니 생각해보니까 가마이 틀 가마이트를 하나
맞췄써요. 가마이 찌는 기계를 하나 지블 너무 농사 마니 진 집가서

지블 또 파르라구 해서 가마이를 짚저게, 가마이를 짜 가지구서 덜
척덜척 파라 썩게 아니라 가마이를 파라 쓰구 말아가꾸 아래 광이
있쨌는디 거기 돈 시뵈짜리 처넛짜리 모이던 모였쨌유, 진짜 그렇
게 여운처니라는 조카가 저 얘기하면 하루도 못가요 하다말다.

<이사를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마니 틀 가마니 틀을 하나 맞췄어
요. 가마니 짜는 기계를 하나 짚을 남의 농사 많이 짓는 집 가서 짚을 또
팔으라구 해서 가마니를 짚 적에, 가마니를 짜 가지구서 덜척덜척 팔아
쓴 게 아니라 가마니를 팔아 쓰구 말아가지고 아래 광이 있었는데 거기
돈 십원짜리 천원짜리 모이듯 모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운천이라는 조
카가 저 얘기하면 하루도 못가요 하다말다.>

가마이 엔나레는 가마이라구 지금 쌀 마대인데 엔나렌 가마이, 지
브로 쟁게 이쨌쨌. 가마이 그걸 모여노쿠 모여노쿠 가르레 그걸
팔으면 도는 한뭇 잡아가지.

<가마니, 옛날에는 가마니라구 지금 쌀 마대인데 옛날엔 가마니, 짚으
로 짜는 게 있었어. 가마니 그걸 모아 놓고 모아 놓고 가을에 그걸 팔면
돈은 한뭇 잡아가지.>

내가 쌀계 왕주를 백까마짜리를 하겠스니 드러 달라구 별 땅은
없꾸 한데 제 자신 하나 믿고 경희엄마가 한다면 또 드러줘요, 드
러 가지고 논 네 마지기를 샀쨌요. 쌀계 왕주해 가지고 논 백 까마
네 가마를 사가지구 농사를 지야겠따, 해 가지구 또 하나를 했쨌
요. 또 하나를 삼백까마를 해가지고, 우리 집 이는 막 다 이런 수다
는 업쨌도 농사는 일뚝급 다수확 아주 농사잘 저서 또,

<내가 쌀계 왕주를 백까마 짜리를 하겠으니 들어 달라구 별 땅은 없고
한데 제 자신하나 믿고 경희엄마가 한다면 또 들어줘요, 들어가지고 논
네 마지기를 샀어요 쌀계 왕주해 가지고 논 백 가마네 가마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다 해 가지고 또 하나를 했어요. 또 하나를 삼백가마를
해가지고, 우리 집 이는 막 다 이런 수단은 없어도 농사는 일등급 다수확

아주 농사 잘 저서 또,>

조사자 : 대저네서 이사 오실 때는 건충니를 그만두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싱거예요?

<대전에서 이사 오실 때는 건축 일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제보자 : 건충닐 지러 삼녀늘 살다 보니까 목쭈는 목쭈고 미장이면 미장이고 이것또 저것또 아닌 잡뿌에유, 이러케 삼녀늘 사라봉게 절때로 시골 가서 농사로 성공을 해보겏따는 마음미로,

<건축일 지러 삼녀늘 살다 보니까 목수는 목수고 미장이면 미장이 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뿌에유, 이렇게 삼녀늘 사라 보니까 절때로 시골 가서 농사로 성공을 해보겏다는 마음으로>

조사자 : 근데 아저씨는 먼저 이사 오자 그런 얘기를 아나싱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먼저 이사 오자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제보자 : 아내유.

<안 해요.>

조사자 : 어머니 안 계셨으면 못 사실 뻔 한네요?

<어머니 안 계셨으면 못 사실 뻔했네요?>

제보자 : 아니요, 참 순지나구 착카구 아랑도랑처럼 어머니 미테서 호강스럽게 큰 사람물 저 만나서 고생했써유, 그러나 지그른 부자지.

<아니요, 참 순진하고 착하고 알랭드롱¹²⁾처럼 어머니 밑에서 호강스럽게 큰 사람을 저 만나서 고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자지.>

제보자 : 그, 그래 가지구 제가 두마지기 서마지기 네마지기 그러케 사서 삼삼마지기를 만드렸써유. 그래 어느 저 하치니라는 데 물 담

12) 알랭 드롱 (Alain Delon). 프랑스의 영화 배우.

으면 벼를 문명은 하치니 있썬요. 다행이 물 안 담으면 잘 멩는 노
니 인는데 그걸 싸게 샀썬유

<그 그레 가지고 제가 두마지기 세 마지기 네 마지기 그렇게 사서
삼십마지기를 만들었어요. 그레 어느 저 하천 이라는 데 물 담으면 벼를
못 멩는 하천이 있어요 다행히 물 안 담으면¹³⁾ 잘 멩는 논이 있는데 그걸
싸게 샀어요.>

사면서 우리집 인느니 당시니 너무나 고생하고 했썬게, 아흠마
지기면 평수를 천팔백평이여 천팔백평 그걸 제 아피루 해주겠대
유, 싹 내 아피루 해서 논 등기를 딱 냉게 세무서서 쪽지가 왔썬,
이 이 사라미 무슨 투기 아줌마는 아닝가, 이 아줌마가 노늘 이렇
게 사서 해따구 세무서서 오라는 열라글 받고 간네유.

<사면서 우리집 있는 이가 당신이 너무나 고생하고 했으니까, 아흠 마
지기면 평수를 천 팔백평이여 천 팔백평 그걸 제 앞으로 해주겠대요, 싹
내 앞으로 해서 논 등기를 딱 내니까 세무서에서 쪽지가 왔어, 이 이 사람이
무슨 투기 아줌마는 아닝가, 이 아줌마가 논을 이렇게 사서 했다고 세무서
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네요.>

그 당시 논산 오거리 지나면 세무서가 거께, 딱 이층을 올라가니
까 거칠게 아주머니가 이재순이여? 네 마자유, 아줌마 뭐 투기해
시네 복뿌이니냐, 그런 것두 아니라 어뜨케 노늘 이러케 천팔백평
을 산냐, 제가 우니 좋아유, 지가 시보리도 뜨고 가마이도 짜고 돈
께도 해서 요리케 요리케해서 도늘 모연는디 하치니라 이 노니 싸
걸래 제가 샀썬유, 그랬떠니 지가 보기 있썬 가지구 그 하치니 음
썬지구 경지정니가 다행이 돼 가지구 뻥뜨다니 옥다비 되니까,

13) 논산에서는 홍수 때 논에 물이 차서 수몰이 되는 것을 “논에 물 담는다”고 말
한다. 따라서 여기는 하천부지라 지대가 낮아 홍수 때 물이 차지 않으면 제때
로 된 수확을 하고 물이 차면 수확을 할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 논을 싹 값에
샀다는 의미임.

<그 당시 논산 오거리 지나면 세무서가 거기, 딱 이층을 올라가니까 거칠게 아주머니가 이재순이여? 네 맞아요, 아줌마 뭐 투기하시냐 복부인 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 어떻게 논을 이렇게 천 팔백평을 샀냐, 제가 운이 좋아요, 제가 시보리¹⁴)도 뜨고 가마니도 짜고 돈 계도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하천이라 이 논이 싸길래 제가 샀어유, 그랬더니 제가 복이 있어 가지구 그 하천이 없어지고 경지정리가 다행히 돼 가지고 반듯하게 옥답이 되니까,>

그럼 진짜 아주머니가 사시리냐구? 나는 거지시라군 하지 안쿠 사렸다. 그럼 아주머니 말 듣고는 인정을 모다니까 그 마으레 가서 이장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아줌니가 샀다는 인정서를 받꼬 새마을 지도자한테 받꼬 반장한테 받꼬 세장을 해 가꾸 갖고 오래요.

<그럼 진짜 아주머니가 사실이냐구? 나는 거짓이라고는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럼 아주머니 말 듣고는 인정을 못 하니까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아주머니가 샀다는 인정서를 받고 새마을 지도자한테 받고 반장한테 받고 세장을 해 가지고 갖고 오래요.>

아이구 하겠다. 바루 왔지. 와 가지구서 이장한테 가서 사실 이리이러해서 세무서가니까 아줌마가 복부인 아니냐, 투기냐, 어찌 그렇게 시골서 노를 산냐야단하드끼 편잔하는 뜨시루 하니 참 어구라다.

<아이구 하겠다. 바로 왔지. 와가지구서 이장한테 가서 사실 이리이러해서 세무서가니까 아줌마가 복부인 아니냐, 투기냐, 어찌 그렇게 시골서 논을 샀냐 야단하듯이 편잔하는 뜻으로 하니 참 억울하다>

궁게 사실대루 인정해서 인정서를 해 가꾸 오랴, 하이고 아주머

14) 시보리. 훗치기의 일본 말. 1960~80년대 논산의 농촌지역 거의 모든 집에서 했던 부업으로 원단에 짐으로 문양이 찍혀 있는 대로 시보리 틀의 낚시 바늘 같은 바늘에 천을 꿰고 실로 훗쳐 묶는 작업을 말함 집안의 거의 모든 소소한 지출을 담당했던 효자 부업이었음.

니 아주머니 사라온 인생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가 한다구 걱정 말라구, 그럼 새마을 지도자 반장까지 해 오라는데 항게, 그이가, 이장이 그래유, 걱정마쇼 아주머니 여기에 우리 지베 반장 도장두 있꾸 새마을 지도자 도장두 있으니께 해 준데, 니알 몇씨에 오시라구, 알았따구, 지비와써. 그 소리만 이장이 해도 얼마나 조아, 그 이튿날 강게 참 이장니미 편짓쫂이 한 장 아주 소설처럼 역싸 사라 온 걸 다 썼써.

<그러니까 사실대로 인정해서 인정서를 해 가지고 오래, 하이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살아온 인생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한다고 걱정 말라고, 그럼 새마을 지도자 반장까지 해오라는데 하니까, 그이가, 이장이 그래요, 걱정마세요 아주머니 여기에 우리 집에 반장 도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도장도 있으니께 해 준데, 내일 몇 시에 오시라고, 알았다고, 집에 왔어, 그 소리만 이장이 해도 얼마나 좋아, 그 이튿날 가니까 참 이장님이 편지 종이 한 장 아주 소설처럼 역사 살아 온 걸 다 썼어.>

조사자 : 고마우신 부니네요.

<고마우신 분이네요.>

제보자 : 처녀 때 내가 또 미용사도 했써 머리도 잘 지져, 마을마다 땡기구 이백명 삼백명 지졌써.

<처녀 때 내가 또 미용사도 했어 머리도 잘 지져, 마을마다 다니고 이백명 삼백명 지졌어.>

조사자 : 그건 언제 배우셨쫂요? 미용 기수른?

<그건 언제 배우셨어요? 미용 기술은?>

제보자 : 미용은 하하하하 열녀섯살 때 배웠써. 여라홉살까지 조금 하고, 궁계 서울가서도 쫂 써먹거나, 자격증은 업쫂지 배워 가지구.

<미용은 하하하하 열 여섯살 때 배웠어, 열 아홉살까지 조금 하고, 그러니까 서울 가서도 쫂 써 먹거나, 자격증은 없었지 배워 가지구.>

조사자 : 그럼 야매루 하싱거네.

<그럼 야매로 하신 거네.>

제보자 : 야매루 야매루 하다 또 이리 미용하권 나온 아주 자격증 있꼬 한 사라문 그이가 부여군 석성면 십짜거리라는 데서 미용실도 차려서 일너늘 해 봤쎄요. 그런데 간파는 자기 꺄로 했지만 개는 할쭈를 몰라. 내가 버러 내가 미장원 우녕을 다했네. 이것도 아니다 처녀 때 그 바라메 서울로 갔꾸면.

<야매로 야매로 하다 또 이리 미용학원 나온 아주 자격증 있고 한 사람은 그이가 부여군 석성면 십자거리라는 데서 미용실도 차려서 일년을 해 봤어요. 그런데 간판은 자기 것으로 했지만 개는 할 쭈를 몰라. 내가 벌어 내가 미장원 운영을 다했네, 이것도 아니다 처녀 때 그 바람에 서울로 갔꾸면.>

문꾸를 잘 써주고, 참 새마을 지도자 반장까지 해서 주대, 그걸 가꾸가서 그 어제 혼난 그 세무서 지권한티 딱 봉투째 내놓게, 딱 일거 보더니 딱 이러나 차암 아주머니 존경스럽다 인사를 해요. 어제는 혼난는디 허허.

<문꾸를 잘 써 주고, 참 새마을 지도자 반장까지 해서 주대,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어제 혼난 그 세무서 직원한테 딱 봉투째 내놓으니까, 딱 읽어 보더니 딱 일어나 참 아주머니 존경스럽다고 인사를 해요. 어제는 혼났는데 허허.>

아니 어제는 혼내끼더니 왜 오느른 그래유? 참 아주머니가 참 진시라게 살고 사시링걸 어제 생가그로써는 이 절믄 아줌마가 그러키 땅을 마니 샅땅게 지가 쭈 이상하게 관점 이상하게 그렇겅 사과 드린다구, 뻐따구 예 그렇케 생각카셨쓰면 뻐따구,

<아니 어제는 혼내더니 왜 오늘은 그래요? 참 아주머니가 참 진실하게 살고 사실인 걸 어제 생각으로서는 이 젊은 아줌마가 그렇게 땅을 많이

쌌더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관점 이상하게 그런 걸 사과 드린다고, 됐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됐다고,>

그래 그 뒤로 애들도 돼서 잘 건강하게 키우고, 가마니 생각강게
나는 비로서 시골 살지만 우리 크나들 하나래두 서울대가서 가르
키고 싶어서 크나드를 육강년때 서울로 전하글 시켰어. 저나글 시
켰응게 외갓찌베서 다녀 가꾸 서울 세종대하기라는 디를 시험 받
는디 떨어전네, 그래 가꾸 한 해 재수해서 청주대학 청주대학 공학
짜 나와 가지구서는 그래두 뿌드다고,

<그래 그 뒤로 애들도 돼서 잘 건강하게 키우고 가마니 생각하니까나는
비록 시골 살지만 우리 큰 아들 하나라도 서울대가서 가르키고 싶어서
큰이들을 육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 전학을 시켰으니까 외갓집에
서 다녀 가지고 서울 세종대학이라는 데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네, 그래
갖고 한 해 재수해서 청주대학 청주대학 공학과 나와 가지구서 그래도
뿌드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가, 그 우리 따른 강경여고 나와 가지고
무용짜여서 내가 옷 가튼거를 이쁘게 해나놓코 하면, 선생니미
무용짜를 하면 어떠네, 공주사대 무용짜 가서 하나 떨어졌써, 좀
무용은 인무리 특출하야 된다구 목또 쪽쪽 빼고 궁게 애가 하나
떨어졌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가, 그 우리 딸은 강경여고 나와 가지고 무용
과여서 내가 옷 같은 거를 이쁘게 해놓고 하면, 선생님이 무용과를 하면
어떠냐고 해, 공주사대 무용과 가서 한 해 떨어졌어, 좀 무용은 인물미
특출해야 된다구 목도 쪽쪽 빼고 그러니까 애가 한 해 떨어졌어.>

애 나는 너를 꼭 초등학교 선생니를 맨들고 시웠는디, 니가 무용
을 한다 그래쓰니까 중학교때는 합창다네 드러가꾸 군청가튼 합창
다네 드러가꾸, 고등학교 무용짜 가 가지구 엄만 기분 좋았써, 왜

스승의날 같은 때 좋꾸 그랜는다, 그 따를 대학교에 못 가르키구.

<애 나는 너를 꼭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가 무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중학교 때는 합창단에 들어 갔고 군청같은 합창단에 들어 가고, 고등학교는 무용과 가 가지구 엄만 기분 좋았어, 왜 스승의날 같은 때 좋고 그랬는데, 그 딸을 대학교에 못 가르키구,>

엄마 나는 고등학교 나오겔로 만조카고 동생들만 가르켜유, 하고서 서울 가가지고 텔렉스라나 텔렉스 그건 육개월 해서 자격증 따 가지구 삼성물산 삼성물산 온 만든다는 딘디 커, 거기 검사워스로 갔써.

<엄마 나는 고등학교 나온 겔로 만족하고 동생들만 가르켜요, 하고서 서울 가가지고 텔렉스¹⁵⁾라나 텔렉스 그건 육 개월해서 자격증 따 가지구 삼성물산 삼성물산 옷 만드는데 커, 거기 검사원으로 갔어.>

애가 꿈꼬매 가지구 하나 시키면 참말 두를 알 정도로 야무져유. 거기 잘 있다 버러오는 대로 저축 자래 가지구 스물일구베 대저스로 조은 사람 만나서 겨론시키구 그래,

<애가 꿈꿈해 가지고 하나 시키면 참말 둘을 알 정도로 야무져요. 거기 잘 있다 벌어오는대로 저축 잘 해가지구 스물일곱에 대전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고 그래,>

딸은 손자 오손자 처대기나고 딸 나서 그 오손자가 또 미수를 자란대유, 흥대 미술과 간다고 하더니 지엄마가 아니 대저네 이르미 유성 쪽으로 새로 짓꾸, 근데 지금 모델가터 막 모델 사진 책짜에도 있꾸, 애가 키가 백팔씨보라나 치리라나, 대학교 이항녀한테 잘 생겼써.

<딸은 손자 외손자 첫 애기 낳고 딸 낳아서 그 외손자가 또 미술을 잘 한대요, 흥대 미술과 간다고 하더니 제 엄마가 아니 대전에 이름이 유성

15) 텔렉스(telex). 인쇄전신기와 교환장치가 결합된 인쇄전신 교환을 통한 통신 장치.

쪽으로 새로 짓고, 근데 지금 모델 같아 막 모델 사진 책자에도 있고, 애가 키가 백팔십오라나 칠이라나 대학교 이학년인데 잘 생겼어,>

그 오손녀는 우송고등학교 사망녀닌디 서울로 대학 간다나 네 시간씩바껴 안 잔다. 애 뭐다러 서울로 가, 건양대하기 얼마나 조아 건양대학 사회복지과 가튼디 나와도 좋코 나는 건양대하기 제일 조은디 뭐다러 서울로 가 내가 참 그랬꾸먼.

<그 외손녀는 우송고등학교 삼학년인데 서울로 대학 간다나 네 시간씩 밖에 안 잔대요, 애 뭐 하러 서울로 가, 건양대학이 얼마나 좋아 건양대학 사회복지과 같은데 나와도 좋고 나는 건양대학이 제일 좋은데 뭐 하러 서울로 가 내가 참 그랬꾸먼.>

조사자 : 그러게 마리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보자 : 예 건양대학 내 미칠 잘 갔쎬요. 건양대학 가만 봐도 좋코, 지난 저 지난 이료일도 참 우리 친정 올케가 건양대 탁 드러와 이리케, 처음에 논산 구네서 논산시가 승격되는 날 내가 또 부녀회장이였쎬. 못 배웠지만 동네서 인정을 해 가지구 아주머니라든 할 수 있다면서 부녀회장 사년 잘 봐 가지구, 마을에서는 감사패 해주고 전일쑈 논산시장니만티 참 저 표창장받은 것뚜 다 있꾸 조하베서 두 뭐 장사니 뭐 조하베서 하라는 건 일똥해간네.

<예 건양대학내 며칠 잘 갔어요. 건양대학 가기만 해 봐도 좋고, 지난 저 지난 일요일도 참 우리 친정 올케가 건양대 탁 들어와 이리케, 처음에 논산 군에서 논산시가 승격되는 날 내가 또 부녀회장이였어. 못 배웠지만 동네서 인정을 해 가지고 아주머니라면 할 수 있다면서 부녀회장 사년 잘 봐 가지구, 마을에서는 감사패 해주고 전일쑈 논산시장님한테 참 저 표창장 받은 것도 다 있고 조합에서도 뭐 장사니 뭐 조합에서 하라는 건 일똥해 갔네.>

하내는 한번 그래,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장님 우리 경제 살리기 루 돈드를 저축 아낭게 한 가정에 처넨 애껴서 한 다레 삼마넨씩 저축가능거를 해 오라, 열 명써 이십명결, 사이래두 해 오라구, 와서 떠르르항게 뭐 대번 열다선명 끄러가꾸 내가 가꾸강게 조합짱 나미 놀래,

<한해는 한번 그래,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장님 우리 경제 살리기로 돈들을 저축 안 하니까 한 가정에 천원 이껴서 한 달에 삼 만원씩 저축하는 거를 해 오래요, 열 명에서 이십 명 것을, 사이라도 해 오라고, 와서 떠르르 하니까 뭐 대번 열다섯 명 끌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니까 조합장님이 놀래,>

참 회장님 능력진네요, 업꾸 땡겨유, 말씀 드리면 벌써 열따섯 구씨를 끄러 가꾸 공게 저축 삼너네 이율도 마내, 그렇게 저는 날마다 감사하, 배우기를 했써 내가 넘만치 잘나기를 했써, 그래두 나 인정해 주고 이따 우리 집 오면 지금 바티 가션는디 신랑도 미 나미에유.

<참 회장님 능력있네요, 업구 다녀요, 말씀드리면 벌써 열다섯 구좌를 끌어 갖고 그러니까 저축 삼년에 이율도 많아,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감사 해, 배우기를 했어 내가 남 만큼 잘나기를 했어, 그래두 나 인정해주고 이따 우리 집 오면 지금 밭에 가셨는데 신랑도 미남이에요.>

조사자 : 언제쯤 오세요?

<언제 쯤 오세요?>

제보자 : 오시건네, 인저 아저씨말도 드러 보아야냐? 하하하.

<오시겠네, 이제 아저씨말도 들어 보아야 하나? 하하하.>

조사자 : 아 예 드러보쥬, 뭐. 근데 그러면 힘들지 아느냐, 좀 쉬었다 할까요?

<아예 들어보죠, 뭐. 근데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할까요?>

제보자 : 힘들기는요.

<힘들기는요.>

조사자 : 아예 그러면 농사는 이제 여기서 서른 네세 여기 오셔서 계속 농사 지싱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얘기 좀 해 주세요. 도구는 뭐 가지고 하는지, 그렇거 꼭 아주머니 얘기 아니어도 동네 사람드리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예 그러면 농사는 이제 여기서 서른 넷에 여기 오셔서 계속 농사 지으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얘기 좀 해 주세요. 도구는 뭐가지고 했는지, 그런 거 꼭 아주머니 얘기 아니어도 동네사람들이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제보자 : 딸기농사를 저씨유. 딸기농사 딸기농사를 시자개서 이 지벌 딸기농사럴 네동을 이르게 하우스 네 마글 진는데, 벌써 델라고 그러나 우리 집 애들 아빠가 막 된 저기는 아내두 농사 이른 일똥이예요.

<딸기농사를 저어유. 딸기농사 딸기농사를 시작해서 이 집을 딸기농사를 네동을 이렇게 하우스 네 막을 짓는데, 벌써 되려고 그러나 우리 집 애들 아빠가 막 된 저기는 안 해도 농사일은 일등이예요.>

아주 온 정성을 쏟아 가꼬 딸기가 주먹가태. 딸기를 따서 서울로 저녁때마다 추라를 해썬유. 하는데 넘드른 가마이꼬, 그게 선벼를 연날 우리 말루는, 일본말 다마사리라고 해썬 큰 노문 큰놈 즈궁건 즈근대로 하는데, 넘드른 큼거 썬궁거 두를 하대, 다라다, 상관씩 연나렌 해썬유.

<아주 온 정성을 쏟아가지고 딸기가 주먹같애. 딸기를 따서 서울로 저

넉때마다 출하를 했어요. 하는데 남들은 가만 있고, 그게 선별을 옛날 우리 말루는, 일본말 다마시리라고 했어 큰 놈은 큰 놈 작은 건 작은대로 하는데, 남들은 큰 거 작은 거 둘을 하대, 다라이에다, 삼관씩 옛날엔 했어요.>

저는 가마이 생가케, 서우레서 보문 장사드리 동대문서, 딸기 파는 위이는 주먹가타도 속 바가선 소기는 쪼꼬매, 그건 안되지, 나도 딸기농사를 저서 자식드를 가리키고 살라고 하고 그 장사두 엄마두 그걸 파라서 자식드를 가리킬려고 하는데, 소가프게 해서 안 되자나요. 녀드론 크고 즉꼬 하거니 나는 세 다라를 노코 콩건 아래우로 큼거 중가는 중간 인저 즈궁건 큰노미 이써도 흑간 쏘다 버서 중상하로 해서 보내써유.

<저는 가만히 생각해, 서울에서 보면 장사들이 동대문에서, 딸기 파는데 위에는 주먹갈아도 속 박아서는 속에는 조그마해, 그건 안되지, 나도 딸기농사를 저서 자식들을 가리키고 살라고 하고 그 장사도 엄마도 그걸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킬려고 하는데, 속 아프게 해서 안 되잖아요. 남들은 크고 작고 하는데 나는 세 다라이를 놓고 큰 건 아래 위로 큰 거 중간은 중간 이제 작은 건 큰 놈이 있어도 흑간 쏘아부어서 중상하로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상에서 인저 바다다 파라 보문 그 이튼나리면 소글 알자나. 다라 이르케 파라 보문. 우리집 애드라빠 저녁때 차가 이르케 실쿠 열두시쯤 상에 이르케 가면 막 여으원씨 딸기를 나 달라고 나 달랑게, 사는 장사꾸는 만치 딸기는 안 마능게 막 이게 단까만 오르자나.

<그러니까 상회에서 이제 받아다 팔아 보면 그 이튼날이면 속을 알잖아. 다라이 이렇게 팔아 보면. 우리 집 애들 아빠 저녁때 차가 이렇게 싣고 열두시쯤 상회에 이렇게 가면 막 여의원씨 딸기를 나 달라고 나 달라고 하니까, 사는 장사꾼은 많지 딸기는 안 많으니까 막 이게 단까만 오르잖아.>

넘달 오십 다리를 따기는 사람도 우리 삼십 다리에 내가 이겨써. 우리가 잘 따서 깔끄마게 물겨늘 자래가니까, 딸기를 해서 모여서 또 땅도 사고 이십삼녀늘 해보니까 참 딸기가 갠차내유. 딸기농사 저서 애들 대학도 가르키고 그러다 이 집도 오두막사렇게 씨러티 리고 이러케 잘 지었찌유. 마흔 여서데 마흔 여서데 집 세우고 논 삼십마지기 장만해써써요. 삼십마지기면 육천평이여, 예 인저 대 따 하구서 그 디루는 수박농사를 저써요 딸기는 오래 해피.

<남달 오십 다리를 따기는 사람도 우리 삼십 다리에 내가 이겼어. 우리가 잘 따서 깔끔하게 물건을 잘 해 가니까, 딸기를 해서 모아서 또 땅도 사고 이십 삼년을 해보니까 참 딸기가 갠찮아요. 딸기농사 저서 애들 대학도 가르키고 그러다 이 집도 오두막사리니까 쓰러트리고 이렇게 잘 지었지요. 마흔 여섯에 마흔 여섯에 집 세우고 논 삼십 마지기 장만했었어요. 삼십.마지기면 육천평이여. 예 이제 됐다 하고서 그 뒤로는 수박농사를 졌어요 딸기는 오래 했지.>

조사자 : 딸기 품종은 어떻게 했췌써요?

<딸기 품종은 어떤것 했었어요?>

제보자 : 예나렌 보교생 예 지금 뭐 논산딸기 뭐 육부 조치만 그때는 보교라 매일 따써요. 쉽게 물러서 달기는 그 딸기가 다랐던거 가티유. 그리고 딸기 지금 지가 애더리 와서 정년퇴직캐서 한다면 딸기농사 지고 그릉거 하고 시퍼.

<옛날엔 보교조생¹⁶⁾ 예 지금 뭐 논산딸기 뭐 육부 조치만 그때는 보교라 매일 땀어요 쉽게 물러서 달기는 그 딸기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기 지금 제가애들이 와서 정년퇴직해서 한다면 딸기농사 지고 그런거 하고 싶어.>

16) 딸기 품종의 하나.

조사자 : 그때는 노지에다 하능거죠? 땅에다.

<그때는 노지에다 하는 거죠? 땅에다.>

제보자 : 하우스.

<하우스.>

조사자 : 하우스, 요즘엔 고설재배라고.

<하우스, 요즘엔 고설재배라고.>

제보자 : 예 하우스 지그믐 참 양촌가튼데 가보니까 서서 무리다키고
자래놔때. 우리는 하우스하고 그때만 해도 그냥 수막가튼 것도 몰
라썬유. 그냥 저서 다서꼴너서 유월까지 따나봐 짬 딸기는 따지유

<예 하우스 지금은 참 양촌 같은데 가보니까 서서 물에다 키우고
잘 해 놔대. 우리는 하우스하고 그때만 해도 그냥 수막같은 것도 몰랐어유.
그냥 지어서 다섯 골 넣어서 유월까지 따나 봐, 짬 딸기¹⁷⁾는 따지유.>

조사자 : 안자서 그냥 따능거죠?

<앉아서 그냥 따는 거죠?>

제보자 : 땀쥬.

<땀지유.>

조사자 : 힘들지 아느냐?

<힘들지 않으냐?>

제보자 : 아이구 돈 버는 재미구요, 아드른 서울로 전학 보내구 여운
처리 여운처리 내 소기 그냥 내가 비로소 배우지도 모뎀더니, 시골
서 사랐더니, 너 경찰대항만 가 경찰대항만 가 가서두 강경서장이
라도 오면 그래두 남 부러울꺼 업꾸 지금 경차리면 좋코 따른 선생

17) 통상 4월경이면 상품용 딸기 수확은 끝나는데, 딸기 잼 제조용 딸기는 꺾기
가 작은 것도 가능하므로 늦게까지도 딸기를 수확한다는 의미.

이면 좋코 선생 얼마나 심들어, 선생 아니구,

<아이구 돈 버는 재미구요, 아들은 서울로 전학 보내구 여운철이 여운철이 내 속이 그냥 내가 비로소 배우지도 못 했더니, 시골서 살았더니, 너 경찰대학만 가 경찰대학만 가 가서도 강경서장이라도 오면 그래도 남 부러울거 없고 지금 경찰이면 좋고 딸은 선생이면 좋고 선생 얼마나 힘들어, 선생 아니구,>

우리 아들이 무역회사 무역회사 우정사너비라는 무역회사 가서 일본 가서 막 오다를 마타다 중국 가서 일 시켰써. 외화를 마니 버러 드려서 그 뭘 부 장과니라지 그 노동부장관 노동부 우리 아드 른 노동부장관한테 표창장 받꾸, 저기 표창장 받꾸 컷써. 그 사장은 지귀니 외화 잘 버러 드려서 하튼 그 환경부장관이라나 하튼 더 노픈 사라만티 저기는 바닷떼유. 예.

<우리 아들이 무역회사 무역회사 우정산업이라는 무역회사 가서 일본 가서 막 오다를 맡아다 중국 가서 일 시켰었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그 뭘 부 장관이라지 그 노동부장관 노동부 우리 아들은 노동부장관한테 표창장 받고, 저기 표창장 받고 컷어. 그 사장은 직원이 외화 잘 벌어들여서 하여튼 그 환경부장관이라나 하여튼 더 높은 사람한테 저기는 받았대요. 예.>

조사자 : 그게 다 딸기 키워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게 다 딸기 키워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제보자 : 딸기 키워서 다 가르키겨, 공계 열씨미 참 잠 자기두 아까웠 써유. 새벽이면 이러나서 일꾼하나 덜 사구, 손 봐유 열씨미 이란 노력 대가는 다 오더라구요.

<딸기 키워서 다 가르친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 잠 자기도 아까웠어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일꾼하나 덜 사고, 손 봐요 열심히 일한 노력 대가는 다 오더라구요.>

조사자 : 딸기만 하셨어요? 논 농사는 안 하셨어요?

<딸기만 하셨어요? 논 농사는 안 하셨어요?>

제보자 : 논 농사도 찌유, 딸기는 보마고 딸기는 뜯꼬 논 농사는 싸를
다섯 가마씩 했써. 논 농사도 짓꼬 쌀 농사도 짓꼬 날로 굶찌.

<논 농사도 졌지유, 딸기는 봄하고 딸기는 뜯고 논 농사는 싸을
다섯 가마씩 했어. 논 농사도 짓고 쌀 농사도 짓고 날로 굶찌.>

조사자 : 그럼 야채기통것또 텃빠테 심꼬 그러셨써요?

<그럼 야채같은 것도 텃밭에 심고 그러셨어요?>

제보자 : 그렇췌 야채도 해서.

<그렇지유 야채도 해서.>

조사자 : 뭐뭐 시므셨써요? 텃빠테다가.

<뭐뭐 심으셨어요? 텃밭에다가.>

제보자 : 야채 지금 요 텃빠테는 마늘 조끔 심꼬 오이도 심꼬 도마도
도 심꼬 꼬추도 심꼬, 저 들빠테다 깨소곰 보가멍는 깨이짜나유?
그 깨를 어끄저께 심꾸서 마니 느야여러시 낭게, 또 소꾸 또 소꾸,
식찌니도 그거 소꾸와서, 열씨에 오신당께 세수하구 머리라도 새
보게 이러나 샤워 다 하구. 우리 집 애들 아빠 그 하지감자 그거 밭
지금 매러 갔써유. 고구마 농사도 짓꾸 깨 농사도 짓꾸 콩 농사도
짓꾸 다 짓찌요.

<야채 지금 요 텃바테는 마늘 조금 심고 오이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고추도 심고, 저 들밭에다 깨소곰 볶아먹는 깨 있잖아요? 그 깨를 엇그제
심고서 마 많이 넣어야 여럿이 나니까, 또 슈고 또 슈고, 식전에도 그거
슈고 와서, 열씨에 오신다니까 세수하고 머리라도 새벽에 일어나 샤워
다 하구. 우리 집 애들 아빠 그 하지감자 그거 밭 지금 매러 갔어요. 고구마
농사도 짓고 깨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짓고 다 짓찌요.>

조사자 : 시고레서 하능건 다 하시네요.

<시골에서 하는 건 다 하시네요.>

제보자 : 다하쥬 뭐이구 시키면 자려. 요새 수방닐도 지가 자래유. 수박 그래 오늘두 시른 오만원짜리 수방니를 해 달라는디 나는 오늘 볼닐 있다구 안 가쥬 하하.

<다 하쥬 뭐든 시키면 잘 해. 요새 수박 일도 지가 잘 해요. 수박 그래 오늘도 실은 오만원짜리 수박 일을 해달라는데 나는 오늘 볼일 있다고 안 갔어 하하.>

조사자 : 아이구 세상에 지가 오 마닐 드려야젠네.

<아이구 세상에 제가 오 만원 드려야겠네.>

제보자 : 얼마나 영광이유,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유.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조사자 : 싱무른 그런 거 하시고 짐승은 안 키우셨어요?

<식물은 그런 거 하시고 짐승은 안 키우셨어요?>

제보자 : 짐승, 소를 송아지를 열세마리를 낳쥬요. 송아지 켜서 송아지 쪼그만 놔 사다가 내가 밥 주고 무럭무럭 켜 가지구 잘 되구 송아지를 또 나. 송아지는 일년네 하나쥬나요. 열 세마리 빼구 돼지 키워 돼지 자구 나면 여기가 돼지울 여기가 소 오양간 자고 나면 돼지 새끼를 요렇게 열뿔, 넘드른 돼지새끼 날라면 밤에 불 켜주고 지켜 선는디 지가 복이 있쥬서 그러나 남편이 보기 있쥬서 그러나 사람 드른 우리 남편이 복 있따는 거야 저 가튼 아내 만나서.

<짐승 소를 송아지를 열세마리를 낳았어요. 송아지 키워서 송아지 쪼그만 놔 사다가 내가 밥 주고 무럭무럭 키워 가지구 잘 되구 송아지를 또 낳아. 송아지는 일년에 하나씩 낳아요. 열 세마리 빼구 돼지 키워 돼지

자구 나면 여기가 돼지울 여기가 소 외양간 자고 나면 돼지새끼를 요렇게 열둘, 남들은 돼지새끼 낳으려면 밤에 불 켜주고 지켜 썼는데 제가 복이 있어서 그러나 남편이 복이 있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남편이 복 있다는 거야 저 같은 아내 만나서.>

자구 나면 돼지새끼 오굴오굴 나와. 또 어뜨케 자구 나면 개 메기 는디 강아지를 일고여덜 오로로롤 나, 그때 재미가 재미지쥬. 닭 메겨서 막 아를 알찌블 가 보면 아를 열 개 아홉 개 나면 애들 후라이해서 벤또 싸주고 참 시고레서는 열찌미 와서 그런디 그때가 재민네 잠두 안 와요.

<자고 나면 돼지새끼 오굴오굴 낳아 보. 또 어떻게 자고 나면 개 먹이는데 강아지를 일곱 여덟 오로로롤 낳아, 그때 재미가 재미지쥬. 닭 먹여서 막 알을 알집을 가보면 알을 열 개 아홉 개 나면 애들 후라이해서 도시락 싸주고 참 시골에서는 열심히 와서 그런데 그때가 재미 있네 잠도 안 와요.>

세탁기가 이써? 바미래두 막 애들 빨래 죄 생전, 이러나서 대려서 멧쟁이루 애들 멧쟁이루 컷썬요. 그러니 무용파 합창단 스승의나 른 일꾼 어더 딸기 따라구 부치구선 딸기 따다주면 정성껏 좋은 놈 따서 요롱케 싸고 큰 다리다가 막 따서 이구 학교로 이구가요. 지가. 그 큰 다리를 겨무실 가, 차암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싱게 스승의 날 지가 힘들게 진 딸기 하나씩 좀 잡수꼬 피로해소 하시라구.

<세탁기가 있어? 밤이라도 막 애들 빨래 죄 생전, 일어 나서 다려서 멧쟁이로 애들 멧쟁이로 키웠어요. 그러니 무용과 합창단 스승의날은 일꾼 언어 딸기 따라고 붙이고서는 딸기 따다주면 정성껏 좋은 놈 따서 요렇게 싸고 큰 다리에다 막 따서 이고 학교로 이고 가요. 제가. 그 큰 다리를 교무실 가 참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니까 스승의 날 제가 힘들게 지은 딸기 하나씩 좀 잡숫고 피로해소 하시라고.>

저런 아주머니가 어딴냐? 한 바가지는 담임선생 대전서 와, 지가 이렇게 진 딸긴게 마싯게 드시라구. 대दान 어머니라 얼른 갔따

오야 일꾼들 밥패 주야 차암 저는 열씨미 살다보니까.

<저런 아주머니가 어디 있냐? 한 바가지는 담임선생 대전에서 와, 제가 이렇게 지은 딸기니까 맛있게 드시라구. 대단한 어머니래요 얼른 갔다 와야 일꾼들 밥해 줘야 참 저는 열심히 살다보니까.>

조사자 : 그때 뭐 빠스타고 다니셨어요?

<그때 뭐 버스타고 다니셨어요?>

제보자 : 강경은 빠스도 타구 머를 때는 거리 다녔씨. 강경은 지금도 거름 자알 논산장도 거리 다녔씨요. 쌀 두말 가통거 이구 논산 시내 두 거리갔씨씨. 지금두 거르른 잘 거러유. 하하.

<강경은 버스도 타고 멀 때는 걸어 다녔어. 강경은 지금도 걸음 잘 논산장도 걸어 다녔어요. 쌀 두말 같은거 이고 논산시내도 걸어 갔었어요. 지금도 걸음은 잘 걸어유. 하하.>

조사자 : 논산장부터 여기까지 한 이십니되나요?

<논산장부터 여기까지 한 이십리 되나요?>

제보자 : 이십니 팔키로 너믈꺼유, 강경은 사키로 지금은 이 아줌마 가치 어렵게 참 그래 이 쌀밥 멩능게 얼머나 존가 노늘 사.

<이십리 팔키로 넘을거요, 강경은 사키로 지금은 이 아줌마같이 어렵게 참 그래 이 쌀밥 먹는게 얼마나 좋은가 논을 사.>

그때 그 서울에서 간 든 모이믈 흥대 입꾸 가튼디다 가니까 맨 흥대 입꾸 그 망원동 그루가 허허벌판, 저 시내서 인분 퍼다 말구 름마루 썬지구 볼 순 없췌대. 오히려 시고레서 비지라도 어더다 이십평이라두 그때 다음 지금 막 호테리 드러 서구.

<그때 그 서울에서 간 든 모임을 흥대 입꾸 같은데다 가니까 맨 흥대 입꾸 그 망원동 그리 가 허허벌판, 저 시내서 인분 퍼다 말 구루마로 끼었고 볼 수가 없췌대요. 오히려 시골에서 빛이라도 얻어다 이십평이라도 그때

다음 지금 막 호텔이 들어서고.>

작년 여름에 저 동생드른 서우레서 잘 살구 있쎄요. 망원동에 사라서 언니 옛날을 회생해서 참 조은 차 타구 가서 흥대입구를 가니까 우리 살던 촌뚝길 미테 판잣찌븐 간고시 음꾸 대항로가 됐 쎄요. 다 대항노 기리 되 가지구 뼈까번쩍카구 거기두 지하처리 흥대 입구로 막 옛날을 회생하면서 서교초등학교가 오디께 있쎄 나 봉게 잘 보이지두 안쿠.

<작년 여름에 저 동생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망원동에 살아서 언니 옛날을 회상해서 참 좋은 차 타고 가서 흥대 입구를 가니까 우리 살던 촌뚝길 밑에 판잣집은 간곳이 없고 대학로가 됐어요. 다 대학로 길이 되 가지구 비까번쩍하구 거기도 지하철이 흥대 입구로 막 옛날을 회상하면서 서교초등학교가 어디께 있었나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조사자 : 제가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서 다녔습니다.>

제보자 : 그러셨구먼, 지가 열여덟싸레 서울 가서유 진짜 스무랄곱까지 서우레 잘 있따, 한 삼년 지금두유 서우레 구호선까지 지하철 다 타구 댕겨봤쎄. 옛날을 회생해서 대다나다구 서울 사람두 지하철 잘못 타구 댕기는 사람 있다는디 어디가나 몰르는 영어니 그를 몰르지 누너루 보구 듣는건 잘 다니구.

<그러셨구만, 제가 열여덟 살에 서울 가서요 진짜 스물일곱까지 서울에 잘 있따, 한 삼년 지금도요 서울에 구호선까지 지하철 다 타구 다녀 봤어. 옛날을 회상해서 대단하다고 서울 사람도 지하철 잘못 타고 다니는 사람 있다는디 어디 가나 모르는 영어니 글을 모르지 눈으로 보고 듣는 건 잘 다니구.>

조사자 : 그럼 쌀농사 그렇게 지으시고 돼지 소도 키우시고 또 다른 장물 딸기나 그렇거 말고,

<그럼 쌀농사 그렇게 지으시고 돼지 소도 키우시고 또 다른 작물 딸기나 그런거 말구>

제보자 : 수바겠지, 그 뒤로는, 수박 시빌년 하고 차되는 모다구 하구 서 막 칠십세가 된 해 그만 합시다 인는 돈 쓰구 그만 하자구 접구.

<수박 했지, 그 뒤로는 수박 십일년 하고 참외는 못 하고 하고서 막 칠십세가 된 해 그만 합시다 있는 돈 쓰고 그만 하자고 접고.>

논두 아까 말씀대루 선재 지금 그 큰 논 제우 아홉마지기 넘 방울 도마도 하는디다 넘 주구 그래 함 이십마지기 쳐유. 농사는 짓지, 쳐서 사둔네들까지 다 줘. 저 양바니 어치게 차칸가 처제덜 처남네 양식 다 대 줘유. 그마만큼 형부게다 잘 하구 매형이다, 그 우리 남 동생이 매형이 아니라 아버지 같다구 해요. 뭇닐 있쓰면 상의해서 하구.

<논도 아까 말씀대루 선재 지금 그 큰 논 겨우 아홉 마지기 남 방울 도마도 하는데다 남 주구 그래 한 이십마지기 지어요. 농사는 짓지, 지어서 사둔네들까지 다 줘 저 양반이 어떻게 착한가 처제들 처남네 양식 다 대 줘유. 그마만큼 형부에게 잘 하구 매형이다 그 우리 남동생이 매형이 아니라 아버지 같다고 해요. 뭇 일 있으면 상의해서 하구.>

조사자 : 근데 음식가튼 건 제사도 지내시자나요?

<근데 음식같은 건 제사도 지내시잖아요?>

제보자 : 제사는 큰 지비 큰 지비 큰 지비 육남매서 이 양바니 망넨게 큰 지비서 제사 요너머서 집 잘 진는 집 우리 큰 대겨, 지가 시집갈 때 그 초가지브로 간는디 다 잘 짓꾸,

<제사는 큰 집에 큰 집에 큰 집에 육남매서 이 양반이 막내니까 큰 집에서 제사 요 넘어서 집 잘 짓는 집 우리 큰댁이여. 제가 시집갈 때 그 초가집으로 갔는데 다 잘 짓고,>

좀 얘기 하다 미란네. 그 우리 아드리 회사 가서 자라니까 사장님 어찌 그렇게 아드니를 착카게 잘 뵈따구 포상금 한 지그므로부터 오년 전쯤 됐지? 그 회사 봉투다 뽀뽀한 미원짜리 뱅마뵈늘 어머니 갔따 드리라구 가췌어. 사장님 저를 잘 키워주셨다고 그 도니 얼마나 조은 도니어요.

<좀 얘기 하다 말았네. 그 우리 아들이 회사 가서 잘하니까 사장님이 어찌 그렇게 아드님을 착하게 잘 뵈따구 포상금 한 지금으로부터 오년 전쯤 됐지? 그 회사 봉투에다 뽀뽀한 만원짜리 백만원을 어머니 갔다 드리라구 가지고 왔어. 사장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다고 그 돈이 얼마나 좋은 돈이어요.>

크다기보다두 아드리 그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그런 인정을 받구 궁게 외화 마니 버러 드리면 그 이름표에 이렇게 올라 가구 못 버러드리면 안 올라 간다 그랜는디 참 우리 크나드리 얼마나 힘들게 했쓰면 참 사장님 이쁘게 봐서 어머니한테 그런 포상금까지 참 주선나,

<크다기보다도 아들이 그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외화 많이 벌어 들이면 그 이름표에 이렇게 올라가고 못 벌어 들이면 안 올라간대 그랜는디 참 우리 큰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참 사장님이 예쁘게 봐서 어머니한테 그런 포상금까지 참 주셨나,>

이 도늘 오따 쓰야 좋까? 오따 쓰까 참 그래 선산 산수 잘 해 뵈췌유. 산수하는디다 잘 그돈 드리구 참 잘 쓰구, 삼동세가 한 동네 사라두 동네서두 다 인정 받꾸 저 삼동세는 어찌면 잘 누님들 식당 드시구 미테 아들드리라 들췌 형니은 저랑 동가비구 칭구가터 재밋게 지내구, 제사는 큰 지비서 지내는디 큰 형니미 음시글 아주 자래 제사상 참 훌륭하게 잘 올라 가구.

<이 돈을 어디에 써야 좋을까? 어디에 쓸까? 참 그래 선산 산수 잘 해

났어요. 산소하는데다 잘 그 돈 들이고 참 잘 쓰고, 삼동서가 한 동네 살아도 동네에서도 다 인정받고 저 삼동서는 어쩌면 잘 누님들 식당 드시고 밑에 아들 들이라 둘째 형님은 저랑 동갑이고 친구같이 재밌게 지내고,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는데 큰 형님이 음식을 아주 잘 해 제사상 참 훌륭하게 잘 올라 가고.>

조사자 : 제사 상에 음식은 어떤 것들이 올라 감니까?

<제사 상에 음식은 어떤 것들이 올라 감니까?>

제보자 : 제사상에?

<제사 상에?>

조사자 : 음식내기 좀 해 보죠. 음식 이름 생각나는 대로 해 줘보세요.

<음식 얘기 좀 해 보죠. 음식 이름 생각나는 대로 해 줘보세요.>

제보자 : 우리 지비서는 열무김치 열무김치 배춧김치 된장찌개 생채 깍두기 해서 먹꾸 두릅 된장찌개를 마니 요새 상추 뜯어서 상추 뜯 더먹꾸, 이 양반이 오이 모 사다가 심거줄 때 되네. 오이 오이 따서 꼬창찍어 먹꾸 시금치 시금치 갈아서 벼 먹꾸 시고레서는 시장 갈 리리 없써요. 다 그렇게 꼬추 따다가니 찌개 너서 먹꾸.

<우리 집에서는 열무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된장찌개 생채 깍두기 해서 먹고 두릅 된장찌개를 많이 요새 상추 뜯어서 상추 뜯어 먹고, 이 양반이 오이 모 사다가 심어 줄 때 됐네. 오이 오이 따서 고추장 찍어 먹고 시금치 시금치 갈아서 벼어 먹고 시골에서는 시장 갈 일이 없어요. 다 그렇게 꼬추 따다가는 찌개 넣어서 먹고.>

조사자 : 그 나물 있찌 안씀니까? 나물마다 이름이 다른데 어떤 건 뜯구 어떤 건 캐구 그러자나요. 다 캐나요?

<그 나물 있지 않습니까? 나물마다 이름이 다른데 어떤 건 뜯고 어떤 건 캐고 그러잖아요. 다 캐나요?>

제보자 : 캐는 건 도라지를 캐죠. 도라지는 인삼처럼 도라지는 뿌리가 기퍼서 캐구, 저 고사리는 사네서 꺾꾸, 사네서 비 오면 나서 그 놈 꺾꾸, 시금치가튼건 가라서 파라나면 썩까지니 상추니는 뜨더서 하구, 도라지는 꼭 인삼 사춘이라구 하대유.

<캐는 건 도라지를 캐죠. 도라지는 인삼처럼 도라지는 뿌리가 깊어서 캐고, 저 고사리는 산에서 꺾고, 산에 서 비 오면 나서 그 놈 꺾고, 시금치 같은건 갈아서 파랄게 되면 썩까지니 상추니는 뜯어서 하구, 도라지는 꼭 인삼 사춘이라고 하대요.>

조사자 : 뜯는 거 하고 캐는 거는 차이가 인나요?

<뜯는 거하고 캐는 거는 차이가 있나요?>

제보자 : 캐는 건 도라지를 기픈 호구 가튼걸로 캐야 되고,

<캐는 건 도라지를 깊은 호구 같은 걸로 캐야 되고,>

조사자 : 호구?

<호구¹⁸⁾?>

제보자 : 예 호구, 연장 연장 이름. 땅이 드러가 가지구 캐는 거유. 호미라능건 풀 매는 호미구 사븐 이케 뜨구 상추가능건 이케 뜯쥬. 상추 썩갓 오이는 따구 꼬추랑은,

<예 호구, 연장 연장 이름. 땅에 들어가 가지구 캐는 거요. 호미라는 건 풀 매는 호미구 삽은 이렇게 뜨고 상추 가는 건 이렇게 뜯쥬. 상추 썩갓 오이는 따고 꼬추랑은,>

조사자 : 다 다르네요.

<다 다르네요.>

18) 황기나 인삼, 도라지 등 뿌리 식물을 캐 때 사용하는 농기구. 삼지창의 모양이라 캐 때 뿌리를 상하게 하지 않음.

제보자 : 달릅쫘, 저두 제대루 산나물 이르믄 잘 몰라유. 사네 으른드
른 사네 취나무리니 똥나무리니, 지는 사네 가서 어뜨케 도니나 버
를까 하지 하하하, 지금두 돈 버는 이리라믄 좋아서 하구,

<다르쫘, 저도 제대로 산나물 이름은 잘 몰라요. 산에 어른들은
산에 취나무이니 무슨 나무이니, 저는 산에 가서 어떻게 돈이나 벌까 하지
하하하, 지금도 돈 버는 일이라면 좋아서 하구,>

지가 키가 즈거서 매느리를 좀 큰 매느리를 얻꾸 시퍼서 큰 매느
릴 강원도서 어더 완는디 키가 크고 잘 생겼쫘요. 맨날 이쁘게 보
구.

<제가 키가 작어서 며느리를 좀 큰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큰 며느릴
강원도에서 얻어 왔는데 키가 크고 잘 생겼어요. 맨날 예쁘게 보고.>

조사자 : 음싱내기 좀 더 하쫘. 제사는 좀 다르자나요?

<음식애기 좀 더 하쫘. 제사는 좀 다르잖아요?>

제보자 : 제사는 우리 큰 집서 지내는디, 큰 형니미 조기쫘 해노시고
명태 생명태 자아알 저려 가지구 찌매서 하구 그 명태 포는 장이서
포 해노시고 도라지 나물 하얀 도라지 그거 나물 고사리 나물 시금
치 나무라구 두부루 전 부쳐 노시고 명태를 또 포 떠가지구 제사에
는 꼭 그 명태 저니 올라가야 한다구 명태전 다시기라구 있쫘유.

<제사는 우리 큰 집에서 지내는데, 큰 형님이 조기쫘 해 놓으시고
명태 생명태 자알 절여 가지고 쫘해서 하구 그 명태 포는 장에서 포 해
놓으시고 도라지 나물 하얀 도라지 그거 나물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하
구 두부로 전 부쳐 놓으시고 명태를 또 포 떠가지고 제사에는 꼭 그 명태전
이 올라가야 한다고 명태 전 다식이라고 있어요.>

다식 다식 바가서 또 제사쌍에 올리구 우리 큰 형니미 친정에서
두 잘 배우구 종갓쫘 큰며느리로 오셔서 박또 그렇게 썰마 가지구

지단 부쳐서 잘 하시구 큰 형니미 암전시려위유.

<다식 다식 박아서 또 제사 상에 올리고 우리 큰 형님이 친정에서도 잘 배우고 종갓집 큰 며느리로 오셔서 박도 그렇게 삶아가지고 지단 부쳐서 잘 하시구 큰형님이 암전하세요.>

탕은 무수 너코 삼탕이라구 하는디 한 그르시다 하데. 무수미테 느쿠 두부느쿠 우에다 고기느쿠 잘 지낸 지븐 탕을 따루 따루 삼탕 이루 뵈당게.

<탕은 무우 넣고 삼탕이라고 하는데 한 그릇에다 하대. 무 밑에 넣고 두부 넣고 위에다 고기 넣고 잘 지낸 집은 탕을 따로 따로 삼탕으로 뵈다니까.>

큰집은 과이리니 잘 지나 잘 해농게 삼탕 해노시구 겨란 쌀마서 오려서 바치시구, 대추 밤 감 사과 배 농쿠 저기 과 하얀 과 그계 손자라네 약과 농쿠, 적 적 찹쌀적 또 시루떡 해서 노시고 잘 지내, 지사는 일뚱이지.

<큰 집은 과일이니 잘 지내 잘 해 놓으니까 삼탕 해 놓으시고 계란 삶아서 오려서 바치시고, 대추 밤 감 사과 배 농고 저기 과 하얀 과 그계 손자라네 약과 농고, 적 적 찹쌀적 또 시루떡 해서 놓으시고 잘 지내, 제사는 일뚱이지.>

조사자 : 제기는 어떤 걸 쓰시고요?

<제기는 어떤 걸 쓰시고요?>

제보자 : 목끼쓰쥬, 나무로 된 제기는 지사 지낼 때는 돛짜리 자리 있 썬유. 잘 제사 제사 자리 하구 제상 농쿠 아이 그렇게 큰 시수기 팔 썬 둘째 시수기 칠썬칠세 사명제가 한 동네서 재밌게 살구 있썬유.

<목기 쓰지요, 나무로 된 제기는 제사 지낼 때는 돛자리 자리 있어요, 잘 제사 제사 자리 하구 제상 농고 아이 그러니까 큰 시숙이 팔썬 둘째 시숙이 칠썬칠세 삼형제가 한 동네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조사자 : 물 한 모금 드셔야겠는데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부녀회장 솜씨가 있쓰시네. 말씀 잘 하시고, 마을 잔치 같은 건 안 하나요?

<물 한 모금 드셔야겠는데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부녀회장 솜씨가 있으시네. 말씀 잘 하시고, 마을 잔치 같은 건 안 하나요?>

제보자 : 아이구 해쥬. 여기 양력 초하루면 떡국 끄려서 남자 여자 할 꺼 업씨 다 대저바구 노인 양반들 잡쥬시고 또 어머이날 푸지게 행사하구 대보름날 돼지 자바가지구 또 그케 마으레서 먹꾸 잔치 하구.

<아이고 하지요. 여기 양력 초하루면 떡국 끓여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대접하고 노인 양반들 잡쥬시고 또 어머니날 푸지게 행사하구 대보름날 돼지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마을에서 먹고 잔치하고>

조사자 : 대보름 뭐 특뻘랑거 아나나요?

<대보름 뭐 특별한 것 안 하나요?>

제보자 : 윤노리 예 윤노리하구 치뿔칠써기라구, 치뿔칠써근 겨누징녀가 만나구 존날이라구 하자나유? 그럼 이 마으레서 사시다 서울도 가고 버러 먹구 부산가 살구 하는 사라를 이미네나른 겨누징녀가 만났게,

<웃놀이 예 웃놀이하고 칠월칠석이라구, 칠월칠석은 견우직녀가 만나고 좋은 날이라고 하잖ాయ? 그럼 이 마을에서 사시다 서울도 가고 벌어 먹고 부산 가서 살고 하는 사람을 이민의날¹⁹⁾은 견우직녀가 만나니까,>

우리두 나갔뻘 사람도 고향을 찾자 해가꾸 시보해 될꺼예요. 시

19) 이 마을에서 살다가 타지로 떠난 사람들을 마을로 초대해서 함께 정을 나누는 날의 이름.

보년전부터 이민날 정해가꾸 치월칠썩날 마으레서 대잔치를 해
유. 뺨드까지 불러, 그럼 저 서우레선 관광차 한 대가 와 프래카드,
<우리도 나갔던 사람도 고향을 찾자 해 가지고 십오해 될 거예요. 십오
년전부터 이민의날 정해 가지고 칠월칠석날 마을에서 대잔치를 해요. 뺨
드까지 불러, 그럼 저 서울에선 관광차 한 대가 와 프래카드,>

조사자 : 이 동네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 와라 .

<이 동네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 와라>

제보자 : 간 사람들 와라 만나자 만나메 광장 가통거.

<간 사람들 와라 만나자 만남의 광장 같은 것.>

조사자 : 대단한 행사인데요.

<대단한 행사인데요.>

제보자 : 이 동네 참 진짜여 큰 행사죠.

<이 동네 참 진짜여 큰 행사죠.>

조사자 : 누가 주관하세요? 이장님미 하시나요?

<누가 주관하세요? 이장님이 하시나요?>

제보자 : 이장님, 부녀회장.

<이장님, 부녀회장.>

조사자 : 이장님미야 뭐 그렇치, 진짜 잔치 준비하능건 부녀회자나요.

<이장님미야 뭐 그렇치, 진짜 잔치 준비하는 건 부녀회잖아요.>

제보자 : 부녀회에서 마니 지금 현재 하는 부녀회장이 음식뚜 자아라
구 오디가 음식글 머저 우리 마을 음식가튼 음식기 없따구, 옛그저
께 노이네 노이네나리여서 마을잔치를 핸는디 하이튼 육취까지는
그렇게 자래써 푸지게 면지권들 다 이장이 초대했써요. 여더리 왔

떠라구 여지권 두라구 남자 여서타구 진짜 이렇게 존 반찬 첨 머거
본다구 마셨께 드시더라구.

<부녀회에서 많이 지금 현재 하는 부녀회장이 음식도 잘 하고 어디
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마을 음식같은 음식이 없다고, 옛그저께 노인의
노인의날이어서 마을잔치를 했는데 하여튼 육회까지는 그렇게 잘 했어
푸지게 면직원들 다이장이 초대했어요. 여덟이 왔더라고 여직원 둘하고
남자 여섯하고 진짜 이렇게 좋은 반찬 첨 먹어 본다고 맛있께 드시더라고>

조사자 :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제보자 : 다 마으레서 상했지.

<다 마을에서 상의했지.>

조사자 : 여기 몇가구나 사세요? 월성 이리.

<여기 몇 가구나 사세요? 월성 이리>

제보자 : 예, 이리디 엔나렌 백코가 너뫘때유. 그런데 지그믐 절믐 사
람드리 떠낭게 폐지비 되니까 칠십호 산당가? 처메는 먼명이라구
하는디 못 들꾸.

<예 이리디 옛날엔 백호가 넘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폐집이 되니까 칠십호 산다던가? 처음에는 몇 명이라고 하는데
못 들고.>

또 노인회 조지개가지구 노이뇌서 또 노인관광도 시켜주고 노
이뇌 한번 어디 간다구하믐 찬조금드를 십마년 오십마년 막 이르
케 절므신드리 노이뇌를 이케 위해서 간다구 찬조그믐 한 이삼배
기 드러온대유. 모여났따 또 가구 정부에서는 나라싸리라구있써
쌀 한포대씩 다다리 오나봐유.

<또 노인회 조직해 가지고 노인회서 또 노인관광도 시켜주고 노인회

한번 어디 간다고 하면 찬조금들을 십만원 오십만원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인회를 이렇게 위해서 간다고 찬조금을 한 이삼백이 들어온대요. 모아 봤다 또 가구 정부에서는 나라쌀이라고 있어 쌀 한 포대씩 다달이 오나 봐요.>

노이뇌 기름값 쪼끔도 정부에서두 후워내주는디 우리 마으레서 줘 잘 해보지 않켄냐 해가지구 그 추지는 여운천씨가 자라쥬 그 시의회 마늘하고 부녀회장을 하는디 제가 못배우고 글도 모르고 하니까 부녀회장 명칭만 하구 다니구 총무는 이 지금 현 부녀회장이 자래

<노인회 기름 값 조금도 정부에서도 후원해 주는데 우리 마을에서 좀 잘 해보지 않겠냐해 가지구 그 취지는 여운천씨가 잘 하쥬 그 시의회 마누라하고 부녀회장을 하는데 제가 못 배우고 글도 모르고 하니까 부녀회장 명칭만 하고 다니고 총무는 이 지금 현 부녀회장이 잘 해>

조사자 : 원래 총무가 실세예요. 농사를 그렇게 삼십마지기 육천평이면 꽤 큰 농산데 도구는 뭐로 하셨어요? 예나레 쓰던거 있쥬세요?

<원래 총무가 실세예요. 농사를 그렇게 삼십 마지기 육천 평이면 꽤 큰 농산데 도구는 뭐로 하셨어요? 옛날에 쓰던 거 있으세요?>

제보자 : 옛날 도구는 이르케 이양기라고 이르케 심던 기계 인는다, 인저 저 양반도 나이 드시고 했쥬게 오래쓰니까 폐기계들, 아이렇게 사명제가 가치 기계 사 농코 가치 쓰고, 둘째찌븐 경운기 있응게 서로 이렇게 쓰고, 우리 지븐 지그른 오두바이 하나 있꾸, 예나렌 베비는 베 심는 기계가 있쥬는데, 고물쌍에 넘견나베. 지그른 말마 나면 기계가 와 시머주구 트랙터가 다해주고 강게.

<옛날 도구는 이렇게 이양기라고 이렇게 심던 기계 있는데, 이제 저 양반도 나이 드시고 했으니까 오래 쓰니까 폐기계들, 아이렇게 삼형제가 같이 기계 사농고 같이 쓰고, 둘째 집은 경운기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쓰고, 우리 집은 지금은 오토바이 하나 있고, 옛날엔 벼 베는 벼 심는 기계가 있었는데, 고물상에 넘겼나봐요 지금은 말만하면 기계가 와 심어주고 트랙터가 다 해주고 가니까.>

조사자 : 옛날처럼 쟁기나 써레나.

<옛날처럼 쟁기나 써레나.>

제보자 : 예 그렇거 별루, 소를 키워서 새끼를 빼서 파라서 대학꼬 때는 등록금줬찌 뭐 소로 농갈구 그렇진 아내봤써유.

<예 그런 거 별루, 소를 키워서 새끼를 빼서 팔아서 대학교 때는 등록금 줬지 뭐 소로 논 갈구 그런 건 안 해 봤어요.>

조사자 : 다 소느로 하셨을까 아니에요?

<다 손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보자 : 옛날엔, 지금도 옛날에는 비료가 귀했꼬 항게, 대변니 굉장히 거름이었써. 그거 퇴비 담겨 닳다가 요지나게 바테두 뿌리구 참 그럴 지그믄 시골두 다 수세식 변수하구, 그렇치만 시골찌븐 웬만 하면 다 바끼다 화장실 하나 지어서 바께 남자들 손니모면 바끄로 가게하구, 옛날리는 굉장히 그소두 매기구 돼지도 매기구 그 거르므로 농사를 잘 지니까 그랬써유.

<옛날에는, 지금도 옛날에는 비료가 귀했고 하니까, 대변이 굉장히 거름이었어. 그거 퇴비 담아 놓았다가 요진하게 밭에도 뿌리고 참 그럴 지금은 시골도 다 수세식 변수하고, 그렇지만 시골집은 웬만하면 다 밖에 화장실 하나 지어서 밖에 남자들 손님 오면 밖으로 가게 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그 소두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그 거름으로 농사를 잘 지니까 그랬어요.>

조사자 : 마을 잔치를 칠썰날 그렇게 하는거네요. 가으레는 무슨 잔치 가튼거 없써요?

<마을 잔치를 칠석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가을에는 무슨 잔치 같은 거 없어요?>

제보자 : 가을에는 아들 딸 여우는 결혼식 잔치가 만코, 치뤘칠서게 그렇게 푸지게 해유 해마다.

<가을에는 아들 딸 여우는 결혼식 잔치가 많고, 칠월 칠석에 그렇게 푸지게 해유 해마다.>

조사자 : 그때는 덩찌 안나요?

<그때는 덩찌 않나요?>

조사자 : 여기 지파장이라는데 위에 선평기가 막 세 개 네 개 도라가 구 선평기 여기저기 놓쿠 보신탕 개 서너 마리 자바서 끄리구 돼지 잡꾸 푸우져요 푸져 막.

<여기 집하장이라는데 위에 선평기가 막 세 개 네 개 돌아가고 선평기 여기저기 놓고 보신탕 개 서너 마리 잡아서 끓이고 돼지 잡고 푸져요 푸져 막.>

조사자 : 이 마을 근처에 또랑이나 이런건 없어요? 하천이나 이런 데?

<이 마을 근처에 도랑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하천이나 이런 데?>

제보자 : 하천 하천이 지가 마라다시피 아홉마지기 샀뎌 경지 정리가 되서 잘 되구, 요 미테 수릿뜰 있써요. 수리라고도 하고. 지그른 우렁이 드러 부트고 그래유. 미꾸라지는 노네 있쥬 미꾸라지는 땅을 파고 이 수릿또른 지그른 얼마나 엇그저께 일보니 제가 부러웠따고 했자나요?

<하천 하천이 제가 말하다 싶이 아홉 마지기 샀던 경지 정리가 되서 잘 되고, 요 밑에 수릿돌²⁰⁾ 있어요. 수리라고도 하고, 지금은 우렁이 들어

20) 수리 시설 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진 수리조합에서 시설한 관개용 도랑.

붙고 그래요. 미꾸라지는 눈에 있죠 미꾸라지는 땅을 파고 이 수릿들은 지금은 얼마나 옛그저께 일본이 제가 부러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항국 또 수리조합 다 해놓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지금 농로 길두 차가 비끼게 자래놓구

<우리 한국 또 수리조합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지금 농로 길도 차가 비껴가게 잘 해 놓구>

어끄저께 지가 저 구미 고못때기 갔다 오는데 어떤 양바니 지가 노란잠바도 입고 갔다 오게 어떤 양바니 딱카니 제 옆자리여 이런 존 세상을 아까워서 어떡케 눈 가마야 오르냐구? 팔십세살 잡순 아주머니가 그려, 예유 지비는 절믄게 괜찮았다구. 자기는 살나리 얼마 엄쓰께 이런 존 세상을 어떡케 두고 눈 가므실까 걱정하시더라니까요.

<옛그제 제가 저 구미 고모택에 갔다 오는데 어떤 양반이 제가 노란잠바도 입고 갔다 오니까 어떤 양반이 딱하니 제 옆자리여 이런 좋은 세상을 아까워서 어떻게 눈 감아야 옳으냐구? 팔십세살 잡순 아주머니가 그려, 예유 집에는 젊으니까 괜찮겠다고. 자기는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이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두고 눈 감으실까 걱정하시더라니까요.>

조사자 : 아직 아주머니는 이십녀는 충분니 더 사실꺼 가튼데요.

<아직 아주머니는 이십년은 충분히 더 사실 것 같은데요.>

제보자 : 명이라능건 몰라유 명은.

<명이라는 건 몰라요 명은.>

조사자 : 명은 모르고 건강은 알거든요.

<명은 모르고 건강은 알거든요.>

제보자 : 맨날 아파서 병원가서 양떡꾸 주사막구 하는 할머니는 오래 사는데 저가치 경강하구 혈압도 업꾸 이라다 도라가셔. 금방 도라

가셔. 아니여.

<맨날 아파서 병원 가서 약먹구 주사 맞고 하는 할머니는 오래 사는 데 저같이 건강하고 혈압도 없고 이러다 돌아가셔. 금방 돌아가셔. 아니여.>

우리 애덜기다 그래요. 니드른 복 많타. 엄마 아빠가 건강하니까 니들 맘 퍼니 살지. 엄마 아빠가 아퍼서 야나 죽겠다 병원 가야돼 하면 지드리 직짱 다니는 사람드리 부라나자나. 엄마 아빠가 건강할걸 감사하게 생각카면서 사라라.

<우리 애들에게 다 그래요. 너희들은 복 많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니까 너희들 맘 편히 살지. 엄마 아빠가 아파서 야나 죽겠다 병원 가야돼 하면 저희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엄마 아빠가 건강한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나도 니드리 며느리도 저놔하면 재미나게 사러라. 내가 사라보니까 인생이 장판이여. 참 이 열 살 너머서는 그 엄마가 오시래두 해노면 언제 명절날 그걸 입나 내 보구 또 놓쿠. 육십 너믄게 부쩍 부쩍 부쩍 부쩍 내가 이른 네 사리라 생각만 해두 마른 지금두 열려덜 여라흠 마으른 안 늘거 몸만 늙찌.

<나도 너희들이 며느리도 전화하면 재미나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잠깐이여. 참 이 열 살 넘어서는 그 엄마가 웃이래도 해 놓으면 언제 명절날 그걸 입나 내 보구 또 넣고. 육십 넘으니까 부쩍부쩍 부쩍부쩍 내가 일흔 네 살이라 생각만해도 맘은 지금도 열여덟 열아홉 마음은 안 늙어 몸만 늙지.>

조사자 : 근데 석성서 여기로 이사 오셨짜나요? 여기 마으른 왜 월성리에요?

<근데 석성에서 여기로 이사 오셨잖아요? 여기 마으른 왜 월성리에요?>

제보자 : 궁게 이 마우리 왜 월성리고, 여 월명공워니라고 또 있쎬요. 예 월명 이 앞싸니 월명사니라구 하더라구. 저 사니. 그래 거기다 지금 공원도 잘 저가지구 저 꼭때기까지 가로등이 올라가요. 월명 사니, 월성리 월명산.

<그러니까 이 마을이 왜 월성리고, 여기 월명공원이라고 또 있어요. 예 월명 이 앞산이 월명산이라고 하더라고. 저 산이. 그래 거기다 지금 공원도 잘 저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가로등이 올라가요. 월명산이, 월성리 월명산.>

조사자 : 거기 가보셨쎬요? 사네?

<거기 가 보셨어요? 산에?>

제보자 : 월명사니유? 그럼뉴. 이따 학생드른 가 보셔두 되요. 길 조아요. 지가 그래두 틈만 있쓰면 요 칭칭계단 거러가니 우리 마으레 월명산 칭칭으로 가는데, 빗자루로 싹싹 쓸고 지가 쫘 바지러내서 식찌니면 이 도로두 잘 씨러놓고 어떤 차가 가면 이런 자가리래두 걸려서 저기 할까봐 씨려주면 좋지. 조금만 잠 조금 들자구 건강 주셔쎬게 바지러나지.

<월명산이요? 그럼요. 있다 학생들은 가보셔도 되요. 길 좋아요. 제가 그래도 틈만 있으면 요 층층계단 걸어가니 우리 마을에 월명산 층층으로 가는데, 빗자루로 싹싹 쓸고 제가 쫘 바지러내서 식전이면 이 도로도 잘 쓸어놓고 어떤 차가 가면 이런 자갈이라도 걸려서 저기 할까봐 쓸어주면 좋지. 조금만 잠 조금 덜 자고 건강 주셨으니까 바지러하지.>

요 월명공원 요렇게 사네 가면 참 조아요. 잘 차자보시구. 아이구 지가 배우들 모대서 얘기를 조리있쎬 모대유. 얘기는 종일 해두 재밌꾸 지금 이나이여두요 고향친구들 예닐구비 다다리 계를 해유. 만나면 대전 뿌리공원도 잘 가구.

<요 월명공원 요렇게 산에 가면 참 좋아요 잘 찾아 보시고. 아이고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얘기를 조리있게 못해요. 얘기는 종일해도 재미있고 지금 이 나이에도 고향 친구들 여닐곱이 다달이 계를 해요. 만나면 대전 뿌리공원도 잘 가고.>

조사자 : 여행은 어디 어디 가 보셨어요?

<여행은 어디 어디 가 보셨어요?>

제보자 : 저유? 여행은 어디 저 저 처멘 외구근 북경 갔쎄요.

<저요? 여행은 어디 저 저 처음엔 외국은 북경 갔어요.>

조사자 : 아이고, 북경도 갔따 오셨쎄요?

<아이고, 북경도 갔다 오셨어요?>

제보자 : 우리 집 애드라빠 동갑 환갑 여행이루 북경갔따 와 가지구, 또 서우레 또 저 양바니 모이미 마내가꾸, 또 서울 칭구드리 베트남 가지구 삼박사일 또 베트남 가서 구경 자라구 하노예니 잘 가서 보구 또 이 마으레서 우리 저 장가게 가지구 해서 육박치리를 장가게

<우리 집 애들 아빠 동갑 환갑 여행으로 북경 갔다와가지고, 또 서울에 또 저 양반이 모임이 많아서, 또 서울 친구들이 베트남 가자고 삼박사일 또 베트남 가서 구경 잘 하구 하노이니 잘 가서 보고 또 이 마을에서 우리 저 장가게 가자고 해서 육박칠일을 장가게>

배기십 오마원씨글 낸나? 딱카니 계림 탁 가니까 사니더라구, 계림 가서 거기서 저 그 이튼날 장가게 가지구 장가게 서주라는데 거기 가서 그 인저 올 때는 잘 안 나는디 저 백뚜산까지 가서 시가니 엄서서 백뚜사는 목까구, 서울 강남만치 좋은 나라여 거기서 예 중구게.

<백이십오만원씩을 냈나? 딱하니 계림 탁 가니까 산이더라구. 계림 가서 거기서 저 그 이튼날 장가게 가지고 장가게 서주라는데 거기 가서

그 이제 올 때는 잘 안 나는데 저 백두산까지 가서 시간이 없어서 백두산은 못 가고, 서울 강남만치 좋은 나라여 거기서 예 중국에.>

조사자 : 거기 가셨으면 상해인가보네요?

<거기 가셨으면 상해인가 보네요?>

제보자 : 상해 상해게비네. 네 나라 네 간데 거쳐서, 세상에 장가게 가니까 다행히 나는 우리집이랑 다 시계차고, 시계가 뱅기 공항 뱅기 공항에서 시계 하나가 안 걸려있써, 시계가. 그릉게 참 장가게는 그러구요.

<상해 상해인가보네 네 나라네 군데 거쳐서, 세상에 장가게 가니까 다행히 나는 우리집이랑 다 시계차고, 시계가 비행기 공항 비행기 공항에 시계 하나가 안 걸려 있어, 시계가. 그러니까 참 장가게는 그렇고요.>

또 이 마을 또 계에서 운 좋게 금강산도 갔다 왔써요. 예 금강산 거가서 딱 갔다 오는데, 간는데, 그때 우리가 갔따 오구선 어떤 여자가 갔따 와서 잘못 되 가지구 못 가게 되.

<또 이 마을 또 계에서 운 좋게 금강산도 갔다 왔어요. 예 금강산 거기 가서 딱 갔다 오는데, 갔는데, 그때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여자가 갔다 와서 잘못 되가지고 못 가게 되>

여수를 좋아서 가유. 여수가 목포 자랑하구 순치나구 꽃방라피 부산도 열 뼈는 갔어. 친구들 모이매서 또 가구 또 가구 인저 나이 머궁게 기차서두 타면 하린돼서 싸더라구. 네시가면 숙박뚜 오마 월짜리 방두 네시나 다서시 가서 자면 부담 별로 없꼬

<여수를 좋아서 가유 여수가서 목포 자랑하고 순천하고 꽃박람회 부산도 열 번은 갔어 친구들 모임해서 또 가구 또 가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차서두 타면 할인돼서 싸더라고 넷이 가면 숙박도 오만원짜리 방도 넷이나 다섯이 가서 자면 부담 별로 없고>

조사자 : 칭구드른 다 이 동네 분드리세요? 예전 고향 칭구들 ?

<친구들은 다 이 동네 분들이세요? 예전 고향 친구들?>

제보자 : 대저니유 대전 칭구들. 탑꼬레서 큰 탑똥에서 큰 이동네도 계모이미 음력 예엿세나리면 보름날 달밭가서유. 계를 해가지구요. 자금 지금 마니 독또를 갈까 울릉도를 갈까 하하 이심명계구 저는 모이를 자라자나. 그저 만나면 우리 오디 안가 가자구 그려

<대전이요 대전 친구들. 탑골에서 큰 탑동에서 큰 이 동네도 계모임 이 음력 열엿새날이면 보름날 달 밝아서요. 계를 해 가지구요. 자금 지금 많이 독도를 갈까 울릉도를 갈까 하하 이심명계고 저는 모임을 잘 하잖아. 그저 만나면 우리 어디 안가 가자구 그려>

이 나이여두 수박 하우스 마능계, 절른 사람드른 따닐 항계, 노인네드리 히플 안 드리고 안자서 순만 따면 되게유, 아 으른드리 오마닐씩 버르면 열흐리면 오십마닐이면 스무나리면 뱅마닐니여. 손자들 용돈도 주고 아들들도 오면 지름까비래두 주면 다 좋타지, 주는 건 받구 또 나두 주구 상부상주요.

<이 나이에도 수박 하우스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탄 일 하니까, 노인네들이 힘을 안 들이구 앉아서 순만 따면 되니까요, 아 어른들이 오만원씩 벌면 열흘이면 오십만원이면 스무날이면 백만원이여. 손자들 용돈도 주고 아들들도 오면 기름 값이라도 주면 다 좋다지, 주는 건 받고 또 나도 주고 상부상조요.>

조사자 : 옛날부터 미싱하셨자나요? 그거 갖꼬 계세요?

<옛날부터 미싱하셨잖아요? 그거 갖고 계세요?>

제보자 : 예, 있써유.

<예, 있어요.>

조사자 : 발트리자나요?

<발틀이잖아요?>

제보자 : 예 발트리에유 지그른 바느질도 그러구, 지그른 바금만. 이
렇거 사서 항게 바느질두

<예 발틀이에요 지금은 바느질도 그렇고, 지금은 박음만. 이런 거
사서 하니까 바느질도>

따리 그려, 엄마가 인저 집 짓꾸 이런 살림 드려오구. 옛날 시
지불 때 그 아버지가 쌀 일곱까마를 사가지구 사 준 농 돼지켜서
나 파른 도니루 솜 사구 이불 껍떼뜨면 딸 잘 산다구서 이불 항거,
따리 그래, 엄마 이제 오래 되쓰니 이불 갔다, 아녀 니들 잘 키운
이부리니 엄마 죽결랑 금방 버려. 농 속 지키면서 양다니불 아버지
가 주고 산 돈 가운데 안 버려, 엄마 죽결랑 그거 버릴라면 하루도
씩 버려. 살림 그 미싱도 그냥 있써

<딸이 그려 엄마가 이제 집 짓고 이런 살림은 들어 오고. 옛날 시집 올
때 그 아버지가 쌀 일곱 가마를 사가지구 사 준 농 돼지 키워서 판 돈으로
솜 사구 이불 껍떼기 뜨면 딸 잘산다고 해서 이불 한거, 딸이 그래, 엄마
이제 오래 됐으니 이불 갔다, 아냐 너희들 잘 키운 이불이니 엄마 죽거든
금방 버려. 농 속 지키면서 양단 이불 아버지가 주고 산 돈 가운데 안 버려,
엄마 죽거든 그거 버릴려면 하루도 싹 버려. 살림 그 미싱도 그냥 있어>

조사자 : 있써요? 발트리면 크자나요, 덩치가.

<있어요? 발틀이면 크잖아요, 덩치가.>

제보자 : 예 책상가트쥬 궁게 웬마난 커텐 가통거 제가 다라락 바가
서 다 치구 했췌써유. 자근 아드리 엄마 인제 그렇거 모태? 이렇게
해 준다면서, 그래 그래라

<예 책상같으쥬. 그러니까 웬 만한 커텐같은거 제가 다라락 박아서

다 치구 했었어요. 작은 아들이 엄마 이제 그런 거 못해? 이런 거 해준다면서, 그래 그래라>

조사자 : 근데 옷감 여러가지로 마니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아까 소창 얘기도 하셨는데, 애드리 옷까를 잘 모르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데 옷감 여러가지로 많이 만드셨을거 아니에요. 아까 소창 얘기도 하셨는데, 애들이 옷감을 잘 모르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보자 : 옷감, 우리 옛날 옷까를 저 광목, 광모근 무명 광모기고 인주 있꼬, 또 미루다니라는 비다니루 예 미루다니라능게 참 이쁘게 보메 나와, 사구 그 다메 양단 윗둥 다우다 다우다는 민짜지, 그냥 다우다 다우다 명지 비스르만 다우다, 뽀라라구 또 있췌셔요. 뽀라, 뽀라라는 옛날 그게 아늑카니 면 가트면서두 그게 뽀라 치마저고리 해 이브면 아이구 잘 해 이벗다 소리 들꾸.

<옷감 우리 옛날 옷감은 저 광목 광목은 무명 광목이구 인주²¹⁾ 있고 또 미루단²²⁾이라는 비단으로 예 미루단이라는 게 참 예쁘게 봄에 나와 사구 그 다음에 양단²³⁾ 뉴똥²⁴⁾ 다우다²⁵⁾, 다우다는 민짜지 그냥 다우다 다우다 명주 비슷한 다우다 뽀라²⁶⁾라구 또 있었어요. 뽀라 뽀라라는 옛날 그게 아늑하니 면 같으면서도 그게 뽀라 치마저고리 해 입으면 아이고 잘 해 입었다 소리 듣고>

21) 인조견(人造絹)의 지역어.

22) 누에실로 짠 비단의 일종.

23) 은실이나 색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놓고 겹으로 두겹게 짠 고급 비단.

24) 명주실로 짠 옷감의 하나.

25) 얇고 광택이 나는 평직 견직물. 서양의 태피타(taffeta)를 말함.

26) 인조견의 일종. 인견 포털(poral)을 말함.

조사자 : 여름에는?

<여름에는?>

제보자 : 여름, 예, 모시 삼베 명주 우리 할머니 때는 누에를 키우셔서
뽕니플 머겨서 누에를 키우셔서 지베서두 누에 시를 뽕브셨써 기계
루.

<여름, 예, 모시 삼베 명주 우리 할머니 때는 누에를 키우셔서 뽕잎
을 먹여서 누에를 키우셔서 집에서 누에 실을 뽑으셨어 기계루.>

조사자 :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제보자 : 저는 그렇거 아냈어요. 소창 베만 뜨고 모콧 따다 그 솜 맨드
러서 명을 명을 실 빼는 걸 실 빼서 베틀로다, 지금 다 모시 베 짜든
명 해서, 아버지 바지 저고리 그런 무명 옷 무명옷 옛날

<저는 그런 거 안했어요 소창 베만 뜨고 목화 따다 그 솜 만들어서
명을 명을 실 빼는 걸 실 빼서 베틀로다, 지금 다 모시 베 짜듯 명 해서
아버지 바지 저고리 그런 무명 옷 무명 옷 옛날 말로 저는 명만 잣다 그거
않고 공장을 다니면서 기켓베를 짜고.>

조사자 : 그때 아주머니 칭구드른 지베서 하는 사람도 인나요? 거의
다 공장으로 간나요?

<그때 아주머니 친구들은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거의 다 공
장으로 갔나요?>

제보자 : 저는 여깁게 공장도 가구 미용하권도 갔찌. 탑꼴 그 가치 고
향에서 큰 애드른뉴 모시를 짜구 개더른 모시두 하구 무명도 해서
베도 짜구 시아버니 실랑이니 두루마기니 바느질 다 했써요.

<저는 여기이니까 공장도 가고 미용학원도 갔찌. 탑꼴 그 같이 고향

에서 큰 애들은요 모시를 짜고 그 아이들은 모시도 하고 무명도 해서 베도 짜고 시아버니 신랑이니 두루마기니 바느질 다 했어요.>

저는 공장 댕겨서 버러 가지구 참 뽀라라구, 그리고 뽀뽀노끄니 떠 가지구 바느질 쟁이로다 이쁘게 해 달라구 맞춰서 쫄끔 처녀 때두 처녀때 베루도를 이벗써. 업씨 사랏서도 지가 아버지한테도 돈 안썼구 실랑한티두 내가 오히려 해서 사게 했찌 누구한테 도늘 타 써보덜 아냈어.

<저는 공장 다녀서 벌어 가지고 참 뽀라라고, 그리고 뽀뽀노끄니 떠 가지고 바느질쟁이에게 예쁘게 해 달라구 맞춰서 쫄 처녀 때도 처녀 때 비로도²⁷⁾를 입었어. 없이 살았어도 제가 아버지한테도 돈 안썼고 신랑한테도 내가 오히려 해서 사게 했찌 누구한테 돈을 타서 써보지를 았았어.>

조사자 : 사어블 하셨으면 크게 하셨겠네요.

<사업을 하셨으면 크게 하셨겠네요.>

제보자 : 그러지 아내두 서우레서두 서울대학 드러스는데 그걸 사가지구요 쌀가게를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글 했써유. 쌀가게를 여기다 하면 우리 논산쌀 조니까 쌀가게를 하고 시플 차에 여려서평 지블 살 차에 예상하다, 시누남편 대전 오는 바라메 참 모다구서 뒤에 두 우리 친정 자그나버지가 참 재순이 너는 시고롱게 아깝다 서울에서 장사할 타이비여 인상중코 장사타이빈디 어치게 농사를, 자그나버지 그런 소리마유 내가 딸기농사를 저도 잘 짓꾸 허허허.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도 서울대학 들어서는데 그걸 사가지구요 쌀 가게를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쌀 가게를 여기다 하면 우리 논산 쌀 좋으니까 쌀 가게를 하고 싶을 차에 열 여섯평 집을 살 차에 예상하다, 시누 남편 대전 오는 바람에 참 못 하고서 뒤에도 우리 친정

27) 비로드(veludo). 짧고 고운 털이 촘촘히 심어진 직물.

작은아버지가 참 재순이 너는 시골 온 게 아깝다 서울에서 장사할 타입이
여 인상 좋고 장사타입인데 어떻게 농사를, 작은아버지 그런 소리 마요
내가 딸기농사를 쳐도 잘 짓고 허허허.>

조사자 : 실림동에서 그때 자리 잡았으면 굉장했을텐데요.

<신림동에서 그때 자리 잡았으면 굉장했을텐데요.>

제보자 : 그러게유 그리고 참 얼마 저네 서울대학교서 겨로난다구 해
서 서울대학교를 가보니까 참 그 실림동에서 사늘 도자가 밀구 포
크레드로 팔 때 생가게 참 어마낭창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서 결혼한다고 해서 서
울대학교를 가보니까 참 그 신림동에서 산을 도자가 밀구 포크레인으로
팔 때 생각에 참 어마어마하고>

조사자 : 혹시 이 마으레 마으라구 관련된 전서리나 이렇게 있습니
까? 이 마으레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얘기가 인나요?

<혹시 이 마을에 마을하고 관련된 전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마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얘기가 있나요?>

제보자 : 이 마으레 전서른 저놔버노에 나완는디여 성동며네 마으레
전서를 조합짱이 이렇게 자기 채글 내므는 마으레 전서리 이 마으
른 엄는거 가타유.

<이 마을에 전설은 전화번호에 나왔는데 성동면에 마을에 전설을
조합짱이 이렇게 자기 책을 내면 마을의 전설이 이 마을은 없는 것 같아
요.>

저꼬게는 은행나무가 오뱅녀니 되구 오디는 이 월썩 월썩리는
뽕러 그러나 항거 가튼디, 여기가 월썩리라구 바루 옛나린 상리라
구 했써. 상리 부락 상리부라기라구 했따구 하구 이 고개 너머는
여수들이 마니이 사랏때유.

<저쪽에는 은행나무가 오백년이 되고 어디는 이 월성 월성리는 뭐라고
그러나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월성리라고 바로 옛날엔 상리라고 했어. 상리
부락 상리부락이라고 했다고 하고 이 고개 넘어서 여우들이 많이 살았대
요.>

조사자 : 여수요?

<여우요?>

제보자 : 예 짐승, 여수 여수 이 고개가 열 살때 이사오니까 요마난 길
뱃살 등찌매서 지물 지고 오는 그 사라미나 올라 리아까 하나가 못
가게 생겼어.

<예 짐승 여우 여우 이 고개가 열 살때 이사오니까 요만한길 뱃살
등짐 해서 짐을 지고 오는 그 사람이나 올라 리어카 하나가 못 가게 생겼
어.>

지금가트면 장비가 여간 좋아유? 그때는 새마을사어비라구 동
네 막 아버지 연갑뜨리 꼭깁이루 바위를 파 내구 다시 끄러서 리아
까라구 있지 리아까, 그걸 다니니까 지게지고 다니다가 그건만 땡
겨두 감사하다능겨여. 참 좋타구. 얼마 그 새마을 사어블 하니까
경운기가 다 쓰네. 지그른 저리 소막 돼지막 인는데 큰 사료차가
들랑날랑하여 이견마내도 얼마나 좋아전나 하하하하.

<지금 같으면 장비가 여간 좋아요 그때는 새마을사업이라고 동네 막
아버지 연갑들이 꼭깁이루 바위를 파내구 다시 끓어서 리어카라고 있지
리어카, 그걸 다니니까 지게 지고 다니다가 그것만 다녀도 감사하다는거
여. 참 좋다고. 얼마 그 새마을 사업을 하니까 경운기가 다 쓰네 지금은
저리 소막 돼지막 있는데 큰 사료차가 들랑날랑하여 이것만해도 얼마나
좋아졌나 하하하하>

조사자 : 여숫꼬개가 여기서 멩가요?

<여숫고개가 여기서 멩가요?>

제보자 : 여기가 여수너머라구요, 이 고개가 여수고개라구, 저기서 너댓짜나 여수너머 경희엄마 여수너머 경희네 여기보고 여수너머 라고 했써. 여수너머라구 하구 또 마우리 전서른

<여기가 여수넘어라구요, 이 고개가 여수고개라구, 저기서 넘었잖아 여수넘어 경희엄마 여수넘어 경희네 여기보고 여수넘어라고 했어. 여수넘어라구 하구 또 마을의 전설은>

저 미티는 해가 뜬다고 해서 해뜸부락, 또 사치니라는디는 저 뜨른 사치니, 여기는 여수너머 또 여 구탕이는 부지자나 한 구서께 가시라구 구렁모 또 저쪽 등너머는 재실

<저 밑에는 해가 뜬다고 해서 해뜸부락, 또 사친이라는 데는 저 뜬은 사친이, 여기는 여수넘어 또 여 귀통이는 부지잖아 한 구석에 가장자리라고 구렁모 또 저쪽 등넘어는 재실>

재실이 뭇가 또 거기가 재각 있써요. 제 지는 재가 있써서 재실, 여운천 시의원 사는디는 옛날에 거기가 방주기였대요 방죽 있 썼자나. 집 몇가구 사는디 세집싸나 거기가는 방주간, 예 거기는 마을에두 뜸뜸 부르는 이르미 달릅뜨라구요.

<재실이 뭇가 또 거기가 재각 있어요. 제사지는 재가 있어서 재실, 여운천 시의원 사는 데는 옛날에 거기가 방죽이였대요 방죽 있었잖아. 집 몇가구 사는디 세집 사나 거기 가장자리는 방죽안, 예 거기는 마을에도 뜸뜸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조사자 : 뜨미 뭐예요

<뜸이 뭐예요>

제보자 : 그렇게 왜 뜨미라구 하나 그쪽 뜸 저쪽 뜸 마라자면 지금 마라면 월썰리 부락 선상리 부락 옛날 어머님들 마리 뜸뜨마구,

<그러니까 왜 뜸이라구 하나 그쪽 뜸 저쪽 뜸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월성리 부락 선상리 부락 옛날 어머님들 말이 뚝뚝하구,>

지금은 강경이지나유? 옛날 할머니드른 갱갱장 갱갱장 왜 갱갱장 거기가 소그물 이구 배가 드러가 짜다는 소리가 짜문 왜 간간하다구 하자나유? 갱갱이 그렇게 옛날 어른드리

<지금은 강경이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은 갱갱장 갱갱장 왜 갱갱장 거기가 소금을 이고 배가 들어가 짜다는 소리가 짜면 왜 간간하다구 하잖아요? 갱갱이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조사자 : 논사는 왜 논사니죠.

<논산은 왜 논산이죠.>

제보자 : 그렇게 논사네는 노니 땅이 마나서 논사니라구 헨나? 그냥 논산서는 논사니다 옛날에는 놀피라구 했쎄. 놀피 놀피 논사니 아니라 놀피금고 놀피 놀피 놀피장에 앙가 그저네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무개택 놀피장 앙가, 그저네는 아무개택이라구 했쎄 석썩서 와쓰면 석썩택 부여서 왔쓰면 부여택

<그러니까 논산에는 논이 땅이 많아서 논산이라구 헨나? 그냥 논산서는 논산이다 옛날에는 놀피라구 했어 놀피 놀피 논산이 아니라 놀피금고 놀피 놀피 놀피장에 안가 그전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무개택 놀피장 안가, 그전에는 아무개택이라구 했지 석성서 왔으면 석성택 부여서 왔으면 부여택>

조사자 : 아주머니는 이사오셨쓰니까 대전때기예요? 부여때기예요?

<아주머니는 이사 오셨으니까 대전택이예요? 부여택이예요?>

제보자 : 저이 큰 데가 오층 타비 있어서 탑꼬리라고 항게 나보고 불릉라면 탑꼴때기라고 불르야 하느디 본촌때기라 그래 본동네로 시집왔따구. 경희엄마는 본촌때기여 예예

<제가 큰 데가 오층탑이 있어요 탑골이라고 하니까 나보고 부를려면 탑골덩이라고 불러야하는데 본촌덩이라 그래 본동네로 시집왔다고. 경희엄마는 본촌덩이여 예예>

조사자 : 놀뢰장 가시고 그러셨쎄요

<놀뢰장 가시고 그러셨어오>

제보자 : 예 놀뢰장가고 강경장가구, 그저니는 쌀가통거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업쓰면 이고 시장에를 가야자나, 시장에를 가야 하구 가마니를 짜서 아버지드리 우선 당장 쓰는 아버지드른 파리아 쓰니까, 지게에다 대나무 꼬자기라구 있쎄요. 스무장씩 해서 논산장에 가서 팔구 오야 자녀들 공채기래두 사주고 연필 사주지 저는 다행히 애드리 다 어떻게 잘 놀기만 하면돼 건강하게 커줘서 감사하고

<예 놀뢰장가고 강경장가고, 그 전에는 쌀 같은 거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으면 이고 시장에를 가야 하잖아, 시장에를 가야 하구 가마니를 짜서 아버지들이 우선 당장 쓰는 아버지들은 팔아야 쓰니까 지게에다 대나무 꼬작²⁸⁾이라고 있어요. 스무장씩해서 논산장에 가서 팔구 와야 자녀들 공책이라도 사주고 연필 사주지 저는 다행히 애들이 다 어리니까 잘 놀기만 하면 돼 건강하게 커줘서 감사하고>

조사자 : 스무장씩 파세요?

<스무장씩 파세요?>

제보자 : 가마니 가마니가 스무장 해서 저는 짜서 아주 창고에다 무조건 싸놔다 가으레 그걸 꼬매가지고 해가지고 내면 한무게 쌀 여덟까마 아홉까마 한무게 자봤쎄요. 지금 마라면 조금조금 예그마드끼.

<가마니 가마니가 스무장해서 저는 짜서 아주 창고에다 무조건 싸놔다

28) 꼬작. 짐을 많이 지기위하여 지게의 윗부분에 덧세우는 나무 막대.

가을에 그걸 껌매 가지고 해가지고 내면 한몫에 쌀 여덟가마 아홉가마 한 몫에 잡았어요 지금 말하면 조금조금 예금하듯이>

지금두 이나이에 이다미 손주 대학갈때 손녀 대학갈때 할머니가 표시있씨 대학등록금미라고 주면 좋치 않을랑가 시퍼서 천만원짜리 삼년짜리 적꼬를 들었써유. 이시보마년씩 삼년,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이르므루 지 이르므루 해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

<지금도 이 나이에 이 다음에 손주 대학 갈 때 손녀 대학 갈 때 할머니가 표시있게 대학 등록금이라고 주면 좋지 않으려나 싶어서 천만원짜리 삼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이십오만원씩 삼년,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해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

따리 어치케 뒤져보다니 엄마 쓰셔 엄마는 돈 모이는데 도가 트고 천산디 뭐드러 또, 아들대학까지 가르키구 다 아파트 쪼그만거래두 어더 주고 대학 졸업하면 차를 사줘야 일파는 차를 사줘야 자취를 하던 타고 다니고 그 다음 또 결혼시킴게 그미난 아파트라도 해줘야하구.

<딸이 어떻게 뒤져보다가 엄마 쓰셔 엄마는 돈 모으는데 도가 트고 천사인데 뭐하러 또, 아들 대학까지 가르키구 다 아파트 쪼그만거래라도 얻어주고 대학 졸업하면 차를 사줘야 일단은 차를 사줘야 자취를 하던 타고 다니고 그 다음 또 결혼시키니까 쪼그마한 아파트라도 해 줘야 하고.>

조사자 : 아니 그건 부모가 하겠쥬?

<아니 그건 부모가 하겠쥬?>

제보자 : 하겠쥬, 그렇게, 따리 마려, 엄마 어러니 할까봐 아빠 엄마 마신능거나 사잡수쥬 여행가랴. 아랏따 하구서, 엄마 엄마가 도는 쓸라면 애 니들 나데리꾸 여행가자 내가 다 일스불 덴다 오뱅마뉘니고 삼뱅마뉘니구 그렇게 쓰자.

<하겠지요, 그렇게, 딸이 말 해요, 엄마 어러니 할까봐 아빠 엄마

맛있는 거나 사 잡수고 여행가래. 알았다 하고서, 엄마엄마가 돈을 쓸려면 애 너희 나 데리고 여행가자 내가 다 일습을 댄다 오백만원이고 삼백만원 이고 그렇게 쓰자.>

지금 하나씩 둔 엄마가 대학 갈 경비 아내났간냐능거 똑또개서 저축 다해놓코선, 공계 저는 할머니루써 이다메라두 그래두 우리 할머니가 나이들었써두 대학 나 드러가는데 할머니가 등록금 다 댄다 이제 기억 쏘게 나물라나 해구서, 아직 주진 아났써 일년육개월 월 드루갔어요

<지금 하나씩 둔 엄마가 대학 갈 경비 안 해 놓았겠어요 똑똑해서 저축 다해 놓고선,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로써 이 다음에라도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나이들었어도 대학 나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등록금 다 댄다 이제 기억 속에 남을려나 하고서, 아직 주진 않았어 일년육개월 들어 갔어요.>

조사자 : 아이고 대다나세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제보자 : 나 보문사에서 송미여과니라는 질 큰 여과나페 따래 손 불 째꼬 이자아드래 애 업꾸 있쓰면, 토요일이면 미어져 보문산가능게 대전 시내 사람 다 공원 보문산 공워늘 또 가더라구유 허허허.

<나 보문산에서 송미여관이라는 제일 큰 여관 앞에 딸애 손 불잡고 이제 아들애 업구 있으면, 토요일이면 메어져 보문산가능게 대전 시내사람 다 공원 보문산공원을 또 가더라구요 허허허>

조사자 : 어렸을 때 사시던 데가 탐꼐? 거기는 무슨 타비 인나요?

<어렸을 때 사시던 데가 탐골? 거기는 무슨 탐이 인가요?>

제보자 : 타비 있써유 오층 타비 있써유. 탐꼐 탐꼐 현내리 탐똥 탐꼬 리에유.

<탐이 있어요 오층 탐이 있어요. 탐골 탐골 현내리 탐똥 탐골이에요.>

조사자 : 지금도 인나요?
<지금도 있나요?>

제보자 : 타비 있쥬.
<탑이 있쥬.>

조사자 : 옛날 이야기 가통건 없꾸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건 없꾸요?>

제보자 : 그렇게요 옛날 전서리 그렇게, 탑꼴만 알구 거기가 지가 함평 이간데 그 하라부지가 승지를 하셨따네벼, 이승지 이승지하면 그 탑꼴 탑꼴 근동 땅 이승지 하라버지 땅이였고 그 재산 땅을 아까 지말대로 선제 사니라구 일년 그 사능걸 옛날에는 쳐먹고 도지를 냈다네. 세금처럼, 그 하라버지 그때 땅을 마니 사셔 가지구 도지 바등게 음는 사람 다 살링거지 쳐먹고 얼마 내라.

<그렇게요 옛날 전설이 그러니까, 탑꼴만 알고 거기가 제가 함평 이가인데 그 할아버지가 승지를 하셨다나 봐요, 이승지 이승지하면 그 탑꼴 탑꼴 근동 땅 이승지 할아버지 땅이였고 그 재산 땅을 아까 제말대로 선제 사니라구 일년 그 사는 걸 옛날에는 지어 먹고 도지를 냈다네. 세금처럼, 그 할아버지 그 때 땅을 많이 사셔 가지구 도지 받으니까 없는 사람 다 살린 거지 지어 먹고 얼마 내라.>

그 저 어렸을땐 이승지 할아버지 정문까지는, 지그문 정무니 없 써징거 가타유. 저 어려서 학교 다니구 쪼끔 클때는 정무니 있써가지구 정문 다미루 잘 해노면 문가통거 잘 건들지 마라 기스난다 정문거리는 갱장히 큰 할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기억을 하구 있써유.

<그저 어렸을 때는 이승지 할아버지 정문까지는, 지금은 정문이 없어 진거 같아요. 저 어려서 학교 다니구 조금 클 때는 정문이 있어 가지고

정문 담으로 잘 해 놓으면 문 같은거 잘 건들지 마라 흠집난다 정문거리는 굉장히 큰 할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디 이 월성리 부리근 그냥 월명사니 여기 죽 올라가면 월명산 월명공워니 있써서 월명산, 그걸 아네 그걸 전서리 뭐라구 했나 하하하 그렇게 왜,

<그런데 이 월성리 부락은 그냥 월명산이 여기 죽 올라가면 월명산 월명공원이 있어서 월명산, 그걸 아네 그걸 전설이 뭐라구 했나 하하하 그러니까 왜,>

조사자 : 아까 옷감 이야기도 마니 하시고 오솔 직첩 미싱으로 만드실거죠? 만들진 아느냐?

<아까 옷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옷을 직접 미싱으로 만드신거죠? 만들진 않으셨나?>

제보자 : 박꾸했찌만 지가 솜씨 좋케 이쁘게 저기는 모뎀쎄요. 이쁘게 멋찌게 오시라두 이브면 바느질쟁이 이쥌마드리 있쎄자나유? 치마 가통거 훔창 가통거 들들들 방는건 가운데 방에 지금 잘 모셔 있쎄요.

<박고했지만 제가 솜씨 좋게 예쁘게 저기는 못 했어요. 예쁘게 멋지게 옷이라두 입으면 바느질쟁이 아쥌마들이 있었잖아요? 치마 같은거 훔창 같은거 들들들 박는 건 가운데 방에 지금 잘 모셔있어요.>

애드리 이쎄른 이렇건 엄마 이제 버리자너, 엄마는 그렇거 추어 그로, 그래도 결혼 때 없써두 미싱을 해 오구 이부를 너더넛채 해 오구 혼수 자래 왔따 소리 들었쎄유.

<애들이 이쎄른 이런 건 엄마 이제 버리잖어, 엄마는 그런 거 추억으로 그래도 결혼 때 없어도 미싱을 해 오고 이부를 너더넛채 해오고 혼수 잘 해 왔다 소리 들었어요. >

처녀 때 서울서 그래두 버렸쓰니까 지가 버렸쓰니까 딴 친구들

여라흙 스무레 누가 시집 갔따구 어뜨케 혼수는 해갔꾸 갔따. 뭘 혼수여 싸 데려갔찌 몸만 갔따는 뜻이여.

<처녀 때 서울서 그래도 벌었으니까 제가 벌었으니까 딴 친구들 열아흙 스물에 누가 시집갔다고 어떻게 혼수는 해 가지고 갔대. 뭘 혼수여 싸 데려 갔지 몸만 갔다는 뜻이여.>

아이구 개 바보다. 아이 서우워서 공장 기수리 읍써서 베 못 짜도 뭘 싱모라도 사라서 월급 받아서 뗏뗏타게 해 가꾸 시지블가지 뭘 더러 시집만 일찍 갔때 하구 송으로 알았거던뇨. 야중 생각강게 그 사라미 더 자랑거 가통겨. 일찍 겨로내서 가정을 갖고 자녀드리 크자나, 겨론 늦게 하면 암마대두 재산 모이능게 어려웁가 싶쥬.

<아이구 개 바보다. 아이 서울 와서 공장 기술이 없어서 베 못 짜두 뭘 식모라도 살아서 월급 받아서 뗏뗏하게 해 가지고 시집을 가지 무엇하러 시집만 일찍 갔대 하구 흥으로 알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더 잘 한 거 같은 거예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들이 크잖아, 결혼 늦게 하면 아무래도 재산 모으는게 어려운가 싶쥬.>

조사자 : 다복카게 사셨네요 사시기를.

<다복하게 사셨네요 사시기를.>

제보자 : 그렇게 친정아버지가 저 열세살 머거서 이 마으레 정기가 드리 왔서유. 등자니나 초롱불 서규 너가꾸 키다가 정기회사에서 우리아버지가 똑똑카게를 봤나 부락 이장니미 똑똑카게 봤나 우리 아버지가 이 마으레 전기세를 받는 양마니 됐섯쥬. 이 마으레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저 열세살 먹어서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 왔어요. 등잔이나 초롱불 석유 넣어 가지고 키다가 전기회사에서 우리 아버지가 똑똑카게를 봤나 부락 이장님이 똑똑카게 봤나 우리 아버지가 이 마을에 전기세를 받는 양반이 됐었어. 이 마을에는,>

아버지가 바빠서 이라시느라 모다실때는 저거 줘유. 누구네 누

구네 지가 누구네 누구네 내가 아버지가 바쁘게 쪼르르 가서 전기
세 용지하구 전기세 달라가면 주면 그 용지다 싸구 그 용지다 싸구
하니까, 배겨호 돼두 우리집 실랑은 여기서 컷써두 누구네 지비
어떤지 누구네 지빙가를 몰랐써유.

<아버지가 바빠서 일 하시느라 못 하실 때는 적어 줘요 누구네 누구네
제가 누구네 누구네 내가 아버지가 바쁘니까 쪼르르 가서 전기세 용지하
구 전기세 달라고 하면 주면 그 용지에다 싸구 그 용지다 싸구 하니까,
백여 호 돼도 우리집 실랑은 여기서 컷어도 누구네 집이 어떤지 누구네
집인가를 몰랐어요.>

조사자 : 마자요. 그건 부녀회장님드리 다 아라요.

<맞아요. 그건 부녀회장님들이 다 알아요.>

제보자 : 저는 어렸을 때도 누구네 지비 기라능걸 어렸을 때 열세살
때 정기 드러왔쓰니까, 그래도 그 정기세를 다 바등게 누구 엄마가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누구네 집이 그렇다는걸 어렸을 때 열세살 때
전기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그 전기세를 다 받으니까 누구 엄마가 누군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이 누구네 집 좀 찾겠썬니다. 예 저만 따라와요 모셔
다 드렸써. 하하하 그게 지금두 이 고개 저런데서 사리차가 평택서
도 오고 수원서도 오고 큰 사리차가 드뤄요. 아주머니 말 좀 묻겐
네, 아이 유덕환씨네 우사가 어디유? 읍로 가시라구, 누구네 고오
맷다구 그래서 그래 알으니까.

<누가 와서 아이 누구네 집 좀 찾겠썬니다. 예 저만 따라와요. 모셔다
드렸어. 하하하 그게 지금도 이 고개 저런 데서 사료차가 평택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큰 사료차가 들어와요 아주머니 말 좀 묻겐네, 아이 유덕
환씨네 우사가 어디유? 여기로 가시라고, 누구네 고맙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까.>

조사자 : 요새는 다 기계가 가르쳐 주니까.

<요새는 다 기계가 가르쳐 주니까.>

제보자 : 또 그묘이리 요 구치소가 요깃짜나, 구치소 면회를 그묘일 날 오나, 가마이 보면 막 조은 자가용이니 아가씨니 둘 남자 서너씩 저리 가유. 갔따 되 도라오면 아유 아주머니 말 좀 묻겠쎬요. 네비 게이셔늘 찍꼬 완는디 네비가 이리 알려 주더래요. 여기가 뒤니까 아이 잘못 왔따구 다시 아페 나가서 쪽 가가지고 부여 가는 도로로 가다 드러가면, 고맙따구 그거 찌그면 일리 알려 준대요. 이 뒤로 누니 없쎬게.

<또 금요일이 요 구치소가 여기 있잖아, 구치소 면회를 금요일날 오나 가만히 보면 막 좋은 자가용이니 아가씨니 둘 남자 서너씩 저리 가요. 갔다 되 돌아오면 아유 아주머니 말 좀 묻겠어유. 내비게이션을 찍고 왔는데 내비가 이리 알려 주더래요. 여기가 뒤니까 아이 잘못 왔다고 다시 앞에 나가서 쪽 가가지고 부여 가는 도로로 가다 들어가면, 고맙다구 그거 찍으면 이리 알려 준대요. 이 뒤로 눈이 없으니까.>

조사자 : 구치소에는 사라미 마니 가쳐 인나요?

<구치소에는 사람이 많이 갈혀 있나요?>

제보자 : 우리 동네 사라문 구치소를 간적도 읍꼬, 구치소라는 디는 안 가 봐쎬요. 여기서 보면 토요일가튼 때는 노래도 부르고 서우룬 동장처럼 정기다마가 있쎬서 바메 체육또 하나 운동도 하나 푸져요. 구치소 담만 보고 살지 아네 들어가 보들 아냈쎬, 예 앙가 봤쎬유

<우리 동네 사람은 구치소를 간 적도 없고, 구치소라는 데는 안 가 봤어유, 여기서 보면 토요일 같은 때는 노래도 부르고 서울운동장처럼 전구가 있어서 밤에 체육도 하나 운동도 하나 푸져요. 구치소 담만 보고

살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안 했어, 예 안 가 봤어요.>

조사자 :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사셨는데 어렸을 때는 놀이가튼건 뭐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사셨는데 어렸을 때는 놀이같은건 뭐 하세요?>

제보자 : 예 공기노리 공기노리 하구 우리들 클 때는 그 일본사람드란테 우리나라 땅을 빼셨으게 땅뺏기라고 있셨쎄요. 네모 뺏뜨다 게 그리물 그려 놓코 저 밥끄룻 이런 깨징걸 반들반들항거를 텅겨 가꾸서 해서 내 지비 드러오면, 땅따먹기 땅따먹기.

<예 공기놀이 공기놀이 하고 우리들 클 때는 그 일본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땅을 뺏었으게 땅뺏기라고 있었어요. 네모 반듯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저 밥끄룻 이런 깨진 걸 반들반들한 것을 텅겨 가지고 해서 내 집에 들어 오면, 땅따먹기 땅따먹기,>

도맛때라구 저 도맛때라고 막때기 이렇게 하구서 팍 때리면 나가서나 그걸 던지면 그 사라미이 짜끔 던지면 지금 야구시깡가봐. 그 사라미 짜끔 시키면 내 땅을 마니 차지하구 그 사라물 거짐 내 집까지 드러오면 내가 짜끄매지 땅을, 땅따먹기.

<도맛대²⁹⁾라고 저 도맛대라고 막대기 이렇게 하고서 팍 때리면 나가서 그걸 던지면 그 사람이 조금 던지면 지금 야구식인가봐. 그 사람이 조금 시키면 내 땅을 많이 차지하구 그 사람을 거의 내 집까지 들어오면 내가 조그만해지지 땅을 땅따먹기>

공기두 그르케 해가지고 공깃뿔 마니 따야 그게 재사니자나. 한번 씩 하는 사라물 마니 따놓코 모다는 사라문 짜끔따구.

<공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깃돌 많이 따야 그게 재산이잖아. 한번 씩

29) 자치기의 지역어.

하는 사람을 많이 따놓고 못 하는 사람은 조금 따고.>

조사자 : 공깃돌 마니 갖꼬 하능게 있꼬 또 다섯개 갖고,
<공깃돌 많이 갖고 하는 게 있고 또 다섯개 갖고,>

제보자 : 다섯 개 갖꾸 다섯 개 갖꾸 했써. 우리는 그저니 그것 보고
비지공기라구 마니 주서다가 마니 따먹게 했써요. 이런 애는 엄꾸
마니 열씨미 딴 애드른 마니 따구

<다섯 개 갖고 다섯 개 갖고 했어. 우리는 그 전에 그것보고 비지공
기라고 많이 주워 다가 많이 따먹게 했어요. 이런 애는 없고 많이 열심히
딴 애들은 많이 따고.>

조사자 : 남자들도 공기 하나요? 여자드른 제기 아나고요?
<남자들도 공기 하나요? 여자들은 제기 안하고요?>

제보자 : 남자드른 그걸 하나? 남자드른 제기 차지유. 제기 제기놀이
아냈써유. 암컷또 우리 클 때는 늘 떠능게 유행이었써

<남자들은 그걸 하나? 남자들은 제기 차지요. 제기 제기놀이 안
했어요. 아무 것도 우리 클 때는 널 뛰는 게 유행이었어>

송판 판판한 질게 있쓰면 그기다 벗찌브로 둥굴게 아버지드리
해 줘유. 옛날 궁저네서 했따딩가 아가씨더리 우라네서만 크게 바
끼를 어치케 보나? 도련니를 어뜨케 보나 시퍼서 늘 뛰면 팍 뛰면
바끼를 내다봤떠라 하더라구유.

<송판 판판한 길게 있으면 거기다 벗짚으로 둥글게 아버지들이 해 줘
유. 옛날 궁전에서 했다던가 아가씨들이 울안에서만 크니까 밖을 어떻
게 보나? 도련님을 어떻게 보나 싶어서 널 뛰면 팍 뛰면 밖을 내다봤더라
하더라고요.>

그러게 도련님드른 바깥마당에서 제기차구 그렇거 하구 놓고
그 얘기.

<그러니까 도련님들은 바깥 마당에서 제기차구 그런거 하구 놀고 그 얘기.>

조사자 : 그네

<그네>

제보자 : 그네, 이쪼게 팽나무라고 있꼬 저쪼게 처녀 때 버드나무가 있췌췌유. 그리고 버드나무도 가지가 이렇게 된디다 동아줄 트러 갓꾸 그네루 하구 오월 다노나리면 마악 아가씨드른 서쪼게서 이렇게 타구 총각드른 마라자면 동쪽 퍼느루 그네 띠다보면 얼구른 마주 볼 정도였췌.

<그네 이쪽에 팽나무라고 있고 저쪽에 처녀 때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도 가지가 이렇게 된데다 동아줄 틀어 가지고 그네로 하고 오월 단오날이면 막 아가씨들은 서쪽에서 이렇게 타고 총각들은 말하자면 동쪽 편으로 그네 뛰다 보면 얼굴은 마주 볼 정도였어.>

가치는 그저네는 총각뜰 처녀들 저티만 있췌두 하라버지들 할머니드란테 호온났췌, 여내거를까 무섭따구 갱장히 주의를 했췌. 그렇게 이 그네 잘 타는 모미 개봉 사라문 파악카면 버드나무 이플이브로 따오고, 고모님 저보다 일곱 살 더 머근 고모님 머리를 따구 갑사 댕기를 드링게 그네 탈라면 댕기가 팔랑팔랑 그저 오월 다노나리 명절가뵈췌유. 그나른 앵두 따서 얼구레 바르고 상추에서 이슬 바다서 얼굴 곱따고 얼굴.

<같이는 그전에는 총각들 처녀들 곁에만 있어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 혼났어, 연애 걸을까 무섭다고 굉장히 주의를 했지. 그러니까 이 그네 잘 타는 몸이 가벼운 사람은 파악하면 버드나무 잎을 입으로 따오고, 고모님 저보다 일곱 살 더 먹은 고모님 머리를 따고 갑사 댕기를 드리니까 그네 탈라면 댕기가 팔랑팔랑 그저 오월 단오날이 명절같았어요. 그날은 앵두 따서 얼굴에 바르고 상추에서 이슬 받아서 얼굴 곱다고 얼굴.>

조사자 : 상추에서 이슬을 바다요?

<상추에서 이슬을 받아요?>

제보자 : 예 상추가 아침이면 이슬이 매달려유. 그러면 고모들 고모가 무슨 오모간 보새기 가튼데다 상추 따지 아는 채 털더라구요, 이슬이 내링겨. 그놈을 얼구레다 지그므로 마라자면 노선 바르드끼 싸악 발라사코, 하하 앵두나무 요때 앵두 앵두 터뜨려갓꾸 앵두 앵두무를 그냥 발르구

<예 상추가 아침이면 이슬이 매달려요. 그러면 고모들 고모가 무슨 오목한 보새기³⁰⁾ 같은 데다 상추 따지 않은 채 털더라구요, 이슬이 내린 거. 그놈을 얼굴에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로션 바르듯이 싸악 발라 싹고, 하하 앵두나무 요때 앵두 앵두 터뜨려 갓꾸 앵두 앵두물을 그냥 바르구.>

조사자 : 앵두패기네.

<앵두팩이네.>

제보자 : 앵두패기여 차하하하, 궁게 그 시저리 추어게 남쫘.

<앵두팩이여 차하하하, 그러니까 그 시절이 추억에 남쫘.>

뭐 테리비 있쓰니 테리비를 봐? 어찌다 부잣집뜨른 유성기라고 있써, 유성기 노래 나오는 그 유성기, 누구네 집 있따면 그 노랫소리 한따디 드를라구들 막 가서 듣꾸.

<뭐 텔레비전 있으니 테리비를 봐? 어찌다 부잣집들은 유성기라고 있어, 유성기 노래 나오는 그 유성기, 누구네 집에 있다면 그 노랫소리 한따디 들으려고 막 가서 듣고.>

조사자 : 여자드라고 남자 애드라고 노능게 줌 달란네요.

<여자들하고 남자 애들하고 노는 게 줌 달랐네요.>

30) 작은 그릇을 가리키는 지역어.

제보자 : 그렇게 우리지비는 요너머 살고 저는 여기 컷써두 저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가니 마냈구 그냥 아무개 크내비다 또 아무개 언니 크내비다 했찌. 또 만나 모른디 지가 나갔쓸때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보리 비는 일 밀 비는 일 마음씨가 어떤가 꾀꾀하게 잘 하나 하다 좀 못하나 해서 일이 잘 데려다 했때유

<그러니까 우리집 아저씨는 요 넘어 살고 저는 여기 컷어도 저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았고 그냥 아무개 크나 보다 또 아무개 언니 크나 보다 했찌. 또 맞나 모르는데 제가 나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보리 베는 일 밀 베는 일 마음씨가 어떤가 꾀꾀하게 잘 하나 하다 좀 못하나 해서 일이 잘 데려다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는 우리 사윗까므로 찌매농겨여 마라자면. 근디 군대 갔따 막 장교 오슬 입꾸 막 완는디 비까번쩍카니 멋찌더라구 멋찌기는. 하하하. 체격또 좋코 예 나보다 훨씬 잘 생겼쥬.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는 우리 사윗감으로 정해 놓은겨여 말하자면. 그런데 군대 갔다 막 장교 옷을 입구 막 왔는데 비까번쩍하니 멋찌더라구 멋찌기는. 하하하. 체격도 좋고 예 나보다 훨씬 잘 생겼쥬.>

궁게 좀 부모님 시어머니가 나를 갱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사윗감 아무리 서울 조은 총가있어두 싹타능겨 찌매났응게. 니가 이리 시집 안 가믄 너를 딸루 인정안켰다 아버지가 하시는데 어치게 아버지마를 드러야지.

<그러니까 좀 부모님 시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좋아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사윗감 아무리 서울 좋은 총각 있어두 싫다는 거요 정해 났으니까. 네가 이리 시집 안가면 너를 딸로 인정 안 하겠다 아버지가 하시는데 어떻게 해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사라보니까 과연 어른말 듣는게 잘 항거 가타요. 예 이때 사라서

아무리 좋은디 가서두 소주 석잔 위에는 절때 술 채서, 아까 그 존 수리란게요 쪼끔 있스면 산딸기가 있셔유. 유리병에다 담아 요즘 짝 임금니미 잡췌다고 딱 반주를 노란자네 드시지

<살아보니까 과연 어른말 듣는게 잘한 것 같아요. 예 이때 살아서 아무리 좋은디 가서도 소주 석잔 위에는 절때 술 취해, 아까 그 좋은 술이라는게 요 조금 있으면 산딸기가 있어요. 유리병에다 담아 요즘 짝 임금님이 잡췌다고 딱 반주를 노란 잔에 드시지>

조사자 : 보리도 비구 밀도 비구, 밀도 했습니까 이 마으레? 요즈믄 아나자나요?

<보리도 베고 밀도 베고, 밀도 했습니까 이 마을에? 요즘은 안 하잖 아요?>

제보자 : 지그믄 그렁거 안 가능겨. 친정 우리아버지가 질 때만 해두 밀도 있꾸 호미리라구 이렇게 크은 밀도 있췌셔유.

<지금은 그런 거 안 같아요. 친정 우리아버지가 지을 때만 해두 밀도 있고 호밀이라고 이렇게 큰 밀도 있었어요.>

조사자 : 옥수수나 이런 것도 했췌꺼 아니예요? 다른 곡씨근?

<옥수수나 이런 것도 했을 것 아니예요? 다른 곡식은?>

제보자 : 다른 곡씩, 그 당시 아버지 농사질 때는 바테다 콩도 심지만 거기다 깨도 드문드문 너서 참깨도 하고 수수라고 있췌 수수 수수 가키가 이렇게 커 가꼬 그 수수도 드문드문 녁코 좁쌀 조 췌간 조 조도 너서 한 바시래두 땅이 공기니 없었덩거 가타유. 콩 심었췌 수수 하나씩 넣어 쪼끈쪼끈 올랐췌.

<다른 곡식, 그 당시 아버지 농사지을 때는 밭에다 콩도 심지만 거기다 깨도 드문드문 넣어서 참깨도 하고 수수라고 있어 수수 수수가 키가 이렇게 커 가지고 그 수수도 드문드문 녁고 좁쌀 조 작은 조 조도 넣어서 한

밭이라도 땅이 공간이 없었던거 같아요, 콩 심었지 수수 하나씩 넣어 조곤 조곤 올랐지.>

지가 생각할 때 참 어른드리 지혜로우셨쎄. 차암 스석또 시뻘쎄, 스석또 따로 벼서 수수만 털구 수수만 또 따로 해서 목 벼 가지구 해구, 수수대궁은 키가 이따지만게 울타리하는데 씨머졌쎄요. 예 옥수수는 지금두 집 사방에 여기 마늘밭 옥수수야 옥수수는 처리 없쎄유, 조금 늦게 시르면 늦게 따 먹꾸 일찍 시르면 일찍 따 먹꾸.

<제가 생각할 때 참 어른들이 지혜로우셨어. 차암 서석³¹⁾도 심었어, 서석도 따로 베어서 수수만 털고 수수만 또 따로 해서 목 베어 가지구 하고, 수수대궁은 키가 이렇게 큰 것이 울타리하는데 씨 먹었어. 예 옥수수는 지금도 집 사방에 여기 마늘밭 옥수수야 옥수수는 철이 없어요. 조금 늦게 심으면 늦게 따 먹꾸 일찍 심으면 일찍 따 먹꾸>

조사자 : 저도 옥수수를 시머야 하는데 씨를 못 구해 가지구 씨를 씨를 말려야 하는데 모종사다 시머야지요.

<저도 옥수수를 심어야 하는데 씨를 못 구해 가지구 씨를 씨를 말려야 하는데 모종사다 심어야지요.>

제보자 : 모종도 많이 지금 해 놓코 그러구 도시두 가보면 뭐란 할머니 드른 포도박스다 퇴비 이렇게 너서 부추도 시머서 벼 드시고 상추도 그렇게 물 줘서 상추도 따 잡숫꼬.

<모종도 많이 지금 해 놓고 그러고 도시에도 가보면 뭐라는 할머니 들은 포도박스에다 퇴비 이렇게 넣어서 부추도 심어서 베어 드시고 상추도 그렇게 물 줘서 상추도 따 잡숫고.>

궁게 저는 쌀 시츠면 뜯무를 안 내비려요. 쌀 따끈 뜯무를 그르시 양푼 가튼디 바다났다 오이포기 꼬추미테, 아까 말 그대루 우리집

31) 조(粟)의 지역어.

이는 야글 아내유. 우리 식꾸 멩는디 무공해 먹짜구, 그렇게 시고
레 벌레가 생기쥬. 뜯물로 쪼끔 벌레 지긴다는 생각카구.

<그러니까 저는 쌀 씻으면 뜯물을 안내버려요. 쌀 닦은 뜯물을 그릇에
양푼 같은데 받아 놨다 오이포기 고추 밑에, 아까 말 그대로 우리집 이는
약을 안해요. 우리 식구 먹는데 무공해 먹자고, 그러니까 시골에 벌레가
생기쥬. 뜯물로 조금 벌레 죽인다는 생각하구.>

조사자 : 뜯무리 벌레를 주거나요?

<뜯물이 벌레를 죽이나요?>

제보자 : 벌레가 들끓는다구 뜯물, 아니 지그믄 장년농사는 거의 약
아냈쥬. 우리두 무공해 싸리라구 아저씨 하자나? 농약 한 번도 안
쳤쥬. 벌레가 없쥬나 옰나리는 한번 두 번 세번까지 했쥬서 농야글
장녀넌 농약 한번두 안쿠.

<벌레가 들끓는다고 뜯물, 아니 지금은 작년 농사는 거의 약 안
했어. 우리도 무공해 쌀이라고 아저씨 하잖아? 농약 한 번도 안쳤어. 벌레
가 없었나 옛날에는 한번 두 번 세번까지 했었어 농약을 작년엔 농약 한번
도 앓고.>

조사자 : 농약 이름가통건 잘 모르시쥬?

<농약 이름같은건 잘 모르시쥬?>

제보자 : 야강가부다, 그러구 우리지비 오면 여자가 낫뜰구 이라구
통질머지면 남자가 쉽게 죽는다고, 청소나 깨끄시 하구 빨래나 깨
끄시 해입짜능거야 여자가. 거친 일 자라면 남자가 일찍 간다구.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거 절때 하지 말라 하하하하.

<약인가보다, 그리고 우리집이 오면 여자가 낫 들구 일하구 통 짬어
지면 남자가 쉽게 죽는다고, 청소나 깨끗이 하고 빨래나 깨끗이 해 입자는
거야. 여자가 거친 일 잘하면 남자가 일찍 간다고.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

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래요 하하하하.>

조사자 : 김장은 몇 포기나 하세요?

<김장은 몇 포기나 하세요?>

제보자 : 김장 배고십포기 배추를 이렇게 저가지고 배고십포기 저를 라면 이런 다라루 네 개는 저려야해, 소금 두자루 써 막 이딴 놈 쪼금 메면유 진짜 소금 허쳐서 네 다라 해노면 숨 주그면 세 다라는 되유. 씨쳐노면 시암에 이려.

<김장 백오십포기 배추를 이렇게 저 가지고 백오십포기 질이려면 이런 다라이로 네 개는 절여야해, 소금 두자루 써 막 이딴 놈 쪼금 메면유 진짜 소금 뿌려서 네 다라이 해놓으면 숨 죽으면 세 다라이는 되요. 씻어 놓으면 샘에 이래요.>

딸네 해주지 따리 지금 스물 일고베 가 가지구 마흔 여더린데 지금까지 김장서부터 쌀 꼬추가루 마늘 생강까지는 찌서 해서 찌러서, 우리 사우는 복 바닷찌.

<딸네 해주지 딸이 지금 스물일곱에 가 가지구 마흔 여덟인데 지금까지 김장서부터 쌀 고추가루 마늘 생강까지는 찌서 해서 썰어서, 우리 사위는 복 받았지.>

조사자 : 딸래미 아무 것도 못타면 나중에 어떻게 알려줘요?

<딸래미 아무 것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알려줘요?>

제보자 : 개들 모달꺼가터, 며느리 둘 해주지 저기 저 우리 크로크다 일한다는 동생네두 있찌. 누나 김치가 마시 누나 김치가 맛 들렸따는 거기도 뒤 통 해서 주지, 우리 먹찌.

<개들 못 할 것 같아, 며느리 둘 해 주지 저기 저 우리 크로커다 일한다는 동생네도 있지. 누나 김치가 맛이 누나 김치가 맛 들렸다는 거기도 두어 통 해서 주지, 우리 먹찌.>

조사자 : 뭐뭐하세요?

<뭐뭐하세요?>

제보자 : 배추김치 동치미 무수 멀근 동치미 총각김치 파짐치.

<배추김치 동치미 무 멀은 동치미 총각김치 파짐치.>

조사자 : 배추김치 하실 때 양념 뭐뭐 하세요?

<배추김치 하실 때 양념 뭐뭐 하세요?>

제보자 : 양념미요? 양념은 마늘 새우젓 육젓 좋응거 사다 느쿠. 강경서 액젓 좀 조금 느쿠 마늘 마니 느쿠 꼬추가루 좋응거 쓰야대. 그리구 미리 저는노 배추를 다 절거노면 양념꺼리 수북까지,

<양념미요? 양념은 마늘 새우젓 육젓 좋은 거 사다 넣고 강경서 액젓 좀 조금 넣고 마늘 많이 넣고 고춧가루 좋은 거 쓰야돼. 그리고 미리 저는요 배추를 다 절어 놓으면 양념꺼리 수북하지,>

김장할 때는 한 사미른 힘드러유. 애덜 다 와유. 와서 지드리 김치통 사다 막 가꾸와. 와서 여기서 불 노코 여기다 페트 깔구 비닐 큰누마구, 우리 형님덜 김장할 때는 이우지서 열 명도 더 와요.

<김장할 때는 한 삼일은 힘들어요. 애들 다와요 와서 자기들이 김치통 사다 막 가지고 와. 와서 여기서 불 놓고 여기다 페트 깔구 비닐 큰놈하고, 우리 형님들 김장할 때는 이웃에서 열 명도 더 와요.>

양념항걸 미리 절귀 놓쿠서 굴근 멸치 한뺏쓰 사구 다시마두 칠 처년가 팔처년 주고 다시마 넣쿠 물 되게 해서 푹푹 썰구 멸치하나 양파 양파 쪼개서 놓쿠서 물 뒤동이 큰 양은솔 가스 저 광에 끝는 큼거 있써유, 거기다 육쭈를 내유 전날 그 멸치 무 다시마 양파 그렇게 놓쿠서 막 끓여서는 봤따 이런 소쿠리다 들통해서 바쳐놔요 분는디 진짜 마싹써유.

<양념한 걸 미리 절여 놓고서 굵은 멸치 한 박스 사구 다시마도 칠천원 인가 팔천원 주고 다시마 넣고 물 되게 해서 툇툇 썰고 멸치 하나 양파 양파 쪼개서 넣고서 물 두어 동이 큰 양은 숟 가스 저 광에 끓는 큰 거 있어요, 거기다 육수를 내요 전날 그 멸치 무 다시마 양파 그렇게 넣고서 막 끓여서 는 났다 이런 소쿠리에다 들통해서 받아놔요 붓는데 진짜 맛 있어요.>

그 궁무리다 꼬춧가루 액저슬 조금 놓구 마늘 생강 쪽파 대파 무채가 조금 놓구 배두 가라 너어요. 청가근 아내유 청가근 나는 애때부터 청가근 선하다구 그러는데 청가근 부르면 파란벌레가 타유 청가근 안써유. 그래 가지구 이딴 다라다 양념 잘 해놔요. 찹쌀도 풀고 그렇게 해 놓고 여러시 발라서 아들 딸통 김치통 해구 서 이 김치냉장고 저기두 여덱통 드리갬유. 옛날 조그만씩항게 자기네들 김치 먹따 모자르면 또 가져 가구

<그 국물에다 꼬춧가루 액저를 조금 넣고 마늘 생강 쪽파 대파 무채가 조금 넣고 배도 갈아넣어요 청각은 안해요. 청각은 나는 애 때부터 청각은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청각이 불면 파란벌레같아요 청각은 안써요. 그래 가지고 이딴 다라이에다 양념을 잘 해놔요. 찹쌀도 풀고 그렇게 해놓고 여럿이 발라서 아들 딸 통 김치통 하고서 이 김치냉장고 저기도 여덱 통 들어가요 옛날 조그만씩 하니까 자기네들 김치 먹다 모자르면 또 가져가고.>

조사자 : 그렇게 해서 버무리 가능건 다해 간다 보통 김장 담그고 하면 잘 먹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버무리 가는 건 다 해 간다 보통 김장 담그고 하면 잘 먹지 않아요?>

제보자 : 예예 예 점심은 하쥬. 돼지고기 수육 여남근 사다 쌀마서 버 무려서 먹꾸, 점심 푸지마게 먹꾸 명태 사다 지쳐서 먹꾸.

<예예 예 점심은 하쥬. 돼지고기 수육 여남은 근 사다 삶아서 버무

려서 먹고, 점심 푸짐하게 먹고 명태 사다 지져서 먹고.>

조사자 : 그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김장하는 날 돼지고기 수육 먹는거는.

<그건 어디나 다 똑 같아요 김장하는 날 돼지고기 수육 먹는거는.>

제보자 : 예 가태유, 저 논산시 김장하래두 몇 번 가봤쎄요. 저기 저 이장님들 마을 지도자드른 막 심부르마구 부녀회장드른 발라서 이십키로씩 박스다 종이 너서 해서 독꺼노인들, 지그믄요 저 부녀 회장할 때는 박스다 이십키로씩 너서 다 보낸는데, 지그믄 김치통이 좋으니까 김치통으로 다 발저니 되구.

<예 같아요, 저 논산시 김장하느라 몇 번 가봤어요. 저기 저 이장님들 마을 지도자들은 막 심부름하고 부녀회장들은 발라서 이십키로씩 박스에다 종이 넣어서 해서 독거노인들, 지금은요 저 부녀회장할 때는 박스에다 이십키로씩 넣어서 다 보냈는데 지금은 김치통이 좋으니까 김치통으로 다 발전이 되고.>

조사자 : 자손드리 좋아하겠쎄요, 그렇게 해 주면.

<자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면.>

제보자 : 좋아하쥬, 어머니 건강하셔 뭐 일 깨 농사도 저가지구 기름 짜서 주고 또 깨소금 깨는 볶까서 또 며느리는 선생에유 하권선생, 바파기 무섭따구 빠서두 보내구 통깨두 보내구 다해줘

<좋아하쥬, 어머니 건강하셔 뭐 일 깨 농사도 지어 가지고 기름 짜서 주고 또 깨소금 깨는 볶아서 또 며느리는 선생이예요 학원선생, 밥하기 무섭다고 빨아서도 보내고 통깨도 보내도 다 해 줘>

일절 마늘도 썬 가지구 뽕뽕뽕뽕탄 봉지다 너 가지구서 보내구, 우리집 멍는 그거 깎뚜기처럼 썬러유. 끄니 할때마다 쪼끔씩 느쿠 메느리덜 그러면 차가 가면 서우레 두시간 빨리 가면 두시간, 멀면

두시간 반 걸리자나? 녹걸랑 얼릉 냉동에다 뺄뜨시 차납 가든디
다 해서 뺄뜨타야 쓸기 조응게, 넛따 얼걸랑 딱딱 쓰러서 하나하나
넣어서 머거라 가르켜 주지

<일절 마늘도 찢어 가지고 반듯반듯한 봉지에 넣어 가지구서 보내고
우리집 먹는 그거 깎두기처럼 썰어요. 끼니 할 때마다 조금씩 넣고 머느리
들 그러면 차가 가면 서울에 두시간 빨리 가면 두시간, 멀면 두시간 반
걸리잖아? 녹거든 얼릉 냉동에다 반듯이 찬함같은데다 해서 반듯해야
썰기 좋으니까 넣었다 얼거든 딱딱 썰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먹어라 가르
켜 주지>

예 어머니 동해서두 삼척, 생서는 친정어머니가 다 해서 부쳐주
고 이 김치니 싸리니 이렇건 다 내가 보내중게 멩능건 돈 안뜬데
유. 책사구 내능거 공과금내고

<예 어머니 동해서도 삼척, 생선은 친정어머니가 다 해서 부쳐 주고
이 김치니 싸이니 이런 건 다내가 보내주니까 먹는 건 돈 안 뜬대요. 책
사구 내는거 공과금내고.>

조사자 : 거기 사돈땡 가보셨쎄요?

<거기 사돈땡 가보셨어요?>

제보자 : 동해는 삼척 놀라 오라구 사도니 서우레 와유 가치 저보다
두 살 덜 잡쎄는디, 이뻐 사돈때근 날씨나니 이뻐. 나만산성 나만
산성 자알가유 사도니 사주고 내가 사 가면, 사돈지간이 아니구 형
제간 같따구 햐. 서로 따를 잘 쉰서 주고 우리 그이는 사위가 아니
라 아드리라가고 나는 머느리가 아니라 딸가트다고.

<동해는 삼척 놀러 오라고 사돈이 서울에 와요 같이 저보다 두 살
덜 잡쎄는데, 예뻐 사돈땡은 날쎄하니 예뻐. 남한산성 남한산성 잘 가요
사돈이 사주고 내가 사 가면 사돈지간이 아니고 형제간 같따구햐. 서로
딸을 잘 키워서 주고 우리 그이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고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다고.>

조사자 : 화목하시네요.

<화목하시네요.>

제보자 : 그러니까 나도 따라나, 우리 며느리도 오빠 동생서 따라나,
또 자근매느린 남매 인는집 따라나, 니들 딸 혼자씩 컸쫘게 사명제
자매처럼 사라라.

<그러니까 나도 딸 하나, 우리 며느리도 오빠 동생서 딸 하나, 또
작은 며느리는 남매 있는 집 딸 하나, 너희들 딸 혼자씩 컸으니까 삼형제
자매처럼 살아라,>

조사자 : 재밌게 잘 사셨네요. 애들 잘 키우시고 논산시에서 장한어
머니상이라도 드려야 되능거 아닝가요?

<재밌게 잘 사셨네요. 애들 잘 키우시고 논산시에서 장한어머니
상이라도 드려야 되능거 아닝가요?>

제보자 : 아니 황시장이 그러자네두 장녀네 그 시장 성거였쫘. 우
리 마으레 왔쫘요. 마으레서 얘기하구 부녀회장하구 저하구 황회
장하구 가치 사진도 찍구,

<아니 황시장이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그 시장 선거였쫘. 우리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서 얘기하고 부녀회장하고 저하고 황회장하고 같
이 사진도 찍고,>

마을회과네 그 부라게 지금 회관 지며 애쓰신 분들 적구 여자는
이재순 이르므로 저하나 올라 가구

<마을회관에 그 부락에 지금 회관 지으며 애쓰신 분들 적고 여자는 이재
순 이름으로 저 하나 올라 가고>

그래두 감사게 여기구 회과늘 걸립팔 때, 전일순 시장일 때 노이
뇌장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청녀뇌장 다서시 가서 이게 월썰리 회

과늘 하나 좀 지야건는디 자그미 부족될꺼 가트니 시에서 천만원
지워내주세요, 저닐쑈 시장니미 .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고 회관을 건립할 때, 전일순 시장일 때 노인회
장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다섯이 가서 이게 월성리 회관을 하나
좀 지어야겠는데 자금이 부족될 것 같으니 시에서 천만원 지원해주세요,
전일순 시장님이.>

조사자 : 천마뉘니면 참 컨네요 그 당시면.

<천만원이면 참 컸네요 그 당시면.>

제보자 : 뱅마뉘니연나보네 아니 천마뉘니언네. 저기 회과니 오쳐노
백 들었써. 예 천마뉘니에요.

<백만원이었나보네 아니 천만원이었네. 저기 회관이 오천오백 들
었어. 예 천만원이에요>

그래 저거 건립파며 지며 저 이장니미이 그랴, 아니 이 회관져서
지가 다 오디루 청첩가등건 지는 다 나간 양반들 오시라구 함께
회장니미 잔치랑 하래.

<그래 저거 건립하며 지으며 저 이장님이 그래요, 아니 이 회관 지어서
제가 어디로 청첩 같은건 저는 다 나간 양반들 오시라구 하니까 회장님
이 잔치랑 하래.>

알았따구, 부녀회를 딱 열구서 우리 마으레 회과늘 세웅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카자구 십씨일바느로 이장니미 잔치는 언제구
여자드리 하능경게 부녀회에서 하라구 하니까 쌀 한 되도 좋코 두
되도 좋코 있쓰면 인는데로 업쓰면 업는데로 성의껏 가져오라 항
게, 쌀이 세가마가 참 이게 여러 힘이 그렇게 커.

<알았다고, 부녀회를 딱 열고서 우리 마을에 회관을 세운 걸 참 자랑스
럽게 생각하자고 십씨일반으로 이장님이 잔치는 언제고 여자들이 하는거
니까 부녀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쌀 한 되도 좋고 두되도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의껏 가져오라 하니까, 쌀이 세가마가 참 이게
여러 힘이 그렇게 커.>

어떤 사리몬 찹쌀도 가지고 오고 오늘 하루 밥패서 잘 먹꾸, 내이
른 또 떡칸다구 떡 댄말 방앗까네 맞추고 돼지 잡꼬 돼지 두마링가
시장님 면장님 지서장님 각부녀회장 이장님 초대해 가지구 기공
식 푸지게 하구,

<어떤 사람은 찹쌀도 가지고 오고 오늘 하루 밥해서 잘 먹고, 내일은
또 떡 한다고 떡 댄말 방앗간에 맞추고 돼지 잡고 돼지 두마링가 시장님
면장님 지서장님 각 부녀회장 이장님 초대해 가지고 기공식 푸지게 하
고,>

인저 이장님미 오라는 인사짱에는 이장 여운봉 부녀회장 이재
수니 올라가서, 서울서 아이구 제 이름 석짜를 보고 방가워 한 양
바니 만태유

<이제 이장님이 오라는 인사장에는 이장 여운봉 부녀회장 이재순이
올라가서, 서울서 아이고 제 이름 석자를 보고 반가워 한 양반이 많았대
요>

아버지 칭구분드리 과연 이재순 마으레 위해서 참 부녀회장하
구 이런 회광까지 참 졌꾸나 그렇게 칭찬했다고, 긍게 저는 날마
다 인떠기 마내유, 참 인떠깃쫘게 교수님미 방무나구 차를 타고
서우레 가두 내 앞자리에는 훌륭한 사라미 안자요.

<아버지 친구 분들이 과연 이재순 마을에 위해서 참 부녀회장하구 이런
회관까지 참 지였구나 그렇게 칭찬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인덕이
많아요, 참 인덕 있으니까 교수님이 방문하고 차를 타고 서울에 가도 내
앞자리에는 훌륭한 사람이 앉아요.>

조사자 : 그게 인떠기, 다 잘 하시니까 생기능거지 저절로 생기능게
아니예요.

<그게 인덕이, 다 잘 하시니까 생기는거지 저절로 생기는게 아니에요.>

제보자 : 자라능건 음는다 항시 감사하게 살죠.

<잘 하는건 없는데 항시 감사하게 살죠.>

조사자 : 그 감사하다는 말쓰를 제가 벌써 그저께부터 열댓번 듣는거 가타요.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벌써 그저께부터 열댓번 듣는거 같아요.>

제보자 : 이 나이에 병웁가 이뵤 안쿠 당약 혈압약도 안 먹꼬 허리들 꾸부러지는데 꼭 꾸부러질 허리가 없썬나 뺨뜨시 잘 걷꾸, 어디가면 일등 가. 사십구키로가 이십년저니나 지그미나 똑까치 사십구키로서 오십키로 사십구키로 유지하.

<이 나이에 병원 가서 입원 앓고 당약 혈압약도 안먹고 허리들 꾸부러지는데 꼭 꾸부러질 허리가 없었나 반듯이 잘 걷고, 어디가면 일등 가. 사십구키로가 이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십구키로서 오십키로 사십구키로 유지해.>

조사자 : 이 마을 근처에 과수워는 업나요?

<이 마을 근처에 과수원은 업나요?>

제보자 : 엔나리는 과수워니 마냈썬요. 과수워니 잘 안돼서 저번나 과수워늘 정리하구 소를 메기더라구. 소가 요 요기 요롱케 삼백뚜 메기는 집또 있꼬.

<옛날에는 과수원이 많았어요. 과수원이 잘 안돼서 접었나 과수원을 정리하고 소를 먹이더라구. 소가 요 요기 요롱케 삼백뚜 먹이는 집도 있고.>

조사자 : 그계 줌 도니 되나 부썬?

<그게 좀 돈이 되나 보죠?>

제보자 : 그렇게 도니 돼서 그러나 자기 지갑 저 연무대서 소를 키던
사라민디 연무대가 고속도로가 나고 발저니 나니까 그런 우사 있
쓰면 안조니까 도늘 마니 줘서 보넨나? 사니루 과수원 사갓꾸 소를
마니 키우데.

<그러니까 돈이 돼서 그러나 자기 직업 저 연무대서 소를 키우던
사람인데 연무대가 고속도로가 나고 발전이 나니까 그런 우사 있으면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줘서 보넨나? 산으로 과수원 사갓고 소를 많이 키우
데.>

조사자 : 둘러보니까 과수원은 안 보이고.

<둘러보니까 과수원은 안 보이고.>

제보자 : 맨 짐승댕기니 냄새가 나구 궁게 저는 항시 사라버릇 하구
저도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참는디, 애드른 오면 창문 다 다더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냄새나서 어치게 사르시냐구.

<맨 짐승 다니니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살아버릇 하구
저도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참는데, 애들은 오면 창문 다 닫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냄새 나서 어떻게 사시냐고.>

조사자 : 노인드른 그 냄새가 정다운 냄새데, 그쵸?

<노인들은 그 냄새가 정다운 냄새데, 그렇죠?>

제보자 : 그래유 애들 어릴 때 막 진짜 막 이라고 하니까 애드른 아치
메 입피면 막 놀다 보면 흑뚜 묻고 빠지구 해두 뭐 나제 가라 입필
수 인나? 버려라, 저녁 일 끝나구서 와서 싹 씻겨서 옷 가라 입피구
저녁 해서 메기구 재우구 저녁게사, 애드른 모꼭가능겨어.

<그래유 애들 어릴 때 막 진짜 막 일하고 하니까 애들은 아침에 입히
면 막 놀다 보면 흙도 묻고 빠지고 해도 뭐 낮에 갈아입힐 수 있나? 버려라,

저녁 일 끝나고서 와서 싹 씻겨서 옷 갈아입히구 저녁 해서 먹이고 재우고, 저녁에야 애들은 목욕하는거여.>

나제 암만 버려두 버린 채 이버야지 지금 애들가치 물 한모금 먹다 엄마 하든 농사두 못짓찌. 그리고 딸기농사는 깔끄마야 되고 잘 지야 주먹까튼 수화글 하지 그 푸리 나구 하면 그런 농사를 못 쳐유

<나제 암만 버려도 버린 채 입어야지 지금 애들같이 물 한 모금 먹다 엄마 하면 농사도 못 짓지. 그리고 딸기농사는 깔끔해야 되고 잘 지어야 주먹같은 수확을 하지 그 풀이 나고 하면 그런 농사를 못 지어요.>

조사자 : 저도 흥내는 내 봤는데, 안자서 딸기 따는데.

<저도 흥내는 내 봤는데, 앉아서 딸기 따는데.>

제보자 : 감사항건 우리집 애드라빠가 딸기를 잘 쳐서 대전 케비에스 방송구게서 취재 왔써 저는 선버라는데

<감사한건 우리집 애들 아빠가 딸기를 잘 지어서 대전 케비에스 (KBS) 방송국에서 취재왔어 저는 선별하는데>

그러니까 인저 농협두 거래하지만 논산 화지사니 좀 이자가 쎄다 해서 거기다두 발디려 났써요. 오래 돼 한 삼십년 넘겨, 글쿠 으 냥을 가니까 아이고 딸기아줌마 또 오선네 별명이 딸기아줌마야.

<그러니까 이제 농협도 거래하지만 논산 화지산에 좀 이자가 쎄다 해서 거기에도 발 들어 났어요. 오래 돼 한 삼십년 넘겨, 그리고 은행을 가니까 아이고 딸기아줌마 또 오셨네 별명이 딸기아줌마야.>

잘 지니까 방송국써 취재해 가구 인터뷰해 가구 도늘 버려서 밀 할라구, 지가 못 배울 때 사라서 자녀미는 가르키구 시퍼서 열씨미 농사 진다구 했써유.

<잘 지으니까 방송국에서 취재해 가고 인터뷰해 가고 돈을 벌어서 밀 할려고, 제가 못 배울 때 살아서 자녀만은 가르키고 싶어서 열심히 농사진

다고 했어요.>

조사자 : 얘기가 끄치 없꼬 참 재미인네요. 이제 시가니 너무 오래 되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겠썬니다

<얘기가 끝이 없고 참 재미있네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제보자 : 언제 한번 오셔, 내가 식싸 한 번 대접팔께

<언제 한번 오셔, 내가 식사 한 번 대접할게.>

조사자 : 감사합니다. 또 뵙겠썬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2. 최*기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조사자 : 아까 오시다가 얘기하심거처럼 양촌서 태어나셨다고요?
열녀덜사레 이쪼그로 이사오셔꼬, 여기선 무어슬 하셔써요? 오래
연세가 어떠케 되세요?

<아까 오시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양촌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열여
덟살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고, 여기선 무엇을 하셨어요? 올해 연세가 어
떻게 되세요?>

제보자 : 여드니예요. 농사지꾸 또 일두 다른 일두 하고 그래쥬.

<여든이예요. 농사짓고 또 일도 다른 일도 하고 그랬쥬.>

조사자 :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셔써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제보자 : 학교는 연산중학교 다녀써요.

<학교는 연산중학교 다녔어요.>

제보자 : 그러면 연산중학교 며퇴세요?

<그러면 연산중학교 몇 회세요?>

제보자 : 이퇴여유 한수 그 사람덜 하구 동기쥬. 그 양촌 떠울사라민
디 예 모촌니.

<일회에요 한수¹⁾ 그 사람들 하고 동기쥬. 그 양촌 떠울 사람인데
예 모촌리.>

조사자 : 양촌 어디서 태어나셔썬요?

<양촌 어디서 태어 나셨어요?>

제보자 : 방공니 동산무지라구, 거기 저 광산 김씨덜 모자리 파니지
유 거기가.

<반곡리 동산무지라구, 거기 저 광산 김씨들 못자리²⁾ 판이쥬 거기
가.>

허씨 할머니 산소 모시고 계신디 고정 바로 거기여, 고 근례 연산
이쥬그루 양촌 거기가 연산면 양촌면 가야공면 부정면 사개면 경
계요 고정산 날맹이가.

<허씨 할머니 산소 모시고 계신데 고정 바로 거기여, 고 근방 연산 이
쪽으로 양촌 거기가 연산면 양촌면 가야공면 부정면 사개면 경계요 고정
산 꼭대기가.>

조사자 : 거기서는 뭐하셔썬요? 어려서.

<거기서는 뭐 하셨어요? 어려서.>

제보자 : 어려서 학교 다녀썬쥬 학교 다니구 뭐 할께 이썬썬요? 사벼
니구 그래서 그때에 그때에는 집썬마다 공비토버를 하나씩 하계
끄름 돼 이썬, 채금제루, 그래서 인저 그때는 방위니 지방 방위 그

1) 논산시 양촌면 출신으로 대한일보 기자, 8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한수
(1935~2013)씨를 말함.

2) 못자리처럼 아주 촘촘하게 광산김씨들이 많이 산다는 표현.

래서 저 대둔산 저 대둔산 저 대둔산 가서 빨치산.

<어려서 학교 다녔었죠 학교 다니고 뭐 할게 있었어요? 사변이고 그래서 그때에 그때에는 집집마다 공비토벌을 하나씩 하도록 돼 있어, 책임제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방위니 지방 방위 그래서 저 대둔산 저 대둔산 저 대둔산 가서 빨치산.>

조사자 : 전쟁도 나가서계세요?

<전쟁도 나가셨겠어요?>

제보자 : 예 보초서고 그래쥬.

<예 보초서고 그랬죠.>

조사자 : 그땐 어려쥬꺼 아니예요?

<그땐 어렸을 거 아니예요?>

제보자 : 그땐 여릴곱싸리여쥬 여릴곱쌀 그래서 나가쥬. 학교 다닐쥬 쥬 목총 가지구서 그 거시기.

<그땐 열일곱 살이었어 열일곱 살 그래서 나갔지. 학교 다닐 적엔 목총 가지구서 그 거시기.>

조사자 : 형제는 며치나 되시고요?

<형제는 몇이나 되시고요?>

제보자 : 저는 형제가 딱 두리여유. 두린디 형니믄 서울루 가셔서 돌아가쥬꾸, 연마나시구, 저는 혼자 여기서 살고.

<저는 형제가 딱 둘이예요. 둘인데 형님은 서울로 가셔서 돌아가셨고, 연만하시고, 저는 혼자 여기서 살고.>

조사자 : 중학교 졸업파시구 이쥬그로 형니마고 가치 이사를 오싱거예요?

<중학교 졸업하시고 이쪽으로 형님하고 같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제보자 : 예 예 수복되구서 또 이리 벌고그로 이사 와쨌요. 그래서 그 양촌 이쨌찌기 보초서구 심부름 하고 그래서 유공자라구 그걸 해주데유. 그걸 해다 농께 증명이 유공자쨌, 고생 마니했쨌.

<예 예 수복되고서 또 이리 벌곡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그 양촌 있을 적에 보초서고 심부름하고 그래서 유공자라고 그걸 해주데요. 그걸 해다 놓으니까 증명이 유공자증, 고생 많이 했쨌.>

조사자 : 여기 와서 농사만 지으써쨌요?

<여기 와서 농사만 지으셨어요?>

제보자 : 장사두 했쨌쨌. 장사두.

<장사도 했었쨌. 장사도.>

조사자 : 농사는 어떻거 하써쨌요?

<농사는 어떤 거 하셨어요?>

제보자 : 농사는 주로 논농사 보리농사 그쨌, 그라구 저 여기가 그저 네는 과이리 마내쨌쨌유. 밤 감 대추 이렇게 마내쨌쨌는디 다 지그 른 병드러 병나구 내버리구 다 죽꾸.

<농사는 주로 논농사 보리농사 그렇쨌, 그리고 저 여기가 그전에는 과일이 많았었어요. 밤 감 대추 이런 게 많았었는데 다 지금은 병 들어 병나구 내버리구 다 죽고.>

조사자 : 밤 감 대추 다름거는 안 하고요?

<밤 감 대추 다른 거는 안 하고요?>

제보자 : 예 그란디 그때에 도라지 도라지 농사가통걸 짓꾸 그랬쨌. 별건 읍새유 반농사로는 콩, 특뼈랑건 읍쨌쨌유.

<예 그런데 그때에 도라지 도라지 농사같은 걸 짓고 그랬쨌. 별건 없어요 밭농사로는 콩, 특별한건 없었어요.>

조사자 : 그래도 저 텃밭에서 반찬꺼리는 해쓸꺼 아니예요?

<그래도 저 텃밭에서 반찬꺼리는 했을 거 아니예요?>

제보자 : 그라무뉴 무슨, 물론 이 농촌에선 그 채시 채소라능건 이렇
건 다 하구 콩팍 가통건 이런 농사는 다 졌쥬. 그래서 그거슬 여기
그때는 교통이 안 조았짜나 버스도 하루에 저 미티 한번씩 댕기구,
그래서 여기는 이 너머 배티째루다가 질머지고 댕겨찌

<그럼요 무슨, 물론 이 농촌에선 그 채소라는 건 이런 건 다 하고
콩 팔 같은 건 이런 농사는 다 졌쥬. 그래서 그것을 여기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았짜나 버스도 하루에 저 밑에 한번 씩 다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
너머 배티재로다 짚어지고 다녔지.>

조사자 : 지금도 텃밭에 가면 이거찌거 가꾸자나요, 어떻 거뜰 해요?

<지금도 텃밭에 가면 이것 저것 가꾸잖아요, 어떤 것들 해요?>

제보자 : 여긴 안 하능거 읍쥬 별거 다해유. 그저네 노인네드른 약초
두 재배를 마니 해써유.

<여긴 안 하는 거 없쥬 별거 다해요. 그전에 노인네들은 약초도
재배를 많이 했어요.>

조사자 : 어떻 거뜰 합니까? 아까 도라지 말쓰마셨꼬.

<어떤 것들 합니까? 아까 도라지 말씀하셨고.>

제보자 : 그거슨 채구 채소구, 황기 청궁 황그미라능게 또 이써유. 황
기가 캐기가 그러케 힘들고, 그러 청궁 가통거 하구 뭐여 또 이제
오미자두 해써꾸 고랭지대여. 보문 늦께 오구 겨우렌 일찌고구 그
런디유. 그래 가지구

<그것은 채(菜)고 채소고, 황기³⁾ 천궁⁴⁾ 황금⁵⁾이라는 게 또 있어
요. 황기가 캐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러 천금 같은 거 하구 뭐여 또 이제

오미자도 했었고 고랭지대여, 봄은 늦게 오고 겨울엔 일찍 오고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조사자 : 살기가 좀 불퍼난데 아닙니까? 여기가?
<살기가 좀 불편한 데 아닙니까? 여기가?>

제보자 : 어려운디쥬, 불퍼난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데쥬,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조사자 : 근데 왜 저러케 외지사람드리 드리 오쥬?
<근데 왜 저렇게 외지사람들이 들어 오쥬?>

제보자 : 글래는 그렇가? 외지에서루 그냥 어쩌케 늦게들 퇴지카구
서 늦게들 저러케 다 드리 오시데유. 뭐 저이 저 저빠니 집 찢디는
뭐 그르케 잘 진 지비 읍쨌따구 그래쨌유. 그런데 자꾸 드리와서
짓꾸 짓꾸 그래가지구. 그 사라미 여기 원제 한동안 하냥대하글 나
오셨판가 어쩌케 했따딩가, 사람 얌저나고 지금 이장보고 그러는
디, 그 사람 거시기라구 오고 판 사람 저 소개로두 오구.

<근래는 그런가? 외지에서 그냥 어떻게 늦게들 퇴직하고서 늦게들
저렇게 다 들어 오시데요. 뭐 저이 저 저번에 집 지은 데는 뭐 그렇게 잘
지은 집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들어와서 짓고 짓고 그래가지
구, 그 사람이 여기 원제 한 동안 한양대학을 나오셨다던가 어떻게 했다던
가, 사람 얌전하고 지금 이장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 거시기라구 오고 판
사람 저 소개로도 오고.>

조사자 : 어르시는 건강하시쥬?
<어르신은 건강하시쥬?>

-
- 3) 한약재의 한 가지.
 - 4) 한약재의 한 가지.
 - 5) 한약재의 한 가지.

제보자 : 예 천추기 이씨유. 천증인은 이유가 또 이씨유. 원래 폐가 좀 야캐유. 지가 황경이 안 조케 커씨유. 그래 형님 미티서 낀는다, 면장한테 드르시들 아내씨?

<예 천식이 있어요. 천증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원래 폐가 좀 약해요. 제가 환경이 안 좋게 컸어요. 그래 형님 밑에서 컸는데, 면장한테 들으시지 않았어?>

조사자 : 아까 오다 보니까 어르신께서 이 동네 지명들 동네 이름들 마니 아시능거 가튼데 생각나는대로 좀. 오작실 배티 고 얘기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아까 오다 보니까 어르신께서 이 동네 지명들 동네 이름을 많이 아시는 거 같은데 생각나는 대로 좀. 오작실 배티 그 얘기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제보자 : 예, 여기는 인자 오작씨른 광산 김씨가 뵤이를 선사늘 모시는 고시라고 옛날 마라자면 공헌공파라고 그 양반덜 시종가봐요. 그러문 산소가 오자경이라 그래서 오작실.

<예, 여기는 이제 오작실은 광산 김씨가 묘를 선산을 모시는 곳이라고 옛날 말하자면 공헌공파라고 그 양반들 시조인가봐요. 그러면 산소가 오작형(烏鵲形)이래요 그래서 오작실.>

조사자 : 한자로 쓰면 어떠케 되나요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보자 : 까마귀 오자 새 작자

<까마귀 오자 새 작자.>

조사자 : 한문들 마니 아세요.

<한문을 많이 아세요.>

제보자 : 하하하하, 왜 저 연산에 청운하귀니라고 왜 복수씨도 지금도 다닐꺼 아따.

<하하하하 왜 저 연산에 청운학원이라고 왜 복수씨도 지금도 다닐 거요.>

조사자 : 오작씨른 까마귀 오자, 까마귀 모양.

<오작실은 까마귀 오자, 까마귀 모양.>

제보자 : 배티는 인저 배주짜 고개티짜. 잉 이케 해서 왜 고개티 주티 그런디 여기도 또 이케 동네마다 이르미 있짜나. 여기가 사기장꼬리 있씨요.

<배티는 이제 배주(舟)자 고개치(峙)자. 예 이렇게 해서 왜 고개티 주티 그런데 여기도 또 이케 동네마다 이름이 있잖아. 여기가 사기장골이 있어요.>

조사자 : 사기장꼬리요?

<사기장골이요?>

제보자 : 예 엔나레 사기를 만드러췌떠야 밥끄룻가치 푸르딩딩 그 위치가 그르시 만코 연구대상이 되씨씨요 한번, 그러게 사기장골 엔나레 사기를 만드러췌뜨따 그런디가 있꼬.

<예 옛날에 사기를 만들어 췌대요 밥끄룻같이 푸르딩딩 그 위치가 그르티 많고 연구대상이 됐었어요 한번, 그래서 사기장골 옛날에 사기를 만들어서 췌대요 그런 데가 있고.>

그 대동이라고 인자 상대동 하대동 윗턱꼴 아래턱꼴 지비 이췌꼬, 그 그래서 여기 남씨들 산소가 마나요. 그 주근 분드리 엔날서 부터 거주해가지구 아마 토배기들 왜 모이 씨노코 토배기들 그러케 남씨드리 의령남씨드리 마니 사랏꼬.

<그 대동이라고 이제 상대동 하대동 윗터골 아래터골 집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남씨들 산소가 많아요. 그 죽은 분들이 옛날서부터 거주해가지구 아마 토박이들이 왜 묘 써 놓고 토박이들 그렇게 남씨들이 의령남씨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저 오작씨리, 그렇게 여기 뭐 시나모꼬리니.

<그리고 저 오작실이, 그러니까 여기 뭐 시나무골이니.>

조사자 : 시나모고리요?

<시나무골이요?>

제보자 : 예 그거슨 잘 몰르겨써요 시나모꼬리라고 한는데, 그러구서는 인자 그 아래턱골 위턱골 있꼬, 저쪽 오작썰 가서는 왜정시대 일본싸람드리 그 탄광 그 뭐가 있따구 해가지구서나 싸리꼬리라구 허는디 축똥이라구 해요. 싸리축짜를 나무 목뼈네 소 축짜 싸리축짜예요 그게. 싸리나무꼴도 있꼬 아피 큰 산, 드러오는 사니 보코사니이예요. 범이 엮드렸따해서 보코산. 그래 여기두 재미가 인는디유.

<예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시나무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래터골 위터골 있고, 저쪽 오작실 가서는 왜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그 탄광 그 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싸리골이라고 하는데 축똥이라고 해요. 싸리축자를 나무 목 번에 소 축자 싸리축(柎)자예요 그게. 싸리나무골도 있고 앞에 큰 산 들어오는 산이 복호산이예요. 범이 엮드렸다 해서 복호산(伏虎山). 그래 여기도 재미가 있는 데요.>

조사자 : 검천인데 검천니는 왜.

<검천린인데 검천리는 왜.>

제보자 : 검천니라구 해서는 여 검소할 검짜 내천짜자나유 검소한 내라는데, 월래는 여기가 동머니여썬때유 그렇게 연산 고을찌기 동

쪽에 이써서 동면, 그래서 원쟁가 배껴는지는 몰라두 벌고기루 되
있자나유.

<검천리라고 해서는 검소할 검(儉)자 내천(川)자잖아요 검소한 내
라는데, 원래는 여기가 동면이었었다요 그러니까 연산 고을 적에 동쪽에
있어서 동면, 그래서 언젠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벌곡으로 되어 있잖아
요.>

조사자 : 네.

<네.>

제보자 : 칠벌짜 골곡짜 그래서는 대둔산 빨치사니 이러케 마나서 고
를 치게 뵈다고 그런 속설두 이써유. 여기가 검천니가 흐감니여췌
대유.

<칠 벌(伐)자 골 곡(谷)자 그래서는 대둔산 빨치산이 이렇게 많아서
골을 치게 뵈다고 그런 속설도 있어요. 여기가 검천리가 흑암리였었다
요.>

조사자 : 흐감?

<흑암?>

제보자 : 거믈 흑짜 바위 암짜. 저 미티 동네를 거먹빠위라 구래자나
유. 둥구나무서 다리 건너오면 그래서 흐감니라구 했따구 하구 마
리 마난디, 우리 벌고기 그래서 벌고기고 벌고게 이 저 티가 여러
간데 이써유

<거믈 흑(黑)자 바위 암(岩)자 저 밑에 동네를 거먹바위라고 그러잖
아요. 둥구나무에서 다리 건너오면 그래서 흑암리라구 했다고 하고 말이
많은데, 우리 벌곡이 그래서 벌곡이고 벌곡에 이 저 티가 여러 군데 있어
요.>

보롬티 저 만몽니라구 그 동네는 열따섯찌비상이든 화재가 나

든지 뭐라든지 읍씨진대유. 그래 보름티랴. 여기는 뭐 배티구 보
름티는 가구 수가 마르면 이사를 가야되 열따서짱 이상이른 이사
를 가야한대.

<보름티 저 만목리라고 그 동네는 열다섯집 이상이면 화재가 나든지
뭐든지 없어진대요. 그래 보름티래요. 여기는 뭐 배티고 보름티는 가구
수가 많으면 이사를 가야되 열다섯집 이상이면 이사를 가야한대.>

조사자 : 보름티는 지그문 몇까구 사나요?

<보름티는 지금은 몇 가구 사나요? >

제보자 : 지금 며짱 안 살지.

<지금 몇 집 안 살지.>

조사자 : 그럼 괜찬나요?

<그럼 괜찬나요?>

제보자 : ㅎㅎㅎ 괜찬늘티지. 근디 거기두 인자 그 교통이 조아지구
도시화되써, 여기가치 그냥 집들 잘 짓꾸 그냥 줄 선다나? 여기는
주상 가튼건 업써 집 짓꾸 별짱만 하구 있써서.

<ㅎㅎㅎ 괜찬을테지,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교통이 좋아지고 도시
화됐어, 여기같이 그냥 집들 잘 짓고 그냥 줄 선다나? 여기는 주상가튼
건 없어 집 짓고 별장만 하고 있어서.>

조사자 : 그럼 여기 호감, 거문 바위가 아까 말쓰마실 때,

<그럼 여기 흑암, 검은 바위가 아까 말씀하실 때, >

제보자 : 거먹빠위.

<거먹바위.>

조사자 : 바위가 그렇겁니까? 탕광이 이써쭙니까 여기?

<바위가 그런 겁니까? 탄광이 있었습니까 여기?>

제보자 : 왜정 시대 일본 사람드리 와서 파 봤때유. 그런디 그먼 못 파 구 구리 이써유. 그런디 그놈들 구를 미느라고 주글빼내써 지방짜 람드리, 빨치산더리 와 가지고 거기서 숨꼬 그라니께

<왜정 시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파 봤대요. 그런데 금은 못 파고 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을 굴을 메우느라고 죽을 뻔 했어 지방 사람들이, 빨치산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숨고 그러니까.>

여기가 연사네서루 저리 이 쪽 곱티재라고 하는 디가 이써요. 여 배티재두 이찌만 이리해서 대둔상가는 길모기여 이게, 그래 빨치산드리 그 구리가서 자구 땡기구 그래 가지구 미구 허느라고 혼 나써요. 그래 그 일본 짜람드리 금 나오나 해 가지구 파쫂따는 소리 여러 가지 이써유. 저작 오작썰도 그래, 그래 가지구 그래서 여운산 다리성으루 월썰으루 대둔사니루 빨치산드리 드러갔쫂.

<여기가 연산에서 저리 이 쪽 곱티재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배티재도 있지만 이리해서 대둔상가는 길목이여 이게, 그래 빨치산들이 그 굴에 가서 자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메우고 하느라고 혼 났어요. 그래 그 일본 사람들이 금 나오나 해 가지고 팠었다는 소리 여러 가지 있어요. 저쪽 오작실도 그래, 그래 가지고 그래서 여운산 다리성으로 월성으로 대둔산으로 빨치산들이 들어 갔쫂.>

조사자 : 다리성이요?

<다리성이요?>

제보자 : 월성이라구 하쫂 왜 유명한 사니에요. 다리성도.

<월성⁶⁾이라고 하쫂 왜 유명한 산이에요. 다리성도.>

조사자 : 검쳐니면, 음 알겐네요. 낸물 바닥또 시커멍가요?

<검천이면, 음 알겠네요. 냇물 바닥도 시커멍가요?>

6) 충남 논산시와 금산군, 전북 완주군에 걸쳐 있는 대둔산의 월성봉을 말함.

제보자 : 헤, 바위가 꺾꾸, 그라구 벌공며니 이상하쥬. 시리 마나요.

<헤 바위가 꺾고, 그리고 벌곡면이 이상하쥬. 실이 많아요.>

조사자 : 시리요?

<실이요?>

제보자 : 집쌀짜 오작쌀 덕쌀 중부실 이런 시리 인는다, 그런 그런 디는 명당이 하나씩 있판데유. 근디 옛날 어른들 말쓰민디 그건 사시 령게벼유. 그라구 또 벌고게는 시리 인자 그러케 인냐 하믄, 이 모기 또 이썬. 목 덩목 자근목 뭐 그란 모기 밋개 이썬, 보통 시개 이상 이썬요.

<집 실자 오작실 덕실 중부실 이런 실이 있는데, 그런 그런 데는 명당이 하나씩 있다고 한대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인데 그건 사실인가 봐요. 그리고 또 벌곡에는 실이 이제 그렇게만 있냐 하면, 이 목이 또 있어 목 덕목 자근 목 뭐 그런 목이 몇 개 있지, 보통 세 개 이상 있어요.>

조사자 : 양촌도 그렇가요?

<양촌도 그런가요? >

제보자 : 양촌도 저 그러쥬. 양촌도 저 위 수상골 올라 가면 거기 그 아주 재미썬유. 양초는 벌곡뽀다 크지유. 양초는 조아유 지가 살다 온디지만, 그 거사리가 거할거짜 선비사짜 아니여? 그래서 그 국빵대하귀니. 유성이는 뭐 선비 유짜 재썬짜 아녀? 유성이 선비드 리 꺾 창고다녀? 교수들 그냥 박사깍뜰 연구단지니 그래서 유성이 래요. 선비가 아주 썬여 인는다, 그래 양촌 거사리에 국빵대하귀를 시작했더머뉴. 양촌 안드러가 보셔쥬?

<양촌도 저 그렇지요. 양촌도 저 위 수상골 올라가면 거기 그 아주 재미 있어요. 양촌은 벌곡보다 크지. 양촌은 좋아요 제가 살다 온 데지만,

그 거사리가 거할 거 자 선비 사 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방대학원이, 유성에는 뭐 선비 유 자 재 성 자 아녀? 유성이 선비들이 꼭 찬 곳 아녀? 교수들 그냥 박사급들 연구단지니 그래서 유성이래요. 선비가 아주 쌓여 있는데, 그레 양촌 거사리에 국방대학원을 시작했더군요. 양촌 안 들어가 보셨죠?>

조사자 : 뭐 거사리쪽또 가 봐줍니다. 근데 시라고 모카고는 어떠케 다릅가요?

<뭐 거사리쪽도 가 봤습니다. 근데 실하고 목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보자 : 글썸 이 시라고 모카고는, 모근 대부분 그 피낭고지루다가 시른 인자 저 대둔산 미티 중부시리니 오양시른 오정수나라는 오양시리니 요기 대덩니에 그라고 또 덕씨리라는 디가 인는디는 큰 덕짜 집씨리라는 무슨 또 거기 뭐가 있판대유. 근디 뭐 지가 잘 몰르지

<글썸 이 실하고 목하고는, 목은 대부분 그 피난 곳으로 실은 이제 저 대둔산 밑에 중부실이니 오양실은 오정순이라는 오양실이니 요기 대덕리에 그리고 또 덕실이라는 데가 있는 데는 큰 덕 자 집 실이라는 무슨 또 거기 뭐가 있다고 한대요. 그런데 뭐 제가 잘 모르지요.>

조사자 : 시고로면 마을 이름들이 참 재미이썸요.

<시골 오면 마을 이름들이 참 재미있어요.>

제보자 : 재미 이썸유. 그런디 저는 이런 생가글 해 봐썸유. 이 저 시에 서나 어디서 각 면마다 십쌈개면 거기에서두 지금 봉구가 되가지고 몇 꾸 일리로 나가자나유? 가사 검쳐니면 검천 일리 이리 덕꼭 또 일리 이리 하드끼, 그런데 또 각 이마다가 뜨미 있짜나유? 자연 부락. 요 배티다 오작씨리다 거떡빠위다 세 개 자연부라기 모여서

검천니가 되었잖나유?

<재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저 시에서나 어디서 각 면마다 십삼개 면 거기에서도 지금 분구가 되가지고 몇 구 일리로 나가잖아요? 가령 검천이면 검천 일리 이리 덕곡도 일리 이리 하듯이 그런데 또 각 이마다가 뜬이 있잖아요? 자연부락. 요 배티다 오작실이다 거먹바위다 세 개 자연부락이 모여서 검천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드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각 리가 자연부라기라고 왜 이름이 따로따로 있잖나유? 일개리에두, 그거 지금 유래가 인는 이름이 있잖나요. 뭐가 이썬서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하는데 그런 채근 음능가벼. 그런 거시기루다 조사해구서 가사 벌공며니면 검천며니면 배티 오작씨리 있구 그런데 거먹빠위 있꾸,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유래가 있다 하는 역싸저긴 이렇거뚜 이썬지간디 그런 채근 아파 무늬원가튼데서 발간 아나네벼.

<그렇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각 리가 자연부라기라고 왜 이름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일개 리에도, 그거 지금 유래가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서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하는데 그런 책은 없는가 봐요. 그런 것을 조사하고서 가령 벌곡면이면 검천면이면 배티 오작실이 있고 그런데 거먹바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유래가 있다 하는 역사적인 이런 것도 있음직한데 그런 책은 아마 문화원같은데서 발간 안 하는가 봐요.>

조사자 : 지금 이러케 제가 조사하지 안썬니까? 말쓰믈 정니해야쥬.

<지금 이렇게 제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말쓰믈 정리해야쥬.>

제보자 : 이거슬 나는 면장이면 면장이 마리어 강니 이장보고 야 면장은 이장보고 다뉘부락 이름 쯤 저저와라, 거기에는 무슨 유래가 인냐? 이걸 조사해서루 가사 논산시면 논산시를 논산 무슨 화보라고 하까? 이러케 해서 작썬해노면 보기도 썰깁디, 딱 보자나 논산시 무슨 떠는 어디어디 그런 거는 아파 음능거 가타요.

<이것을 나는 면장이면 면장이 말ियो 각 리 이장보고 야 면장은 이장보고 단위부락 이름 좀 적어 와라, 거기에는 무슨 유래가 있냐? 이걸 조사해서 기령 논산시면 논산시를 논산 무슨 화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작성해 놓으면 보기도 쉬울 건데, 딱 보잖아 논산시 무슨 면은 어디어디 그런 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조사자 : 제가 가서 만들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만들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제보자 : 그러게 쉬요, 그거.

<그러게 쉬워요, 그거.>

조사자 : 예나레 농사 지실 때는 소느로 할 순 업짜나요? 농사 도구는 어떻게뜨를 쓰셔쨌요?

<옛날에 농사 지으실 때는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농사 도구는 어떤 것들을 쓰셨어요?>

제보자 : 도구라며는 참 뭐 소 쟁기질부텀 쓰래질두 했꾸, 그 나중이 는 인자 그 다 나가구 그러면서 인자 기계가 경운기가 시자기 됐쨌.

<도구라면은 참 뭐 소 쟁기질부터 써래질도 했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다 나가구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경운기가 시작이 됐쨌.>

그런디 우리나라 이러케 발전되건 제 조븐 소겨닝가는 몰라도 박대통령이 욱 봐쨌요. 박정희. 그때 구차나니 워쩌니 해도 강제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참 노래 마을길두 널피구 참 기계 했쨌. 우리나라 이거 살리미유, 이거 어거지루 인저 나무 쉰겨 아니에유 참.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제 좁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박대통령이 욱 봤어요. 박정희. 그때 귀찮으니 어쩌니 해도 강제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참 노래 마을 길도 넓히고 참 기계 했지요. 우리나라 이거 산림이

요, 이거 어거지루 이제 나무 큰 거 아니에요 참.>

첫째 지붕개량 했꼬 그래서 그 나무 집가튼거 때구 열료 지금 나무 안 때게 맨들었짜나, 이게 해 나무 해 가라두 지금 아내가유. 뭐더러 해게써유 그냥 썩찌. 우리나라 아무디를 가도 그냥 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저니 감시원들 시켜서 나무해 가구 불 때서 해가 바패먹찌. 그래서 까쓰니 열료를 사용했끼 때무네 나무를 안 비여서 안 때기 때무네 자연노과 되거지, 심기도 마니 심었찌유. 우리 땡기면서 마니 심었찌유 욱뵈었찌유.

<첫째 지붕개량 했꼬 그래서 그 나무 짚 같은 거 때고 연료 지금 나무 안 때게 만들었잖아, 이게 해 나무 해 가라고 해도 지금 안해 가요. 무엇 하러 하겠어요 그냥 썩찌. 우리나라 아무 데를 가도 그냥 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감시원들 시켜서 나무 해 가고 불 때서 해 가지고 밥 해 먹찌. 그래서 가스니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무를 안베어서 안때기 때문에 자연녹화 된 거지, 심기도 많이 심었지요. 우리 다니면서 많이 심었지요 욱 뵈었지요.>

조사자 : 이 근처 사네는 어떤 나무드리 인나요? 다 소나무가요?

<이 근처 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나요? 다 소나무인가요?>

제보자 : 이게 참 벌고근 또 나무도 쳄쥬. 여기 발매 여러 번 하지유. 발매해서루 사니 사르면 산 뜨더머꼬 산다고 하드끼 발매도 하고 나물도 고사리도 꺼꺼서 이리키 아낭내드리 해서 했꾸. 소나무커서 소나무 비여서 발매해서 훌런소 한참 거시갈찌기 다 이놈 패가지고 훌런소 나무 디러가서 바배 머겼찌유.

<이게 참 벌곡은 또 나무도 쳄쥬. 여기 발매⁷⁾ 여러 번 하지요. 발매해서는 산에 살면 산 뜯어 먹고 산다고 하듯이 발매도 하고 나물도 고사리

7) 산관의 나무를 한 목에 베어내는 일.

도 꺾어서 이렇게 아낙네들이 해서 했고, 소나무 커서 소나무 베어서 발매 해서 훈련소 한참 거시기 할 적에 다이놈 패가지고 훈련소 나무 들어가서 밥 해 먹었지요.>

마냐게 지금도 그렇게 훈련소가튼디 바배머꼬 나무로 해 머그면 이거 살아남꺼씨유? 그 참 자랬씨유. 그르카니끼는 발매 했꾸. 또 이자 소나무 다 벼서 참나무 크면 참나무 벼서 인자 벼섯 낸다 벼섯목으로두 나가구. 한때는 연장 짜루로도 나가고 그란다 그러 더라구요. 그르캐서 인자 사니 나무를 비여 먹꾸 비여 먹꾸 했씨유. 그러면 지그른 이것 벼 머그른 저 나무가 크고 보통 지그른 참 나무가 마내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훈련소 같은데 밥 해 먹고 나무로 해 먹으면 이거 살아 남겠어요? 그 참 잘 했지요. 그렇게 하니끼는 발매 했고. 또 이제 소나무 다 베어서 참나무 크면 참나무 베어서 이제 벼섯 내는 곳 벼섯 목으로 나가고 한때는 연장 자루로도 나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나무를 베어 먹고 베어 먹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 베어 먹으면 저 나무가 크고 보통 지금은 참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월마저니두 참나무 발매하면 또 이 채금제루다가 그 소 나무를 심어유. 그라고 산주가 요하는 나무를 시머유. 묘목때를 보조해주고. 그르케해서루 사니 조아졌씨유. 그란디 우리나라 사 니 용재리미 그동안 안 돼써. 그래 썰떠음는 리기다니 아씨나무니 열료나 해결하려구. 우리나라 외구기서 수이바자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용재 재모그로 쓰는 거시기는 없따구하.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참나무 발매하면 또 이 책임제로 그 소나무를 심어유. 그리고 산주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유. 묘목 대금을 보조해주고. 그렇게 해서 산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이 용재림이 그동안 안됐어. 그래 쓸데없는 리기다니 아카시아나무니 열료나 해결하려구. 우리나라 외국에서 수입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용재 재목으로 쓰는 거시기는

없다고 해.>

조사자 : 엔나레는 오동나무 가통걸로 장농 만들지 아났습니까?

<옛날에는 오동나무 같은 걸로 장농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보자 : 그거 지금 장농 맨드러 쓰는 사람읍자나유? 가구 가통거니
뭐니 다 그렇걸 보문 발찌내가지구. 아니 글썸 지그른 고치를 주서
다가 팔자나유? 도시에서 주서다 파는디 좇지 말란데요 가져오지
말란대요

<그거 지금 장농 만들어 쓰는 사람 없잖아요? 가구 같은 거니 뭐니
다 그런 걸 보면 발전 해 가지고. 아니 글썸 지금은 고철을 주워다가 팔잖아
요? 도시에서 주워다 파는데 좇지 말라고 한대요 가져오지 말라고 한대
요>

할머니들이 주서 가지구 팔러가면 그것을 마라자면 간중거려가
지고 정니해가지고 공장에 늘라구하는 품싸기 외구게서 수이바
능것보다 더 비싸데유. 그러니 우리나라 문제지 생산되능거슨 읍
꾸 죄 외구기서 수입마나니 참 큰 문제요. 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
능 것투 읍스면서 흥거 주서서 파르문 가죠오지 말란다니 어뜨가
능거요 그래.

<할머니들이 주워가지구 팔러가면 그것을 말하자면 간중거려⁸⁾가지
고 정리해가지고 공장에 넣으려고 하는 품삐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문제지 생산되는 것은 없고 죄 외국에서
수입만 하니 참 큰 문제요. 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없으면서 현
것 주워서 팔면 가져 오지 말라고 한다니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래.>

조사자 : 크닐났쥬. 간중거린다는게 무슨 마리에요?

<큰 일 났쥬. 간중거린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8) 간추리다의 지역어.

제보자 : 정니한다능거쥬. 마라자믄 호터저징걸 간중거린다고하, 정니한다구.

<정리한다는 거쥬. 말하자면 흠어진 걸 간중거린다고 해 정리한다고.>

조사자 : 논산서 쓰는 마링가요?

<논산서 쓰는 말인가요?>

제보자 : 아마 그럴꺼여. 여기서 간중거린다구, 어쩌케 쓰다보니까 방어니 된네.

<아마 그럴 거요. 여기서 간중거린다구, 어떻게 쓰다보니까 방어니 됐네.>

조사자 :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피료합니다. 그러면 저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옛날에 시집 장가 가고 제사지내고 과논상제, 과논상제 이야기를 생강나는대로, 장가갈 때 몇 쌀 때 가서썬요?

<아니예요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옛날에 시집 장가 가고 제사 지내고 관혼상제, 관혼상제 이야기를 생강 나는대로 장가갈 때 몇 쌀 때 가셨어요?>

제보자 : 전 늦게 가썬니다. 겨론이라능건 생강 해 보면, 아이고 그게 뭐여 용네가 있구 왜 과논상제 용네가 있썬. 아이고 뭐뭐 칭친 납진 납패 칭혼 치녕이니 용네가 있썬썬. 다 이저버런네요. 과논은 그거 거시기 아니여? 장가 시집 가능거 과논은, 상제는 초상나가지고 상하능거 제사 지내능거고, 그런데 그거시 절때 재미가 이썬요.

<전 늦게 갔썬니다. 결혼이라는 건 생강 해 보면 아이고 그게 뭐여 육례⁹⁾가 있고 왜 관혼상제 육례가 있썬. 아이고 뭐뭐 칭친 납채 납패 칭혼

9) 육례(六禮)는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혼인절차의 여섯 가지 의식(儀式). 곧,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을 말함.

친영이니 육례가 있었어요. 다 잊어 버렸네요. 관혼은 그거 거시기 아니
여? 장가 시집 가는 거 관혼은, 상제는 초상 나가지고 상하는 거 제사 지내
는거고, 그런데 그것이 절대 재미가 있어요.>

지가 이상하게 장가를 늦게 가세요 농사는 지었찌만 별로 안부
터 이썬시유. 객찌 생화를 마니 하구 도라 댕겼찌유. 그런데 그 사
변 때 거정터가 있썬썬요 고정리 거정터. 거기서 사변 때 우리가
지반 김썬디 노인네가 이상하게 아덜더를 일코 이저버려썬. 혼자
적썬카시디구 서당을 댕겨썬썬요.

<제가 이상하게 장가를 늦게 갔어요. 농사는 지었지만 별로 안 붙어
있었어요. 객찌 생활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그 사변 때 거정
터에 가 있었어요 고정리 거정터. 거기서 사변 때 우리가 집안 김썬인데
노인네가 이상하게 아들들을 잃고 잊어버렸어. 혼자 적적하시디고 서당
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한문을 조금 배워썬, 호니니라능거 생각해보면뉴 확썬
히 이녀니이썬 연성이 있꾸. 그나저나 보문 이거이 연애를 해두
묘하게 궁하비 잘 마자. 궁하비 맞꼬 안 만능건 몰르는다. 그런데
지가 그걸 왜 배워나하면 영구를 했나머는 제가 상처를 해썬유.
스무라흙 서르네 장개 간는다.

<그래서 한문을 조금 배웠어, 혼인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인
연이 있어 연성이 있고. 그나저나 보면 이게 연애를 해도 묘하게 궁합이
잘 맞아. 궁합이 맞고 안 맞는 것은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배웠나
하면 영구를 했나 하면 제가 상처를 했어요. 스물 아홉 살헌에 장가 갔는
데.>

조사자 : 아유 꽤 느즈션네 그 당시는

<아유 꽤 늦으셨네 그 당시는.>

제보자 : 마니 느졌찌유. 대래청이 이썬루 대래청이라든 왜 인저 이

러케 참말루 맞춰가능거 아니예요? 천제라 그르지 하느리다 지사 지내는 거 땅에다 지사지내능거, 부부가 맹세한다능건디 그라구 서는 십년 딱 사란는디유.

<많이 늦었지요. 대례청이 있어서 대례청이라면 왜 이제 이렇게 참말로 맞춰 가는거 아니예요? 천제라 그르지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거 땅에다 제사 지내는거, 부부가 맹세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는 십년 딱 살았는데요.>

조사자 : 아 예.

<아 예.>

제보자 : 그라구서는 상처를 헐는디, 아 이노무거 애드른 죽 인는디 키워 가면서 생각해닝게 이상하게 옛날 풍스비, 마누라가 그러케 돼서 모이를 쓸라니께 묘자리라도 보야한다고 하자나유, 왜? 옛날 풍스비. 그래서는 누구보구서 인자 가서 채글 어더가지구 오라 그 랫찌유. 어떤 지비가문 채기 있따구 아라서루, 그래서는 그지비가 서 채글 갔따가 그걸 보구서는 묘를 썬는디, 잠도 안 오고 그라니께 그 채글 봐서 인자 지관지라는걸 배웠네요. 그러다 보니께 이노무 거 내팔자가 왜 그러냐 궁합또 보능것뚜 보구 별걸 다보게 되더문 그래요. 소기 상하니께 왜그렇가 소위 점보러다니던 시기지 그래 가지구서는 이저까지 사라 완는디

<그렇게 하고서는 상처를 헐는데, 아이 놈의 것 애들은 죽 있는데 키워가면서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옛날 풍습에, 마누라가 그렇게 돼서 묘 를 쓰려니까 묘자리라도 보야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 옛날 풍습에, 그 래서는 누구보고 이제 가서 책을 얻어 가지구 오라 그랬지요. 어떤 집에 가면 책이 있다고 알아서, 그래서는 그 집에 가서 책을 가져다가 그걸 보고서 묘를 썼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이제 지관질하는 걸 배웠네요. 그러다 보니께 이 놈의 것 내 팔자가 왜 그러냐 궁합도 보는

것도 보고 별걸 다 보게 되더군요. 속이 상하니까 왜 그런가 소위 점보러 다니던 식이지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까지 살아 왔는데.>

조사자 : 다시 재혼은 아니시구요?

<다시 재혼은 안 하시고요?>

제보자 : 그게 문제가 이쨌찌. 재혼을 왜 귀나지, 참말루 반메다가두 논메다가두 으른드리나 친구더리 어디 사라민는디 한번 가보게나 혼자 못 사러, 그럼 양가볼쭈가 읍짜나유.

<그게 문제가 있었지. 재혼을 왜 권하지, 참말로 밭 매다가도 논 매다가도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어디 사람 있는데 한번 가보게나 혼자 못 살아, 그럼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디 저런 절문 사람드른 식짜우화니여, 아무꺼뚜 몰르야 하, 캄카마야 하는디, 이거 가마니 식짜라민 한문 쫘 솔차니 일거 봐쭈요. 이거 두 배 되믄 자고로 펴난 집 읍쭈유. 응. 또 생사나게 되믄 으뜨케 되야? 참 근데 고민 되대유 갈땡되유. 그래 소그로는 마르야지 내가 이러며는 자식뜨라구도 참 따내비가 디고. 그래서는 양 간나 못간나 하여간 지금까지 사십 사십일년 뵈꾸만뇨. 그래서 못 갔쭈.

<그런데 저런 젊은 사람들은 식자우환이야, 아무것도 몰라야 해, 캄캄 해야 하는데, 이거 가마니 식자라면 한문 쫘 꽤 읽어 봤어요. 이거 두 배 되면 자고로 편한 집 없어요. 응. 또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참 근데 고민 되대요. 갈땡되요. 그래 속으로는 말아이지 내가 이러면 자식들하고도 참 탄애비가 되고. 그래서는 안 갔나? 못 갔나? 하여간 지금까지 사십 사십 일년 뵈군요. 그래서 못 갔쭈.>

조사자 : 자손은 몇 두셨는데요?

<자손은 몇 두셨는데요?>

제보자 : 그런데 스피드하게 십너네 여선나써, 그냥 번쩍카면, 팔자여 그래서 망내둥이가 인자 사시빙께, 가가 인자 마흔하낭가 두링가 하낭개비구만 그려.

<그런데 스피드하게 십년에 여섯 났어, 그냥 번쩍하면, 팔자여 그래서 막내둥이가 이제 사십이니까, 그 애가 이제 마흔 하나인가 둘인가 하낭가 보구만 그려.>

조사자 : 그러면 망내 나코 어머니 도라가싱 거네요?

<그러면 막내 낳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네요?>

제보자 : 가가 두달마니 지엄마 그러케 됐는데 그래 내가 팔자가 그려, 내가 그냥 그노미 김삿갓 시를 생각하믄 그걸 이상하게 안 이져 버리게 그것또 왔써. 호래비 될라 그랜나,

<그 아이가 두달 만에 제 엄마 그렇게 됐는데 그래 내가 팔자가 그려. 내가 그냥 그놈의 김삿갓 시를 생각하면 그걸 이상하게 안 잊어버리게 그것도 외웠어. 훌아비 되려고 그랬나,>

견우 이무나 모하지요, 아이가 묻기를 무나 모하지요 어머니는 어디갔쑈 마리어 어찌하짜 갈지짜 모하지라, 답지 청산 채채지라 대다파기를 청사네 나물 채채 나물 캐러가서 더디다 더딜지짜 답지청산채채지라 먼산나물 캐러가서 늦다. 이따가는 올겨 그러져 나 나중에 온다능게 이따가 온다고 하자녀. 일모청사네 인부도 하니 청사네 일모해는디 인부도 사라믄 오지를 아냐 인부도하지 해는 너머가고 사라믄 오지를 아냐니, 갱장하어답체아 다시 갱짜 장차 장짜 하어 무슨 말로 우느내 한티 대다파라 답제야. 호래비가 되니께 그노무 시생가기 또 그러케 나. 웃겨 죽껏찌. 오슬 자바 당기며 어머니 어디가써 하고 무르니.

<견우문모하지(牽牛問兒母何之)요, 아이가 묻기를 문아모하지요, 어

머니는 어디 갔오 말이여, 어찌 하자 갈 지 자 모하지라. 답지 청산 채채지 (答之靑山採菜遲)라. 대답하기를 청산에 나물 채 채 나물 캐러가서 더디다 더딜 지 자, 답지청산채채지라 먼 산 나물 캐러 가서 늦다. 있다가는 올 거야. 그나 저나 나중에 온다는 게 있다가 온다고 하잖아. 일모청산에 인부도(日暮靑山人不到)하니 청산에 일모했는데 인부도 사람은 오지를 않아, 인부도하지 해는 넘어가고 사람은 오지를 않으니, 갱장하어답제야(更將何語答啼兒) 다시 갱 자 장차 장 자, 하어 무슨 말로 우는 애한테 대답하라 답제야. 흠아비가 되니까 그 놈의 시 생각이 또 그렇게 나. 웃겨 죽겠지. 웃을 잡아 다니며 어머니 어디 갔어 하고 물으니>

조사자 : 할머니는 지금도 나물 캐러 가셨네요?

<할머니는 지금도 나물 캐러 가셨네요?>

제보자 : 답지청사네채채지라 대다파기를 먼 산 나물 뜨드러 갔따. 막쌍 그르케 내다 봐야지 일모청사네 인부도라 해는 너머 가는데 사람 오지 아느니 갱장하어답제야 다시 장차 무슨 말로 우느내를 달래랴. 호래비 되라 그랜나, 그런 시를 해필 아니저버리고 생강나 가지고 그래 그런 탄식또 해 봤썬니다.

<답지청사네채채지라 대답하기를 먼산 나물 뜯으러 갔다 막상 그렇게 내다 봐야지 일모청산에 인부도라 해는 넘어 가는데 사람 오지 않으니 갱장하어답제야 다시 장차 무슨 말로 우는 애를 달래랴. 흠아비 되려고 그랬나, 그런 시를 하필 안 잊어버리고 생각나 가지고 그래 그런 탄식도 해 봤습니다.>

조사자 : 그래두 참 그 저 상처하시고 혼자서 애 여섯 키우능게 보통 일이 아니셔썬텐데 하나도 안 일코 다 키우싱거예요? 마지가 몇 짜리세요?

<그래도 참 그 저 상처하시고 혼자서 애 여섯 키우는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하나도 안 잃고 다 키우신거예요? 만이가 몇 살이세요?>

제보자 : 그럼, 아이구 예 예 그런디 가가 서르니지 쉬운 하나.

<그럼, 아이구 예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설흔이지 쉰 하나>

조사자 : 쉬운 하나부터 마흔 하나까지 쭈루룩?

<쉰하나부터 마흔 하나까지 쭈루룩?>

제보자 : 서르니면 인자 뱃쫂근 나이가 있자냐. 여드니니 캐서 삼십
년 오십년 뿔짜나 삼시베나쫂께 벌써 시우나나 망내는 사시비나
썩 그래쫂께 마흔 하나.

<설흔이면 인자뱃 속은 나이가 있잖아. 여든이라고 해서 삼십년
오십년 뿔잖아 삼십에 났으니까 벌써 쉰하나 막내는 사십에 낳았어 그랬
으니까 마흔하나.>

조사자 : 아들 몇 딸 며치세요?

<아들 몇 딸 몇이세요?>

제보자 : 아들 둘 딸 네신디, 생이른 다 이저 버려썩.

<아들 둘 딸 넷인데, 생일은 다 잊어 버렸어.>

조사자 : 다 여의셨꼬?

<다 여의셨고?>

제보자 : 예 그런디 둘째따리 소글 썩겨, 양간다. 근디 가가 잘 해썩유
나한티. 참 혼자사는 날 생가캐서 마니 헌시내썩요. 청주가서 싯
대전서 싯사는디 썩 걸려 그 잘간나 모르거썩.

<예 그런데 둘째 딸이 속을 썩여 안 간대. 근데 그 아이가 잘 했어요
나한테. 참 혼자 사는 날 생각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청주 가서 셋 대전서
셋 사는데 제일 걸려 그 잘 갔나 모르겠어.>

조사자 : 둘째 따리면 마흐나흠 뿔썩네요.

<둘째 딸이면 마흔 아홉 됐겠네요.>

제보자 : 개가 마흐나호빌껴 아파.

<그 아이가 마흔 아홉일껴 아파.>

조사자 : 마흐나호베 혼자 아이쿠.

<마흔 아홉에 혼자 아이쿠.>

제보자 : 절대 이 겨로니라는 거시유, 지가 느껴보니까, 학생들 겨론 아난다고 부랭한 것도 아녀유, 한다고 해서 행보칸거뚜 아녀유. 그러타고 아날짚또 아니고 그래도 꼭 하기는 해야 한다 그거여. 나는 그걸 그걸 주장해요. 결코 한다고 해서 행복카다능진 차고여. 겨로 나고서 행보칸 사람도 있고 부랭한 사람도 좀 마내유. 혼자 사랏따고 행보카다고 생기칼쭈가 읍씨. 희노애라글 생기칼쭈기 인가는 희노애라기 있짜나유? 겨론 아나면 희로애락또 읍씨 슬플 일두 읍꾸 즐거울 일두 읍꾸.

<절대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제가 느껴보니까, 학생들 결혼 안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요,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할 짓도 아니고 그래도 꼭 하기는 해야 한다 그거여. 나는 그걸 그걸 주장해요. 결코 한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착오여. 결혼하고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좀 많아요. 혼자 살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희노애락을 생각할 적에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결혼 안 하면 희노애락도 없어 슬플 일도 없고 즐거울 일도 없고.>

조사자 : 하긴 해야겠네요.

<하기는 해야겠네요.>

제보자 : 하야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구서 마듭시 사르믄 뭐해유, 고생두 해보구 호강두 해보구 우리두 보구 우서두 보구.

<하야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맛없이 살면 뭐해유, 고생도 해보

고 호강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그거시 다 조다너부부라고 그래써. 부부서부텨 인자 이 시자기
끄시 생긴다. 끝판짜가 실마리가 끄치자나. 젤 첫뻘니 조단어 조
단어부부라 모등것은 진짜 희로애라근 부부서부텨 나온다. 형제
가니 조코 나쁘면 그건 아니여 부부가니 생산두 해보구 나서 키워
두 보구 이러두 보구 그게 인생에 희로애라기다.

<그것이 다 조단어부부(造端於夫婦)라고 그랬어. 부부서부터 이제 이
시작이 끝이 생긴다 끝 단 자가 실마리가 끝이잖아. 제일 첫 번에 조단어
조단어부부라 모든 것은 진짜 희로애락은 부부서부터 나온다. 형제간에
좋고 나쁘면 그건 아니야 부부간에 생산도 해보고 나서 키워도 보고 잃어
도 보고 그게 인생에 희로애락이다.>

그래서 지가 또 이러케 생각케 봐써유. 내가 겨로내가지구 용남
매 나가지구 그 고생을 하느니 차르리 독씨느루 사랴따면 마리어
잉 퍼나다 그거여, 지그매 용남매 키워가지구서 참 용또니래두 주
구 고깃끄니래두 사 오구 수리래두 갖따주구 절때 즐겁찌 아늘리
가 읍짜나유. 후회도 마니 했쫘 뭐다러 장개를, 또 재호내가지구
생각 하하하 거거 태산이여 갈쫘록 사니지 그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결혼 해 가지고 육남매
날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살았다면 말이여 잉 편하
다 그거요, 지금에 육남매 키워가지고 참 용돈이라도 주고 고깃근이라도
사 오구 술이라도 갖다 주고 절때 즐겁지 않을 리가 없잖ాయ 후회도 많이
했쫘. 뭇하러 장개를, 또 재혼해가지고 생각 하하하 거거태산(去去泰山)이
여 갈쫘록 산이지 그거.>

조사자 : 겨론시글 할 때, 삼십년 오십년 저네 겨론식 하셨짜나요? 겨
론식 순서는 어떠케 됩니까? 그때 아까 대례청 말씀하셨짜나요?
겨론식 순서 좀 쫘 생각케 봐주세요. 오슨 어땡 걸 입고 읍시근 뭇

차리고.

<결혼식을 할 때, 삼십년 오십년 전에 결혼식 하셨잖아요? 결혼식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까 대례청 말씀하셨잖아요? 결혼식 순서 좀 죽 생각해 봐 주세요. 옷은 어떤 걸 입고 음식은 뭘 차리고.>

제보자 : 예예 지가 인자 참 이건 병신 됐꾸먼서두 늘그면 그런게벼, 지가 여기서두 호닌 지내자나유? 그러믄 제가 관제두 주관두 했써 유. 이제 마라자면 뭐 송주글 꼬자노쿠 닥뚜 놓쿠 그러케 하구선 인저 대례쌍이라구 하죠.

<예예 제가 이제 참 이건 병신 됐지만서도 늙으면 그런가 봐요, 제가 여기서도 혼인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제도 주관도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뭐 송죽을 꽃아 놓고 닭도 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대례상 이라고 하죠.>

근데 장개 갔을 찌기는 군대 있쓸찌기여. 군대두 늦게 갔써요 객찌 돌아댕기므 가짜 계급짱가지구 참 못 됐찌. 그래 가지구는 인제 주관도 하구 그랜는디 그거시 인자 첫째 사주 부트면 인자 잉 이제 팔랑이니 관서니니 그라쥬. 실랑보구는 팔랑이라구 하구 여자보구는 관서니라구 하는디,

<근데 장가 갔을 적에는 군대 있을 적이야. 군대도 늦게 갔어요 객찌 돌아댕기면서 가짜 계급장가지고 참 못 됐찌. 그래 가지고는 이제 주관도 하고 그랜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 사주 붙으면 이제 잉 이제 관랑이니 관선이니 그러지요. 신랑 보고는 관랑이라고 하고 여자 보고는 관선이라고 하는데,>

선 본다구 하면 인자 그거시 용네서, 이자 버런네유. 용네서부터 시작되는 건디, 그러면 본 뒤에 인자 지끄믄 약콘시기니 어쩐니 해지만 그때는 사주가 왔다갔다 했찌 사주가, 아이코 그걸 워라 그러더라 사주가 왔다갔다 사주를 인자 실랑 지비서 사주를 가따

주르는 인자 신부지미서 바찌유.

<선 본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육례서, 잊어 버렸네요. 육례서부터 시작 되는 건데, 그러면 본 뒤에 이제 지금은 약혼식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때는 사주가 왔다 갔다 했지 사주가. 아이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사주가 왔다 갔다 사주를 이제 신랑 집에서 사주를 갖다 주면은 이제 신부집에서 받지요.>

조사자 : 사주단자.

<사주단자.>

제보자 : 이, 사주단자, 이 그거슬 인자 생년워리틀, 인자 이 사주팔짜 라구라지. 저 가사 갑짜생 매월 모월 모일 모시 생. 인자 고러케서 써서 뭐 싸리나무니 대나무니 이르케 딱 쪼개 가지고 또 이르케서 인자 하패서 인자 청실홍실 아래니 찜매구 그래가지구, 인자 썩거슬 인자 착 저버가지구 사주보가 이찌, 또 이르케 청실 청색 홍색 저브로 해가지구 이르케 저버 가지구 인제 삼각카게 인자 요기서 요로케 저버가지구 착착 해서 싸아 가지구 사주뽀라 그러지 왜 흐 흐, 그래 그러구 따악 너 가지구서 또 인자 이러케 싸서 보내지. 그담 인자 정중히 상이다 바찌. 이러케 내주먼 그러고서는 인자 사주가 끈난 뒤에는 인자 태기리지. 소위 이 인자 태기리 인자 그러서는 인자 날짜 자바가지구 인자,

<이, 사주단자, 이 그것을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이 사주팔자라 그러지. 저 가령 갑짜생 몇월 모월 모일 모시 생. 이제 그렇게 해서 써서 뭐 싸리나무니 대나무니 이렇게 딱 쪼개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합해서 이제 청실홍실 아래니 찜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쓴 것을 이제 착 접어 가지고 사주보가 있지, 또 이렇게 청실 청색 홍색 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인제 삼각형으로 이제 여기서 요렇게 접어 가지고 착착 해서 싸아 가지고 사주보라고 그러지 왜 흐흐, 그래 그러고 따악 넣어 가지고서

또 이제 이렇게 싸서 보내지. 그 다음 이제 정중히 상에다 받지. 이렇게 내 주면 그리고서는 이제 사주가 끝난 뒤에는 이제 택일이지. 소위 이 이제 택일이 이제 그래서서는 이제 날짜 잡아 가지고 이제.>

조사자 : 태기른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택일은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제보자 : 태기른 위는 신부지비서 하구 그라능겨유. 왜냐 이 신부지비서는 준비할께 만타능겨지 신랑집보다두. 그래서 신부집 사정에 으해서 태기를 해서 신랑지비 보낸다구. 그 예의가 그르케 돼때유. 그르케 해써유. 뭐 그래가지구는 인저 해구서 인자 예를 지내쥬.

<택일은 원래는 신부집에서 하고 그러는 거요. 왜냐 이 신부집에서는 준비할께 많다는 거지 신랑집보다도. 그래서 신부집 사정에 의해서 택일을 해서 신랑 집에 보낸다고. 그 예의가 그렇게 되였대요. 그렇게 했어요. 뭐 그래 가지고는 이제 하고서 이제 예를 지내쥬.>

근디 그란디, 그때 나는 갈 때 그때 뭐 무슨 가마가 이씨? 뭐가 이씨? 인자 그릉거 다 읍써져쥬 때지. 택씨는 그건 어려운 얘기구, 도락꾸지 그때말루 화물차 그래 그눔 타구 가가지구 또 타구가서 올써기 인자 거기서 그거 실쿠 오구 그라는다. 그라구서는 인자 대례청이 드르가서 인자 뭐 저라구, 마쩌라지 소위 마쩌리지 인자. 그라구선 머 그 그거뚜 쥬 재미인능게 오 이르케 쥬 하라그라구 쥬 저라는다 오리 가따농길 이르케 저랄때 몰래 가지구 가. 그저 거기서 주관하구 그라는 아낭네가 이케 저랄때 오리를, 왜 오리 이짜나 그걸 몰래 가따 썰판지다 느은다 느으 그래가지구,

<근데 그런데, 그때 나는 갈 때 그때 뭐 무슨 가마가 있어? 뭐가 있어? 이제 그런 것 다 없어 쥬을 때지. 택씨는 그건 어려운 얘기고, 트럭이지 그때말로 화물차 그래 그눔 타고 가가지고 또 타고 가서 올적에 이제 거기

서 그거 싫고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이제 대레청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절하고, 맞절이지 소위 맞절이라지 이제, 그리고는 뭐 그 그것도 제일 재미 있는게 오 이렇게 절하라고 하고 절 절하는데 오리 갖다 놓은걸 이렇게 절 할 때 몰래 가지고 가. 그 저 거기서 주관하고 그러는 아낙네가 이렇게 절 할 때 오리를, 왜 오리 있잖아 그걸 몰래 갖다 쌀단지에다 넣는데 넣어 그래 가지고,>

조사자 : 그걸 왜 쌀단지에다 넣어요?

<그걸 왜 쌀단지에다 넣어요?>

제보자 : 부자디구 잘 사르라구 배 부르게 잘 머꾸 잘 사르라는거지, 그게 인자 그 그르캐하든 인자 끝나지 뭐 맞쩌라구서, 또 이거슬 이 자루 이루케서루 노쿠 저를 이캐. 그라구서는 절 저라구서는 끝나는데 그라구서는 그때는 엔나리는 저 말하자든 그냥 사람드리 다 신크 가찌 농가통거 그거 뭐 화물차가 이써간디?

<부자되고 잘 살라고 배 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는거지, 그게 이제 그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지 뭐 맞절 하고서, 또 이것을 이 자루 이렇게 해서 놓고 절을 이렇게 해. 그리고는 절 절하고서는 끝나는데 그리고는 그때는 옛날에는 저 말하자면 그냥 사람들이 다 신크 갔지 농 같은 거 그거 뭐 화물차가 있었나?>

조사자 : 혼수를료?

<혼수를요?>

제보자 : 응 혼수. 이찌 왜 근디 우리짱마내두 그때는 화물차가서 화물차에 신크 신크신부 고거 타구 그라구서는 와써찌유.

<응 혼수. 있지 왜 근디 우리 적만해도 그때는 화물차가서 화물차에 신크 신크신부 그거 타고 그리고는 왔었지요.>

조사자 : 그럼 신방 차리면?

<그럼 신방 차리면?>

제보자 : 신방은 인자 그때는 처가찌비서 보통 차리는데, 그 처가에
서 인자 그 신부때게서 조금 어렵꾸 골란하면 싸드려 간다 그랴유.
싸드려 간다구. 당일로 그냥 신부 신랑지비로 보내능거.

<신방은 이제 그때는 처가집에서 보통 차리는데, 그 처가에서 이제
그 신부댁에서 조금 어렵고 곤란하면 싸 데려간다고 그래요. 싸 데려간다고.
당일로 그냥 신부 신랑집으로 보내는 거>

조사자 : 겨론시근 그럼 신부찌베서?

<결혼식은 그럼 신부집에서?>

제보자 : 신부찌비서 신부네 왜 마당 빌려 준다능거여 그게. 근디 대
부분 그때 풍소기 그래뎡가 바유. 신랑지비서 신부지비서 예를 지
내구 그라야 진짜 장개 가능거지. 데려다가 우리지비서 하믄 그 아
니라능 거지. 그래서 그르케 예를 해써유.

<신부집에서 신부네 왜 마당 빌려 준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대부분
그때 풍속이 그랬던가 봐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서 예를 지내고 그래야
진짜 장가가는거지.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하면 그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예를 했어요.>

조사자 : 몇 시 쯤에 합니까? 시근?

<몇 시 쯤에 합니까? 식은?>

제보자 : 그래서 인자 그거뚜 시가기 자버. 이 시를 자버 매씨 매씨에
대례 시를 그걸 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각을 잡아. 이 시를 잡아 몇시 몇시에 대례
시를 그걸 또.>

조사자 : 저녁때 하능건 아니구요? 나제?

<저녁때 하는 건 아니구요? 낮에?>

제보자 : 아니지, 아니지. 나제 하능거뚜 아니구 보통 사시 이상이라 야지. 사시며는 인자 그 열씨서 여란시 사이 때, 오시는 열뚜시에 서 한시 그르캐 해서 고편라야 마찌. 가 가서 하구 인자 오기두 데 리 올쭈도 이꼬 그란디 엔나레는 왜 중도에서두 자기두 해따 그라 대요. 중도에서 자구 또 머르니께. 또 신랑대기서 어찌피 인제 저 신방을 차리구 인자 그르니께 자고두 오고 그래때유.

<아니지, 아니지. 낮에 하는 것도 아니구 보통 사시 이상이라야지. 사시면은 이제 그 열시에서 열한시 사이 때, 오시는 열두시에서 한시 그렇게 해서 고편라야 맞지. 가 가서 하고 이제 오기도 데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왜 중도에서도 자기도 했다고 그러대요. 중도에서 자고 또 머니까. 또 신랑택에서 어차피 이제 저 신방을 차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고도 오고 그랬대요.>

조사자 : 그럼 문꾸멍 뚫코 보고 그러나요?

<그럼 문구멍 뚫고 보고 그러나요?>

제보자 : 응, 응, 그러치 그래서 신랑다르는 버비 이씨.

<응, 응, 그렇지 그래서 신랑 다는 법이 있어.>

조사자 : 다라요?

<달아요?>

제보자 : 왜 단다구 이르케 때리구 하자나. 처가에 가문 그걸 동상례 라구 그르케 배워써유.

<왜 단다고 이렇게 때리고 하잖아. 처가에 가면 그걸 동상례¹⁰⁾라

10) 동상례(東床禮)는 사위에게 베푸는 예식의 한가지로 우리나라 재래식 혼인에서 신랑이 대례 절차를 마친 후 신부집에 재행(再行)했을 때 동년배의 동네 청년이나 친척들이 신랑을 다루는 풍습이다. 동상은 사위를 말함.

고 그렇게 배웠어요.>

조사자 : 동상네요?

<동상네요?>

제보자 : 예 동녘동짜 그 상 상짜 이 상상짜 상 동상네 이 그거뚜 또 재미있찌유 신랑을 또 다라멍는디 인자 그 테스트하능거여 마라 자면.

<예 동녘 동 자그 상상자이 상상자상동상네 이 그것도 또 재미있 지요 신랑을 또 달아 먹는데 이제 그 테스트하는 거여 말하자면.>

조사자 : 다라 보셨쎄요?

<달아 보셨어요?>

제보자 : 해봐찌유.

<해 봤지요.>

조사자 : 달려보시기도 하시구요?

<달려보시기도 하시고요?>

제보자 : 아 그 뭐 마땅히 장가가는 사라믄 달리지.

<아 그 뭐 마땅히 장가가는 사람은 달리지.>

조사자 : 어땀쎄요? 어떠케 해쎄요?

<어땀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보자 : 그래 인자 그게 이쎄유. 동상, 인자 제일 처빠니 다를찌기 주 소성명을, 이게 저기 무를찌기는 주소 성명부텀 무를꺼 아네유? 인자 이 이게 인주호그니에유. 이게 무슨 자냐므는 인자 마라자믄 이거시 인주호그니라는 얘기여. 그라믄는 주소가 워디냐 그거여. 인주호그늘 아르여라이 이게 인짜 인주호그나녀 인자 보태면 주

소지여 이게.

<그래 이제 그게 있어요. 동상, 이제 제일 첫 번째 달 적에 주소성명을, 이게 저기 물을 적에는 주소 성명부터 물을 것 아니에요? 이제 이 이게 인주호근¹¹⁾이예요. 이게 무슨 자냐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인주호근이라는 얘기에. 그러면 주소가 어디냐 그거여. 인주호근을 아뢰어라 이 이게 인자 인주호근 아녀 이제 보태면 주소지요 이게.>

그람 인자 다블 하던지 말던지가내 사람 조지능거여. 그냥 막 애매기능거여 히히히. 이거시 즉 이거란 마리어 여생석구, 그래 가지구 이르캐서 무려 실랑을, 그람 대다블 하거나 말거나 기 주기 능기여. 그런데 그때 우리 다를 저기두 이게 서당에 안 댕기구 이런 시마게 잘 아내쓰믄 잘 몰르드라구. 그런데 이르캐 하구.

<그러면 이제 답을 하던지 말던지간에 사람 조지는 거야. 그냥 막 애먹이는 거요 히히히, 이것이 즉 이거란 말이여 여생석구¹²⁾,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어 신랑을, 그러면 대답을 하거나 말거나 기 죽이는 거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달 적에도 이게 서당에 안 다니고 이런 심하게 잘 안했으면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런디 이게 위는 실랑다는 예가 동상례라능거여. 동상례 동상례자는 인자 막 이르캐 뒤서 막 그냥 복장을 두는거여, 고래지풍이 엔나레 풍소기라능거지. 그라구 고래지풍이라니 너이짜지. 이역 위지 이부위지라 너도 하구 니 애비도 해따. 이진데 그러니 수를 얼마를 낼랴? 인자 수유 이 이게 저 삼시며니 술 주짜 달기가 다기 물멍는건 어뜨카 물은 얼마나 낼래 그거여.

<그러면 이게 원래는 신랑다는 예가 동상례라는거요. 동상례 동상례자는 이제 막 이렇게 뒤서 막 그냥 복장을 두는 거요. 고래지풍(古來之風)이

11) 주소(住所)의 한자를 나누어서 인주호근(人主戶斤)이라고 부르는 글자 놀이.

12) 성명(姓名)의 한자를 나누어서 여생석구(女生夕口)라고 부르는 글자 놀이.

옛날에 풍속이라는 거지 그리고 고래지풍이라니 너 이 자지, 이역위지 이부위지(爾亦爲之爾父爲之)라 너도 하고 네 아비도 했다 이건데 그러니 술을 얼마를 내겠느냐? 이제 수유¹³⁾ 이 이게 저 삼수 번에 술 주자 닭이 닭이 물 먹는 건 어떻게 해 물은 얼마나 낼래 그거요.>

그리고 인자 고기 고기는 날생짜 하나만 해라 날생짜는 이게 이게 소 한 마리여 하하, 이르케서는 맨 골려 먹꼬 그라지유. 이제 이게 마라자른 장난하능거지. 그런디 으학저그루두 요기 다리 때리구 그라면 어뜨게 남자게는 조타대 하하하. 그래 엔나레 인자 이런 장난드를 마니 해꼬.

<그리고 이제 고기 고기는 날생자¹⁴⁾ 하나만 해라 날생자는 이게 이게 소 한 마리여 하하. 이렇게 해서는 맨 골려 먹고 그러지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장난하는 거지.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여기 다리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남자에게는 좋다하대 하하하. 그래 옛날에 이제 이런 장난들을 많이 했고.>

조사자 : 뭘로 때렸습니까 발빠다글?

<뭘로 때렸습니까 발바닥을?>

제보자 : 방맹이루 패지유. 방맹이 방매이가 넓쭈간놈 가통걸로. 아프게 패나? 이 형식저기지 재미오라기루, 이러머는 또 뭐 살살 때리라고 장모니미 말린다네. 그개 장모니미 말리야 살살 때리고 어찌구 장난 하느라구. 그라므 술 마니 주게 살살하 이 사람드라 하하 하 이 그래써써유.

<방망이로 패지요 방망이 방망이가 넓쭈한 놈 같은 걸로. 아프게 패나? 이 형식적이지 재미오락으로, 이러면 또 뭐 살살 때리라고 장모님이 말린다네. 그렇게 장모님이 말려야 살살 때리고 어찌구 장난하느라구.>

13) 주(酒)의 한자를 나누어서 수유(水酉)라고 부르는 글자 놀이.

14) 생(牲)의 한자를 달리 날생자라고 부르는 글자 놀이. 소 한마리를 의미함.

그러면 술 많이 줄게 살살해 이 사람들아 하하하 이 그랬었어요.>

조사자 : 그때도 함 지고 가고 그랬나요?

<그때도 함 지고 가고 그랬나요?>

제보자 : 그러믄유. 암. 하믄 인자 그 장개 가는 날 거기에는 거시기가
이썬. 패배기라구. 낱패 치녕자는 그 옷감 여자 뭐 치매 저고리까
믈 이르게 하미다 느가지구 인제 함 사라구 하나씩 이래 해가지구,
옌나래 지금더른 그거슨 예의두 아녀. 그냥 장난이 좀 과하다구 보
야지.

<그럼요. 암. 함은 이제 그 장가가는 날 거기에는 거시기가 있어
폐백이라구. 낱패 친영자는 그 옷감 여자 뭐 치마저고리 감을 이렇게 함에
다 넣어 가지구 이제 함 사라구 하나씩 이래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들은
그것은 예의도 아니야. 그냥 장난이 좀 과하다구 보아야지>

그저니는 줌 중인더리라구 인자 그분드리 질머지구 가므는, 그
거뚜 팔짜 조으니까 받는다. 지방이서두 지방이서두 과부나 과부
대구 어짜구 이런 이는 안 바꾸. 아드리다 참 딸이나 잘 키우구 실
패두 읍써꾸 성공두 하구 그란 인자 노인네들, 이르게 정중하게
바더도 이 상이다 올리노쿠 그라지 땅바다게다도 안 노쿠. 그라므
는 인자 그 서우나다구 이르게 귀항거슬 그냥 내릴수 인냐구 그라
믄 옌나래는 술쌍 하나 차려서 수를 이르게 따라 드려따능겨여.
지그믄 돈 내노라구 바꾸 가안다고 하고 이거슨 엉터리지유.

<그전에는 줌 중인들이라구 이제 그분들이 짙어지고 가면 그것도 팔자
좋은 이가 받는대요. 지방에서도 지방에서도 과부나 과부댁 어찌고 이런
이는 안 받고. 아들이다 참 딸이나 잘 키우고 실패도 없었고 성공도 하고
그런 이제 노인네들, 이렇게 정중하게 받어도 이 상에다 올려놓고 그러지
땅바닥에다도 안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서운하다고 이렇게 귀한것을 그냥
내릴 수 있냐고 그러면 옛날에는 술상 하나 차려서 술을 이렇게 따라 드렸

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 내놓으라고 받고 가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엉터리
지요.>

조사자 : 하믄 누가 지고 가나요?

<함은 누가 지고 가나요?>

제보자 : 그릉께 글썸 중인들 보통 이런 이덜 품싸글 돈두 둔툑카게
쥐 가지구서 인자 이르케서 지구 가짜유.

<그러니까 글썸 중인들 보통 이들 품삐을 돈도 두둑하게 쥐
가지구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고 갔지요.>

조사자 : 실랑도 가쥬?

<신랑도 가쥬?>

제보자 : 전날 전날 가지 응 전날 가지.

<전날 전날 가지 응 전날 가지.>

조사자 : 그 함 쏘게는 뭘뽀 드러감니까?

<그 함 속에는 뭘뽀 들어 갑니까?>

제보자 : 글썸 그 여자 그 신부 옷감 응.

<글썸 그 여자 그 신부 옷감 응>

조사자 : 비다닝가요 그럼?

<비단인가요 그럼?>

제보자 : 그럼 비다니이게짜유 그란디 그거슬,

<그럼 비단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자 : 그럼 어르시는 뭘 너어가지고 가셔썸요?

<그럼 어르신은 뭘 넣어 가지고 가셨어요?>

제보자 : 나 몰라 기억 모다게써 허허허 우리가 는능거 아니자녀.

<나 몰라 기억 못 하겠어 허허허 우리가 넣는거 아니잖아.>

조사자 : 하긴 그러쵸 으न्द्र리 는능거니까.

<하긴 그렇쵸 어른들이 넣는거니까.>

제보자 : 하하하 으न्द्र리 뭐 는는데 인자 그 가가례라고 하까? 그 집
형편대로 해야지 음은 사람드리 조은 비다늘 늘쭈 읍짜나. 인자 그
르케 근디 워는 예의라능거슨 과해두 예 비례라 그러자나요. 적재
적소 자기 형편네 마즈야 한다.

<하하하 어른들이 뭐 넣는데 이제 그 가가례(家家禮)라고 할까?
그 집 형편대로 해야지 없는 사람들이 좋은 비단을 넣을 수 없잖아. 이제
그렇게 그런데 원래는 예의라는 것은 과해도 예 비례라 그러잖아요. 적재
적소 자기 형편에 맞아야 한다.>

조사자 :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쵸요. 하물 지고 갈 때 그 끈을 무명으로
로 만드러서 지고 가자나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함을 지고 갈 때 그 끈을 무명으로
만들어서 지고 가잖아요?>

제보자 : 옌나래는 하미 이르케 딱 이썬썬 네모져 가지구,

<옛날에는 함이 이렇게 딱 있었어 네모져 가지고,>

조사자 : 그 무명을 나중에 어디다 쓰능거냐 하면 애들 기저귀 끈으로
이러케 해서 나중에 착 잘라서, 기저귀까를 미리 보내는 거지. 근
데 그거를 그 안에다 넣는건 아니고 굉장히 시룡저기었던 거지 다.

<그 무명을 나중에 어디다 쓰는거냐 하면 애들 기저귀 끈으로 이러
게 해서 나중에 착 잘라서, 기저귀 감을 미리 보내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안에다 넣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이었던 거지 다.>

제보자 : 그리고 나중에 저 대레지내구 천날 바미 머그라구 이르케
치매 벌리구 이르케서 주자냐, 대추 밤 아들 딸 마니 나라고. 공계
그른 그계 풍소기라구 하카. 그런디 지금드른 너무 그거시 과하다
구 하카? 예의에 줌 너무 이 어근난다구. 그런디 인자 우리는 늘거
짜나. 생가개보먼 그때 망끼가지 모당거에 그 후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 대레 지내고 첫날 밤에 먹으라고 이렇게 치마
벌리고 이렇게 해서 주잖아, 대추 밤 아들 딸 많이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계 풍속이라고 할까. 그런데 지금들은 너무 그것이 과하다고 할까? 예
의에 줌 너무 이 어긋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늙었잖아. 생각해 보면
그때 만끽하지 못 한 것이 그 후회가 돼요.>

만날 세상사라는 거슨 누구고 후회를 하게찌만 참 지금 우리가
늘거서 지금 오디 관광차 간다 그러믄 오시지마세유 그랴유. 아유
오뜨케 오뜨카실라구 그래. 그래서 요즘 노래를 실가매유. 하꼬
다닐쩌게 왜 그러케 되지라고 공부가 하기사르까 아유. 참 숙제는
그누무 선생님 얼굴 쳐다 보구 하하하 그래써.

<만날 세상사라는 것은 누구고 후회를 하겠지만 참 지금 우리가 늙어서
지금 어디 관광차 간다 그러면 오시지 마세요 그래요. 아유 어떻게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 노래를 실감해요. 학교 다닐 적에 왜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하 하기를 싫을까 아유. 참 숙제는 그놈의 선생님 얼굴 쳐다
보고 하하하 그랬어.>

함께 태사니여, 그때는 가이상이라 그래써 일본시대 개전이라
그래. 지그믄 머라구래유? 그걸 하고 시핀디 으른드른 올링 바미
나 머그라구 불르구 왜 왜 그르케 하기사러,

<할 것이 태산이여, 그때는 가이상이라 그랬어 일본시대 개전이라 그
래. 지금은 무어라고 해요? 그걸 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얼른 밥이나 먹으
라고 부르고 왜 왜 그렇게 하기 싫어.>

조사자 : 가이상, 이러케 바다게 그려노코 하능거죠?

<가이상, 이렇게 바닥에 그려 놓고 하는 거죠?>

제보자 : 예 이르케 왜 그때 한 실컷 아니구 맘껏 아니구 그런나 몰라.
그게 후회대유 절때. 왜 남보단 자라고는 시픈디 하기는시러 이게
이게 정시니 삐뚜러징거여

<예 이렇게 왜 그때 한 실컷 안 하고 맘껏 안 하고 그랬나 몰라 그게
후회되요 절대. 왜 남보단 잘하고는 싶은데 하기는 싫어 이게 이게 정신이
비뚜러진거여.>

열씨미 좀 하 그라고 선생니만티 가서 모르능거는 아이거썸 아
르켜 달라 그러구. 그르먼 얼마나 이쁘게 생가글 하. 아이구 그거
몰라서 와썬? 차암 고맙다 이쁘다 아이 실컷 가르켜 주지. 왜 그냥
그르케 선생님 눈치만 살살 보구 이 그르케 후회가 되야.

<열심히 좀 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모르는 거는 아이것 좀 가르켜
달라 그러고. 그러먼 얼마나 예쁘게 생각을 해. 아이고 그거 몰라서 왔어
참 고맙다 예쁘다 아이 실컷 가르켜 주지. 왜 그냥 그렇게 선생님 눈치만
살살 보고 이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인자 지금 옛날 노래 문짜가 있짜냐. 노세노세 절머서
노세 늘거지면 몬노나니. 지금 우리나이에는 몬노라유. 노를쭈가
이썬? 어디 도라 댕길쭈가 이썬? 등산 하재면 등사늘 갈쭈가 이
썬? 워디 구경 가재면 구경 갈쭈가 이썬.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자
녀 꼬스 여를 불공개 업구 권불심년이라 권세두 심년이 업따구,
왜 그 저 조은 절므플 그냥 늘퀴썬 글썬.

<그래서 이제 지금 옛날 노래 문자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우리 나이에는 못 놀아요. 놀 수가 있어? 어디
돌아 다닐 수가 있어? 등산하자고 하면 등산을 갈 수가 있어? 어디 구경
가자고 하면 구경 갈 수가 있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하잖아요.

꽃은 열흘 붉은 게 없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권세도 십년이 없다고,
왜 그 저 좋은 젊음을 그냥 늙게 했어 글썤.>

조사자 : 그게 다 지나봐야 안다고 하자나요?

<그게 다 지나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제보자 : 글썤 그란디 저얼때 후회할 지슨 마르야능거시 근디 늘거
보니까 차암 죄다 후회할찐만 해찌 하나 내가 제대루 했찌 하능건
아무꺼뚜 읍써. 나쁜 짓만 제대루 해써.

<글썤 그런데 절대 후회할 짓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런데 늙어 보니
까 참 죄다 후회할 짓만 했지 하나 내가 제대로 했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나쁜 짓만 제대로 했어.>

조사자 : 뭐 하셧는데요?

<뭐 하셧는데요?>

제보자 : 하기 시릉건 하지 말라는 진만 지소캬찌.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는 짓만 계속했지.>

조사자 : 술 드셧썤요?

<술 드셧썤요?>

제보자 : 아이고 담배를 어뜨게 그냥, 담배 안 피시쥬? 저는 유기오
사변 때 배웠네요. 아이 모뎀 노무 친구드리 피구 그라믄 마리어,
그게 뭇 존지시라구 그걸 또 여피서 퍼 봐,

<아이고 담배를 어떻게 그냥, 담배 안 피시쥬? 저는 육이오 사변
때 배웠네요. 아이 못 된 놈의 친구들이 피고 그러면 말리어, 그게 뭇 좋은
짓이라고 그걸 또 옆에서 퍼 봐,>

술도 뭇 암마 머거봐 임마 조아 그람 또 그걸 머거봐. 그르캐서
배워찌. 역뿌루 배울라고 배웅거또 아니여. 그게 모뎀 건만 그르

케 참 배워져요.

<술도 뭐 야임마먹어봐 임마 좋아 그러면 또 그걸 먹어봐. 그렇게 해서 배웠지 일부러 배울려고 배운 것도 아니요. 그게 못 된 것만 그렇게 참 배워져요>

조사자 : 세상 이리 참 역뿌러 안 돼요.

<세상 일이 참 일부러 안 돼요.>

제보자 : 우리 이라느니 숙제두 하구 공부두 하구 고향년한테 이것좀 아껴주세요 이르케 했으면 오죽 좋아. 생 못된 진만 하고 물꼬기 나 자브러 다니고 생전 그래써유.

<우리 이라느니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고향년한테 이것 좀 가르켜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오죽 좋아. 생 못된 진만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생전 그랬어요. >

조사자 : 못된 짓 아니죠. 재미인는 지시죠. 제사도 계속 지내셨쑈?

<못된 짓 아니죠. 재미있는 짓이죠. 제사도 계속 지내셨쑈?>

제보자 : 그러믄뉴. 그 제사 문제가 마내유. 저 고모대기 관중이네 지 빈디, 그지비 종손찌비어유. 혼자 지사를 지내유. 그 형님 말하자면 관중이 아버지 학쑈이 아버지 애덜 다 직짱에 이꾸 어디 가구 뭐 이료이리 아니면 모도자내유? 그러믄 노인네가 두 노인네가 밤만 저러케 떠 노쿠 운모기다 노쿠서루 그냥 업드려서 이르케 그냥 예의만 표시하니, 그거 손자들두 읍꾸 자시근 늘거 가지구 그러니 이게 제사라능 거시 자손드리 모두 와서 저를 하능게 제사아니거 써유?

<그럼요 그 제사 문제가 많아요. 저 고모댁이 관중이네 집인데 그 집이 종손집이에요. 혼자 제사를 지내요. 그 형님 말하자면 관중이 아버지 학중이 아버지 애들 다 직짱에 있고 어디 가구 뭐 일요일이 아니면 못 오잖

아요? 그러면 노인네가 두 노인네가 밥만 저렇게 떠 놓고 웃목에다 놓고서는 그냥 옆드려서 이렇게 그냥 예의만 표시하니, 그거 손자들도 없고 자식은 늙어 가지고 그러니 이게 제사라는 것이 자손들이 모두 와서 절을 하는 게 제사 아니겠어요?>

그거 사계유 쟁쟁하지 김장생 뭐 소니이라구 허허허 그래 니중이는 가을 시월달 이 첫 첫쭈 이료일 그래 태기를 해가지구서 날짜를 자버서 그나른 싹 다 올쭈 이짜나유? 손자구 손자 뭐 기타 동기 간두 그래 모두 모여서 그때 지사 그 합제를 해버려 그계 정당하지유. 마라자면 제사라구 하는데 손자도 모도고 그냥 늙은 아들만 그냥 늙은 메느리가 그냥 밥 떠다노쿠서 이르구 이거 지사 아니라 능거여. 이거 무슨 참 사망 기녀미리지

<그거 사계¹⁵⁾요 쟁쟁하지 김장생 뭐 자손이라구 허허허. 그래 니중에는 가을 시월달 이 첫 첫쭈 일요일 그래 택일을 해 가지고서 날짜를 잡아서 그날은 싹 다 올 수 있잖아요? 손자구 손자 뭐 기타 동기간도 그래 모두 모여서 그때 제사 그 합제를 해버려 그계 정당하지요. 말하자면 제사라고 하는데 손자도 못 오고 그냥 늙은 아들만 그냥 늙은 며느리가 그냥 밥 떠다 놓고서 이러고 이거 제사 아니라는 거야. 이거 무슨 참 사망 기념일이지.>

조사자 : 그거는 사계지반 얘기고 광김네 얘기구요. 어르시는 본과니 어디세요?

<그거는 사계 집안 얘기고, 광김네 얘기구요. 어르신은 본관이 어디세요>

제보자 : 저는 상녕입니다.

<저는 삭녕입니다.>

15) 사계(沙溪)는 조선 시대의 유학자인 김장생(金長生)의 호이다. 김장생은 광산 김씨 문중 사람으로 논산에는 광산 김씨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광산 김씨를 줄여 광김이라고 하기도 함.

조사자 : 상녕.

<삭녕.>

제보자 : 예 상녕이 누구냐며는 우리 심육때존디 이게 초하루 삭짜
이게 최항이라구 이찌? 항이라고 하는 양반네. 세종조 때 한글 창
제하구 해뜬 이 항짜 외자이름 이 심육때조. 상녕이 경기도여.

<예 삭녕이 누구냐 하면 우리 심육대조인데 이게 초하루 삭 자에게
최항이라구 있지 항이라고 하는 양반네. 세종조 때 한글 창제하고 했던
이 항짜 외자이름 이 심육대조. 삭녕이 경기도여.>

조사자 : 경기도입니까? 상녕이 지금 어디예요?

<경기도입니까? 삭녕이 지금 어디예요?>

제보자 : 예 경기도, 지금은 이부기로 되이찌유.

<예 경기도, 지금은 이북으로 돼 있지요.>

조사자 : 황해도 쪽 아닝가요?

<황해도 쪽 아닝가요?>

제보자 : 경기도 이부기루 알구 이찌유 상녕이. 저는 상녕 최가에유.
외가는 사이공, 그저니 왜 그 사라미 누구여 국회의원, 난 모르게
씨 선종인가 뭐 있졌지 왜 통통하니.

<경기도 이북으로 알고 있어요 삭녕이. 저는 삭녕 최가에요. 외가
는 사이공 그전에 왜 그 사람이 누구여 국회의원, 난 모르겠어 선종인가
뭐 있었지 왜 통통하니.>

조사자 : 그럼 그 상녕 최씨 문중에서는 가가레이긴 하지만 제사모실
때 제수는 어떻 것드를 하나요?

<그럼 그 삭녕 최씨 문중에서는 가가레이긴 하지만 제사모실 때
제수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제보자 : 그런디 뭐 제수는 업씨사르니께 충부니 모쓰지유. 인자 보통 뭐 이 아이구 이 제일 옷줄이 아이구 면육시반잔갱조서부트미지.

<그런데 뭐 제수는 없이 사니까 충분히 못 쓰지요. 이제 보통 뭐 이 아이구 이 제일 옷 줄이 아이구 면육시반잔갱조서부터지.>

조사자 : 뭐요?

<뭐요?>

제보자 : 시반잔갱조

<시반잔갱초¹⁶⁾(匙飯羹羹醋)>

조사자 : 되게 어렵네요.

<되게 어렵네요>

제보자 : 접씨 반 밥 잔 국 인자 저 초 종이 면육 저거 병 면 고기 적어 병 떡 인자 요로케서 보통 그르케 해유. 그라구서 인자 오탕 오탕인디 오탕을 어뜨카써 그냥 명태탕 고기탕 이런 거 소고기탕이나 그르치 한 이탕이나 삼탕 배끼 모쓰지유.

<접씨 반 밥 잔 국 인자 저 초 종이 면 육 적어 병 면 고기 적어 병 떡 이제 요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오탕 오탕인데 오탕을 어떻게 써 그냥 명태탕 고기탕 이런 거 소고기탕이나 그렇지 한 이탕이나 삼탕 밖에 못 쓰지요.>

조사자 : 오탕 다하면 뭐 뭐예요?

<오탕 다하면 뭐 뭐예요?>

16) 시반잔갱초(匙飯羹羹醋)란 다섯가지 제수를 한꺼번에 일궈어 나타내는 말. 접시, 밥, 술잔, 국, 식초 등 다섯 가지를 말함.

제보자 : 오탕이란 뭐 이 소 인저 그 명태 명태 보통 쓰자네유? 두부하
 구 보통 그담 뭐 꿩이니 뭐니 그거 봉게 그거 아주 복자배유. 여러
 가지 이꾸. 산 거시기두 이꾸 그라구 인자 나물 왜 인자 채, 그라구
 인자 홍동백서를 쓰던지 조율시리를 쓰던지 그란디 우리는 조율
 시리를 써유. 왜냐면 대추는 씨가 하나라능거여 이건 천자 제일 다
 씨가 하나니께.

<오탕이란 뭐 이 소 이제 그 명태 명태 보통 쓰잖아요? 두부하구
 보통 그다음 뭐 꿩이니 뭐니 그거 보니까 그거 아주 복잡해요. 여러 가지
 있고. 산 거시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물 왜 이제 채, 그리고 이제 홍동백
 서¹⁷⁾를 쓰던지 조율시이¹⁸⁾를 쓰던지 그런데 우리는 조율시이를 써요.
 왜냐하면 대추는 씨가 하나라는 거요 이건 천자 제일 다 씨가 하나니까.>

저 인자 울 아녀? 이거슨 삼정승 울 조율, 시는 이게 저 씨가 여섯
 개라구 해유. 배가 그래 조율시리 삼정승 육판서 허허허. 그래서
 조율시리는 그러한 의미에서루 조율시리를 쓴다. 이 이게 왕 울
 밤 바른 씨가 세 세토리자나유? 보통 세톨 밤 그라구 인제 이 배는
 거시기 저 씨가 시개 참여섯개, 그래 삼정승 육판서 이 인자 이하
 는 여배기지 머 그냥 뭐 그냥 여러 개.

<저 이제 울 아녀? 이것은 삼정승 울 조율, 시는 이게 저 씨가 여섯 개라
 구 해유 배가 그래 조율시이 삼정승 육판서 허허허. 그래서 조율시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율시이를 쓴다. 이 이게 왕 울 밤 바른 씨가 세 세톨이잖
 아요? 보통 세톨 밤 그리고 이제 이 배는 거시기 저 씨가 세 개 참여섯
 개, 그래 삼정승 육판서 이 이제 이하는 여백이지 워 그냥 뭐 그냥 여러
 개.>

17) 홍동백서(紅東白西)는 계수를 진설하는 방법의 하나로 붉은 색 과일은 동쪽
 부터, 흰색 과일은 서쪽에서부터 진설하는 방법을 말함.

18) 조율시이(棗栗柿梨)는 계수를 진설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추, 밤, 감, 배의 순
 서로 진설하는 방법을 말함.

조사자 : 그게 이제 격씨깅거죠? 시반잔갱조 되게 어렵따.

<그게 이제 격식인거죠? 시반잔갱초 되게 어렵다.>

제보자 : 며늑저거병 두번째는, 그라고 삼탕.

<면육적어병 두번 썰는, 그리고 삼탕>

조사자 : 삼탕하고 아페 과일하구요.

<삼탕하고 앞에 과일하고요.>

제보자 : 삼탕 또 채가 또 이꾸, 채 응, 그래 여섯쭈리거든뉴. 보통 제사 그래 사 그래 이러케.

<삼탕 또 채가 또 있고, 채 응 그래 여섯줄이거든요. 보통 제사 그래 이렇게.>

조사자 : 여섯쭈리요?

<여섯 줄이요?>

제보자 : 응 며늑저거병 과일 그라고 인자 이게 또 과일도 보른 여기에 지금 조율시리니 이게 과일이 아니거썬요? 이거는 인자 과도 조과가 이꾸 생과가 이짜네유. 모과, 조과는 맹그능게 조과여 지을 조짜 이게 조판디 근데 이거슨 목과지 조율시리는 나무 그라 인자 조과가 인자 그 참 목과가 인는디 이게 참 꼭설루 쓸쭈가 이따. 꼭설 인자 꾸부러지게 진서를 할 수 이따

<응 면육적어병 과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과일도 보면 여기에 지금 조율시이니 이게 과일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제 과도 조과가 있고 생과가 있잖아요. 목과¹⁹⁾, 조과는 만드니까 조과²⁰⁾여 지을 조(造) 자에게 조과 인데 근데 이것은 목과지 조율시이는 나무 그래 이제 조과가 이제 그 참

19) 목과(木果)는 나무에서 딴 과일을 말함.

20) 조과(造菓)는 강정이나 유밀과 등 여러 재료를 가지고 만든 과자류를 말함.

목과가 있는데 이게 참 곡설루 쓸 수가 있다. 곡설²¹⁾ 이제 구부러지게
진설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도 보든 왜 옛날 뭐 할머니 우리 어머니 사라계실찌
기지. 왜 호박꼬지두 말려따가 조청이다도 발라서두 노쿠 지그문
저 거슨 뭐 과일 뭐 튀밥두 이르게 무쳐서두 노쿠 꿀가통 이런 거
슨 목짜지 그릉게 그거슬 먼저 노치유 조과는 뒤에 노쿠유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왜 옛날 뭐 할머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지. 왜 호박꽃이도 말렸다가 조청에도 발라서두 놓고 지금은 저것은 뭐
과일 뭐 튀밥도 이렇게 무쳐서도 놓고 꿀같은 이런 것은 목과지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놓지요 조과는 뒤에 놓고요>

조사자 : 조과는 뭐가 있습니까?

<조과는 뭐가 있습니까>

제보자 : 조과는 이거 우리가 맵그는 과일 뭐 산적가통거, 그거 말구
저 뭐라 그러지 그 왜 이 튀밥무치구 그러는거 이르게서

<조과는 이거 우리가 만드는 과일 뭐 산적같은 거, 그거 말구 저
뭐라 그러지 그 왜 이 튀밥 무치구 그러는 거 이렇게 해서>

조사자 : 약과.

<약과.>

제보자 : 이 약과가통거 그 약빤가통거. 약빠비니 그릉거뚜 과루 두
루 그 조과 맵그는 과를 조과라 그래유. 이 지을 조짜 조과. 그래
위는 이 실과가 인는디 목짜가 실과 아니여? 이 열매 실짜. 그래서
위는 인자 실과가 인자 그래서 인자 맵그는 거지 그거슨 조과. 그래
서루 우리가 인자 그 제사를 모실 저겐 원칙찌기 인자 실과 인자

21) 곡설(曲設)은 제수를 진설할 때 똑바로 하지 않고 구부러서 하는 것을 말함.

육두 인자 그 처째 소 돼지 닭 튀, 이게 그 순서가 제일 조응거 별루 이르게 진서를 하지유 ㅎㅎㅎ.

<예 약과 같은 거 그 약밥 같은 거. 약밥이니 그런 것도 과로 두루 그 조과 만드는 과일을 조과라 그래요. 예 지을 조자 조과. 그래 원래는 이 실과가 있는데 목과가 실과 아니여? 이 열매 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과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지 그것은 조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모실 적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실과 이제 육두 인자 그 첫째 소 돼지 닭 튀 이게 그 순서가 제일 좋은 거 별로 이렇게 진설을 하지요 ㅎㅎㅎ.>

조사자 : 날짜는 언제 하나요?

<날짜는 언제 하나요?>

제보자 : 날짜는 저 도라 가신 날 지사를 지내자나. 양 명절 말고는, 그런데 인저 그 산 날로 지낸다고 그러는디, 가사 이럴날 돌아가서 쓰면 이제 이일날 지내자나. 마라자면 도라 가신 날이 이제 이리리 이면 아니 참 이이리라 그랴. 돌아가신 나리 그라며는 입제라 그랴 죠. 초하루 초하루 날 열두시 이저네 보통 지내지. 열두시에 내내 그럼 주근 날 지내는 포기지. 전날 그르케 지낸단다지 왜잉 제사를 그르케 지내쥬.

<날짜는 저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잖아. 양 명절 말고는, 그런데 이제 그 산 날로 지낸다고 그러는데, 가령 일일날 돌아가셨으면 이제 이일 날 지내잖아. 말하자면 돌아가신 날이 이제 일일이면 아니 참 이일이라 그래. 돌아가신 날이 그러면 입제라 그러죠. 초하루 초하루 날 열두시 이전에 보통 지내지. 열두시에 내내 그럼 죽은 날 지내는 폭이지. 전날 그렇게 지낸단다지 왜 잉 제사를 그렇게 지내죠.>

조사자 : 그럼 그 아까 말쓰마신 그 제수를,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치깁 거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제수를,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칙인가
죠?>

제보자 : 그럼 원칙이지. 그러니까 그거다 그냥 원칙이 이러케 한다
그러치. 이게 무슨 가감도 하지 가가마지. 더군다나 응 채에두 왜
보통 보면 시금치나물도 노코 콩나물도 이러케 노코 옛날에 무수
나물 마니 해놔쥬. 그게 채종류여 그것뚜. 근데 그것뚜 가가마지
더 마니 놀쭈도 있꼬 들 놀쭈도 있꼬. 고기도 참 튀여 꿩고기 뭐 뭐
니 뭐 닭꼬기니 뭐니 기냥 총 이쓰면 이쓸수록 또 양도 마니 노코
허허허.

<그럼 원칙이지, 그러니까 그거다 그냥 원칙이 이렇게 한다 그렇
지, 이게 무슨 가감도 하지 가감하지, 더군다나 응 채에도 왜 보통 보면
시금치나물도 놓고 콩나물도 이렇게 놓고 옛날에 무수 나물 많이 해놔지
요, 그게 채 종류여 그것도. 근데 그것도 가감하지 더 많이 놀 수도 있고
덜 놀 수도 있고. 고기도 참 튀여 꿩고기 뭐 뭐니 뭐 닭고기니 뭐니 그냥
총 있으면 있을수록 또 양도 많이 놓고 허허허>

조사자 : 물 좀 한잔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너무 피곤하지 아녜세요?

<물 좀 한잔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보자 : 아유 괜찬아유 지가유 지꺼리기는 무척 조아해유 허허. 왜
냐면 근디 그게 환경에 따라서유 뱅날 애드라고만 이썸찌 참 여서
슬 키우는디유 인자 그 두 살서 찌찌 한 살서 부텨 그그 따져보면
시살 니살 잉, 강께 그게 쥘 첫빠내가 두 달이구 인자 그 두 살 아녀?
그 위는 두 사리다 심땃개월 배께 읍써. 자주 눈 마주치니께 저 일
케하고 인자 두 살 잉 그람 니살 여서쌀 여덜쌀 여얼쌀 일케 해서
윽남매아녀?

<아유 괜찮아요 제가유 지꼈이기는 무척 좋아해요 허허.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요 뱅날 애들하고만 있었지 참 여섯을 키우는

데요 이제 그 두 살서 저 저 한 살서 부터 그 그 따져보면 세살 네살 잉,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첫 번 애가 두 달이고 이제 그 두 살 아녀? 그 위는 두 살이다 십 몇 개월 밖에 없어 자주 눈 마주치니까 저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살잉 그럼 네 살여섯 살세 살여덟 살 열 살 이렇게 해서 육남매 아녀?>

그러며는 보통 자는디 우리가 열씨 이저네 잔다 그래유. 근데 애더른 여섯씨에도 자고 여덟씨에도 자고 뭐 대중읍씨 자자냐. 그라문 야드리 이제 군대식도 아니라 오줌 누는것도 허헿허, 히히 또 자기 저네 일째이 오줌 누코 몇씨부텀 자거라 몇씨에 문다다라 그게 아니거든. 그라문 미리 누코 자는 놈도 있꾸 앵간치 큰 노몬 아버지 오줌 하며는 그라지만 짜까망것뜨른 깨워서 누기 저네는 그냥 찐다구. 몰를껴 그란디 그려.

<그러면 보통 자는데 우리가 열씨 이전에 잔다 그래요. 근데 애들은 여섯씨에도 자고 여덟씨에도 자고 뭐 대중없이 자잖아. 그러면 이 애들이 이제 군대식도 아니라 오줌 누는 것도 허허허, 히히 또 자기 전에 일제히 오줌 누고 몇 시부터 자거라 몇 시에 문 닫아라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미리 누고 자는 놈도 있고 어지간히 큰놈은 아버지 오줌 하면 그러지만 쪼꼬마한 것들은 깨워서 누이기에는 그냥 싼다고. 모를꺼요 그런데 그래.>

그러며는 이 나이롱 장판때때 문제여. 어리내 키울찌겐. 엔나렌 맨들자리 왕골로 할찌게는 누면 오줌 누면 그냥 저냥 그냥 미트로 쪽 새버리자녀. 이노메 나이롱 장판은 아니더라구. 크크 여피 다 젖뜨라구 잉.

<그러면 이 나이롱 장판 때문에 문제여. 어리내 키울찌엔. 옛날에는 맨들자리 왕골로 할찌에는 누면 오줌 누면 그냥 저냥 그냥 밀으로 쪽 새버리잖아. 이 놈의 나이롱 장판은 아니더라고. 크크 옆에 다 젖더라고 잉>

그런디 찐노몬 엄는디 다 저졌씨, 나까지 잉 하하, 잉 그러자녀, 그러면 이거슬 논산장에 가서 마리유 엔나레 오강 켈 큰 노프로

목판 푸리딩딩하게 그려진 노미 있써유. 그놈 어떠케 하나면 자루에다 너어 가지고 일케 미구 오야햐. 그러며는 자기 저네는 누코 누코 또 잘라 그러면 얼른 오줌 누코자라고 하자나유? 그러며는 이제 열씨서부터는 인자 다 잤따 그라.

<그런데 싹 놨은 없는데 다 젖었어, 나까지 잉 하하, 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논산 장에 가서 말ियो 옛날에 요강 제일 큰 놈으로 목단 푸르딩딩하게 그려진 놈이 있어요. 그놈 어떻게 하나하면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와야 해. 그러면은 자기 전에는 누고 누고 또 잘라 그러면 얼른 오줌 누고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씨서부터는 이제 다 잤다고 그래 >

그람 이놈들 한번씩근 다 뉘야 하자나. 그라몬 여섯뻘 인나야지 일제히 다 깨워 죽 못 누이자나. 아버지 오줌 하면 그때 뉘구서, 그람 쪼금 이쓰면 아버지 오줌 하면 또 뉘고 또 췌가낭것뜨른 어거지로 기냥 깨워서 일케 요강에다 안치면 짜그내는 오강이 췌 크니께 한번씩 두번씩은 비야햐 자다가도. 이이이, 방덩이가 췌까나니까 폭뜨러가 잉 크니께. 그라니 이걸 분잡꼬 있써야햐. 고람 나도 내가 이러케 즐다 보면 야도 인나서 어거지로 뉘는 오주미라 가치 이러케 자빠져 하하. 그러면 이 노무 나이롱 장판이 어떠케 되야?

<그럼 이놈들 한번씩은 다 뉘어야 하잖아. 그러면 여섯 번 일어나야지 일제히 다 깨워 죽 못 누이잖아. 아버지 오줌 하면 그때 뉘구서, 그럼 조금 있으면 아버지 오줌하면 또 뉘고 또 췌간한 것들은 어거지로 그냥 깨워서 이렇게 요강에다 안치면 작은애는 요강이 제일 크니까 한번씩 두 번씩은 비워야 해 자다가도. 이이이, 엉덩이가 췌그마니까 폭 들어가잉, 크니까 그러니 이걸 붙잡고 있어야해. 그러면 나도 내가 이렇게 즐다보면 애도 일어나서 어거지로 뉘는 오줌이라 같이 이렇게 자빠져 하하. 그러면 이놈의 나이롱 장판이 어떻게 되요?>

참 그니께 그 애들 유가가 지금도 그 어머니드리 애들 키우는

생가캐보셔, 키웠쓸째 기저귀도 가르지만 조금 큰놈도 우리도 대 여섯살까지 어쩌다 찢겨갔자네. 신나게 장난하고선 잉 참 그르게 해서 키울찌게 참 힘드렸써요. 그라고 그 도시락 지금 안 싸가지 엔나렌 도시락 서너 너덧개씩 다 찢짜나요.

<참 그러니까 그애들 육아가 지금도 그 어머니들이 애들 키우는 생각해 보셔 키웠을 제 기저귀도 같지만 조금 큰놈도 우리도 대 여섯 살까지 어쩌다 찢적 있잖아. 신나게 장난하고서는 잉 참 그렇게 해서 키울 적에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지금 안 싸가지 옛날에는 도시락 서너 너덧개씩 다 찢잖아요>

조사자 : 어르신, 그때는 도시락이 아니라 이르미 달랐쪄짜나요?

<어르신, 그때는 도시락이 아니라 이름이 달랐었잖아요>

제보자 : 잉 벤또라 그랬쪄. 벤또고 그 도시락이 아니라 벤또. 그래두 나중 아들 키울적 애들 키울 찢겐 도시락이라 그랬쪄. 하 이노무 바블 싸야자나유, 그람 밥 싸능건 문제가 아녀 반찬 문제여.

<잉 벤또라 그랬어. 벤또고 그 도시락이 아니라 벤또. 그래도 나중 애들 키울적 애들 키울 적엔 도시락이라 그랬쪄. 하이놈의 밥을 싸야 하잖아요. 그럼 밥 싸는 건 문제가 아니야 반찬 문제여.>

조사자 : 반찬은 어떠케 만드셨써요?

<반찬은 어떻게 만드셨써요?>

제보자 : 반찬 맨들기 쉽쪄. 먹편 말던 하하. 가물 가으리 따유 따면 도라무통이 그 도람통이라 그러자녀, 거기다 그 저 비니루다 이런 비니루 그냥 소그마고 막 저려서, 가물 거기다 막 따서 너어. 그라 문 그게 감장아치되야.

<반찬 만들기 쉽쪄. 먹든 말든 하하. 감을 가을에 따요 따면 도라무통에 그 도라무통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그 저 비닐에다 이런 비닐 그냥

소금하고 막 저러서, 감을 거기다 막 따서 넣어, 그러면 그게 감장아찌 되어요.>

인자 꼭지 잘 얹저나케 며칠을 잘 그냥 뒤 봐유. 그 감장아찌 다 머서 쓰러서 주면 애들도 빼서 머그면 안다. 감장아찌 조타고. 이러케 여러 봐서 그거 있쓰면 솟제 바블 안가지고 가. 그리고 옌나 레 꼬추장 싸줬찌. 음 꼬추장 싸주고 김치 싸주고 그랬쥬. 부жат찌 비나 뭐 계란찜가튼거, 읍써씨 우리 학교 땡길찌게두.

<이제 꼭지 잘 얹전하게 며칠을 잘 그냥 뒤 봐요. 그 감장아찌 담아서 썰어서 주면 애들도 뺏어 먹으면 안대요. 감장아찌 좋다고. 이렇게 열어 봐서 그거 있으면 솟제 밥을 안가지고 가. 그리고 옛날에 고추장 싸줬찌. 음 고추장 싸주고 김치 싸주고 그랬쥬. 부жат집이나 뭐 계란찜같은거, 없었어 우리 학교 다닐 적에도.>

조사자 : 그때 닭 안 메기셨어요? 지베?

<그때 닭 안 먹이셨어요? 집에?>

제보자 : 닭 하하 닭 얘기도 모댓쥬, 참 어렵게 애들 참 핵꿀 땡견네. 신발 참말로 야 올라 어째 떠러지능건 읍꼬 마구 물건 갑씨 올라가 기만 한다.

<닭 하하 닭 얘기도 못 했고, 참 어렵게 애들 참 학교를 다녔네. 신발 참말로 야 올라 어째 떨어지는 건 없고 마구 물건 값이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니께는 어떤 애가 그러더랴 아버지 나 신 떠러전는디 바지 떠러전는디 그러더끼, 떠러지능게 그러케 마냐. 왜 그저니 우리도 학교 다녔찌만 단추가 왜케 자꾸 왜케 바지가 자꾸 타개져,

<그러니까는 어떤 애가 그러더래 아버지 나 신 떨어졌는데 바지 떨어졌는데 그러듯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아. 왜 그전에 우리도 학교 다녔지만 단추가 왜 그렇게 자꾸 왜 그렇게 바지가 자꾸 타개져>

어떤 때는 이걸 쪽 껴가지고 그냥 이걸 가방으로다가방이 아니라 책보였어 책보. 나중에 가방이지. 여기다 이리케 찌때는 그냥 참 지금 학생들 참 호강이죠. 그때는 이삼십니 보통 거렸써유. 중학교 다닐 찌게는 사오십니. 여기서도 벌고게서도 기냥 연산중학교 거러 땡겼써써유. 그때 그라고 일개 동네에서 우리 땡길찌겐 중학생 한두리었지 참 어렵게.

<어떤 때는 이걸 쪽 껴가지고 그냥 이걸 가방으로다가방이 아니라 책보였어 책보. 나중에 가방이지. 여기다 이렇게 잡아매는 그냥 참 지금 학생들 참 호강이죠. 그때는 이삼십리 보통 걸었어유. 중학교 다닐 적에는 사오십리. 여기서도 벌곡에서도 그냥 연산중학교 걸어 다녔었어유. 그때 그리고 일개 동네에서 우리 다닐 적에는 중학생 한둘이었지 참 어렵게.>

조사자 : 참 애들 여섯 키우시기가 참 아버지 혼자 키우능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그니까 그때 농사 지으시면서 키우싱거예요? 이 동네에서 아이드를?

<참애들 여섯 키우시기가 참 아버지 혼자 키우는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농사 지으시면서 키우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제보자 : 그랬쫘, 그때 오작씨레 살았쫘.

<그랬쫘, 그때 오작실에 살았쫘.>

조사자 : 오작씨레서 그러면 자식들도 다 오작씨레서 학교 다니구요?

<오작실에서 그러면 자식들도 다 오작실에서 학교 다니구요?>

제보자 : 여기 덕초니라고 대덕 궁미낙교, 그러다가 벌곡중학교가 있쫘. 내가 학생들 아까도 얘기하지만 제발 채금 나 할찌시 뭐냐 효도가 뭐냐,

<여기 덕촌이라고 대덕국민학교, 그러다가 벌곡중학교가 있었쫘.

내가 학생들 아까도 얘기하지만 제발 책임 나 할 짓이 뭐냐 효도가 뭐냐,>

지금 생가해보니까 수욕정이나 뭐 풍부지 하고, 어버이 생이레 부대치니라. 어버이는 기다려주지를 안는다. 하여간 내 채그물 완수하능건 효도하능건 학생찌게는 공부 잘 해야하. 공부를 자라라능게 아니라 열씨미 하라능거여. 잘 모대도 상관 읍씨 열씨미만 하면 되능거지. 어찌케 안 되능걸 자랄쭈가 이씨 열씨미는 해야지 내가 할만크른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욕정이나 뭐 풍부지 하고 어버이 생일에 부대친이라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를 안는다²²⁾. 하여간 내 책임을 완수하는 건 효도하는 건 학생 적에는 공부 잘 해야 해. 공부를 잘 하라는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잘 못해도 상관없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안 되는걸 잘 할 수가 있어 열심히는 해야지 내가 할 만큼은 해야지.>

그냥 놀고 뭐 그냥 떼지어 다니면서 놀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열씨미 해야 그게 효도고, 잘 먹꼬 그게 효도여. 자라능게 효도 아녀 열씨미 하능게 효도지. 그람. 자라야지 얼마나 부모님 속 안 췌기고 좋아야 참 얼마나 잉.

<그냥 놀고 뭐 그냥 떼 지어 다니면서 놀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야 그게 효도고, 잘 먹고 그게 효도야. 잘 하는 게 효도 아녀 열심히 하는 게 효도지. 그람. 잘 해야지 얼마나 부모님 속 안 췌이고 좋아야 참 얼마나 잉.>

조사자 : 아드니른 지금 대전서 있쓰면서 지금 대전서도 계시췌? 거기 큰 아들찌베?

<아드님은 지금 대전서 있으면서 지금 대전서도 계시췌? 거기 큰

22) 논어에 나오는 수욕정(수욕정)이 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욕양(자욕양)이 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라는 구절로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효도에는 때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아들집에?>

제보자 : 예 근디 이러케 됐써. 여기서 인자 농작 농작꺼리가 있꼬 그러니께 주민등록이 야가 여기 부터 있써유. 이러케 하자녀 그리고 저만 가가지고, 며느리가 저 외국 며느리여유, 며느리가 로보튼게 베틀. 거시기 셔믈 봐서 합껴글 해야 그케 뭐지?

<예 그런데 이렇게 됐어. 여기서 이제 농작 농작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이 아이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저만 가가지고, 며느리가 저 외국 며느리에요 며느리가 로봇인가봐요. 거시기 시험을 봐서 합껴글 해야 그케 뭐지?>

조사자 : 예, 귀화.

<예, 귀화.>

제보자 : 잉 그것이 안달라는데 국짜글 그걸 모대서, 인자 그 손자들 있써유. 그래 내 아프로 인제 주민등록글 그리 옮겼어. 그라야 학교를 가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그래서 가드를 데리고 있써요. 그래서 인자 왔따 갔따 하고 가도 거기 있쓰면서 거기 나랑 가치 있쓰면서 주민등록만 여기 돼 있꼬.

<잉 그것이 안달라는데 국적을 그걸 못 해서, 이제 그 손자들 있어요. 그래 내 앞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그리 옮겼어. 그래야 학교를 가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도 거기 있으면서 거기 나랑 같이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여기 돼 있고.>

조사자 : 그럼 여긴 농사가 마느세요?

<그럼 여긴 농사가 많으세요?>

제보자 : 농사꺼리가 좀 있써유. 근디 내가 그건 지켰써. 뭇 파라 먹킨 마니 파라 머겼써. 애들 여우구 그랄찌게. 그랬써두 그냥 기본 놔

두구서 대전 가서 사능거야.

<농사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건 지켰어. 뭘 팔아먹긴 많이 팔아 먹었어. 애들 여의고 그럴 적에. 그랬어도 그냥 기본 놓아 두고서 대전 가서 사는 거야.>

조사자 : 그럼 노는 얼마나 있쓰세요?

<그럼 노는 얼마나 있으세요?>

제보자 : 노는 한 열 여 란 마지기 돼요. 열 마지기 밭 비슨 한 이천 평 되나?

<논은 한 열 열 한 마지기 돼요. 열 마지기 밭 밭은 한 이천 평 되나?>

조사자 : 바테다는 요새 뭐시므세요?

<밭에다는 요새 뭐 심으세요?>

제보자 : 노는 뭐 콩 심는 사람 있때요.

<논은 뭐 콩 심는 사람 있대요.>

조사자 : 노네다요? 바테?

<논에다요? 밭에?>

제보자 : 노네다.

<논에다.>

조사자 : 노네다가 콩을 시머요?

<논에다가 콩을 심어요?>

제보자 : 인제 우리가 못 짓짜냐. 못지믄 그 아주 영업찌기루 기냥 몇 심마지기 나무 노늘 으더서 그르케 진는 사라미써유. 그래서 그래 몇썸마닐씩 받는데요. 돈 바드면 아녀, 오히려 더 지면 더지는 만 큼 적짜 나니께유.

<이제 우리가 못 짓잖아. 못 지면 그 아주 영업적으로 그냥 몇 십
마지기 남의 논을 얻어서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몇 십
만원씩 받는대요. 돈 받으면 안해, 오히려 더 지으면 더 짓는 만큼 적자
나니까요.>

조사자 : 근데 아까 제사얘기 쪽 하셨는데요, 초상이 나면 어쩌케 하
나요? 마으레 초상이 나면?

<근데 아까 제사얘기 쪽 하셨는데요,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보자 : 예 초상이 나면 참 그것도 재미있쥬. 재미인능거보다도 예
의를 너머 안 지킬쥬도 읍꾸 막 그러케 할쥬도 읍꾸. 도라가시면
먼저 그 아이구 여플 저 수려플 걷는다 그래유. 근데 이러케 이러케
찜매구 대충 여마기 저네 몸똥이를 안뻘뻘러지게 일케 해노쿠 그
라구서는 이제 여픈 인자 나중에 하쥬.

<예 초상이 나면 참 그것도 재미있쥬. 재미있는 거보다도 예의를
너무 안지킬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돌아가시면 먼저 그 아이구
염을 저 수려를 걷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찜매고 대충 염하기
전에 몸똥이를 안 비뻘러지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염은 이제
나중에 하쥬.>

근데 거기에도 예의가 마나. 뭐 인제 그 그러케 하고 나중에 인자
그 그 질씨가 있자너유. 인자 저 그러케 하구서 인자 초호니 이쥬
초훈, 왜 훈 불른다고 왜 테레비 보며는 지붕 날맹이 위에 올라가
서는 복 복 가사 광산 김씨 누구 복복 하자나유? 그게 훈을 불른다
능거지.

<근데 거기에도 예의가 많아 뭐 이제 그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그 질서가 있잖아요. 이제 저 그렇게 하고 이제 초훈이 있어 초훈, 왜 훈
부른다고 왜 테레비 보면 지붕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는 복 복 가령 광산

김씨 누구 복복 하잖아요? 그게 혼을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적삼 그래서 그 적싸미 동정을 떠서루 혼백 저블째 이걸 는다는거유. 혼백 보셨짜너유? 지그믄 다 사지니구 영정 혼배글 인제 그노를 거더다가 도라가신 양반 배에다 딱 더퍼 났따가 여마기 전 바로 그 오솔 갖따 동정을 떠서 혼배글 접꾸 인자 여플 하구, 그라구선 인제 입파늘 하고 입파늘 할쩌게 그 입관식 일제 그 성복째라능게 있찌.

<그래서 그 적삼 그래서 그 적삼의 동정을 떼어서 혼백 접을 때 이걸 넣는다는 거요. 혼백 보셨잖아요? 지금은 다 사진이고 영정 혼백을 이제 그 놈을 걷어다가 돌아가신 양반 배에다 딱 덮어 났다가 염하기 전 바로 그 옷을 갖다 동정을 떼어서 혼백을 접고 이제 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입관을 하고 입관을 할 적에 그 입관식 일제 그 성복제라는게 있지.>

그 때 염 후에 보글 임는다고 해서 성보기라구 해서, 이를 성짜에 복복짜. 이 성복째자는 한자도 읍꼬 인제 이러케 상주들이 저를 하고 인자 그라고서 인자 보글 이버유 염 끝난 뒤에. 그라고서 이제 두루매기를 입찌. 왜 그저 보글 안 입꼬서는 인자 남자 여우라고 해서는 거시기를 빼자너유, 소매. 잉 그래 소매 남자 여우를 뺏따가 성복제 입쥬.

<그 때 염 후에 복을 입는다고 해서 성복이라고 해서, 이를 성(成) 자에 복(服) 자. 이 성복제자는 한자도 없고 이제 이렇게 상주들이 절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복을 입어요 염 끝난 뒤에. 그리고 이제 두루매기를 입지. 왜 그저 복을 안 입꼬서는 이제 남좌여우(男左女右)라고 해서는 거시기를 빼잖아요, 소매. 잉 그래 소매 남좌여우를 뺏다가 성복제 입쥬.>

그랴 인자 그때부터는 인자 여플 하고 인자 바린제를 인자 출상할 때 바린제. 왜 그란디 그 바린제가 그 뭐 생에에다 모시고선 그라고서 인자 바린제 지내고 떠나지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염을 하고 이제 발인제를 이제 출상할

때 발인제. 왜 그런데 그 발인제가 그 뭐 상여에다 모시고서는 그리고 이제 발인제 지내고 떠나지.

인자 그때는 그 전이 그 산소 소위 지관 지사 인자 모이를 봐서 저 장지 장지를 파고 그래 가지고 인자 생에 도착하면 인자 모시지요. 인자 그게 하관이지. 하관 아래 하(下)자 나무 목 변에 관(棺)자. 그리고 이제 그 다 그런데 지금 그 석파늘 마니들 쓰구유 헌디 또 흑시는 그거 보며는 이러케 천개창이라 그러지 왜 이르케서 씩우자녀? 인자 습기가 인제 물뽕우리 차서 떠러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전에 그 산소 소위 지관 지사 이제 묘를 봐서 저 장지 장지를 파고 그래 가지고 인자 상여 도착하면 이제 모시지요. 이제 그게 하관이지. 하관 아래 하(下)자 나무 목 변에 관(棺)자. 그리고 이제 그 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석관을 많이들 쓰고요 헌데 또 흑시는 그거 보면 이렇게 천개창이라 그러지 왜 이렇게 해서 씩우잖아요? 이제 습기가 이제 물방울 이 차서 떨어져 이제 그래서.>

조사자 : 광을 파고 덮는 거죠?

<광을 파고 덮는 거죠?>

제보자 : 잉 광을 이제 속광 그래서 이케 해롭따 그래서 안 쓰고 인자 그 하얀 회 배회 있자나유? 그거루다가 마니들 써유. 또 근래는 그 라고서는 인자 그러케 하고서는 성분 성분하고 성분제라고 또 지 내죠. 봉분을 다 이뤘따구 해서. 그때는 참 다 다 제대로 차려 노코서 성분제를 지내죠.

<에 광을 이제 속광 그래서 이렇게 해롭다 그래서 안 쓰고 이제 그 하얀 회 백회 있잖아요? 그것으로 많이들 써요. 또 근래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성분 성분하고 성분제라고 또 지내죠. 봉분을 다 이뤘다고 해서. 그때는 참 다 다 제대로 차려 놓고서 성분제를 지내죠.>

그런데 도시 가 보면 성분제 인자 독 축 추글 익자나요? 근데

대부분 그 도시 가보면 중들이 와서루 염부라능걸루 그냥 이러케 마니 해겨를 하더므뉴 축 안 일꾸. 그냥 수를 자는 부어 노코 저를 하는데, 제 사초니 도라가셔썬요, 그래서는 갔더니 제까네는 인자 지반닐한다고 지반일해야 지바니 산다고 인제 추글 인제 써가지고 와서 인자 독추글 하고 그란디 인자 수군수군햐. 그라니께는 절 메기러 다니는 사라미 있썬. 저기 중들이 그놈들이 그 영업찌기지 몇썬마넨씩 받는다.

<그런데 도시 가 보면 성분제 이제 독 축 축을 읽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도시 가보면 중들이 와서 염불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해걸을 하더군요 축 안 읽고. 그냥 술을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하는데, 제 사초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는 갔더니 제간에는 이제 집안 일 한다고 집안 일해야 집안이 산다고 이제 축을 이제 써가지고 와서 이제 독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수군수군해. 그러니까 절 먹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저기 중들이 그놈들이 그 영업적이지 몇 십만 원씩 받는데요.>

조사자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보자 : 축 일거주고 장례 지낼찌게 그러다가 추글 일거 줄 때 두런 두런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지리아, 축 읽는 사람드리 완는디 지들 안 시킨다고, 난 되레 미친놈들 그랬꾸만. 그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라고서 이제 사무제라 하자냐? 뭐 노래에 총강낭군 사무제 지내러 간다고 하는 그 사무제, 초우 재우 사무가 그것이 인자 첫 빠니는 일번 와서루 장사 지내루 와서 제사가 초우요, 그라고 그 이튼날 아치미 재우구, 그 이튼날 아치미 이제 사무고.

<축 읽어주고 장례 지낼 적에 그러다가 축을 읽어줄 때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질이 아, 축 읽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들 안 시킨다고, 난 되레 미친놈들 그랬구만. 그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우제라 하잖아? 뭐 노래에 총각낭군 삼우제 지내려 간다고 하는 그 삼우제, 초우 재우 삼우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일번 와서는 장사 지내러 와서 제사가 초우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이 재우고, 그 이튿날 아침이 이제 삼우고.>

그러구서는 인자 지그믐 지시를 안 할라 그러자나 사무에, 보통에 혼백 접는 사람들두 있꾸, 영정 보통 이렇게 사진 제사도 축 안 써노코 사진 노코, 근데 그게 현시릴꺼 가터 좋응거 가터유. 그래서 그 추글 업시하면 사무제날 그냥 산소 아피다 묻꾸, 지시릅자 나요 지그믐. 지청 그래 그르케 행사 해유. 그런데 그 이상하, 지그믐 화장해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유골하물 갖따 묻꼬 그라자나유? 그래두 보능건 또 꼭 불라 그라 그래야 잘 된다고 자손드리. 잘 되기는 그게 미시니지 그게 흘랑 태워가지고 재 갖따 묻는다 무슨 뭐, 그래도 어떻게 이런건 좀 보야지 안냐고 자기가 해로울께미, 그게 마리 아니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실을 안 할라 그러잖아 삼우에, 보통에 혼백 접는 사람들도 있고, 영정 보통 이렇게 사진 제사도 축 안 써 놓고 사진 놓고, 그런데 그게 현실일 것 같아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 축을 없이 하면 삼우제날 그냥 산소 앞에다 묻고, 재실 없잖아요 지금은 제청 그래 그렇게 행사 해요. 그런데 그 이상해. 지금은 화장해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유골함을 갖다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보는 건 또 꼭 보려고 그래 그래야 잘 된다고 자손들이. 잘 되기는 그게 미신이지 그게 흘랑 태워가지고 재 갖다 묻는데 무슨 뭐,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건 좀 보야야 되지 않느냐고 자기가 해로울까봐, 그게 말이 아니지.>

조사자 : 그러쵸, 그럴 때 마을 사람드리 다 가치 하지 안쵸니까?

<그렇쵸, 그럴 때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하지 안쵸니까?>

제보자 : 하쵸, 전 근데 대부분 지그믐 인자 그 엔나렌 지비서 다 모셨

짜나. 근디 지그믐 그게 뭐여 저기 뭐여 장네 장네식짱, 옛날엔 장네식짱이 음췌자녀. 지그믐 장네식짱이 인자 다 묘지로 아마 가는 건 몇십프론개며, 다 화장 화장은 인자 저리 가서 이러케.

<하췌, 저는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엔 집에서 다 모췌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여 저기 뭐여 장례 장례식장, 옛날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 지금은 장례식장이 이제 다 묘지로 아마 가는 건 몇 십 프로인 가봐. 다 화장 화장은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조사자 : 논산에 화장장이 인나요?

<논산에 화장장이 인나요?>

제보자 : 있짜녀, 부적.

<있잖아, 부적.>

조사자 : 부저게요?

<부적에요?>

제보자 : 장례식짱 있췌유. 그 덕평니 드러 가는 길께 부적, 생긴지 것도 얼마 안다. 그 장례식짱 그 병워는 거냥대 병원 마니 가자냐 우리 논사는, 그래 거냥대에서 마니 장네를 지내유.

<장례식장 있어요. 그 덕평리 들어가는 길 께에 부적 생긴 지 것도 얼마 안돼. 그 장례식장 그 병원은 건양대 병원 많이 가잖아 우리 논산은, 그래 건양대에서 많이 장례를 지내요.>

조사자 : 이 마우리 생긴지는 께 뵈췌췌? 오작췌 여기 마을서 지내는 마을 제사 이렇건 업나요?

<이 마을이 생긴 지는 께 뵈췌췌? 오작실 여기 마을서 지내는 마을 제사 이런 건 업나요?>

제보자 : 있췌췌. 산신제라고, 요 배티는 배티는 거리제라고 거리제

성황당가치 이러케 싸아 노코 거리제를 지냈써.

<있었쥬. 산신제라고. 요 배티는 배티는 거리제라고 거리제 성황
당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거리제를 지냈어.>

조사자 : 지금도 성황당이 인나요?

<지금도 성황당이 있나요?>

제보자 : 있께쥬요? 다이것뚜 얼마 안 되야. 박정희쩌게 아마 없었쥬
나벼. 산신제도 지냈쥬요. 오작씨리는 거 산 중터기 그냥 소나무가
그냥 이렸쥬써 아릅드리. 그것도 어떤 이가 다 벼가고 산신 산신제
나무 그려 정월 보름날 밤중에 지내고 그랬쥬요.

<있겠어요? 다이것도 얼마 안 되요. 박정희 적에 아마 없었었나봐
요. 산신제도 지냈어요. 오작실에는 거 산 중턱에 그냥 소나무가 그냥 이렸
었어 아릅드리. 그것도 어떤 이가 다 베어가고 산신 산신제 나무 그려 정월
보름날 밤중에 지내고 그랬어요.>

이 거리제도 정월 보름날 배티두 지내고, 참 그 부락 계모이미
계가 있쥬요. 산신제계 해가지고 보름나리면 인자 그 소위 깨끄타
다는 사라미지 ㅎㅎ 상제가 아니고 또 그 지비 태중이 아니고 이런
지비루 골라 가지고서는, 제를 마터서 떠글 해서 인자 제사를 동네
사람들 봐서 인자 그런 사라미 지내고 그랬쥬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쩌게 그냥 막 아 지내지 말자고 뭐 귀시니 인냐고 싹 읊쥬졌
쥬요. 여기도 다 쳐 냐쥬요 거리제도 지내고 그랬쥬쥬요.

<이 거리제도 정월 보름날 배티도 지내고, 참 그 부락 계모임이
계가 있어요. 산신제계 해가지고 보름날이면 이제 그 소위 깨끗하다는
사람이지 ㅎㅎ 상제가 아니고 또 그 집이 태중이 아니고 이런 집으로 골라
가지고서는, 제를 맡아서 떡을 해서 이제 제사를 동네 사람들 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적에 그냥 막 아 지내
지 말자고 뭐 귀신이 인냐고 싹 없어졌어요. 여기도 다 쳐 냐어요 거리제도

지내고 그랬었어요.>

조사자 : 그런거 말고 인제 명절드리 있찌 안씀니까? 지그믄 명저리
라 그래야 설 추서긴데 엔나렌 다노나 뭐 그런건 업써썬요?

<그런 거 말고 인제 명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절이라 그
래야 설 추석인데 옛날엔 단오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제보자 : 다 읍써져썬요.

<다 없어졌어요>

조사자 : 어렸썬 때는 안 하썬썬요?

<어렸을 때는 안 하썬썬요?>

제보자 : 왜유, 다노며는 막 그네 왜 막 동아줄 트러서 막 하고서, 동네
샷씨들도 그냥 부인네드른 저너기 막 뛰고 그랬썬. 그라고 그 때는
저 어려서썬, 저 절머서도 그랬썬요. 한 이십적만 해도 풍무리 읍
쓰면 꼭 있썬야 하는 걸로 알았썬 왜.

<왜요 단오면 막 그네 왜 막 동아줄 틀어서 막 하고서, 동네 샷씨들
도 그냥 부인네들은 저녁에 막 뛰고 그랬썬, 그리고 그 때는 저 어려서썬,
저 젊어서도 그랬어요, 한 이십 적만 해도 풍물이 없으면 꼭 있어야 하는
걸로 알았썬 왜.>

조사자 : 풍물?

<풍물?>

제보자 : 풍장 치능거, 그런디 지그믄 그것또 다 읍써 지고,

<풍장 치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없어지고,>

조사자 : 풍장 치면 뭘뭘 치나요?

<풍장 치면 뭘뭘 치나요?>

제보자 : 꿩가리서부텨뭉 둘째가 장구 셋째가 징 넷째가 북 사무리라

그러자녀,

<팽가리서부터 둘째가 장구 셋째가 징 넷째가 북 사물이라 그러잖아,>

조사자 : 첫째가 뭐요?

<첫째가 뭐요?>

제보자 : 팽가리 팽매기라 그러죠. 그담 장구 셋째가 징 차례가 고대로서. 또 팽매기가 상서자비라 그래서 켈 앞에, 둘째가 장구 셋째가 징 넷째가 북.

<팽가리 팽매기라 그러죠. 그다음 장구 셋째가 징 차례가 그대로서. 또 팽매기가 상쇠잡이라 그래서 제일 앞에, 둘째가 장구 셋째가 징 넷째가 북>

조사자 : 어르시는 뭐 하셨어요?

<어르신은 뭐 하셨어요?>

제보자 : 저는 뭐 기운이 읍써 가지고. 흐흐흐 원래 약해 가지고 모심는디 가도 못쭈리나 잡고 그거 배기 모뎡서 팔뚜기 뭐 이랴.

<저는 뭐 기운이 없어 가지고. 흐흐흐 원래 약해 가지고 모심는데 가도 못줄이나 잡고 그거 밖에 못 했어 팔뚝이 뭐 이랴.>

조사자 : 왜요, 건강하신데. 모 시믈 때 노래도 하고 그러지 아났씀니까?

<왜요, 건강하신데. 모 심을 때 노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보자 : 예 노래 어유 읍써썬유, 우리 찌기는. 그 전 으른 찌기는 두레를 했써썬 두레. 두레 해가지고 모 심꼬 모 심능거 이렇거 저 논 땀 찌게 두레두 하고 동네에서 그러믈 한마지기 얼마씩 거더 가지고 인자 그걸 동네 부락 자그므로 쓰고 그랬썬. 그때는 일꾼 으더서

뭐 아내씨. 밥 해주기도 대가나구 그랬자녀? 그러니께루 동네에서 나서 가지고 밥뚜 각짜 싸 가지고 와서 먹꾸 그래서 노늘 매고 한 이사밀 내로 싹 매지 뭐여.

<예 노래 어유 없었어요, 우리 적에는. 그 전 어른 적에는 두레를 했었어 두레. 두레 해가지고 모심고 모심는 거 이런 거 저 논 맬 적에 두레도 하고 동네에서 그러면 한마지기 얼마씩 걷어 가지고 이제 그걸 동네 부락 자금으로 쓰고 그랬쥬. 그때는 일꾼 얻어서 뭐 안 했어. 밥 해주기도 대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나서 가지고 밥도 각자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래서 논을 매고 한 이삼일내로 싹 매지 뭐여.>

그냥 동네 양반드리 다 나와서 그냥 두레라능 거시 조았쫘써 뭐 부다몹씨. 그라믄 한마지기 얼마씩 허고 부락자금 해서, 칠월 백종이면 백종이라고 있쥬? 백종이여 워는, 저 술 사다 노코 돼지 한 마리씩 잡꾸 동네서 놀고 그랬쥬.

<그냥 동네 양반들이 다 나와서 그냥 두레라는 것이 좋았었어 뭐 부담없이. 그러면 한마지기 얼마씩 하고 부락자금 해서, 칠월 백종이면 백종이라고 있쥬? 백종이여 원래는 저 술사다 놓고 돼지 한 마리씩 잡고 동네서 놀고 그랬쥬.>

조사자 : 백중도 하셨구나. 오워른 다노고 칠워른 백종이고 유워른 뭐 업나요?

<백중도 하셨구나. 오월은 단오고 칠월은 백중이고 유월은 뭐 업나요?>

제보자 : 유워른 유두라고 하는데 근디 별로 안 세, 다노하고 백종이 쥬 쫘씨. 백종이면 난장 씨름도 하고 그랬쥬. 백중은 양촌서만 쥬 게 했쥬. 그때는 노름도 공공연하게 했쥬. 그 난장 슨 디서. 노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유월은 유두라고 하는데 그런데 별로 안 세, 단오하고 백중이 제일

셋지. 백중이면 난장 씨름도 하고 그랬지. 백중은 양촌서만 세게 했어. 그때는 노름도 공공연하게 했어. 그 난장 선 데서 노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조사자 : 그니까 단오 다음에 두 달 있다가 백중.
<그니까 단오 다음에 두 달 있다가 백중.>

제보자 : 백중이 젖 썼써.
<백중이 제일 썼어.>

조사자 : 연산도 지금 뭐 백중놀이 하지 안씀니까?
<연산도 지금 뭐 백중놀이 하지 않습니까?>

제보자 : 할께유, 연산 할께유.
<할 거예요, 연산 할 거예요.>

조사자 : 그럼 뭐 칠써근 별게 업썸나보죠?
<그럼 뭐 칠석은 별게 업었나 보죠?>

제보자 : 예 칠써게 꼭 지사 지냈써 할머니드리 어머니드리 백설기 그 해 가지고. 마라자면 그 바비 밥 그게 칠썸 칠썸이라고 해서 북뚜칠썸 쳐다 보고 마당 가운데서 했써유.
<예 칠석에 꼭 제사 지냈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백설기 그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밥이 밥 그게 칠성 칠성이라고 해서 북두칠성 쳐다 보고 마당 가운데서 했어요.>

조사자 : 백설기 노쿠요.
<백설기 놓고요.>

제보자 : 예 떡써루 백설기 떡. 그라구서는 그때 왜 차뵤 수박 사다가 가치 노쿠 제사 지내구 그랬찌.

<에 떡시루 백설기 떡. 그리고는 그때 왜 참외 수박 사다가 같이 놓고 제시지내고 그랬지.>

조사자 : 떠근 그러면 그.

<떡은 그러면 그.>

제보자 : 시루째 놔 이르게 백설기 시루째. 그람 마셨게 먹구 과일 거 기다 노쿠 소위 칠성제라고 하까 어뜨케 그르케 꼭 지내썬유.

<시루째 놔 이렇게 백설기 시루째. 그러면 맛있게 먹고 과일 거기다 놓고 소위 칠성제라고 할까 어떻게 그렇게 꼭 지냈어요.>

조사자 : 그럼 애드른 그거 끝나길 기다리는 거네요?

<그럼 애들은 그거 끝나길 기다리는 거네요?>

제보자 : 암 그럼 마셨게 먹썬유. 과이라구 차뵤 수박카구.

<암 그럼 맛있게 먹지요. 과일하고 참외 수박하고.>

조사자 : 마니 드셨썬유 그때 어릴 때?

<많이 드셨어요 그때 어릴 때?>

제보자 : 아 그라믄뉴 참 소위 그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까? 그 나른 기다려지고 언제 끝나나 하니까 하하하.

<아 그럼요 참 소위 그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까? 그날은 기다려지고 언제 끝나나 하니까 하하하.>

조사자 : 그럼 치뵤른 백쵡도 있꼬 칠썬도 있꼬 백쵡은 며칠 날 하는 겁니까?

<그럼 칠월은 백쵡도 있고 칠썬도 있고 백쵡은 몇일 날 하는 겁니까?>

제보자 : 보통 그게 지역썬그루 달릉게 치뵤따레두 그 장스는 나리

이씨유. 가사 보르미구 스무나른은 연산장이 서씨유 이일 치리른
인내장이여씨유. 양촌늘 인내라고 하거든 인천 어질 인짜 내 천짜
인천 인내 그래 내천짜. 거기는 치릴 이일장이라 치릴 이일 그거 이
이튼날 이렌날 그르캐씨유. 그래서 그 장을 단는대루 백쫑을 했써.

<보통 그계 지역적으로 다르니까 칠월.달에도 그 장 서는 날이 있어
요. 가령 보름이고 스무날은 연산장이 섰어요. 이일 칠일은 인내장이였어
요. 양촌을 인내라고 하거든 인천 어질 인(仁)자 내천(川) 자 인천 인내 그래
내 천자. 거기는 칠일 이일장이라 칠일 이일 그거 이 이튼날 이레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을 단는대로 백중을 했어.>

조사자 : 칠썩근 정해져 있능 거구요?

<칠썩은 정해져 있는 거구요>

제보자 : 그건 칠월 칠석, 영라급지 뭐.

<그건 칠월 칠석, 영락없지 뭐.>

조사자 : 그럼 파뽀른 추서기고 추석 때는 뭐 마으레서 잔치는 아나
쥬?

<그럼 팔월은 추석이고 추석 때는 뭐 마을에서 잔치는 안 하쥬?>

제보자 : 왜 풍장치지 풍장, 풍장 쳐서 이 집찌비 다니면서. 그냥 그때
는 조앗씨유. 슬 전나리구 인자 자근 추서기라 그라지, 무슨 자근
추서기 어디씨 우리 어린 것뜰 떡 먹꾸 그렇게 자근 추서기라구했
찌.

<왜 풍장치지 풍장, 풍장 쳐서 이 집집이 다니면서. 그냥 그때는
좋았어요. 설 전날이고 이제 작은 추석이라 그러지, 무슨 작은 추석이 어디
있어 우리 어린 것뜰 떡 먹고 그러니까 자근 추석이라고 그랬지.>

그나른 자근 추성나른 이르케 도라 당기다가 칭구드리 으른드
리 야 우리 지비 술편내비다야, 인자 용수 박꾸 어짜구 인자 지사

지낼 준비 야 가서 한자나자 야 용수 바건내비다 그라믄, 그 제사 준비 하느라구 막 부끼미두 부치구 고기두 이제 막 그라믄는 동네 친구드리 일려서루, 그냥 전날 소위 자근 추석 자근 슬날 도라대 녀. 일려서 먹꾸 그랬꺼든? 그라구 멀리서 객찌서 오는 참 친구드리라던가 그 사람들 오면 아이구 자네 완나 방감네 우리 지비서 한잔 하세 하구 차암 그때가 재밋써썬유.

<그날은 작은 추석날은 이렇게 돌아 다니다가 친구들이 어른들이 야 우리 집에 술 땀나보다 야, 이제 용수박고 어찌고 이제 제사 지낼 준비 야 가서 한잔 하자 야 용수 박았나보다 그러면, 그 제사 준비 하느라고 막 부꾸미도 부치고 고기도 이제 막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 어울려서, 그냥 전날 소위 작은 추석 작은 설날 돌아다녀. 어울려서 먹고 그랬거든 그리고 멀리서 객찌서 오는 참 친구들이라던가 그 사람들 오면 아이고 자네 왔나 반감네 우리 집에서 한잔 하세 하구 참 그때가 재밋었어유.>

조사자 : 술드른 지베서 다 만드셨어요?

<술들은 집에서 다 만드셨어요?>

제보자 : 다 예 다 했쥬.

<다 예 다 했쥬.>

조사자 : 어떠케 담귀요 수른?

<어떻게 담귀요 술은?>

제보자 : 수른 누룩개가지구 술빤 시루에다 찌 가지구 이르케서 인자 보른 누룩카구 버무려서 인자 지금드른 뭐 할 쫄들도 모르고 하두 안쿠. 참 그저니는 이 구와 가을 구와 이 사니서 저 그 무슨 열매 산야초가통겨 이렇거 따다 그러케 향기가 조아썬유. 지금 여기가 그 저니는 술넙 느쿠 술 해짜냐? 크, 그게 조아썬 순저니 호호호.

<술은 누룩 해 가지고 술밥 시루에다 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누룩하고 버무려서 이제 지금들은 뭐 할 줄들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참 그전에는 이 국화 가을 국화 이 산에서 저 그 무슨 열매 산야초같은 거 이런 거 따다 그렇게 향기가 좋았어요. 지금 여기가 그 전에는 술잎 넣고 술 했잖아? 크, 그게 좋았어. 순전히 흐흐흐.>

조사자 : 요새는 소주에다가 그렇거 너어서 만들지 안씀니까?

<요새는 소주에다가 그런 거 넣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제보자 : 그런데 옛날엔 진짜 그때가 구수해꾸 맛 이써꾸 친구들 참 객지에서 오면 진짜 그 때가 명저리었써, 그람. 그 이튼날은 또 세배를 다 댕겼써. 그때는 그라믄 술 조아하는 노믄 절 한다구서 꼬라 지구 마리어, 그게 참 옛날 이 풍소긴디, 향토의 마시거든. 그라믄 그냥바지 저고리 새로 해 입꼬 인자 주욱 댕기메 이지비 가서 한패 하구 먹꾸서는 또 저 옆씨비루 또 가구 그때는 으른드른 꼬옥 차자 뵙꺼든뉴.

<그러데 옛날에 진짜 그때가 구수했고 맛 있었고 친구들 참 객지에서 오면 진짜 그 때가 명절이었어. 그럼 그 이튼날은 또 세배를 다 다녔지. 그때는 그러면 술 좋아하는 노믄 절 한다고서 꼬꾸라지고 말이어, 그게 참 옛날 이 풍속인데, 향토의 맛이거든. 그러면 그냥 바지 저고리 새로 해 입고 이제 주욱 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한패 하구 먹고서는 또 저 옆 집으로 또 가구 그때는 어른들은 꼬옥 찾아 뵙꺼든요.>

조사자 : 그때도 세뱃돈이 있쨌나요 옛날레?

<그때도 세뱃돈이 있었나요 옛날에>

제보자 : 근디 새배또는 보통 그 지바니서 이써씨, 가는데 새배똥 업 써씨. 또 술. 오프케 공부 자랄 꾸미나 편냐 또 호근 장개갈 꿈 꾸언 냐? 근디 여자드른 보름 지내서 댕겨씨. 초정위리 초정위리 댕기 므 재수 업따구 그래서 여자드른. 그게 옛날 마리지 남녀가 무슨

상과니썸, 그람. 또 인자 너 시집갈 꾸미나 꾸었냐구 덕따미지 소
위 참.

<그런데 세뱃돈은 보통 그 집안에서 있었지, 가는 데는 세뱃돈 없었
어. 또 술. 어떻게 공부 잘 할 꿈이나 꿨냐 또 혹은 장가 갈 꿈 꾸었냐?
그런데 여자들은 보름 지나서 다녔어. 초정월에 초정월에 다니면 재수
없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게 옛날 마리지 남녀가 무슨 상관있어, 그럼.
또 이제 너 시집갈 꿈이나 꾸었냐고 덕담이지 소위 참.>

그때가 지금도 생가가먼유 생강나. 명절 전날 이르케 공워니나
오디 가서 가마니 안자씨면 뭐 아무꺼뚜 아녀. 돈 주고 사명는거야
뭐 언제두 못 사머거? 참 이 자근 추석날 자근 설나리 이게 그 그
그그게 자근 추석 자근 서리지. 가문 야우리 지베 가자야 한자나
자.

<그때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생각나. 명절 전날 이렇게 공원이나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아무 것도 아녀. 돈 주고 사먹는 거야 뭐 언제두
못 사먹어? 참 이 작은 추석날 작은 설날이 이게 그그그그게 작은 추석
작은 설이지. 가면 야 우리 집에 가자야 한 잔 하자.>

조사자 : 그때 드셨던 음식 중에서 어떤 것뜨리 기억나세요?

<그때 드셨던 음식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제보자 : 그 제일 거시기 이 술 한 잔 하구 그 뜨끈뜨끈한 그 소 술 술뚜
경 그놈 디지버 노쿠 한눔, 거그서 그냥 이르케 쭈욱 쪽 어머니드리
찌저 주능거 간장이다 그거 찌저 머그면 왜 그르케.

<그 제일 거시기 이 술 한 잔 하구 그 뜨끈뜨끈한 그 소 술 술뚜경
그놈 뒤집어놓고 한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쭈욱 쪽 어머니들이 찢어 주는
거 간장에다 그거 찍어 먹으면 왜 그렇게.>

조사자 : 뭘 찢어 줘요?

<뭘 찢어 줘요?>

제보자 : 적 적 부끼미 부칭거 이르케 쭈욱 쪽 찌저 주능거, 그냥 그놈 이르케 간장이다 찌거 머그먼 아이 진짜 그게 그게 마시지 아이고 흰떡뚜 왜 그저니는 그냥 이르케 찌짜녀 도구통에다 느쿠 찌여짜녀.

<적 적 부끼미 부친 거 이렇게 쭈욱 쪽 찌저 주능거, 그냥 그놈 이렇게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아이 진짜 그게 그게 마시지 아이고 흰떡도 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찌잖아 도구통에다 넣고 찌었잖아.>

조사자 : 어디다가요?

<어디에다요?>

제보자 : 도구통 도구통 그래서 옛날 화또기라구 하구 그래서. 나무는 도구통 그 이런 거시기 뭐지 그 바닥에 국쭈하구 그라능거, 아이 구 이저 버런네 거기다가 가래떡 이르케 맨드르먼 거기서 이르케 똑똑 떼서 그냥 지름 소금 해서 아이 참 지금 그른 맛 지그른 떡 사 명능거 그거 무슨 마시 이써유?

<도구통 도구통 그래서 옛날 핫독이라고 하고 그랬어. 나무는 도구통 그 이런 거시기 뭐지 그 바닥에 국수하구 그러는 거, 아이구 잊어버렸네. 거기다가 가래떡 이렇게 만들면 거기서 이렇게 똑똑 떼어서 그냥 기름 소금 해서 아이 참 지금 그런 맛 지금은 떡 사먹는 거 그거 무슨 맛이 있어요?>

참 내 지미서 그르케 어무니가 해주능거 차암 그거 참 아주 뜨끈 뜨끈해찌. 오주가면 워편 사위가 처가찌비를 간는데 내외가니 간는데 아이노무 신랑 노미 떡씨루를 보더니 뽕뽕 도라 가면서 그냥 그걸 미리 몬머겨서 그라드랴.

<참 내 집에서 그렇게 어머니가 해주는 거 차암 그거 참 아주 뜨끈뜨끈했지. 오죽하면 어떤 사위가 처가집에를 갔는데 내외간에 갔는데 아이놈의 신랑 놈이 떡씨루를 보더니 뽕뽕 돌아가면서 그냥 그걸 미리 못 먹어서 그러더라.>

근자 이게 여다미지, 아들 그라니께는 이 마누라가 하도 안 되씨 니께 등잔부를 폭 꺼 가지구서는 그놈을 이르게 시루에서루 이르게 케 뚜루루 마러서 벌떡 자기 남편한테 던져줘따. 그라니께 이 노므 주책음노므 실랑노므 또 아이 뜨거 아이 뜨거 뜨거우니께 그라드 라네. 그 시루떠글 이르게 던져 주니께. 에엑 고무라나 티언내빈 디 그란다구 마누라가 또 그라드라 하하.

<근자 이게 여담이지, 애들 그러니까는 이 마누라가 하도 안 되었으니 까 등잔 불을 폭 꺼 가지구서는 그 놈을 이렇게 시루에서 이렇게 뚜루루 말아서 벌떡 자기 남편한테 던져줬대. 그러니까 이 놈의 주책없는 놈의 신랑놈은 또 아이 뜨거 아이 뜨거 뜨거우니까 그러더라네. 그 시루떡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에엑 고물 하나 튀었나 본데 그러다고 마누라가 또 그러더라 하하.>

그런 이뢰가 이꾸 참 나두유, 우리 어려서는 배락시러워씨. 장난 두 시매씨. 밥 훑쳐다 머꾸 그래씨.

<그런 일화가 있고 참 나도요, 우리 어려서는 벼락시러웠어. 장난도 심했어. 밥 훑쳐다 먹고 그랬어.>

그런디 떡뚜 떡뚜 마니 훑쳐다 머거씨. 어유 하라버지네 야 하라 버지는 떠글 우리집 떠겐는다, 우리 할아버지 떠글 막 안 잡쭈꼬 마랴 거기 여피다 밀쳐 노쿠 이씨. 야그걸 가서 확 지버 오자 그러 구 그거 화악 지버 오기 쉽씨. 그르키 안자서 얘기하다가 한 늬이 부를 톡 꺼어. 또 옛날 등잔뿌리니께 톡 끄른 한 느른 벌써 들구 나가 떠글. 그 불키기 저니 아이구 불도 꺼지구 가야거따 하며 떡 가지구 나가면 이누른 아이구 불 쯤 써 누쿠 가야지. 떡 다 가지구 나간 디에 부를 써 주구 나오구 이르게서두 장난하고 훑쳐다 머꾸 그래씨. 그거 영라급시 몰르지이.

<그런데 떡도 떡도 많이 훑쳐다 먹었지. 어유 할아버지네 야 할아버지

는 떡을 우리집 떡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떡을 막 안 잡숫고 말이어 거기 옆에다 밀쳐 놓고 있어. 야 그걸 가서 확 집어 오자 그리고 그거 확 집어오기 쉽지.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한 놈이 불을 톱 꺼, 또 옛날 등잔불이니 까 톱 끄면 한 놈은 벌써 들구 나가떡을 그 불 켜기 전에 아이고 불도 꺼지고 가야겠다 하며 떡 가지고 나가면 이놈은 아이고 불 쯤 켜 놓고 가야지 떡 다 가지고 나간 뒤에 불을 켜주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도 장난하고 훔쳐다 먹고 그랬어. 그거 영락없이 모르지>

조사자 : 그거 어른드리 다 알자나요.

<그거 어른들이 다 알잖아요.>

제보자 : 참 그때가 우리 향방의 정 향토의 그 은은한 향정이라 그러지 시골 향짜 뜻 정짜. 잉 지그믐 그계 읍씨유. 참 그계 우리는 이제 그때 세대를 지내 봐꾸, 떠글 하면 이웃지비 다 그냥 돌려 주구 시월 상따리라 그래서 시월 초사흔나리면 보통 시굴서 떠카믐 그걸 다 저지비 가따 주구 저지비 가따 주구 쪽 돌리구서는 떡머꾸 그래씨유.

<참 그때가 우리 향방의 정 향토의 그 은은한 향정이라 그러지 시골 향(鄉) 자 뜻 정(情) 자. 잉 지금은 그게 없어요. 참 그계 우리는 이제 그때 세대를 지내 봤고, 떡을 하면 이웃집에 다 그냥 돌려주고 시월 상달이라 그래서 시월 초사흔날이면 보통 시굴서 떡하면 그걸 다 저 집에 갖다 주고 저 집에 갖다 주고 주욱 돌리고서는 떡 먹고 그랬지요.>

조사자 : 제사 지내고도 왜 음식 싸서 돌려 주구 그랬씨요?

<제사 지내고도 왜 음식 싸서 돌려 주고 그랬씨요?>

제보자 : 아 그럼 제삿밥 꼭 동기가치 돌려 주구 그 무수나무라구 참 그,

<아 그럼 제삿밥 꼭 동기같이 돌려주고 그 무나물하고 참 그,>

조사자 : 그 뭐라 그러쥬? 싸서 나눠 주능겠?

<그 뭐라 그러죠? 싸서 나눠 주는 걸?>

제보자 : 봉송 세사 시향 지내면 이러케 주는 것 봉송, 그때가 그르케 맛이 조아써, 그건 둘째치구 엔나레 그 누에 누에 그 꼬치 나오자냐, 그라몬 왕채라구 그 실을 뽑는게 이써. 이케 냄비에다가 해구 서는 그람 거기서 번디기가 나와 실 다 빼면 그케 그르케 꼬소허구 마싯써써. 왜 실 빼구 번디기 나오능거 지그몬 인자 공장서 나오는데 그뎐 대전 제사공장이라는 데서 그르케 마니 나와써써.

<봉송²³⁾ 세사 시향 지내면 이렇게 주는 것 봉송, 그때가 그렇게 맛이 좋았어. 그건 둘째치고 옛날에 그 누에 누에 그 꼬치 나오잖아, 그러면 왕채라고 그 실을 뽑는 게 있어. 이렇게 냄비에다가 하고서는 그러면 거기서 번디기가 나와 실 다 빼면 그케 그렇게 고소허구 맛 있었어. 왜 실 빼구 번디기 나오는 거 지금은 이제 공장서 나오는데 그때는 대전 제사 공장이라는 데서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

그래두 지금두 그 부꾸미 부쳐서 동네 참 객지서 나갔따가 오는 친구들 유학가따가 온 친구드라고 이르케 그런 향정 좀 느껴가면서 멍능거시 조은디.

<그래도 지금도 그 부꾸미 부쳐서 동네 참 객지서 나갔다가오는 친구들 유학갔다가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런 향정 좀 느껴가면서 먹는 것이 좋은데.>

조사자 : 인자 가으리면 그르케 되구요, 이제 겨울 드러가면 동지 동지 때도 뭐가 인나요?

<이제 가을이면 그렇게 되고요, 이제 겨울 들어가면 동지 동지 때도 뭐가 인나요?>

제보자 : 동지 팔쭝 팔쭝기라능거시 그 자고로 귀시늘 내 쫓는다 그

23) 봉송(奉送)은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 음식을 싸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함.

래서 끄러 가지구 배람빠기 불긋 불그다게 뿌려써요, 팔쭈글. 우리 어려서 그랬쎄유. 그 참 그래 그거슨 동지 팔쭈근 뜨건 때 머그문 마시 읍써. 만나게 시저 가지구 그냥 그놈 씨알시미라 그라쥬? 씨알씨미 왜 이러캐 콩알만 새알시미 새알가타고래서 새알시미를 새알씨미 씨알씨미 그래써. 그거 참 느서 먹꾸 그라구.

<동지 팔죽 팔죽이라는 것이 그 자고로 귀신을 내 쫓는다 그래서 끓여 가지구 바람벽에 불긋 불그하게 뿌렸어요, 팔죽을. 우리 어려서 그랬지요. 그 참 그래 그것은 동지 팔죽은 뜨거운 때 먹으면 맛이 없어 맛나게 식어 가지구 그냥 그놈 새알심이라 그러죠? 새알심 왜 이렇게 콩알만 새알심이 새알같다고 해서 새알심을 새알심 새알심 그랬어. 그거 참 넣어서 먹고 그리고>

조사자 : 그래서 그게 시근중먹깅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식은 죽 먹기인가요 그게?>

제보자 : ㅎㅎㅎ 그란디 엔나레 시근중먹기면 이제 흥녀네 배 고프고 그랄져게 멀그난겨 그까지꺼 훌쩍 마시면 시근중먹기지. 이 무슨 된거뚜 아니구. 그냥 물그루면 놈 그 그거 그냥 히딱 마시지. 시근중먹기지. 찬 물 마시능겨 가트니께 참 배고파쓸져기.

<ㅎㅎㅎ 그런데 옛날에 식은 죽 먹기면 이제 흥년에 배고프고 그럴 적에 멀건겨 그까지 것 훌쩍 마시면 식은 죽 먹기지. 이 무슨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묽은 놈 그 그거 그냥 후딱 마시지. 식은 죽 먹기지. 찬 물 마시는 거 같으니까 참 배고팠을 적에.>

소위 초근목피루다 기아선상이니 하는 그때지. 초근목피가. 지금은 초근목피라든 절든 사람드른 몰라. 저 풀뿌리근 목피 나무목 가죽피 나무 껍띠기 그게 초근목피 인자 그래써 지그문 마시루나 먹지.

<소위 초근목피로 기아선상이니 하는 그때지. 초근목피가. 지금은 초

근목피라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저 풀뿌리 근(根) 목피 나무 목(木) 가죽 피(皮) 나무 껍데기 그게 초근목피 이제 그랬어 지금은 맛으로나 먹지.>

조사자 : 그럼 대보르른 뭐합니까?

<그럼 대보름은 뭐 합니까?>

제보자 : 정월 대보르멘 찰밥 해 먹찌유, 찰밥 참 뭐며 일곱까지를 는 다고 하는디 오고기라 그라자나유?

<정월 대보름엔 찰밥 해먹지요. 찰밥 참 뭐뭐 일곱 가지를 넣는다고 하는데 오곡이라 그러잖아요?>

조사자 : 뭐뭐예요?

<뭐뭐예요?>

제보자 : 오고기, 저 쌀 보리는 안 들어가지 아마. 콩 기장이라 그라지 왜? 그라고 피가 드르가 조 조 드르가구 그르케.

<오곡이, 저 쌀 보리는 안 들어가지 아마. 콩 기장이라 그러지 왜? 그리고 피가 들어가 조 조 들어가고 그렇게.>

조사자 : 피도 머거요?

<피도 먹어요?>

제보자 : 아 옛나레 피 왜정시대마레유 만주에서 온다 그래써, 피가. 그레 피죽 한 그르끼 몬머건냐 그라지. 그라구서 콩 깨묵 이르케 아릅드리 콩 콩 지름 짠겨 그거뚜 머꾸 그래써유. 지그른 겨 겨루 다가 머그먼 조타구라자나유? 이르케 현미 그게 현미 배깅거시 겨 아녀? 그걸 저 왜정시대에는 그걸 배급취 가지구 보까 머꾸 그 래써.

<아옛날에 피 왜정시대 말이에요 만주에서 온다 그랬어, 피가. 그레 피죽 한 그릇 못 먹었나 그러지. 그리고 콩 깨묵 이렇게 아릅드리 콩 콩

기름 짠 거 그것도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 거로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
요? 이렇게 현미 그제 현미 베낀 것이 거 아냐? 그걸 저 왜정시대에는 그걸
배급 줘 가지고 볶아 먹고 그랬어.>

그람 그르케 머리가 아파써, 그래. 우리 해꼬 갈 때 이제 하꼬지
해꼬라고 보통 그라는데 히히히 글썄 그른디 콩 깨묵 가통거슬 일
본놈드리 배급 중거 봉창에다 느가꾸 가서 먹기두 하구 참.

<그럼 그렇게 머리가 아팠어, 그래. 우리 학교 갈 때 이제 학교지 학교라
고 보통 그라는데 히히히 글썄 그런데 콩 깨묵 가통 것을 일본놈들이 배급
준 거 봉창에다 넣어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참.>

조사자 : 대보름도 큰 잔치죠?

<대보름도 큰 잔치죠?>

제보자 : 그람 귀밭기수리라고 그날 술머그른 귀 안명은다구 귀밭기
수리라 그라쥬. 그라구 이월 초하룻날은 콩 보까 먹지유 이 콩복짜
새복짜 그래써. 이게 멸구가 업서진다, 보꾼다 그라 가지구 이월
초하룻날 콩을 보까 머저써유. 그래 보끌찌기 콩복짜 새복짜 이 그
런 멸구 근저란다구 봉는다구 그래써유.

<그럼 귀밭이술이라고 그날 술 먹으면 귀 안먹는다고 귀밭이술이
라 그러죠. 그리고 이월 초하룻날은 콩 볶아 먹지요 이 콩 볶자 새 볶자
그랬어. 이게 멸구가 없어진대 볶은대 그래 가지고 이월 초하룻날 콩을
볶아 먹었어. 그래 볶을 적에 콩 볶자 새 볶자 이 그런 멸구 근절한다고
볶는다고 그랬어요>

조사자 : 대보름날은 또 귀밭기술 말고 호두 뭐 이렇거도 먹자나요?

<대보름날은 또 귀밭이술 말고 호두 뭐 이런 거도 먹잖아요?>

제보자 : 그거슨 거시기여, 어이구 그 종기 왜 땅콩이니 밤 그러고 호
두 그걸 종기 종기나 저 부름 부름 이제 생각이나 부름 읊샌다구

그라쥬. 보르미 부름 업샌다구. 이 이란디 이 부름 나능거 종기 이
렁거 나능거 부름, 그 저니는 종기두 그르케 마니 나 지그믄 종기
뉘 마이신 하나믄 그마니지.

<그것은 거시기여, 어이구 그 종기 왜 땅콩이니 밤 그리고 호두
그걸 종기 종기 나 저 부름 부름 이제 생각이나 부름 없앤다고 그러쥬.
보름에 부름 없앤다고. 이 이런데 이 부름 나는 거 종기 이런 거 나는 거
부름, 그 전에는 종기도 그렇게 많이 나 지금은 종기 뉘 마이신 하나면
그만이지.>

조사자 : 여기 이제 산꼬레서 사싱거자나요. 그니까 저쪽 바닷가나
이런데 하고는 이제 좀 풍소기 좀 다르셨겠쥬? 이 동네에만 좀 특
뻘리 있쥬던 풍소근 뉘 업쥬까요?

<여기 이제 산골에서 사신 거자나요. 그러니까 저쪽 바닷가나 이런
데 하고는 이제 좀 풍속이 좀 다르셨겠쥬? 이 동네에만 좀 특별히 있었던
풍속은 뉘 없을까요?>

제보자 : 읍쥬유, 대부분 인자 그 저 백종 거기가 말하자믄 다 가타쥬.
백종이라믄 논산 그때는 구니지, 논산구니 다 똑같따고 보야지. 워
디래도 양촌 백종이라 하믄 양촌 백종이 유명해쥬. 그라믄 논사네
그런 씨름쟁이드리 그 전광규라구 전씨라구 그가 발전자 전쥬디
하여간 일등이여쥬. 소는 소는 거기서 다 가지 가쥬.

<없어유, 대부분 이제 그 저 백종 거기가 말하자면 다 같았지, 백종
이라믄 논산 그때는 군이지, 논산군이 다 똑같따고 보야지. 어디래도 양촌
백종이라 하면 양촌 백종이 유명했어. 그러면 논산에 그런 씨름쟁이들이
그 전광규라구 전씨라구 그가 발전자 전씨인데 하여간 일등이었어. 소는
소는 거기서 다 가져 갔어.>

조사자 : 근데 논사는 왜 논사니라 그래요?

<근데 논산은 왜 논산이라 그래요?>

제보자 : 그런데 그 그게 논사니 아니지 워는 논미 놀미 논미 논미장 이라고 하구 놀미 논미, 그런데 그저니는 수해가 마나썬때유. 논사 니 논피가 그 강무리 막 옛날보다두 강무리 마니 물러나따구 그라 대유. 왜 인천두 왜 밭 육지루 마니 생겨짜냐유 그래 논미여써썬 유. 논미 논사는 아마 왜정시대 논사니라 그랜나배. 근데 이 논미 갱경 갱경 강경더러 갱경이라구래썬 논미 갱경이라구래썬유.

<그런데 그 그게 논산이 아니지 원래는 논미 놀미 논미 논미장이라고 하고 놀미 논미, 그런데 그전에는 수해가 많았었다고요. 논산이 논피가 그 강물이 막 옛날보다도 강물이 많이 물러났다고 그러대요. 왜 인천두 왜 밭 육지루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 논미였었어요. 논미 논산은 아마 왜정시대 논산이라 그랬나봐. 근데 이 논미 갱경 갱경 강경더러 갱경이라고 그랬어 논미 갱경이라 그랬어요>

조사자 : 근데 논피가 뭐예요 그러면?

<근데 논피가 뭐예요 그러면?>

제보자 : 글썬유 논미 우리도 뭐 마른 뭐 이 너머 물넘는다구 해서 논미라구 한다구두 하구 그래썬유. 거기 우리 어려서두 탐정 저수지 마가꾸면서두 그 이후루 광석뜨리니 어디니 다 거시기가 돼썬유. 말하자면 물대서 그 농사 진능거.

<글썬유 논미 우리도 뭐 말은 뭐 이 넘어 물 넘는다고 해서 논미라고 한다고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우리 어려서도 탐정저수지 막았구면서도 그 이후로 광석들이니 어디니 다 거시기가 됐지요. 말하자면 물 대서 그 농사 짓는 거.>

그 탐정저수지 그저니는 가무러서 저 못 심을 때가 마내때유. 가무러 이슬비 비와서 너른 드리면 어뜨케 되야? 그래 탐정저수지가 그 왜정시대 마진는다, 나 대여서쌀 돼서 머 그 한 칠팔씩 칠 썬녀는 좀 넘어썬유. 우리 형님두 거기 가서 일해썬. 돈벌어썬. 망

는디 그래 가봤꺼든. 그리구 이런 걸로 미능거 밀차루다 그래써. 그때 그라구서 이제 논사니이 나서저찌. 옌나리아 뭐 어디고 다 그러께.

<그 탐정저수지 그전에는 가물어서 저 못 심을 때가 많았대요. 가물어 이슬비 비와서 너른 들이면 어떻게 되요? 그래 탐정저수지가 그 왜정시대 막았는데, 나 대어섯살 돼서 머 그 한 칠팔십 칠십년은 좀 넘었어요. 우리 형님도 거기 가서 일했어. 돈 벌었어. 막는데 그래 가봤꺼든. 그리고 이런 걸로 미는 거 밀차로 그랫어. 그때 그리고 이제 논산이 낳아졌지. 옛날이야 뭐 어디고 다 그러니까.>

조사자 : 다 그렇쵸, 뭐. 사네서 뭐 캐오고 나물 뜨더 오고 나물도 어떤 나무른 캐고 어떤 나무른 뜯꼬 그런다면서요?

<다 그렇쵸, 뭐. 산에서 뭐 캐오고 나물 뜯어오고 나물도 어떤 나물은 캐고 어떤 나물은 뜯고 그런다면서요?>

제보자 : 그룬디 그 문자루다가 나무를 캔다 구라지 왜? 채채지 나물 채짜 켈 채짜 그라지. 이 이게 나물 뜯는다는 마른 월래 거시기루 노쿠 보통 우리 민간 츠게서 나물 캔다구 나물 캔다구라지 나물 뜯는다구는 별루였쵸. 나물캐러 간다구 노래도 그라구 그래 채채여 나물 캔다 켈 채짜.

<그런데 그 문자로다 나물을 캔다 그러지 왜 채채지 나물 채(菜)자 켈 채(採)자 그러지. 이 이게 나물 뜯는다는 말은 원래 거시기루 놓고 보통 우리 민간 측에서 나물 캔다고 나물 캔다 그러지 나물 뜯는다고는 별로였지요. 나물 캐러 간다구 노래도 그러고 그래 채채여 나물 캔다 켈 채 자>

조사자 : 대게 사실때 지베 가추근 마니 안 키우셨쵸요?

<덱에 사실 때 집에 가축은 많이 안 키우셨어요?>

제보자 : 소 소 닥 근디 다 근 보통 다 키웠쵸, 짐짐마다. 그란디 텃바치

이씨면 짬도 마니하 그놈 당나와서 우리 바티 그냥 다 망겐다구. 그런디 그때에 다글 집짬마다 매기는 이유가 명저리나 지사 때 피리 다글 올려야 쓰거든뉴. 왜 그르케 녁너키 살만한 도니 읍꾸 그래서 꼭 매겨써유 다글. 그라고 이웃집 저 부조드를 보통 하자나유 그람 계란 한 줄

<소 소 닭 그런데 닭은 보통 다 키웠죠, 집집마다. 그런데 텃밭이 있으면 짬도 많이 해 그놈 닭 나와서 우리 밭에 그냥 다 망가트린다고. 그런데 그때에 닭은 집집마다 먹이는 이유가 명절이나 제사 때 필히 닭은 올려야 쓰거든요. 왜 그렇게 넉넉히 살만한 돈이 없고 그래서 꼭 먹였어요 닭을. 그리고 이웃집 저 부조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계란 한 줄>

그라고 장이를 가는데 두루마기를 미쳐 못 꼬매꾸 안 빠랏짜냐? 그라믄 지게 지구 계란 한 줄 이르게 들구 가. 두루매기는 안 빠랏찌, 그르니께 지게를 지고 가능거여. 하하하 마라자믄 지게를 지므는 두루매기를 안 이버두 되니께. 그릉케 소위 우리 농민들 외출 보기라 그래. 대신 외출보글 임능거지. 지게 지면 흥이 읍짜냐, 두루매기를 버선는지 입언는지 뭐 이런 흥이 읍스니께 가다 안저두 되구 참 그게 예나레 농촌 풍경이었췌써유.

<그리고 장이를 가는데 두루마기를 미쳐 못 꿰맸고 안 빨았잖아? 그러면 지게 지고 계란 한 줄 이렇게 들고 가. 두루마기는 안 빨았지, 그러니까 지게를 지고 가는 거요. 하하하 말하자면 지게를 지면 두루마기를 안 입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리 농민들 외출복이라 그래. 대신 외출복을 입는 거지. 지게 지면 흥이 없잖아 두루마기를 벗었는지 입었는지 뭐 이런 흥이 없으니까 가다 앓아도 되고 참 그게 옛날에 농촌 풍경이었었어요.>

조사자 : 돼지도 메기셔췌테고?

<돼지도 먹이셨을테고?>

제보자 : 돼지는 그때 돼지 매기면 부자돼써유. 그런디 돼지는 이 새

끼드른 몬 매겨. 부자나 그라지. 뭐 이 덩게 방아찢 덩게 매기든지
밥 찌끄러기 설거지 해서 그 구정물두 드루간놈 매기야 하는디 음
는 노미 뭇 말가난디 뭐 뭇로 돼지를 매겨? 돼지머글꺼 사라미 머
그야 하는디 사람 머글꺼뚜 엄는다 돼지를 어뜨케 매겨?

<돼지는 그때 돼지 먹이면 부자됐어요. 그런데 돼지는 이 새끼들은
못 먹여 부자나 그러지. 뭐 이 등겨 방아찢은 등겨 먹이든지 밥 찌끄러기
설거지 해서 그 구정물도 들어간 놈 먹여야 하는데 없는 놈이 뭇 말간데
뭐 뭇로 돼지를 먹여? 돼지 먹을 거 사람이 먹어야 하는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어떻게 먹여?>

차라리 소는 그때는 농사진느라구 해꾸 소는 따악 민천이어서.
소 한 마리면 노니 백마지기 갑시여쓰니. 그거슨 초싱만햐 초싱만
해두 매겨 살리구 덩게 안 매겨두 되는디 부잣찢서 덩게 자기네
농사지구 방아찢 가지구 덩게두 매기구 소는 초식똥물아녀 돼지
는 아니여 돼지는. 그때두 개 개 개두 여간해 몬매겼써유. 인는 지비
서는 매기까. 개는 꼭 덩게나 밥 찌끄래기 주야지 뭐 맹물만 쳐먹간
디?

<차라리 소는 그때는 농사짓느라구 했고 소는 딱 밀천이었어. 소 한
마리면 논이 백마지기 값이었으니. 그것은 초식만 해 초식만 해도 먹여
살리고 등겨 안 먹여도 되는데 부자집에서 등겨 자기네 농사지구 방아
찢어 가지고 등겨도 먹이고 소는 초식동물 아녀 돼지는 아니여 돼지는.
그때도 개 개 개도 여간해 못 먹였어요. 있는 집에서는 먹일까. 개는 꼭
등겨나 밥 찌끄러기 줘야지 뭐 맹물만 쳐 먹나?>

조사자 : 근데 요새는 개를 다 지바네서 키우자나요?

<근데 요새는 개를 다 집 안에서 키우잖아요>

제보자 : 지바느루다,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 받는다야. 운동하는디
얼마 병워니루 몇썸마닐씩 준다는데 훌런비도 얼마구 한 가조그

로 취급판다능게 그거슨 과항거 가터. 취미도 조코 오락또 조치만
그렇거루다가 참말루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지는 이러케 생각캐
유.

<집안으로다,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 받는데요 운동하는데 얼마
병원으로 몇 십 만원씩 준다는데 훈련비도 얼마고 한 가족으로 취급한다
는 게 그것은 과한 거 같아 취미도 좋고 오락도 좋지만 그런 것으로 참말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사자 : 오랜 시간 동안 조은 말씀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재
미인는 얘기 해주셔서 마는 도움 되어썬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재미있는
얘기 해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의 유명한 씨름선수 전광규씨의 사진
-한 번에 두 마리의 소를 상으로 받은 모습

3. 류*강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조사자 : 안녕하세요. 저희는 논사네 옛날 얘기를 드려보려고 와썹니다.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옛날 얘기를, 사시던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소게서, 이제 아 요건 사투리구나 아니구나, 요걸 나중에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다비 인는거또 아니구여, 그냥 생각나시는대로 그르케만 얘기만 해주시믄 대고, 며 말쓰마시면 나중에 이제 말쓰마시는거 드꼬, 저희가 다 이리케 바다정는거는 이 칭구드라고 저하고 다 가치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논산의 옛날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옛날 얘기를, 사시던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속에서, 이제 아 요건 사투리구나 아니구나, 요걸 나중에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게만 얘기만 해주시면 되고, 뭐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희가 다 이렇게 받아적는 거는 이 친구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 그 교수님께서 뭐 이르케 저기를 말쓰매주시면 제가 드리는디, 그거또 저는 뭐, 옛나라는 딸들 하꼬 잘 안 보내짜나여? 저두

유강년 교육 저 조립 해 그그 살던 얘기 하나바께 업써쎄요. 아들 들만 하꼬 저 구자곡 하꼬를 보내고.

<그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저기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드리는데, 그것도 저는 뭐, 옛날에는 딸들 학교 잘 안 보냈잖아요? 저도 육학년 교육 저 졸업 해 그그 살던 얘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들만 학교 저 구자곡 학교 보내고. >

조사자 : 할머니든 형제부니 며치션는데?

<할머님은 형제분이 몇이셨는데?>

제보자 : 예, 여동생 하나 이꼬, 남동생 하나 이꼬. 난 지그른 일곱 일 고비 칠남매는 돼여.

<예,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 난 지금은 일곱 일곱이 칠남매는 돼요.>

조사자 : 그 형제분드리여?

<그 형제분들이요?>

제보자 : 예, 제가 제일 큰 따리구여. 그르니깐 저 제가 나서 일곱살 되쓸때 해방이 대써여. 그래서 그때 대구,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꼬를 저 가야고기루 다녀쎄요. 지금 강청니라구 하는 그 거기 하꼬 가 이써쎄요. 예 저기가 그 초등하꼬 지그른 초등하꼬고 그때는 궁 민하꼬라 그랬쎄유.

<예, 제가 제일 큰 딸이구요, 그러니까 저 제가 나서 일곱 살 됐을 때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저 가야 곡으로 다녔어요. 지금 강청리라고 하는 그 거기 학교가 있었어요. 예 저기가 그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고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지요 >

그랜는디 거기 고기서 다니다가 유기오가 나쎄요. 그래 가지구 그 공부는 인자 오항년까지 헐는데, 그 유기오 날리가 나서 그 이

그 이 헤, 마리 어떤 때는 만나와여.

<그랬는데 거기 거기서 다니다가 육이오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공부 이제 오학년까지 했는데 그 육이오 난리가 나서 그이 그이 헤, 말이 어떤 때는 안 나와요.>

조사자 : 아이,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보자 : 그 저기를 하구서 다시 인자, 방 방하카구 인자 또 이 나오자 나여. 채기. 그 다음에 즈 배울 공부는 모태씨요. 날리나서. 그냥 그거 다아 업써지구. 인자 하꼬도 거기서 모 못 이서씨요. 그래서 인는데, 저기를 자근 대게, 고기 하꼬 가튼데 가까운데 사서씨요. 그래서 고기 자근 대게서 하꼬를 다녀씨요. 그래서 인자 지베서는 공부를 하고시픈데, 고긴 어려쓸땐데 하꼬가 업짜나요.

<그 저기를 하고서 다시 이제, 방 방학하고 이제 또 이 나오잖아요. 책이. 그 다음에 저 배울 공부는 못했어요. 난리나서. 그냥 그거 다 없어지고. 이제 학교도 거기서 모 못 잇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저기를 작은 댁에, 거기 학교 같은데 가까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작은 댁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긴 어렸을 때인데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 채글 줌, 그땐 줌 일본 시대 같키던 하귀니랑게 이짜나여? 한 한 부 부라게 그런 학땅이라고 해서, 그렇거뜨리 이씨씨요. 저 어려쓸 때. 그래서 고기 간는디 언니드리 막 크은 언니드리여, 종칭게 막 드르가대유. 그래서 저도 드러가는 줄 알고 따라 드러가 씨요. 쪼꼬마내가지구. 그랜는디 그 아유 나가라고 그래서 인자 쪼껴 나오구서는 인자 다시는 모까거는디, 고기서 하나 채글 하나 어더씨요. 고기서 공부하는 그걸 가꾸워서 제가 다 외우고 하꼬를 갈라고 한는디, 그거또 잘 안 대서 고기 그 가야곡 자근 대기루 인

자 가세요.

<그래서 그 책을 좀, 그때는 좀 일본시대 가르키던 학원이란 것이 있잖아요? 한 한 부 부락에 그런 학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언니들이 막 큰 언니들이요, 종 치니까 막 들어가대요. 그래서 저도 들어 가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어요. 쫓그만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쫓겨 나오구서는 이제 다시는 못 가겠는데, 거기서 하나 책을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그걸 갖고 와서 제가 다 외우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돼서 거기 그 가야곡 작은 댁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고기 가니까 인자 친구가 하나 이떠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아이 하꼬 이거 저기 선생니만테 가보자고, 하꼬 다니고 십따구. 그래서 제가 게도 그렇게 이랑년은 모 드러가게 하지도 아냈쥬. 그래서 간는데 거기서 선생니미 저를 쫓 쫓 뭐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항녀네 와서 해서 해도 되거따, 그래서 그냥 이항녀느루 드러가세요. 진짜 이랑녀는 안다녀세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친구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아이 학교 이거 저기 선생님한테 가보자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개도 그러니까 일학년은 뭐 들어가게 하지도 않았쥬.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저를 쫓 쫓 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학년에 와서 해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일학년은 안 다녔어요. >

조사자 : 그, 수재셔떤거네요!

<그, 수재셨던 거네요!>

제보자 : 그래서 인자, 거기서 인자, 공부를 하다가, 인자 사망년때는 여선생니미셔세요. 근디 여선생니미 하아도 차암 똑또가셔서 그런지는 몰러두 그냥 갱장히 막 우리 아들 무섭게 하셔세요. 그래서 아 아이구 선생님 안 드르실 때 인자 몰래몰래 아유 참 저 강판서

선생님 미서워서 어트가냐? 그래꺼드뇨.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삼학년 때는 여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여선생님이 하도 참 똑똑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굉장히 막 우리 애들 무섭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아이구 선생님 안 들으실 때 이제 몰래 몰래 아주 참저 강판서 선생님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그랬거든요.>

그르케 마려 그 사망년 빨리 가쓰믄 조캐네, 그르구 공부해써요. 우리드리. 그랜는디 고기서 하다가, 그르케 오학년때 그케 유기오가, 날리 나고선 거기까지만 하고 모태써요. 오학년니 이하끼는 채기 다 다 인자 다 불타고 업꾸 업써져짜나여 날리나서. 그래 가지고 모타고, 유칸녀는 인자 또 인자 드르가야 되는데 지베 인자 그야 구자고기를 또 왔찌유. 고기서 이제 그 구자곡 하꼬를 인자 다시 가써요. 가서 유칸년 조러블 그냥 해써요.

<그러게 말이어 그 삼학년 빨리 갔으면 좋겠네, 그러고 공부했어요. 우리들이. 그랬는데 거기서 하다가, 그렇게 오학년 때 그렇게 육이오가, 난리 나고선 거기까지만 하고 못 했어요. 오학년의 이 학기는 책이 다 다 이제 다 불타고 없고 없어졌잖아요 난리 나서. 그래 가지고 못하고, 육학년 은 이제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이제 그야 구자곡에를 왔지요. 거기서 이제 그 구자곡 학교를 이제 다시 갔어요. 가서 육학년 졸업을 그냥 했어요 >

그 그때는 아이 딸드리 따리라구 안 보내서 여 여칭구드리 읍써써요. 아들드른 아덜만 아덜아덜 하자나요. 그저네 엔날 하라버지나 할머니드리. 그래서 아더른 다아 하꼬를 보낸는디 따를 안보내서, 그이구 일리구 일리구자나여? 그삼저니 그 일 일구에 일구에서 하나, 저하구 열 여 여학생이 두리여써요. 그래서 구자곡 하꼬 조럽씨글 하는데 저희는 이십퇴에여, 구자곡 하꼬 이십퇴.

<그 그때는 아이 딸들이 딸이라고 그냥 안 보내서 여 여 친구들이 없었어

요. 아들들은 아들만 아들 아들 하잖아요. 그전에 옛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래서 아들은 다 학교를 보냈는데 딸을 안 보내서, 그 이구 일 이구 일 이구잖아요? 그 심전리 그 일 일구에 일구에서 하나 저하고 열 여 여학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자곡 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저희는 이십 회예요, 구자곡 학교 이십 회. >

조사자 : 아우, 그럼 구자곡 하꼬가 그르케 오래 돼썬니까? 일제시대부터 어떤 하꼬연나요?

<아우, 그럼 구자곡 학교가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일제시대부터 있던 학교였나요?>

제보자 : 예, 우 우리 자근 숙부님미 계신디, 그 숙부님 다니실때도 그 집 엔나레는, 지금 저기는 다 글치만, 그때는 고기는 그 저기를 해주는 사라미 이써짜나요? 그 지그른 그분들도 다 저기저 공무원니 루 치자나요? 그그그걸 할 때는 막 심부름 하는 사라미 이써썬요. 선생님들 미테서.

<예, 우 우리 작은 숙부님이 계신데, 그 숙부님 다니실 때도 그 집 옛날에는, 지금 저기는 다 그렇지만, 그때는 거기는 그 저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은 그분들도 다 저기 저 공무원으로 치잖아요? 그그그걸 할 때는 막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밑에서.>

조사자 : 그 심부름 하는 사라믈 머라고 하쥬?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쥬?>

제보자 : 뭐라고 한ندی 저두 이저버려썬요. 흐흐흐

<뭐라고 했는데 저도 잊어 버렸어요. 흐흐흐>

조사자 : 소사?

<소사?>

제보자 : 예 예 소사라 그래썬요. 소사라고, 인자 그때 제가 가썬 땐

하러버지가 되세요. 자근 자근 숙부님이 얼마나 공부를 자라셔꼬 저기 하셔꺼드뇨. 그그 소사 아저씨가 게 그그 사라문 조 조카여 조카여 조카 그렇게, 헤 그러냐고? 그 부니 인자 선생님들도 놀래 구 그르드라구요. 차암 그르나 그 부니 공부를 자라셔꾸 요기서 똑 또카개 하구 가신 부니라구 그러케 그른 말쓰믈 주셔써요.

<예 예 소사¹⁾라 그랬어요. 소사라고,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근 자근 숙부님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고 저기 하셨거든요. 그그 소사 아저씨가 게 그그 사람은 조 조카여 조카여 조카 그러니까, 헤 그러냐고 그 분이 이제 선생님들도 놀라고 그러드라구요. 참 그르나 그 분이 공부를 잘 하셨고 여기서 똑똑하게 하고 가신 분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

저년 어려쓰니까 인자 모르지유. 자그나버지 하꼬 공부항겨슨. 그래서 그때사 제가 아라써요. 그니까 선생님드리 다아 방가워하 셔써요, 저를. 그래꼬 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드리 또 또 저 저쪽 그 쪼게서 사르시는 분 우리 선생니민디, 유강년빠끼 인자 모태쓰니 까요. 오항년 업써져꾸 기명대 선생니미라구 차암 조으신 부니셔 써요.

<저는 어렸으니까 이제 모르지요, 작은 아버지 학교 공부한 것은.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반가워하셨어요, 저를.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또 또 저 저쪽 그 쪽에서 살으시는 분 우리 선생님인데, 육학년 밖에 이제 못했으니까요. 오학년 없어졌고 김영대 선생님이라고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조사자 : 선생님들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아까도 강판서 선생님도 말쓰마시구.

<선생님들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아까도 강판서 선생님도 말씀하

1) 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시고.>

제보자 : 예 그 기명대 선생니미 인자 저희들 유강녀니 인자 다뎡 선생니미 되셔쎄요. 그래서 그 부니 하시고, 그 유강년 두바닌데, 처니녕 선생니미 또 이 일 저기 일리바니니까요. 그르케 하셔서 저가 이십피를 조러블 해쎄요. 예 저 지금두요 다섯싸를 그런 때하곤 다아 여기 임녀기 돼 이쎄요. 그런디 지그른 금방 이캐하면 이저버려요. 나이 머거서. 그래서 다섯쌀 머거쎄 때는 또 그 일 일본 사람드리 여기다 막 다아 감꼬 그르카고 막 와서,

<예 그 김명대 선생님이 인자 저희들 육학년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 그 육학년 두 반인데 천인영 선생님이 또 이 일 저기 일 이반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저가 이십 회를 졸업을 했어요. 예 저 지금도요 다섯 살을 그런 때 하곤 다아 여기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방 이렇게 하면 잊어버려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다섯 살 먹었을 때는 또 그 일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막 다 감꼬 그렇게 하고 막 와서,>

조사자 : 여기다 뭘 뭘 가마요?

<여기다 뭘 뭘 감아요?>

제보자 : 갑빠라고 왜 일본사람들 여기 막 이르케 동 동이고 가자나여? 그른 사람드리 와서 인자 녹그르글 빼스려 와요. 저히 지베 녹그르기 마니 이쎄쎄요. 예나레 좀 양반 생화라고 그래서 그릉가 다아 녹그르도 마나꼬, 저 고기 제기까지 마니 다아 이쎄쎄요. 근디 그걸 좀 다아 빼끼진 아내쎄도, 거 걸러서 그냥 빼껴가지구, 마당에다 자기들 자악 쫓옥 와 서가지구 일본 사람드리. 뭘 이캐 찹피는 지팽이처럼 쓴다고 해요. 그 좌양 황 바가서 녹그르글 다 이케 구멍을 내요 우리 하라버지 할머니들 막 저 밥 그르국 그르 하고 양다

녹그릇 써꺼드뇨. 그걸 막 다아 빼서다 마당에다 노코 그냥 쿵쿵쿵
쿵 쩌노쿠, 그 머여 언제 가져오라고 그르케 그르카능걸 봐쨌요.

<갑빠²⁾>라고 왜 일본사람들 여기 막 이렇게 동 동이고 가자나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인제 놋그릇을 뺏으러 와요. 저의 집에 놋그릇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좀 양반 생활하고 그래서 그런가다 놋그릇도 많았고,
저 거기 제기까지 많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다 뺏기지는 않았어
도, 거 걸러서 그냥 뺏겨 가지고 마당에다 자기들 좌악 쭈욱 와 서가지구
일본사람들이. 뭐 이렇게 집히는 지팡이처럼 쓴다고 해요. 그 괴양 쿵 박아
서 놋그릇을 다 이렇게 구멍을 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저 밥
그릇 국그릇 하고 양 다 놋그릇 썼거든요. 그걸 막 다 뺏어다 마당에다
놓고 그냥 쿵쿵쿵 쩌어 놓고, 그 머여 언제 가져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새 다섯 쌀바께 안 머겨쨌쨌요. 제가 일곱 사례 해방 나쓰니
까. 그래 가지고 그렇거 차암 나뽕거 마니 봐쨌요. 그거는 그냥 지
금도 하나 이러케 기어근 아니저버려쨌요.

<그새 다섯 살밖에 안 먹었었어요. 제가 일곱 살에 해방 났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참 나쁜 거 많이 봤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도 하나 이렇게
기억은 안 잊어 버렸어요>

조사자 : 그럼 초등학교 졸업파시구, 저 중학교가 그때도 이쨌쨌텐데
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저 중학교가 그때도 있었을텐데요?>

제보자 : 중학교는 인 이쨌는디, 그때느뇨, 지그문 논산 여 여 여 저기
그 학교는 하나도 업쨌쨌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니든 하 한 한짜
그 서당 그 저기 하시고 마니 잘 배우셔쨌쨌요. 그랜는디, 오디가

2) 각반을 말함. 각반은 걸음을 걸을 때 발목 부분을 가튼하게 하기 위하여 발목
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돌려 감거나 싸는 띠를 말함.

배울때가 업써짜나유? 저히드른 지비서만 이쓰니까. 그래서 그거 또 처미는 그냥 어려워써요. 그래 조립팔때두 그 선생니른 그르케 잘하셧는디,

<중학교는 있었는데, 그때는요, 지금은 논산여여여 저기 그 학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우리 아버님은 하한 한자 그 서당 그저기 하시고 마니 잘 배우셨었어요. 그랬는데, 어디가 배울 데가 없었잖아요? 저희들은 집에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첨에는 그냥 어려웠었어요. 그래 졸업할 때도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잘 하셧는데,>

나중에 인자 다른 인자 학 저 제가 성동으로 시지브루 완는데, 그 성 성동에 하꼬 이짜나유? 성동 드러가믄 쪼끔 드러가서, 그 하꼬를 또 드러, 거기를 교감선생니르루 오셔서 계시더라구유. 그란는디 거기를 쪼끔 이르케 거길, 그 하꼬 아피루 오실라믄 저기서 나리서 오셔유 성동을. 그란는디 저는 또 그때는 물을 먼디서 가따 머저써요. 하꼬 가낭길 밑쪼그루. 그랜는디 고기서 만나믄 아이 죄송해 가지구서 숨어서 가구 그래써요. 흐흐흐.

<나중에 이제 다른 이제 학 저 제가 성동으로 시집으로 왔는데, 그 성 성동에 학교 있잖아요? 성동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서, 그 학교를 또 들어, 거기를 교감선생님으로 오셔서 계시더라구요. 그랬는데 거기를 조금 이렇게 거길, 그 학교 앞으로 오시려면 저기서 내려서 오셔요 성동을. 그랬는데 저는 또 그때는 물을 먼디서 가져다 먹었어요. 학교 가는 길 밑쪽으로. 그랬는데 거기서 만나면 아이 죄송해 가지구서 숨어서 가구 그랬어요. 흐흐흐.>

조사자 : 몇살때 시지블 가셔써요?

<몇 살 때 시집을 가셨어요?>

제보자 : 스물 네사리요. 그때로 마라면 노치녀라 그래써요. 저 사라믄 시집 갈라믄 어렵꼇따 했써. 흐흐흐.

<스물 네 살이요. 그때로 말하면 노처녀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시집가려면 어렵겠다 했어. ㅎㅎㅎ. >

조사자 : 그때까진 뭐하시구요?

<그때까진 뭐하시구요?>

제보자 : 치 친정에서 인자 이랬지유. 바패가꼬 인자 그 밭 반니리 만 차나요? 초네는. 마나서 왜 아줌마드를 마니 어더 가지구. 그때때 니 조기 다아 이라러 가. 어머니문 인자 친정 어머니는 인자 일꾼 들 데려와서 인자 이라시구, 내가 밥 다 했찌유. 열네사레 조러블 해써유.

<치 친정에서 이제 일했지요. 밥 해 가지고 이제 그 밭 밭 일이 많잖 아요? 초네는. 많아서 왜 아줌마들을 많이 얻어 가지구. 그랬더니 저기 다 일하러 가. 어머니문 이제 친정어머니는 이제 일꾼들 데려와서 이제 일 하시고, 내가 밥 다 했지유, 열 네 살에 졸업을 했어요,>

조사자 : 그럼 십년동안 지베서 이라시구요, 그럼 농사를 지싱거네요?

<그럼 십년동안 집에서 일하시구요, 그럼 농사를 지신 거네요?>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농사 어떻거뜨를 주로 하셔써요?

<농사 어떤 것들을 주로 하셨어요?>

제보자 : 그저네 아버니미 참 별거 다 하셔써요. 담배 또 시머서, 그 그게 노라케 빈내고 이케 하는 담배가 이써써요. 이케 담배 마니 키워서 막 여꺼다가, 저기 충청북또 드러가면 그렇거 마나요. 이케 반메고 그 그렇거를 하셔써요, 아버님두. 그리고 논 벼농사도 하시 구, 보리농사 짓꾸, 그 옌나레 하직감자르료 다선마지기를 시므셔

썩요. 그랜는디 그걸 헐는디 해믄 겁나게 잘 드려요. 이러케 드릉
거 크은거. 그걸 다 헐는디 그저네는, 지그믄 막 마니 저기다 하셔
썩만, 그걸 마니 캐 노니까 올마나 마나요?

<그 전에 아버님이 참 별거 다 하셨어요. 담배 또 심어서, 그 그게
노랄게 빛내고 이렇게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담배 많이 키워서
막 엮어다가, 저기 충청북도 들어가면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밭 매고
그 그런 거를 하셨어요, 아버님도. 그리고 논 벼농사도 하시고, 보리농사
짓고, 그 옛날에 하지감자를요 다섯 마지기를 심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했는데 하면 겁나게 잘 들어요. 이렇게 들은 거 큰 거. 그걸 다 했는데 그
전에는, 지금은 막 많이 저기다 하셨지만, 그걸 많이 캐 놓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디, 장미는 계속 막 오고 그러니까, 누가 인자 빈 지비 이썩서
이사를 간는디, 거기다 좀 쓰라 그래서 그 하지감자를 가따 거기다
저기를 좀 해썩요. 그래따가 나중에 어뜨케 헐는지, 트러기 하나
아버님미 와서 저기를 하션나봐요. 그래 거다 차로 한차를 가따
파라썩요. 그러키구 그래서 저히드를 고생을 하나도 안 보셔썩.
안 하셔썩요. 초니서 읍 업썩서 문멍는 사람 드리 마나썩짜나요?
그래 저히드른, 저히지븐, 그냥 아버님 자라셔서 큰 고생은 아내
썩요. 잘 머꾸 임능건 걱정 아나고 그냥 사르썩요.

<그런데, 장미는 계속 막 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빈 집이 있어서 이사
를 갔는데, 거기다 좀 쓰라고 해서 그 하지감자를 가져다 거기다 저기를
좀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트럭이 하나 아버님이 와서
저기를 하션나봐요. 그래 거다 차로 한 차를 가져다 팔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고생을 하나도 안 보셨어. 안 하셨어요. 촌에서 읍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 저희들은, 저희 집은, 그냥 아버님
잘 하셔서 큰 고생은 안했어요. 잘 먹고 입는 건 걱정 안 하고 그냥 살았어
요.>

조사자 : 농사를 그래도 꽤 크게 지셨나봐요?

<농사를 그래도 꽤 크게 지셨나 봐요?>

제보자 : 예 그르코 마아니 하셔쎄요. 보리니 복숭아밭 호 호두밭 그
렁거뚜 다 하시고 그래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많이 하셔어요. 보리니 복숭아밭 호 호두밭 그런 것도
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자 : 텃밭또 하셔쎄거 아니에요?

<텃밭도 하셔을 거 아니에요?>

제보자 : 예, 바티다 막 꼬추 심꼬 배추 심꼬 다아 그렇거 했쎄. 다,

<예 밭에다 막 고추 심고 배추 심고 다아 그런 거 했쎄. 다,>

조사자 : 고추, 배추, 딸 거는 안하시고?

<고추, 배추, 다른 거는 안하시고?>

제보자 : 마늘 그렇거 다 인자 저 지비서 머글꺼 다 하셔쎄. 그리고 그
앞 밭이 크게 인는다, 닥 닥채나무라고 이짜나요? 그 종이 만드는
닥채나무. 그거또 마니 나쎄요, 거서. 그래서 나중에 업쎄고 다른
곡식들 하고 그르케 하셔는다, 이제 아버님이 부지런하셔꼬, 마아
니요. 하셔 가지고 고생 안시켜쎄요 자식덜.

<마늘 그런 거 다 인자 저 집에서 먹을 거 다 하셔쎄. 그리고 그
앞 밭이 크게 있는데, 닥 닥채나무라고 있잖아요? 그 종이 만드는 닥채나
무. 그것도 많이 낫어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없애고 다른 곡식들 하고
그렇게 하셔는데, 이제 아버님이 부지런하셔고, 많ियो. 하셔 가지고 고
생 안 시켰어요 자식들.>

조사자 : 그럼 그때 농사 지꼬 하실 때, 뭐 할머니몬 직쩍 크은 힘든니
른 아나셔계지만 농기구들도 마니 이찌 아나계쎄요? 지베?

<그럼 그때 농사짓고 하실 때, 뭐 할머니는 직접 큰 힘든 일은 안 하셨겠지만 농기구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집에?>

제보자 : 그럼 기구 기구, 처음은 어려쥬 때는 인자 다 훔태로 훔터쥬. 예 그리고 나중에 기계가 나와쥬때는 아녜쥬.

<그럼 기구기구,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인제 다 훔태³⁾로 훔었쥬. 예 그리고 나중에 기계가 나왔을 때는 안 했쥬 >

조사자 : 뭐, 호미가통건 당여니 쓰셔쥬테고.

<뭐, 호미 같은 건 당연히 쓰셨을 테고.>

제보자 : 그럼뇨. 그리고 여름에는 사네 푸리 이르케 마니, 새푸리 이르케 마니 나오자나여? 사네 가서 일꾸니 머싱가 그냥 와서 가라주는 저기 머스미라 그러믄 나이머근 양반드리 하거드녀. 게 그나이머근 그냥 소로 논 가라주는 주로 머슴들, 조금 쪼그만 저기 총각뜨른 풀 벼다가 소 머기는 사람, 그르케서 우리 지베다 두를 두셔요. 그래두 인자 바쁘니까 절믄 청년드를 몇 몇사람 가지고 그 풀을 가따가 보리 보릿꺼르말라고, 그게 그그걸 해서 막 이르케 막 싸노코다 썬쳐요, 그걸. 그래서 그런 보리 가를때 그걸 썬요. 그런 보리농사도. 그러구 상타고 그러셔쥬요 우리아버지가, 예.

<그럼요. 그리고 여름에는 산에 풀이 많이, 새 풀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산에 가서 일꾼이 뵈인가 그냥 와서 갈아주는 저기 머슴이라 그러면 나이 먹은 양반들이 하거든요. 그게 그 나이 먹은 그냥 소로 논 갈아주는 주로 머슴들, 조금 쪼그만 저기 총각들은 풀 벼다가 소 먹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다 둘을 두셔요. 그래두 이제 바쁘니까 젊은 청년들을 몇 몇 사람 가지고 그 풀을 갔다가 보리 보리 거름하려고, 그

3) 벼의 낱알을 훔을 때 사용하던 농기구로, 길고 두툼한 나무 앞뒤 쪽에 다리 네 개를 달아 팔자(八字)모양으로 떠받치게 하고 빗살처럼 날이 촘촘한 쇠로 된 틀을 몸에 끼워 만들었음.

그 그걸 해서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다 썩혀요, 그걸. 그래서 그런 보리
갈을 때 그걸 써요. 그런 보리농사도. 그리고 상 타고 그러셨어요 우리아버
지가, 예. >

조사자 : 그 한문 공부도 잘 하시고 훈장을 하셔뎀거예요?

<그 한문 공부도 잘 하시고 훈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보자 : 훈장은 아니시구요, 마니 배우셔서 저희 저 저 족뽕가통거
할 때 우리아버님 저기 육 육쌈뽕당 이짜나여? 서우레, 거기서 그
하 한 저기 해서 거기서 서기처럼 다 하셔서 우리 그 족뽕 가통건
아버님미 다 하셔서요.

<훈장은 아니시구요, 많이 배우셔서 저희 저 저 족보 같은 거 할
때 우리아버님 저기 육 육삼뽕당 있잖아요? 서울에, 거기서 그 하 한저기
해서 거기서 서기처럼 다 하셔서 우리 그 족보 같은 건 아버님이 다 하셨어
요,>

조사자 : 본관이 어디세요 할머니문?

<본관이 어디세요 할머님은?>

제보자 : 류 버들류짜예요.

<류 버들 류자예요. >

조사자 : 그러셔꾸나. 그 스물네세 겨로늘 하션는데, 어떤부난테 가
실라고 그러케 오래 기다리셔써요?

<그러셨구나. 그 스물 넷에 결혼을 하셨는데, 어떤 분한테 가시려
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보자 : 호호, 그르케 마리여. 다 그르차나여. 이 아가씨들도 그럴거
야 그르치? 호호호 어떤 친구가 남자 친구가 잘 되어대나, 그지?
그전도 다 그래써 호호.

<흐흐, 그러게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이 아가씨들도 그럴 거야 그렇지? 흐흐흐 어떤 친구가 남자 친구가 잘 되어야 되나, 그렇지? 그 전에도 다 그랬어 흐흐.>

조사자 : 그, 저기, 실랑을 만나시니까 마메 꼭 드셔쨌요?

<그, 저기, 신랑을 만나시니까 마음에 꼭 드셨어요?>

제보자 : 예, 그리고 지금 중매해서 했쨌유. 저는 엔나레 그렇거는 벼 얼루 업쨌쨌요. 촌 저 저기 촌이자나유, 그리고 공게 그룽건 그때는 그르케 지금처럼 맘대루 못해짜나여. 부모님들 때메 이제 우리도 근데 저 저 그 뭐이 저 훈장님 따리 저기 인자 머스므로 드러온 사라 미 따미 드러서 쫓겨 나쨌 훈장님만티.

<예, 그리고 지금 중매해서 했지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촌 저 저기 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맘대로 못 했잖아요.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근데 저 저 그 뭐야 저 훈장님 딸이 저기 이제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맘이 들어서 쫓겨 났어 훈장님한테.>

조사자 : 왜요?

<왜요?>

제보자 : 그저네 그 그룽게 처음이어꺼등요.

<그전에 그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

조사자 : 그래서 여내를 항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한 거예요?>

제보자 : 예, 그래, 그 훈장 선생님미 내쫓차쨌. 아 우리 인자 멸망해 따고, 그래서 나가서 어서 시는지도 몰라. 그저네 텔레비에서도 그렇거 나오능거 이짜나요. 쫓차 내능거, 흐흐흐.

<예, 그래서, 그 훈장 선생님이 내 쫓았어. 아 우리 이제 멸망했다고. 그래서 나가서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전에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쫓아 내는 거, ㅎㅎㅎ.>

조사자 : 그 중매로 만나시니까 어떠셔쎄요?

<그 중매로 만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제보자 : 아이 그냥 시집가든 사리아게따는 그런 생가카고 사랏쎄유.
ㅎㅎㅎ.

<아이 그냥 시집가면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살았지요. ㅎㅎㅎ.>

조사자 : 조아서 가싱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가신 게 아니고? 그냥?>

제보자 : 아이 즈 조코 안 조코는 그때는 그럴, 부모님들또 승낙카시야 해짜나요.

<아이 즈 좋고 안 좋고는 그때는 그럴, 부모님들도 승락하셔야했잖아요.>

조사자 : 그럼 겨론시글 인제 하셔야 되는데, 그 중매하고 중매하신 때부터 겨론 하기까지 그 이르게 뭐 절차드리 좀 이찌 아니쎄꺼 아 니예요? 어떠케하십니까?

<그럼 결혼식을 인제 하셔야 되는데, 그 중매하고 중매하신 때부터 결혼하기까지 그 이르게 뭐 절차들이 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보자 : 예, 그분도 저를, 중매를 하시는 부니 이 윤씨네 집쎄 거시기 우리 시지파고 가치 가튼 저 저기 이쎄쎄요. 그 그분도 우리 우리 류쎄하고 가치 호니니 대게 마니 드 드리 계시대요. 게서 그분도

인자 외가집또 되고 인자 막 그른 저기가 돼써요. 그 부니 와서 그
냥 다 믿꼬 양쪼게서 그러케 해서, 지금 윤씨하고 족뽀도 보든 류씨
하고 만태요. 예 그래서 자는 윤가예요. 나는 유가고. ㅎㅎㅎ.

<예, 그분도 저를, 중매를 하시는 분이 이 윤씨네 집에서 거시기
우리 시집하고 같이 같은 저 저기 있었어요. 그 그분도 우리 우리 류씨하고
같이 혼인이 되게 많이 드 들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외가집도
되고 이제 막 그런 저기가 됐어요. 그 분이 와서 그냥 다 믿고 양쪽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윤씨하고 족보도 보면 류씨하고 많대요. 예 그래서 재는
윤가예요. 나는 유가고. ㅎㅎㅎ.>

조사자 : 이 동네 파평 윤씨 마느시죠?

<이 동네 파평 윤씨 많으시죠?>

제보자 : 여기는 별로 업써유. 저 저기 성동에, 고기가 마나유.

<여기는 별로 없어요. 저 저기 성동에, 거기가 많아요.>

조사자 : 성동에도 만코 저기 숙찐니에도 만코.

<성동에도 많고 저기 숙진리에도 많고>

제보자 : 숙찐니가, 거기 상월인가유?

<숙진리가 거기 상월인가요? >

조사자 : 예, 그 거기 중매하고 얼마마네 겨론시글 하써써요?

<예, 그 거기 중매하고 얼마 만에 결혼식을 하셨어요>

제보자 : 한 얼마지 인자 가서 가서서 인자 해고 우리 어머님도 서늘
보러 오써써요. 저히 지베 그래서 저랑 다른 인자 일가 되시는 부나
고 두부니 오써써요. 그래서 서늘 보고 가서써요. 인자 그랜는디,
와서, 인자 점시를 해서 드리고 그라고 가션는디, 그 얼마동안 아
무 소리가 업써요. 그래 난 더 존디로 갈란다고 소그로 그래찌 하하

하. 하 그랜는디 그 그래서 나 나중에 가마니써떠니요, 그 느다덥
씨 그 하라버지한티 거시기 사주를 보내썬유.

<한 얼마지 이제 가서 가셔서 이제 하고 우리 어머님도 선을 보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랑 다른 이제 일가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을 보고 가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와서 점심을
해서 드리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 얼마 동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
난 더 좋은 데로 가련다고 속으로 그랬지 하하하. 하 그랬는데 그 그래서
나 나중에 가만히 있었더니요. 그 느닷없이 그 할아버지한테 거시기 사주
를 보냈어요.>

조사자 : 아! 사주가.

<아! 사주가.>

제보자 : 예, 그땐 사주하든 끝나자나유. 다 담에 아난다도고 모다고,
그러케 그 좀 아 한동안 안 안 한 몇개월 이썬나? 얼마 된는디 그래
유. 그래 그래서 보 봄쯤 되썬띠 선 받는디, 겨울 시비될다레 음녀
그로 시비될다레 겨론시글 해썬유.

<예, 그때는 사주하면 끝나잖아요. 다 다음에 안 한다고도 못 하고
그렇게 그 좀 아 한 동안 안 안 한 몇 개월 있었나? 얼마 됐는데 그래요.
그래 그래서 보 봄쯤 됐을 때 선봤는데, 겨울 십일월 달에 음력으로 십일월
달에 결혼식을 했어요. >

조사자 : 오래 걸리썬네요, 그때 풍스브로는?

<오래 걸리썬네요, 그때 풍습으로는?>

제보자 : 예, 그때 인자 저기 또 인자 마저썬두 슌본다고 두리, 실랑하
고 각썬하고는 안 저기하고 어머님만 오셔썬니까유. 그래서 맛 마
치 저기두 해썬유. ㅎㅎ 그래서 자근 대기 논산 사썬썬유. 그래서
자근 대기서 인자 실랑이란 사라플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슌봐썬

요. 맛 그거보고 맛써니라고 하자나요. ㅎㅎㅎㅎ.

<예, 그때 이제 저기 또 이제 맞았어도 선본다고 둘이, 신랑하고 각시하고는 안저기하고 어머님만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맛 마치 저기도 했어요. ㅎㅎ 그래서 작은 댁이 논산 사셨어요. 그래서 작은 댁에서 이제 신랑이란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선 봤어요. 맛 그거보고 맞선이라고 하잖아요. ㅎㅎㅎㅎ.>

조사자 : 예,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조으시던가요?

<예,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좋으시던가요?>

제보자 : 예, 괜찮나씨요. ㅎㅎㅎㅎ.

<예, 괜찮았어요. ㅎㅎㅎㅎ.>

조사자 : 그때 선 처음 보셔뎡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 처음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보자 : 그러쵸. 다른 제 친구드른 여라홉살 스무사레 시집가서 애기들 이만씩 항거뜰 다 이써씨요. 그 제가 제일 느께 강거예요.

<그렇쵸. 다른 제 친구들은 열아홉 살 스무 살에 시집가서 애기들 이만씩한 것들 다 있었어요. 그 제가 제일 늦게 간 거예요.>

조사자 : 느께 가서서 잘 가싱거네요.

<늦게 가서서 잘 가신 거네요.>

제보자 : ㅎㅎ, 그래서 자녀는 딸 둘 아들 둘 나씨요. 그래서 인자 해서 다 여서요.

<ㅎㅎ, 그래서 자녀는 딸 둘 아들 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다 여의었어요.>

조사자 : 겨론식칼때는 그럼 어떠케 하서씨요?

<결혼식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제보자 : 우리 마당에서 옛날 구시기루 해썌요. 풍스브루. 이케 마당에서 이르케 해노코 가고 서로 고기서 원사뭇 입꾸 그렇거 했썌유. 그 남자 신랑츄게서는 인자 남자 칭구드리 마나썌유. 그 사람드리 막 와가지구, 그때는 차도 안 다녀썌썌유. 삼전도 안 드려 와썌요. 그래서 남자 칭구드리 막 그랜는다, 쯤썌 그때 될만크매서, 저기 가야곡 그 사거리 이짜나유? 왕암니하고 그 육푹니하고 이케, 고기서 고기까지 차가 드려썌유. 그래서 그거 타고 거기서 거러서 왔뜨라구요. 그러구선 우리 집 드려오는데, 요기다 인자 가마에 태워 자기드리 이르케 손 해서, 거시기 기마전 할때처럼 요기다 이르케 태워가꼬 그르카고 와썌요.

<우리 마당에서 옛날 구식으로 했어요. 풍습으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해 놓고 가고 서로 거기서 원삼 옷 입고 그런 거 했지요. 그 남자 신랑 측에서는 이제 남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때는 차도 안 다녀였어요. 삼전도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 막 그랬는데, 조금 될 만큼 해서, 저기 가야곡 그 사거리 있잖아요? 왕암리하고 그 육곡리하고 이렇게, 거기서 거기까지 차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거기서 걸어서 왔더라구요. 그리고는 우리 집 들어오는데, 여기다 이제 가마에 태워 자기들이 이렇게 손 해서, 거시기 기마전 할 때처럼 여기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조사자 : 실랑을료?

<신랑을요?>

제보자 : 예 흐흐흐.

<예 흐흐흐.>

조사자 : 그러니까 정식 가마가 아니고 손가마 이러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식 가마가 아니고 손가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보자 : 예 칭구들, 칭구들, 인자 고기다 해서 고기다 태워가지고 네
시 되니까.

<예 친구들, 친구들, 이제 거기다 해서 거기다 태워가지고 넷이
되니까.>

조사자 : 신부가 가마타능거 아닝가요?

<신부가 가마타는 거 아닝가요?>

제보자 : 아이 그런디 가마가 업써썬유. 그때는. 저는 택씨타구 갔썬
유. 그 아페 까지 나가서, 그 그래서 저는 택씨타고 가고. 예 논산
군수니밍가 누가 어디를 그 택시를 맞춰나따는디. 아이 막 달라고
되면 안되냐구. 가따 주고서는 갈라고 이 일찍 옹겨여. 태우러. 택
씨가 그래서 우리 집까지는 안 드로고 거 압동네 거까지 가서 택씨
타고 가썬유. 그래도 흐흐흐.

<아이 그런데 가마가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택시타구 갔지요.
그 앞에까지 나가서, 그 그래서 저는 택시타고 가고. 예 논산 군수님인가
누가 어디를 그 택시를 맞춰봤다는데. 아이 막 달라고 되면 안 되냐구.
가져다 주고서는 가려고 이 일찍 온 거요. 태우러. 택시가 그래서 우리
집까지는 안들어오고 거 앞 동네 거기까지 가서 택시타고 갔어요. 그래도
흐흐흐.>

조사자 : 그 당시 택씨 타셔쓰면 뭐, 아주.

<그 당시 택시 타셨으면 뭐, 아주.>

제보자 : 그릉게 사람드리 막 다아 조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좋다 그래요.>

조사자 : 몇씨썬 합니까? 그때는 겨론시글?

<몇 시썬 합니까? 그때는 결혼식을?>

제보자 : 겨론시교? 저기 날 나이를?
<결혼식요? 저기 날 나이를?>

조사자 :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제보자 : 시를료? 그때가 시가 여란싱가 열썩가 그르케 똥거가태유.
<시를요? 그때가시가 열 한시인가 열시인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조사자 : 아침 녀게 하네요.
<아침 녀에 하네요.>

제보자 : 예, 그래서 막 그 마니 칭구드리 와가지고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흐흐흐, 장난을 막 겁나게 자래.
<예, 그래서 막 그 많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흐흐흐, 장난을 막 겁나게 잘 해.>

조사자 : 그때도 뭐 신랑 이르케 이제 오면 그 처가 동네에서 달구,
<그때도 뭐 신랑 이렇게 이제 오면 그 처가 동네에서 달구,>

제보자 : 예 달렸찌유.
<예 달렸찌유.>

조사자 : 예 어떠케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제보자 : 빨래 방땡이 가따가 막 우리집 노나고 비타고 다아막 일러취
가지고서는 끌고 가요. 그래서 가면 마증게 아프자나요. 그래서 막
이거또 마니 막 신끼구 옷또 막 두껍놈 막 이피구 그르케서 군복 가튼
거 입꼬 내보냈찌유. 칭구드리 와가꾸 인자 후딱 가따 어버다가 막

우리 노니랑 다아 가따가 고기다 빠쳐노코, 그르케 그르카고서 인
자 데려다가, 다른 지비 사랑뺑에서 막 디게 마잖때유. ㅎㅎㅎ.

<빨래 방맹이 갖다가 막 우리 집 논하고 밭하고 다 막 일러줘 가지고
서는 끌고 가요. 그래서 가면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많이
막 신기고 옷도 막 두꺼운 놈 막 입히고 그렇게 해서 군복 같은 거 입고
내보냈지유. 친구들이 와 가지고 이제 후딱 갖다 업어다가 막 우리 논이랑
다 갖다가 거기다 빠트려 놓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데려다가, 다른
집의 사랑방에서 막 되게 맞았대요. ㅎㅎㅎ.>

조사자 : 그 나리요? 겨론식 하는 날?

<그 날이요? 결혼식 하는 날?>

제보자 : 인자 삼일 께 집 처가를 오자나유? 겨론시키러 가따가 사밀
대믄 친정 보내줘유. 실랑하고 가치. 그래서 인자 다른, 우리 지븐
인자 모타구 다른 지비루 데리구 가서 맞아써유.

<이제 삼일 께 집 처가를 오잖아요? 결혼식하러 갔다가 삼일 되면
친정 보내줘요. 신랑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 집은 이제 못하고
다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았어요.>

조사자 : 만능거 보고 마음이 어떠셔써요?

<맞는 거 보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보자 : 아이 저는 봐간디유? 녀네 탄집 탄집 사랑뺑이가서 우리 사
랑뺑은 아나고, 그래 다 이케 만능거라고 해서 그저니는 그르케 해
써유. 그르케 하능거랴. 실랑이 거기 그 안 앙가면 안 된대.

<아이 저는 봤나요? 남의 탄집 탄집 사랑방에 가서 우리 사랑방은
안하고, 그래 다 이렇게 맞는 거라고 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렇게 하는 거래. 신랑이 거기 그 안 안 가면 안 된대.>

조사자 : 시논 여행 가통건 그뻘 뭐 업섯쪄?

<신혼 여행 같은 것은 그때 뭐 없었죠?>

제보자 : 그릉진 업써썬유. 친정에두유 사밀 이따가 그 다메 가서 그 러케 만능거에유.

<그런 건 없었어요. 친정에도요 삼일 있다가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조사자 : 그 아까 칭구드리 밤내노라고 뭐 그래따 그러는데,
<그 아까 친구들이 밥 내놓으라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제보자 : 예 에 그냥 그 사람드리 아치메 그러케 하고 와썬게 멀자나 유. 거러서. 그러케 또 오고 그래서 막 해서 내노라고 궁게 이라는 사람들 다 해서 이케 쫓쫓.

<에 에 그냥 그 사람들이 아침에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멀잖아요. 걸어서. 그렇게 또 오고 그래서 막 해서 내 놓으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다 해서 이렇게 쫓쫓.>

조사자 : 그러케 잔치할 때는 음식근 어떤 음식드를 뭐 따로 하능게 인나요?

<그렇게 잔치할 때는 음식은 어떤 음식들을 뭐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제보자 : 떡볶, 떡볶 잔치, 바비 아니라 인자 떡꾸글 해서 다 끄려내요. 손님 오는대로 다 손님드리, 인자 지베서 더군다나 마당에서 인자 하니까요. 저 지금처럼 예식짱은 안 가자나요. 그래서 인자 실랑 이러케 해 노코서, 다 하고 끝나고 떡볶 다 끄려서 동네 사라미고 어서 오신 분들 다 떡꾸그로 잔치해썬유. 그때는 떡볶또 어려워게 모든 문명은 집 만쿠 밥또 엄는 집또 마나썬유.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워. 곡식또 쫓썬씩 바께 모타고 논 가퉁거 엄는 사라문

마아니 굴머서, 사네 가서 그 산나물가통거만 따다 머거 가지고, 다아 이러케 부어서 나중에는 도라가시는 사람들도 이써썬유.

<떡국, 떡국 잔치, 밥이 아니라 이제 떡국을 해서 다 끓여내요. 손님 오는 대로 다 손님들이, 이제 집에서 더군다나 마당에서 이제 하니까요. 저 지금처럼 음식점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 이렇게 해 놓고서, 다 하고 끝나고 떡국 다 끓여서 동네사람이고 어디서 오신 분들 다 떡국으로 잔치했어요. 그때는 떡국도 어렵게 뭐든 못 먹는 집 많고 밥도 없는 집도 많았었어요.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워. 곡식도 조금씩 밖에 못하고 논 같은 거 없는 사람은 많이 굶어서, 산에 가서 그 산나물 같은 것만 따다 먹어 가지고, 다 이렇게 부어서 나중에는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사자 : 산나무리요?

<산나물이요?>

제보자 : 예, 곡씨기 안드러가니까유, 부항이 낭거유. 굉장히 어려운 집뜨른 그래썬유.

<예, 곡식이 안 들어가니까요. 부항이 난 거요. 굉장히 어려운 집들은 그랬어요.>

조사자 : 할머니두 나물 뜨드러 가보셔썬유?

<할머니도 나물 뜯으러 가 보셨어요?>

제보자 : 저넌 양갓썬유. 그 배고프니까 뜨더다가 잡썬느라 그르케 했썬유. 우리는 그냥 밥 다 먹꼬 사르니까유.

<저는 안 갔지요. 그 배고프니까 뜯어다가 잡썬느라 그렇게 했지요. 우리는 그냥 밥 다 먹고 사니까요.>

조사자 : 부갓썬베서 잘 사션네요. 하하. 근데 나물 뜨더 오면 사네서는 어떤 나물드를 그르케 뜨더 오나요?

<부잣집에서 잘 사셨네요. 하하. 그런데 나물 뜯어 오면 산에서는 어떤 나물들을 그렇게 뜯어 오나요?>

제보자 : 뭐 취나물 그릉거요. 고사리, 고 고 먹취 개미취 뭐 잔대잎 삼수씩 창출 그거 그렁거도 다 나무리에요. 게 도캥거는 머그먼 주 거요. 다 아르서 나물도 뜨더야대, 사네서. 왜 버섯또 잘못 뜨더 머 그먼 다 죽짜나여, 잘못 머그먼 독 독뻬섯 머그먼. 그때는 그 마니 잘 해야 대서.

<뭐 취나물 그런 거요. 고사리, 고 고 먹취 개미취 뭐 잔대잎 삼수씩 창출 그거 그런 거도 다 나무리에요. 그게 독한 거는 먹으면 죽어요. 다 알아서 나물도 뜯어야 돼, 산에서. 왜 버섯도 잘못 뜯어 먹으면 다 죽잖아 요, 잘못 먹으면 독 독버섯 먹으면. 그때는 그 많이 잘 해야 돼서.>

조사자 : 그러면 뭐 산나물 가릉거또 그냥 동네사람들 뜨더 오능거는 보시고 직접,

<그러면 뭐 산나물 같은 것도 동네사람들 뜯어 오는 거는 보시고 직접,>

제보자 : 예, 다들. 근디 알지유 산미티 사르니까. 그러니 다 뜨더다 잡숫쫐.

<예, 다들. 그런데 알지요. 산 밑에 사니까. 그러니 다 뜯어다 잡숫 쫐.>

조사자 : 지베 짐승은 어떤 짐승들 키우시구요.

<집에 짐승은 어떤 짐승들 키우시구요.>

제보자 : 저요? 소 돼지 닭.

<저요? 소 돼지 닭.>

조사자 : 이 논산쫐게서는 뭐 오리나 이렇건 안 키우션나봐요?

<이 논산 쪽에서는 뭐 오리나 이런 건 안 키우셨나 봐요?>

제보자 : 오리는, 오리는 안 키워써꾸요. 다근 인자 키워서 자바머꼬
알 겨란도 그럴라구 그케 하셨죠.

<오리는, 오리는 안 키웠었구요. 닭은 이제 키워서 잡아먹고 알
계란도 그럴려고 그렇게 하셨죠.>

조사자 : 수른 안 당그시구요?

<술은 안 담으시구요?>

제보자 : 술뇨? 그 수를 아버지미 수를 안 잡쭈써써 못 잡쭈써써 하안
술도 아나시구 도라 가서써.

<술요? 그 술을 아버님이 술을 안 잡수셨어. 못 잡수셨어. 한 술도
안 하시고 돌아 가셨어.>

조사자 : 근데 남편은 어떠셔써요?

<그런데 남편은 어떠셨어요?>

제보자 : 남편은 그때마내두 쪼금 머겼찌유. ㅎㅎ.

<남편은 그때만 해도 쪼금 먹었지요. ㅎㅎ.>

조사자 : 표정보니까 쪼끄미 아니라 마니 드싱겨 가트신데,

<표정 보니까 쪼금이 아니라 많이 드신 거 같으신데,>

제보자 : 아니에유. ㅎㅎㅎ.

<아니에요. ㅎㅎㅎ.>

조사자 : 하라버니믄 어떤 이를 하셔써요.

<할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보자 : 그냥 대진고등학교 옌나레 다녀짜나요. 하구서 대하글 가서
떠러져써요. 그래서 요기서 인자 머 쫘 나가는 디가 이써, 쪼금썩

만 혀찌 별 저기는 모태써유.

<그냥 대건고등학교 옛날에 다녔잖아요. 하고서 대학을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좀 나가는 데가 있어, 조금 씩만 했지 별 저기는 못 했어요.>

제가 와서 인자 아드를 난는디, 세사링가 그때 머건는디, 이지베서 살때에유. 여그 와서 애를 나쓰니까 개를, 인자 요기서 분가를 해서 사란는디, 아니 그때가 아니네 내가 분가를 하기 저니네. 아버지든 성동사시고 나는 이리 와서 그때 인자 어머님 아버지님 고기도 막 누에를 매기시더라구요, 오니까요. 누에도 하구 밀도 밀농사도 짓꾸 딸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구요. 딸기 따서 드리면 우리 시승니미 거시기예요. 기차 철또청. 고기서 가서 게 고기 다니셔썬요. 그래서 저기 익싼 사르셔썬요. 그래서 고기 그 부니 거기 철또청이 계시기 때미 아버지님 어머니든 그 차비를 안내셔유, 부모니 미라구. 아버지 어머니 그 그냥 그냥 돈 안 저기하고 그냥 가서 그렇게 인자 그 논산녀기다가 가따만 드리면 차에다 시러서 서울가셔서 인자 팔구 오셔유 호호.

<제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세살인가 그때 먹었는데, 이집에서 살 때에요. 여기 와서 애를 낳았으니까 개를, 이제 여기서 분가를 해서 살았는데. 아니 그때가 아니네 내가 분가를 하기 전이네. 아버님은 성동사시고 나는 이리 와서 그때 이제 어머님 아버지님 고기도 막 누에를 먹이시더라구요, 오니까요. 누에도 하구 밀도 밀농사도 짓고 딸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구요. 딸기 따서 드리면 우리 시숙님이 거시기예요. 기차 철도청 거기서 가서 그게 거기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기 익산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분이 거기 철도청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든 그 차비를 안내셔요, 부모님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그 그냥 그냥 돈 안 저기하고 그냥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논산역에다가 가져다만 드리면 차에다 실어서 서울가셔서 이제 팔아 오셔요. 호호.>

조사자 : 할머니도 딸기 마니 키우셔쎄요?

<할머니도 딸기 많이 키우셨어요?>

제보자 : 고기서는 마니는 안쿠요, 잡숫꼬 인자 그릉거만 하셔쎄유.

그 누에를 하능거를 마니 하셔쎄요. 게서 누에는 해서 인자 애기를 키울 때는, 되게 자미 오거든뉴. 제가, 근디 인자 애기를 떠노코 저 저만 인자 이꼬, 바메도 누에는 누에 바블 쥐야 돼요, 뽕니블. 나제 따다 뇌따가 밤쫑에도 인자 삭삭삭삭 노코서는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되는데, 애기는 젓쫑고 해야 되고, 그냥 막 자른 와 자른 죽겼고, 어머님 아버님 양계시믄 제가 다 하야니께, 그래서 갱장히 누에고 치도 마니 파라쎄요. 저어기 여 기차역 가 거가면 판매하는디다 다 아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다아 누에고치 저 저기 하믄 가따주고 그 래쎄요.

<거기서는 많이는 안고요, 잡숫고 이제 그런 거만 하셨어요, 그 누에를 하는 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누에는 해서 이제 애기를 키울 때는, 되게 잠이 오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애기를 떼어 놓고 저 저만 이제 있고, 밤에도 누에는 누에 밥을 쥐야 돼요, 뽕잎을 낮에 따다 놓았다 가 밤중에도 인자 삭삭삭삭 놓고서는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되는데, 애기는 젓 주고 해야 되고, 그냥 막 잠은 와 잠은 죽겼고,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시면 제가 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누에고치도 많이 팔았어요. 저기 여 기차역 가거기 가면 판매하는 데에다 다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다 누에고 치 저 저기 하면 갖다 주고 그랬어요.>

조사자 : 그러면 누에로 뭐 팔기만 하셔쎄요? 그걸로 뭘 만들진 아느 시구요?

<그러면 누에로 뭐 팔기만 하셨어요? 그걸로 뭘 만들진 않으시구요?>

제보자 : 예, 어머니은 인자 조금 연 연세가 마니 저기 되셔가지고, 그때마내도 그런 기구 농사가 업쫘찌유. 저 클 때는 그릉거 하능거처럼 마니 봐써유.

<예, 어머니은 이제 조금 연 연세가 많이 저기 되셔가지고, 그때만해도 그런 기구 농사가 없었지요. 저 클 때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많이 봤어요.>

조사자 : 어떠케 하능걸?

<어떻게 하는 걸?>

제보자 : 친정할머니께서 인자 해서, 누에고치를 해서, 이르케 조끔 불 이르케 꼬슬 만드려요. 고기다 누에고치를 느코 막 팔 부를 때면, 팔팔팔팔 끄러서 인자 명지시를 빼요. 그래서 이르케 이르케 도라가면서 시를 실 나오는데루, 그럼 이르케 이르케 해서 하른 명지실 마약 조아요.

<친정할머니께서 이제 해서, 누에고치를 해서, 이렇게 조끔 불 이렇게 꽃을 만들어요. 거기다 누에고치를 넣고 막 팔 불을 때면, 팔팔팔팔 끓어서 이제 명주실을 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을 실 나오는 데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명주실 막 좋아요.>

조사자 : 돌리는 걸 머라 그러쫘?

<돌리는 걸 뭐라 그러쫘?>

제보자 : 왕채

<왕채4)>

4) 왕채.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감아서 실타래를 만드는 기구. 물래와 비슷하게 생겼고 구동법도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과 결과물이 다름, 물래는 목화고치에서 실을 뽑고 꼬임을 주는 기구.

조사자 : 왕채?

<왕채>

제보자 : 그래유, 거기다 이르게 만드능게쥬. 이르게 발라서 이르게 이르게 도르면 인자 또오까치 시리 인자 여가 패지앙코 인자 요만 큼씩 베면 따로 빼서 이르게 해노코 이러케 해서 그걸로 명주, 인삼 저기 삼도 하시고, 마아니 명주를 마니 할머니께서 잘 하셔쥬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그르고 또 모시도 시머서 그르 그거는 저 도 해쥬유, 모시 시머가지고 일하는 거슨, 다릉진 모타구요. 그거 인자 끄너서 인자 다아 저기 해서는 꺾떼기를 배껴야대유. 그러다가 기냥 이른데가 다 팽기드락까지 해쥬요. 흐흐. 그르캐서 하야야 케해서 인자 또 거 것두르능거 인자 깡는거지유. 이케 거시기 만드 러가지고 그랜는디 그걸로 또 해서 모시 저기도 하고 삼농사도 해 쥬유. 그 막악 바티다 지그른 그거보고 머라구 하지유? 그걸 그걸 머그먼 혼나자나유.

<그래요, 거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제 똑같이 실이 이제 여기가 패이지 않고 이제 요만큼씩 베면 따로 빼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명주, 인삼 저기 삼도 하시고, 많이 명주를 많이 할머니께서 잘 하셨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그리고 또 모시도 심어서 그리 그거는 저도 했어요. 모시 심어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다른 건 못 하구요. 그거 이제 끊어서 이제 다저기 해서는 꺾떼기를 벗겨야 되요. 그러다가 그냥 이런 데가 다 패일 때까지 했어요. 흐흐. 그렇게 해서 하얹게 해서 이제 또 거 걸 두르는 거 이제 깡는 거지유. 이렇게 거시기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걸로 또 해서 모시 저기도 하고 삼농사도 했어요. 그 막 밭에다 지금은 그거보고 뭐라고 하지유? 그걸 그걸 먹으면 혼나잖아요.>

조사자 : 그거 대마쥬.

<그거 대마쥬.>

제보자 : 예, 예, 삼농사도 자알 지셔썬유. 막 이르케 막 크게 저가지고, 요만씩 다아 무꺼서, 인자 지비서 동네사람도 하고 그러믄 여러 지비 해서 도를 또랑가에다가 마악 이르케 달궈요. 마니 이르케 해 노코 그르카고서 인자 그거 사물 가따가 거기다 녀노코서는 무꺼서, 다 여기다 또랑에 마악 마저서 무를 마니 해 노코, 그 무를 인자 던지 고기다 막 껴치면 그 도리 막 불드러와 가꼬, 마악 뜨거운 증구니⁵⁾ 올라와요. 지미. 그름 그계 또 삼베 짜는 그거시 나와요. 까요. 또 이그니까 고기서 이그니까 그냥 소옥 하면 그 아네 인는 그 막때기가 저릅때 저르비라 그래요.

<예, 예, 삼농사도 자알 지셨어요. 막 이렇게 막 크게 저가지고, 요만씩 다 묶어서, 이제 집에서 동네사람도 하고 그러면 여러 집이 해서 돌을 도랑가에다가 막 이렇게 달궈요. 많이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거 삼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 놓고서는 묶어서, 다 여기다 또랑에 막 막아서 물을 많이 해 놓고, 그 물을 이제 던지 거기다 막 끼었으면 그 돌이 막 불들어와 가지고, 막 뜨거운 증기가 올라와요. 김이. 그럼 그계 또 삼베 짜는 그것이 나와요. 까요. 또 익으니까 거기서 익으니까 그냥 소옥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막대기가 저릅대⁶⁾ 저릅이라 그래요.>

그거 삼 아네 인능계 그래 가꼬, 이 껌때기를 그냥 버껴 가지고 그르케 해가지고 그걸 인자 가져오면, 어머니들이 그걸 인자 다아 쪼개서 저기 대름질, 저기 이르케 이르케 하능걸 그걸 해요. 인는 거. 오시루 이르케 또까치 해서 할머니드리 이르케 해가꾸 이걸 훌떡 거더 부치고 요기서 마악 이르케 이르케 해서 다아 이르케 마디가 안 걸리케그름 이러케 가치 쳐지게 그르케들 하셔썬. 그르

5) 증기 즉 뜨거운 김을 말한 뜻함.

6) 겨릅대의 지역어. 겨릅대는 껌질을 벗긴 삼의 줄기를 말함.

케. 이르케 이르케 챗빠꾸마냥 이르케 생깁거뜨를 가따 노코 고기
다가 이르케 이르케 사므셔. 이 그룩까치 똑까치 이르케 이르케
하구서 인자 쪼곰 이따 너머 마느면 너머지니까 당신들 이르케 할
만큼 해서 딱 무꺼요. 그르케 해따가 삼베도 짜서 저도 삼베옷 이
버써요 어려쓸 때.

<그거 삼 안에 있는 게 그래 가지고. 이 껍데기를 그냥 벗겨 가지고 그
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오면 어머니들이 그걸 이제 다 쪼개서 저
다림질 저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그걸 해요. 잇는 거. 옷으로 이렇게
똑 같이 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훌떡 걷어 부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아 이렇게 마디가 안 걸리게끔 이렇게 같이 쳐지
게 그렇게들 하셨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챗빠꾸마냥 이렇게 생긴 것들
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삼으셔. 이 그릇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구서 이제 조금 있다 너무 많으면 넘어지니까 당신들 이렇게
할 만큼 해서 딱 묶어요. 그렇게 했다가 삼베도 짜서 저도 삼베옷 입었어요
어렸을 때.>

조사자 : 삼베도 짜보시구요?

<삼베도 짜 보시구요?>

제보자 : 짜 보능건 모넨는디요 어머니가 사알짝 몰래 가서 해보면
안대구 꼬너지구 그래요. 저는 짜까나고 이거 요거 요기다 이르케
해서 해서 이거두 막 히미 셔가꾸 이르케 혀서 이커 콰악 바디를
이르케 해야되는디 그거 할 쭈가 이써요? 쪼꼬마난디. 모올래 이
르케 건드려따가 그거 막 꼬너져서 막 혼만나구 막 도망가써써. 흐
흐흐. 베는 한번도 못 짜봐써유. 그 흥내는 날쭈인는디 모다거떠라
구유.

<짜 보는 것은 못 했는데요, 어머니가, 살짝 몰래 가서 해 보면 안
되고 끊어지고 그래요. 저는 조그마하고 이거 요거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해서 이것도 막 힘이 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콧바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한데. 몰래 이렇게 건드렸다가 그거 막 끊어져서 막 혼만 나고 막 도망갔었어. ㅎㅎㅎ 베는 한 번도 못 짜봤어요. 그 흥내는 낼 수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조사자 : 그 고령거 삼 하능거 봉게 고 몇 쌀때찌미세요?

<그 그런 거 삼 하는 거 본 게 그 몇 살 때찌미세요?>

제보자 : 고때가요, 제가 한 열쌀때부터는 그런걸 봉거 가태요, 그래서 마니 하셔썬요. 근데 인자 그 나중에는 인자 다 그런거 모다썬썬유.

<그때가요, 제가 한 열 살 때부터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셔썬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다 그런 거 못 하셔썬썬유.>

조사자 : 열쌀 뭐 그때면 하꼬다니실 땐데 그때는 공부도 공부지만 애드라고 노능게 더 재미쓰실때 아니션나요?

<열 살 뭐 그때면 학교 다니실 땐데 그때는 공부도 공부지만 애들하고 노는 게 더 재미 있으실 때 아니션나요?>

제보자 : 그러치유. ㅎㅎㅎ.

<그렇지요, ㅎㅎㅎ.>

조사자 : 뭐하고 노셔썬요? 그때는?

<뭐하고 노셔썬어요? 그때는?>

제보자 : 그때는 발치기 뭘 이르게 해서 이르게 튕겨서 따 멍는거, 그 기 발치기로 해서 이르게 드르가 드르가 차서 드르가서 이케 가서 또 죽꼬 주거 나오고 주거 나오고 이르게 하고 그릉거 해썬요. 고무 줄도 해썬유 학생들도 했썬유 어려썬때 ㅎㅎ.

<그때는 발치기?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겨서 따먹는 거, 그거

7) 사방치기 또는 먹자놀이이라고 하는, 놀이의 일종.

발치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차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또 죽고 죽어 나오고 죽어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했어요. 고무줄도 했어요 학생들도 했지요 어렸을 때>

조사자 : 발치기는 뭘 발로 차는 거예요?

<발치기는 뭘 발로 차는 거예요?>

제보자 : 이르케 돌 돌 조금 보기 조을마난, 우리드리 인자 팔 이케 여기 이르케 찰쭈 인능거 그릉거 해서 그냥 이케 그걸 할 때 이르케 다아 이르케 흐게다 이르케 칸카내서 이르케 드르가는디를 만들자나유, 그람 거기다 거기 사악 드르가몬 거기 또 가서 자바 머꾸 미리 내고 그게 하나 지구 미리 나오면 하난 중능거지유 그래 그르케 해썬유. 도를 이르케 이쁘거 이쁘몬 그놈 반질반질랑거 다 목자 여기 목짜 흐흐흐

<이렇게 돌 돌 조금 보기 좋을 만한, 우리 들이 이제 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찰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서 그냥 이렇게 그걸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흠에다 이렇게 칸칸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거기 사악 들어가면 거기 또 가서 잡아 먹고 밀어내고 그게 하나 지구 밀려 나오면 하나는 죽는 거지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돌을 이렇게 예쁜 것 있으면 그놈 반질반질한 거 다 목자⁸⁾ 여기 목자 흐흐흐>

조사자 : 그걸 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해썬꺼 아닙니까?

<그걸 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제보자 : 그르썬.

<그렇썬.>

조사자 : 그럼 겨우레 마당에 몬나가면?

8) 사방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납작한 돌의 이름. 막자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음.

<그럼 겨울에 마당에 못 나가면?>

제보자 : 겨우리는 못나가죠.

<겨울에는 못 나가죠.>

조사자 : 예 그럼 방아네서 머하고 노셔써요?

<예 그럼 방안에서 뭐하고 노셨어요?>

제보자 : 이거 실뜨기 하겠쥬? 이 물 여기에 저 학생드른 할꼐 실 이르게 해서 그 그릉겘 해써유. 그르케 이케 해서 그르케 그거 하나라구 지금 이르게 이르게 해가지구서 하자나 왜? 그겘, 실뜨기 해 가꾸 뚜르던 그거 모따라 그릉거뚜 해써써요.

<이거 실뜨기 했겠쥬? 이 물 여기에 저 학생들은 할 꼐 실 이렇게 해서 그 그런 겘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거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구서 하잖아 왜? 그겘 실뜨기 해 가지고 뚫으면 그거 못 따라 그런 것도 했었어요.>

조사자 : 그 돌멩이로 싸노코 이러케 하는거?

<그 돌멩이로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제보자 : 공기, 예 공기가 일본 마린지 우리나라 마린지 모르케써유,
ㅎㅎㅎ.

<공기, 예 공기가 일본 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ㅎㅎㅎ.>

조사자 : 그거 잘 하셔써요?

<그거 잘 하셨어요?>

제보자 : 애드른 우리드른 그건만 했쥬유, 뭐. 공부하고 나와서도 그 공기만 하다가 인자 땡땡땡땡 하면 드르가짜너.

<애들은 우리들은 그것만 했지요, 뭐. 공부하고 나와서도 그 공기

만 하다가 이제 땡땡땡땡 하면 들어갔잖아.>

조사자 : 아, 하꼬에서도 그걸 하셔따구요?

<아, 학교에서도 그걸 하셨다구요?>

제보자 : 예, 저들도 그랜는디, 고무줄 가꾸서 하면뇨 고무줄을 나막
쌩더리 와서 착 끄너가요. 칼로 팍 끄너가꼬 마악 소리 지르구 나막
쌩드른 도망가버리구 ㅎㅎㅎ.

<예, 저희들도 그랬는데. 고무줄 가지고 하면요 고무줄을 남학생
들이 와서 착 끊어가요. 칼로 팍 끊어가고 마악 소리지르고 남학생들은
도망가버리구 ㅎㅎㅎ.>

조사자 : 저도 그 짓 마니 했는데 하하, 보통 때는 이제 발치기하고 공
기하고 그러시고 명절 때면 또 쯤 명절 때만 하능게 이찌 안아썰가
요?

<저도 그 짓 많이 했는데 하하, 보통 때는 이제 발치기하고 공기하
고 그러시고 명절 때면 또 쯤 명절 때만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제보자 : 글썤유 그 생가글 쯤썤, 만나서 놀기는 해썤유.

<글썤요 그 생각을 쯤썤, 만나서 놀기는 했어요.>

조사자 : 설나레는 뭐?

<설날에는 뭐?>

제보자 : 예 세배가등거 해썤유, 예.

<예 세배 같은 거 했어요, 예.>

조사자 : 세배하러 다니시며는 뭐 어른드리 뭘 주시고 그러나요? 그
때도 세뱃또니 이썰나요?

<세배하러 다니시면 뭐 어른들이 뭘 주시고 그러나요? 그때도 세
배 돈이 있었나요?>

제보자 : 도는 저 어려서 어려서는 그렇거시 업써썌요. 모 제가 몰라 썌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지바는 썌 우리 하라버지께서 저기 독 독짜여썌썌요. 그래서 하라버지 한분께서 한분 계셔썌썌요. 자 근 하라버지 큰 하라버지도 업꾸 해서 큰집또 업꾸 그르케 해서 제 저히지비 인자 우리 하라버지 아버니마고 고모니마고 해서 삼남매 두셔썌썌요. 하라버지께서 그르구서는 저히드른 인자 저 마니 저기가 났썌썌유.

<돈은 저 어려서 어려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뭐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집안은 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기 독 독자였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한분께서 한분 계셨었어요.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도 없고 해서 큰집도 없고 그래서 제 저희 집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하고 고모님하고 해서 삼남매 두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리고는 저희들은 이제 저 많이 저기가 났썌썌요. >

조사자 : 그쪽 가야곡 구자고계 사시다가 성동으로 이사 오셔서 이썌그로 시지보셔서 이썌그로 드군니로 이사 오싱경가요? 그럼 평생 논산 사싱거네요?

<그 쪽 가야곡 구자곡에 사시다가 성동으로 이사 오셔서 이썌쪽으로 시집오셔서 이썌쪽으로 득윤리로 이사 오신건가요? 그럼 평생 논산 사싱거네요?>

제보자 : 예, ㅎㅎㅎ.

<예, ㅎㅎㅎ.>

조사자 : 참 대다나시네요.

<참 대단하시네요.>

제보자 : 아 엔나레는 막 마악 나보고 성동으로 시집 간다고 거기는 마악 사람 주기는 단디 그른 디로 가냐고 그레, 아이 그르픈 지금

다 지나 간는다 그람 그르타구 성동 시지반가? 그래떠니 우리 시대
게는요 아 아무 피해를 안 바다떠라구.

<아옛날에는 막 막 나보고 성동으로 시집 간다고 거기는 막 사람
죽이는 데인데 그런 데로 가냐고 그래, 아이 그러면 지금 다 지나 갔는데
그럼 그렇다고 성동 시집 안 가? 그랬더니 우리 시택에는요 아무 피해를
안 받았더라구.>

조사자 : 무슨 일이 있쨌나요 한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때?>

제보자 : 거 유기오때는 성동써 사람 마니 주겨쨌요.

<거 육이오 때는 성동에서 사람 많이 죽었어오.>

조사자 : 왜오?

<왜오?>

제보자 : 그 그 빨치산덜 사퇴할 때 그것더리 막 다아 드러와서 다 주
기고 가짜나. 저어 성동 기피 드르가면 거기 사람들 제일 마니 주겨
따고 하대, 저도 성동에서 안 나서 사라쓰니까 모르고, 와서 드릉
거 뿌니에오.

<그 그 빨치산들 사퇴할 때⁹⁾ 그것들이 막 다 들어와서 다 주기고
갔잖아. 저어 성동 깊이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하대.
저도 성동에서 안 나서 살았으니까 모르고, 와서 들은 것뿐이에오.>

조사자 : 유기오 때 얘깁가요?

<육이오 때 얘깁가요?>

제보자 : 예 거엄나. 거기가 무서운 디라고 소문 나쨌자나. 그게 저어
사니 가서 막 다 그냥 닥닥닥닥 깡장히 마니 주겨때요.

9) 후퇴할 때를 말함.

<예 겁나 거기가 무서운 데라고 소문 났었잖아. 그게 저어 산에 가서 막 다 그냥 딱딱딱딱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조사자 : 성동이 아주 또 슬픈 동네네요, 그러면. 이 마을에 오싱건 언제 세세요?

<성동이 아주 또 슬픈 동네네요, 그러면. 이 마을에 오신 건 언제 세요?>

제보자 : 오시빌년 돼써유.

<오십 일 년 됐어요.>

조사자 : 뭐 다른 동네로 나가서 사시고 시픈 생가근 업쓰써써요?

<뭐 다른 동네로 나가서 사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제보자 : 아니유 여기서만 사라써써요. 흐흐흐.

<아니요 여기서만 살았었어요. 흐흐흐.>

조사자 : 여기가 왜 그러케 조아요?

<여기가 왜 그렇게 좋아요?>

제보자 : 좋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조코요.

<좋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좋고요.>

조사자 : 여기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자랑 좀 해 주세요.>

제보자 : 다 여기 자래요. 다른 사람드리 뭐 즐겁따구 해요. 다 여기는 모이른 다 도시서 지그른 거기서 딸기를 하구 인는데, 인자 벼 이쓰른 인자 거기서 모여서 밥또 해 머꼬 놀고 그래유 노인네들.

<다 여기 잘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즐겁다고 해요. 다 여기는 모이면 다 도시서 지금은 거기서 딸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놀고 그래요 노인네들.>

조사자 : 혹시 여기서 오십일년전부터 사시면서 뭐 부녀회 활동이나
이런건 안 하셔서요?

<혹시 여기서 오십일 년 전부터 사시면서 뭐 부녀회 활동이나 이런
건 안하셨어요?>

제보자 : 그렇거 한다고 헨는디 아내씨유.

<그런 거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조사자 : 왜요?

<왜요?>

제보자 : 아이 우리집 실랑이 모다게 해요. 흐흐.

<아이 우리 집 신랑이 못 하게 해요. 흐흐흐.>

조사자 : 할머니든 하고 시편는데?

<할머님은 하고 싶었는데?>

제보자 : 아니유 저두 싨타고 해씨요.

<아니요 저도 싨다고 했어요.>

딸 : 아버지가 이장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러타구 해, 엄마.

<아버지가 이장을 너무 오래 해서 그렇다고 해, 엄마.>

조사자 : 아, 이장니미셔씨요?

<아, 이장님이셨어요?>

딸 : 저이 아버지가 워낙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워낙 동네에서,>

제보자 : 최 최초로 이장을 여기가 여기가 이 이구로 돼 이씨유. 저기

저 보 보건소 이짜나유? 거기서 여기까지가 이구로 돼 이씨유. 근 디 인자 우리가 이사 와서 사는데 저 이 동네 사람드리 저부는 이 이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추처늘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다 해서 하안참 해씨유. 그래서 여기가 삼구로 그냥 끄너져씨요. 거기는 너무 마나요. 이구가 마나서 여까지 할라면 이장이 너무 힘 드려요. 그래서 요기는 이장을 새로 우리 실랑을 했씨유.

<최 최초로 이장을 여기가 여기가 이 이구로 돼 있어요. 저기 저 보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가 이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 와서 사는데 저 이 동네 사람들이 저분은 이 이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추천을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다 해서 한참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삼구로 그냥 끊어 졌어요. 거기는 너무 많아요. 이구가 많아서 여까지 하려면 이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장을 새로 우리 신랑을 했지요.>

조사자 : 그럼 이장님댁 뭐 절물 때는 이장님댁 사모니미구 그르케 사션네요.

<그럼 이장님 댁 뭐 젊을 때는 이장님 댁 사모님이고 그렇게 사셨네요.>

딸 : 그래서 저희 엄마두 워낙 총이 이쓰시구,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하셔 가지구 엄마는 모타셔쥬. 그런니를 하시고 시프셔썰꺼예요. 잘 하셔썰텐데 아버지 그느레서 남편, 그 남편 얘기 좀 해 엄마. 남편 그늘 얘기두 해야 될꺼 가튼데, 내가 개인저그로 갱장히 안타까 윗땡게, 내가 맨날 얘기하자나. 엄마 엄만 참 멋쩍 분이고 아버지도 멋쩍 부는데 두부니 약간 너무 흐흐 솔찌기 엄마는 아버지 옛날 부니니까 아버지 기에 놀리싱건 사시리자나. 그 얘기 좀 해드리면 안돼?

<그래서 저희 엄마도 워낙 총¹⁰⁾이 있으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하셔 가지고 엄마는 못 하셨죠. 그런 일을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잘 하셨을텐데 아버지 그늘에서 남편, 그 남편 얘기 좀 해 엄마. 남편 그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내가 만날 얘기하잖아. 엄마엄만 참 멋진 분이고 아버지도 멋진 분인데 두 분이 약간 너무 흐흐 솔직이 엄마는 아버지 옛날 분이니까 아버지 기에 놀리신 건 사실이잖아. 그 얘기 좀 해드리면 안 돼?>

제보자 : 맨날 혼나기만 했자녀. 나는 그르카구 또 윤씨네도 양바니 라구 이르케 다아 저기 하시자나요. 고기서도 꼼짝 모다구 요기 와서도 꼼짝 모다구.

<만날 혼나기만 했잖아. 나는 그렇게 하고 또 윤씨네도 양반이라고 이렇게 다저기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꼼짝 못하고 여기 와서도 꼼짝 못하고.>

조사자 : 유씨도 만만치 안쵸?

<유씨도 만만치 않쵸?>

제보자 : 고집 썩지요. 그래두 그 고집 썩기 나 저기하구 싸우믄 한달 썩 말 아내유. 흐흐흐 나는 여자니까 내가 바패 머꼬 빨래하고 다하자나, 그치만 남자는 아내주면 그때는 남자가 바블 햐? 부어키도 못 우리 아버님 친정 아버지마고 여기 아버지마고는 아 여 남자는 부억 드르가면 크닐 나는 줄 알고 못 드러가게 하셔짜나요, 엔날 어른들께서. 그래서 그 남자드른 다 그러는디 나 어뜨케 꼼짝 모대썩, 그른디 뭐 속쌍하고 막 싸우고서 한 달씩 마라내썩, 고집썩요. 유씨가. 윤씨는 안씨간 윤씨는 더햐 흐흐하하 진짜 저 파평윤씨 얼마나 고집썩 줄 아라? 하하 이 학생도 그려? 흐흐흐 제가 그진마른 아내유.

10) 총기.

<고집 세지요. 그래도 그 고집 센 것이 나 저기하구 싸우면 한 달째 말 안 해요. ㅎㅎㅎ 나는 여자니까 내가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다 하잖아, 그렇지만 남자는 안 해 주면 그때는 남자가 밥을 해? 부엌에도 못 우리 아버님 친정 아버님하고 여기 아버님하고는 아여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옛날 어른들께서. 그래서 그 남자들은 다 그러는데 나 어떻게 꼼짝 못 했지, 그런데 뭐 속상하고 막 싸우고서 한 달씩 말 안했어. 고집 세요. 윤씨가. 윤씨는 안센가? 윤씨는 더해 ㅎㅎㅎ하 진짜 저 파평 윤씨 얼마나 고집 센 줄 알아? 하하이 학생도 그래? ㅎㅎㅎ 제가 거짓말은 안 해요>

조사자 : 저도 파평 윤씨, 저히 누나가 파평윤씨 지바느로 시지블 가서 쪼끔 압니다. 쓸데업씨 고집만 세고 하하.

<저도 파평 윤씨, 저의 누나가 파평 윤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쪼끔 압니다. 쓸데 없이 고집만 세고 하하.>

제보자 : 그르믄 교수니믄 어디?

<그러면 교수님은 어디?>

조사자 : 저는 본과니 동래입니다 동래 정씨 별 볼릴 업쪼 뭐 하하.

<저는 본관이 동래입니다. 동래 정씨 별 볼일 업쪼 뭐 하하.>

제보자 : 아니요 그전에 엔나리 막 골리고 놀릴 때는 그래쪼 애드리. 야 동내 동내 동내 동네 정.

<아니요 그 전에 옛날에 막 골리고 놀릴 때는 그랬어 애들이. 야 동래 동래 동래 동네 정.>

조사자 : 파평 윤씨가는 만만치 안쪼. 트키 트키 이 동네에서는 파평 윤씨가 아주.

<파평 윤씨가는 만만치 않쪼. 특히 특히 이 동네에서는 파평 윤씨가 아주.>

제보자 : 예 그래서 저 지금 옌나레 우리 저기 족뽕에도 이썬유. 저기 그 파평 윤씨 그 무슨 장구니 글씨 썬는데 저도 쫄쫄 이저 버런는데 그랜는다, 그걸 거 강을 모더 모뎡는다 잉어가 그 거기다 태워서 장구늘 모셔서 건너다 줘따. 그래서 잉어 고기는 안, 윤씨들 안 먹거. 거기는 우리 족뽕에 보면 이어라고 써이따고 햐. 이어 이어라고 써 이꼬 그그 장구늘 요기를 뉘 그 잉어가 안 모셔다 줘쓰면 우리가 업따고 그래서 잉어고기를 아무도 안 잡썬요 잉어는 누가 사다줘도 안 먹거.

<예 그래서 저 지금 옛날에 우리 저기 족보에도 있어요. 저기 그 파평 윤씨 그 무슨 장군이 글씨 썼는데 저도 조금 잊어 버렸는데 그랬는데, 그걸 거 강을 못 못 왔는데 잉어가 그 거기다 태워서 장군을 모셔서 건너다 줬대.¹¹⁾ 그래서 잉어 고기는 안, 윤씨들 안 먹어, 거기는 우리 족보에 보면 이어¹²⁾라고 써 있다고 해. 이어 이어라고 써 있고 그그 장군을 요기를 뉘 그 잉어가 안 모셔다 줬으면 우리가 없다고 그래서 잉어고기를 아무도 안 잡썬요 잉어는 누가 사다줘도 안 먹어.>

조사자 : 잉어는 안 드시고 붕어는 드시구요?

<잉어는 안 드시고 붕어는 드시구요?>

제보자 : ㅎㅎ 그럴티지유. 붕어는 안 안 어버다 드려썬게, 어뜨케 다 오고 보니까 거기가 잉어가 이썬나봐.

<ㅎㅎ 그럴테지유, 붕어는 안 안 업어다 드렸으니까, 어떻게 다 오고 보니까 거기가 잉어가 있었나봐.>

조사자 : 이 근처에도 머 또랑가튼게 이썬썬썬? 그런데서 뭐 물고기는 안 자브션나요?

11) 고려시대 윤관장군과 관련된 설화.

12) 이어 (鯉魚). '잉어'의 한자 표기.

<이 근처에도 뭐 도랑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서 뭐 물고기는 안 잡으셨나요?>

제보자 : 요기요? 요기는 그 저니는 저기 고기 논산처네서도 잡꾸 요기도 저기 지금도 잡는디 이써유.

<여기요? 여기는 그 전에는 저기 고기 논산천에서도 잡고 여기도 저기 지금도 잡는데 있어요.>

조사자 : 뭐 어떻거뜨리 나옵니까? 이 쪼게선?

<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이 쪽에서는?>

제보자 : 그런 그런 고기 붕어가튼 그렇건 자바다 먹떠라구요. 저어기 일구로 가는데 뚝장이 이써요. 저 부여하고 요기하고 경계 그 뚝장, 그거 거기 가끔 또 가요. 우리 손자는 그거시 낚씨하기가 조타구 또 거기 가서 낚씨두 해요. 근디 잘 자바와요.

<그런 그런 고기 붕어 같은 그런 건 잡아다 먹더라구요. 저기 일구로 가는데 뚝장이 있어요. 저 부여하고 여기하고 경계 그 뚝장¹³⁾ 그거 거기 가끔 또 가요. 우리 손자는 그곳이 낚시하기가 좋다고 또 거기 가서 낚시도 해요. 그런데 잘 잡아와요.>

조사자 : 뭇 잡쪼 낚시를?

<뭇 잡쪼 낚시를?>

제보자 : 붕어 붕어가튼거.

<붕어 붕어 같은 거.>

조사자 : 그거 말고 뭐지 그 시커망거 탕 끄리능거 이짜나요?

<그거 말고 뭐지 그 시커먼 거 탕 끓이는 거 있잖아요?>

13) 독의 지역어 . 독방 또는 뚝방이라고도 함.

제보자 : 그르카구서는 뭐 노른노르탄 머 또 배깅거 쩌까낭거 자버들
오시능거 받는다, 이저 버런네유 고기 이름두.

<그렇게 하고서는 뭐 노릇노릇한 뭐 또 백인 거 쪼그만 거 잡어들
오시는 거 봤는데, 잊어 버렸네요 고기 이름도.>

딸 : 우리 어려쓸 때 빠가사리라구 마니 자핀다구 해짜나,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빠가사리라고 많이 잡힌다구 했잖아, 그때.>

제보자 : 응 그거뚜 이꾸 또 다른거 이쨌는디 이저버려따, 야. 이저 버
링게 더 마나유 호호호.

<응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거 있었는데 잊어 버렸다, 야. 잊어 버린
게 더 많아요 호호호.>

조사자 : 그러쵸, 아무래도 그러시게쵸 뭐, 그럼 뭐 이 미꾸라지가
거 뭐 나올테구요?

<그렇쵸, 아무래도 그러시겠쵸 뭐, 그럼 뭐 이 미꾸라지 같은 거
뭐 나올테고요?>

제보자 : 예 여기 처미 와서는뇨, 비가 마악 마니 오고 그럼 미꾸라지
가 기냥 저 사람, 지나가는 고기도 막 펄펄펄펄 떠셔요. 막 그럼 얼
개미 가져가서 가면 막 마니씩 자퍼쵸. 지그믄 하나도 업써 야글
하니까 노네다.

<예 여기 처음에 와서는요, 비가 막 많이 오고 그럼 미꾸라지가
그냥 저 사람 지나가는 거기도 막 펄펄펄펄 뛰었어요. 막 그럼 얼개미¹⁴⁾
가져가서 가면 막 많이 썩 잡혔쵸. 지금은 하나도 없어 약을 하니까 논에
다.>

14) 어레미의 지역어.

조사자 : 요새는 노네다 약 아나고 뭐 다른 거또 마니.

<요새는 논에다 약 안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

제보자 : 예 지그믐 마니 하능거또 이꼬요. 지그믐 벼를 그정가치 마니 아내요. 그 마니 아내두 그냥 병이 안나. 그저니는 병 나쓰니까 또 야글 마니 해짜나.

<예 지금은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벼를 그전같이 많이 안해요. 그 많이 안해도 그냥 병이 안나. 그 전에는 병 났으니까 또 약을 많이 했잖아.>

조사자 : 병 나고 뭐 어떤 거뜨리 주로 병을 이르키나요? 뭐 멸구?

<병 나고 뭐 어떤 것들이 주로 병을 일으키나요? 뭐 멸구?>

제보자 : 예 멸구가 마니 그러코 또 이 요 씨거서 중는 거뚜 이꾸 병도 이꾸 그래써써요 여러 가지가.

<예 멸구가 많이 그렇고 또 이 요 썩어서 죽는 것도 있고 병도 있고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가.>

조사자 : 그래도 그렇거 해도 다 남자드리 해찌 할머니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쨌네요?

<그래도 그런 거 해도 다남자들이 했지 할머니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셨겠네요?>

제보자 : 예 ㅎㅎ.

<예 ㅎㅎ.>

조사자 : 그럼 농사질 때 뭐 할머니드른 뭐하세요 그러면?

<그럼 농사 질 때 뭐 할머니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제보자 : 그 꼬추기튼거 그릉거 하쥌. 꼬추 마늘 생강 다 그릉거 파그

리구 양파 그런 그릉거 해요.

<그 고추 같은거 그런 거 하죠. 고추 미늘 생강 다 그런 거 파 그리고 양파 그런 그런 거 해요.>

조사자 : 어릴 때는 양파라고 아나셔쨌꺼 가튼데?

<어릴 때는 양파라고 안 하셨을 거 같은데?>

제보자 : 고 다마내기라 했쨌유. 일본말루 흐흐흐. 다마내기가 일본 마려. 지금두 거시기한 사람드른 할머니드른 다 다마내기 가꼬와 그래유 흐흐흐. 그 양파는 인자 이 글래에 다 하구.

<거 다마내기라 했지요. 일본말루 흐흐흐. 다마내기가 일본말이여 지금도 거시기한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다 다마내기 갖고 와 그래유 흐흐흐. 그 양파는 이제 이 근래에 다 하구.>

조사자 : 그 파평 윤씨가 나름 양바닌데.

<그 파평 윤씨가 나름 양반인데.>

제보자 : 예 우리도 양바니랑 마따리게 하쨌 하하하

<예 우리도 양반이랑 마따리게 하쨌. 하하하.>

조사자 : 그러면 문화 문화 유쨌가요 할머니문?

<그러면 문화 문화 유쨌가요 할머니문?>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문화 유씨도 만만치 안쨌. 저쪽 안동 하회마을 가면 뭐 거기도 제일 최고니까, 그 동네가면, 그러시구나. 제사도 마니 지내셔 쨌네요?

<문화 유씨도 만만치 않쨌. 저쪽 안동 하회마을 가면 뭐 거기도 제일 최고니까, 그 동네 가면 그러시구나. 제사도 많이 지내셨쨌네요?>

제보자 : 예 지그믐 그란디 뭐, 저 하라버지께서 독씨니셔서 그 왜 전
붕까지만 한디 지그믐 조금 또 줄이자네여 가치 한 버네 이케 모시
먼 어떠냐고 그케들 하쥬.

<예 지금은 그런데 뭐, 저 할아버지께서 독신이셔서 그 왜 전 분까
지만 한대 지금은 조금 또 줄이잖아요 같이 한번에 이렇게 모시면 어떠냐
고 그렇게들 하쥬.>

조사자 : 제사 때 그 상차리믐 어떠케 하셔써요?

<제사 때 그 상차림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보자 : 거기 다 녹끄룩카고 목 목끼로 하고 다 그리고 요 요기 지금
제사 지내능거까지 가치 했쥬유.

<거기 다 늦그릇하고 목 목기로 하고 다 그리고 여 여기 지금 제사지
내는 것까지 같이 했쥬유.>

조사자 : 그니까 어떤 거뜰, 탕은 뭐 이르케.

<그러니까 어떤 것들, 탕은 뭐 이렇게.>

제보자 : 예 저 삼탕 씩 하고 옛날엔 그랜는디 지그믐 그거또 마나자
나여 조금 쪼끔 들 하쥬.

<예 저 삼탕 씩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잖아요 조금
조금 덜 하쥬.>

조사자 : 옛날엔 삼탕이면 뭐머가 올라가나요? 이름드른?

<옛날엔 삼탕이면 뭐 머가 올라가나요? 이름들은?>

제보자 : 소 소고기 또 뭐라 머드라 생선이등가 하튼 그르케 해서 세
가지 씨글 삼탕이라 그러고 해가지고.

<소 소고기 또 뭐라 뭐드라 생선이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씩을 삼탕이라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조사자 : 그 하시능거또 참 힘 드셔쨌네요?

<그 하시는 것도 참 힘 드셨겠네요?>

제보자 : 제가 마타서 하능게 아니구 큰 대게 형니미 계셔써쨌요. 그 형니미 다 하셔쨌.

<제가 말아서 하는 게 아니고 큰 대에 형님이 계셨었어요. 그 형님이 다 하셨지.>

조사자 : 그냥 살짝 가시기만 하면 되능거예요?

<그냥 살짝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보자 : 가서 일 가치 하 거뉘드리고 했쨌.

<가서 일 같이 하 거들어 드리고 했쨌. >

조사자 : 엔나레 제사를 멋쨌쨌 지내쨌요?

<옛날에 제사를 멋 시 쨌 지냈어요?>

제보자 : 그 저니는 한시 너머야 하고 다굴기 저네 한다고 한 시쨌 되 떼가 그르케 한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거 지금드른 머 다 회사가기 저네 지내시구 그러자나요? 츠히들 나 시집 와쨌 때만 해두 우리 아버님 계싱게 해 아네 열뚜시면 지내고 그러셔쨌요. 다아 그러카고 제사 지내고 드러가면 두시 그러케 돼써쨌요. 그니까 아 잠도 오고 춥쨌 겨울 겨울 제사에요 다. 어머님도 지가 오니까,

<그 전에는 한시 너머야 하고 닭 울기 전에 한다고 한시쨌 되었던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거 지금들은 다 회사가기 전에 지내시구 그러잖아요? 저희들 나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계시니까 해 안에 열뚜시면 지내고 그러셨어요. 다 그렇게 하고 제사 지내고 들어가면 두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 잠도 오고 죽겠고 춥고 겨울 겨울 제사에요 다. 어머님도 지가 오니까,>

조사자 : 제사지내면 남자드리야 할니리이 업쪼?

<제사지내면 남자들이야 할일이 없쪼?>

제보자 : 제사 지낼때 막 또 어디가 모디꼬 아궁뒤에 안자서 불 쪼금
이러케 해노코 이케 쪼고 이썸썸. 제사 남자덜 제사 지낼때 예.

<제사 지낼 때 막 또 어디가 못 있고 아궁이 뒤에 앉아서 불 쪼금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쪼고 있었어. 제사 남자들 제사 지낼 때 예.>

조사자 : 그래서 제사가 그러케 만친 아나서 다행이셔쨌네요?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셨겠네요?>

제보자 : 근디 시사가 또 이떠라고요. 그래서 그러케

<그런데 시사가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자 : 그건 언제 지내요?

<그건 언제 지내요?>

제보자 : 가을에 지내요. 예 시월따레 옛날부터 지내셔때.

<가을에 지내요. 예 시월 달에 옛날부터 지내셨대.>

조사자 : 그럼 면명쯔미나 모여서 지냅니까?

<그럼 몇 명쯔이나 모여서 지냅니까?>

제보자 : 그러믄 지그믄 그 저네는 마니 모연는디 지그믄 이러쿠 저
러케 다 빠지고.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는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고.>

조사자 :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합니까?>

제보자 : 예 지금두 하는데 그냥 지그른 방아네서 해요.

<예 지금도 하는데 그냥 지금은 방안에서 해요.>

조사자 : 예저넌 어디서 하셴는데요?

<예전엔 어디서 하셴는데요?>

제보자 : 산 산소가서 예 그 시사 또 거기는 산 산소 아페다 채려노코
했찌유. 이 돌쌍이 이짜나여? 거기 가면 시사를 거기서 지내쨌요.

<산 산소가서 예 그 시사 또 거기는 산 산소 앞에다 차려 놓고 했지
요 이 돌쌍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시사를 거기서 지냈어요.>

조사자 : 그럼 그 음식글 여기서 해가지고 감니까?

<그럼 그 음식을 여기서 해 가지고 감니까?>

제보자 : 아니 고기 집 큰 지비서 큰 대기 고기가 바로 이쨌요. 게 제가
가서 일만 했쨌.

<아니 거기 집 큰 집에서 큰 덕이 거기가 바로 있어요. 그래 제가
가서 일만 했쨌.>

조사자 : 성동에?

<성동에?>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그럼 지금도 성동하고 여기를 자주 와따가따 하시는 모양이
네요?

<그럼 지금도 성동하고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네
요?>

제보자 : 예 큰 대기니께.

<예 큰 덕이니까.>

조사자 : 자손들 얘기 좀 드리보죠 인제.

<자손들 얘기 좀 들어 보죠 이제. >

제보자 : 제 자손니요?

<제 자손이요?>

조사자 : 예 아까 아들 둘 딸 둘 나서따 그랜는데 이 따니믄 며째 따니
미세요?

<예 아까 아들 둘 딸 둘 하셨다 그랬는데 이 따님은 몇째 따님이세요?>

딸 : 오빠 이꼬 저 딸로는 첫 따리쥬.

<오빠 있고 저 딸로는 첫 딸이쥬. >

제보자 : 재가 둘쥬쥬. 인자 인자 다로 따지면 두쥬고 딸로 따지면 큰
따리고.

<재가 둘쥬쥬. 이제 이제 다로 따지면 둘쥬고 딸로 따지면 큰 딸이
고.>

조사자 : 이제 첫째부터 막내까지 자랑쥬 해보세요. 흥보셔도 조쿠
하하하 얼마나 속쥬견는지 그런 얘기.

<이제 첫째부터 막내까지 자랑 쥬 해보세요. 흥보셔도 좋고 하하하
얼마나 속 썩였는지 그런 얘기.>

제보자 : 흐흐 키우다 보먼 그러쥬.

<흐흐 키우다 보먼 그렇쥬.>

딸 : 솔쥬키 얘기해야 돼 엄마 하하.

<솔쥬히 얘기해야 돼 엄마 하하.>

제보자 : 하하 아이 크나드른 뭘 참 조안는디유, 아 공부를 아날라구
래요.

<하하 아이 큰 아들은 뭘 참 좋았는데요, 아 공부를 안 하려고 해
요.>

조사자 : 아까 제가 만난부니 크나드링가요?

<아까 제가 만난 분이 큰아들인가요?>

딸 : 예 마자요.

<예 맞아요.>

제보자 : 그 아드리 공부를 실타구래요. 그래 가꾸 저기 대건고등하
꼬를 저는 갈라그랜는디 고기 가면 떠러진다고 다른 디 놓고 다녀
서 놓고 다녀 나와쎄요. 그래 가지구서는 뭘 공부를 해야쥬? ㅎㅎ
ㅎ 그래 또 인자 군대는 인자 저기 해서 모까고 저기를 방위 방 그계
방위인가? 그거 그거 다녀쎄요. 거 파출소 다녀쎄. 그르케 그르카고
이쎄쎄 그래서 그냥 사라요.

<그 아들이 공부를 싫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저기 대건고등학교를
저는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가면 떨어진다고 다른 데 놓고 다녀서 놓고
다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뭘 공부를 해야쥬? ㅎㅎㅎ 그래 또 이제
군대는 저기 해서 못가고 저기를 방위 방 그계 방위인가? 그거 그거 다녔어
요. 거 파출소 다녔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냥 살아요.>

조사자 : 그럼 저 고등하꼬 조립파시고 계속 여기서 고향에서 농사
지꼬 계시능거예요?

<그럼 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계속 여기서 고향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제보자 : 예 그르카고 자도 인자 여기서 고등하꼬 저기 논산쎄 잉,

<예 그렇게 하고 재도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저기 논산에서 잉,>

딸: 따른 대학글 보내나 해떠니 으냉워니 된다고 여고는 안 나오고
여상간다고,

<딸은 대학을 보내나 했더니 은행원이 된다고 여고는 안 나오고 여상
간다고,>

제보자: 여상을 가쨌요.

<여상을 갔어요.>

딸: 소글 써거 가지구 얘기해야지 엄마.

<속을 썩어 가지고 얘기해야지 엄마.>

제보자: 여상을 처미 인자 나가지고 인자 여상 좀 인자 인자 학생 그
럴라고 하시자니여?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만 뽑퍼 가
지고 시험 봐짜나요. 시험 봐서는 합껴개서 가쨌요. 그래 거기서
조립과구서 서울로 갔쨌유.

<여상을 처음에 이제 나가지고 이제 여상 좀 이제 이제 학생 그럴려
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만 뽑혀 가지고 시험
봤잖아요. 시험 봐서는 합격해서 갔어요. 그래 거기서 졸업하고서 서울로
갔지요.>

조사자: 으냉원 되쨌쨌요?

<은행원 되쨌어요?>

딸: 하하하 예 금융업계에 이쨌요. 하하하 농혀베. 농혀베는 떠러져
가지구 농혀비 꾸미여꺼든뇨 농협가능계.

<하하하 예 금융업계에 있어요. 하하하 농협에. 농협에는 떨어져 가지
구 농협이 꿈이었거든요 농협 가는 게.>

조사자: 그 지그픈 농혀비 아니구?

<그 지금은 농협이 아니고?>

딸 : 예 보험사에 근무해요.

<예 보험사에 근무해요.>

조사자 : 아 예 그러시구나.

<아 예 그러시구나.>

제보자 : 오래 돼쎄요.

<오래 됐어요.>

조사자 : 논산여상은 조은 하쎄지요.

<논산여상은 좋은 학교지요.>

딸 : 저희 제가 이회여끼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여고 양간다고 맞
꾸 여상을 가쎄요. 아무튼 크나드레 이어서 큰딸 때무네 속 썩꾸 하
하하.

<저희 제가 이회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여고 안 간다고 맞고
여상을 갔어요. 아무튼 큰 아들에 이어서 큰 딸 때문에 속 썩고 하하하.>

조사자 : 어쨌든 논산여상은 워낙 캠퍼스가 참 이쁘니까 그거 하나마
느로도 참, 논산 논산 공워니쎄 뭐.

<어쨌든 논산여상은 워낙 캠퍼스가 참 예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도 참, 논산 논산 공원이쎄 뭐.>

딸 : 그때만해도 제 또 로망이어끼 때무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소글 마니 썩겨쎄요. 그 당시에 교웁녀리 노프셔뎀 부닌데.

<그때만 해도 제 또 로망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 당시에 교육열이 높으셨던 분인데.>

조사자 : 속 안 썩긴 자시기 인나요?

<속 안 썩인 자식이 있나요?>

제보자 : 아이, 자는 다른 소글 써기능게 아니라 하꼬 때무네 흐흐, 그래서 그냥 저기 그런디는 썩빨가튼디는 양간다구 고기서 가가라구 그래서 그르케 해서 그래도 자가 다릉거 소근 써강거 하나두 업써유.

<아이, 재는 다른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학교 때문에 흐흐, 그래서 그냥 저기 그런데는 썩빨¹⁵⁾같은 데는 안 간다구 거기서 가가라구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재가 다른 거 속은 썩인 거 하나도 없어요.>

딸 : 내가 윤씨라서 고지비 썩서 그래 엄마, 윤씨라서 고지비 썩긴 해 내가.

<내가 윤씨라서 고집이 세서 그래 엄마, 윤씨라서 고집이 세긴 해 내가.>

제보자 : 또 다 미리 아르셔찌만, 윤씨하면 윤씨하면 뭐 흐흐 고지비지 뭐 고집 흐흐,

<또 다 미리 아셨지만, 윤씨하면 윤씨하면 뭐 흐흐 고집이지 뭐 고집 흐흐>

조사자 : 그러면 고 미테는뇨?

<그러면 그 밑에는요?>

제보자 : 그 그 미틴 또 따리에요. 따린디 인자 저 썩 썩고등하꼬를 조러블 했는데 아이 서우리다 돈 서울다 인자 큰 따를 가따 낳는디 애는 대저늘 가게 되면 이르케 도늘 두 간디로 나뉘서 내가 해야 될거 아네요. 그래서 아이 서울로 가라 그래떠니 요기서 썩빨 선생 니미 막 이 야 써경이가 어떠케 해따고 해써찌? 썩빨 선생님드리

15) 논산시에 있는 썩빨여자고등학교를 말함.

그 다시 올라면 너무 아깝다고.

<그그 밑엔 또 딸이에요. 딸인데 이제 저 섰 썬뽕고등학교를 졸업
을 했는데 아이 서울에다 돈 서울에다 이제 큰 딸을 갖다 놓았는데 얘는
대전을 가게 되면 이렇게 돈을 두 군데로 나눠서 내가 해야 될 거 아녜요.
그래서 아이 서울로 가라 그랬더니 여기서 썬뽕 선생님이 막이야 석경이
가 어떻게 했다고 했었지? 썬뽕 선생님이 그 다시 오려면 너무 아깝다
고.>

딸 : 공부 잘 했쓰니까.

<공부 잘 했으니까.>

제보자 : 공부를 자래쫑게 뭐라고 하다 이 뭐더라고 했는데 너 대전
가쓰면 시일컷 하는데 왜 서울 가서 다시 인자 거시기를 인자 일을
거기 또 쓰러오면 아이 너 너무 클나따.

<공부를 잘 했으니까 뭐라고 하다 이 뭐더라고 했는데 너 대전 갔으
면 실컷 하는데 왜 서울 가서 다시 이제 거시기를 이제 일을 거기 또 쓰러오
면 아이 너 너무 큰일났다.>

딸 : 그래 엄마 지금 뒤늦게 마흔 일 지금 씨뽕이가 마흔 여더리자나.
지금 박싸과정 밭블라고 공부하자나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셔.

<그래 엄마 지금 뒤늦게 마흔 일 지금 석경이가 마흔 여덟이잖아. 지금
박사과정 밭을려고 공부하잖아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셔.>

제보자 : 개 여얼시미 공부해서 선생님드리 막 아 아주 선생님드리
야 너는 대전 가쓰면 저저 거시기 장하꿈 타고 막 한다구 공부한다
구. 잘 그리 가라구 아이구 안타까워 선생님드리 두번 두버늘 가쓰
니까요. 이력서 써가꼬 나 이거 선생님 또 써달라고 해떠니 가서
또 떠러져써.

<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이 막 아주 선생님들이 야 너는 대전

갔으면 저저 거시기 장학금 타고 막 한다고 공부한다고. 잘 그리 가라고
아이구 안타까워 선생님들이 두 번 두 번을 갔으니깐요. 이력서 써 가지고
나 이거 선생님 또 써달라고 했더니 가서 또 떨어 졌어.>

조사자 : 대하권 준비하신다고요?

<대학원 준비하신다고요?>

딸 : 지금 대하권 성신여대 다녀요.

<지금 대학원 성신여대 다녀요.>

제보자 : 아니유, 이르케 해써유 방통 방통대를 해서 그래 인자.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방통 방통대를 해서 그래 이제.>

딸 : 거기 안 돼써 생각보다 또.

<거기 안 됐어 생각보다 또.>

제보자 : 그랜는디 그 방통대를 또 이르켜서 또 시허믈 봐써요. 또 그
래서 돼써요. 그래서 대하권 다녀요 오십 오십비 다 되는데 ㅎㅎ.

<그랬는데 그 방통대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시험을 봤어요. 또 그래
서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녀요 오십 오십이 다 됐는데 ㅎㅎ.>

조사자 : 오십비 다 돼서 하는 사람 만쥘니다.

<오십이 다 돼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보자 : 그 개 아들 따리 공부를 그르케 자래요. 즈 부모 달마가지고
그거 그건만 잘 그거는 교수니만티 자랑할라구 ㅎㅎㅎ.

<그 개 아들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 해요. 제 부모 닳아가지고 그거
그건만 잘 그거는 교수님한테 자랑하려고 ㅎㅎㅎ.>

딸 : 망내 아드른?

<막내 아들은?>

제보자 : 망내 아드른 인 인테리 그게 뭐지?

<막내 아들은 인 인테리 그게 뭐지?>

딸 : 캐나다 가따 그래야지.

<캐나다 갔다 그래야지.>

제보자 : 아니 뭐 여기 돈 좀 벌다 가짜나

<아니 뭐 여기 돈 좀 벌다 갔잖아.>

딸 : 인테리어.

<인테리어.>

제보자 : 응 인테리어를 하다가 한 십년 해썬요. 그 고기서 대저네서
근디 캐나드로 이민가썬요. 딸 어린 따리 하나 이썬요. 이제 아홉
싸링가 하튼 열싸링가 그르케 돼썬똥가 가 데리고 개를 거기다 거
시기를 그거 보내능게 어뜨카지.

<응 인테리어를 하다가 한 십년 했어요. 그거기서 대전에서 그런데
캐나드로 이민 갔어요. 딸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홉 살인가 하튼
열 살인가 그렇게 됐든가 개 데리고 개를 거기다 거시기를 그거 보내는
게 어떻게 하지.>

딸 : 발레한다고?

<발레 한다고?>

제보자 : 아니.

<아니.>

딸 : 유학?

<유학?>

제보자 : 이, 유학 유하기 거기로 가썬요. 그르케 가고서 인제 즈네 아

빠는 또 저기가 되어 받는다던디 그래 가에 꺾로 가썬요. 부모가
엄마 아빠.

<아, 유학 유학 거기로 갔어요. 그렇게 가고서 이제 자기 아빠는
또 저기가 되어야 받는다던데 그래 그 아이 것으로 갔어요. 부모가 엄마
아빠.>

조사자 : 먼너니나 되썬니까 간지?

<몇 년이나 됐썬니까 간지?>

제보자 : 한 사오년 된냐?

<한 사오년 되었냐?>

딸 : 삼년 돼짜나 삼년 삼년 돼썬요.

<삼년 됐잖아 삼년 삼년 됐어요.>

제보자 : 삼년 너머짜나.

<삼년 넘었잖아.>

딸 : 햇썬로 사년 그러면.

<햇수로 사년 그러면.>

제보자 : 그러 삼년는 너머썬.

<그러 삼년은 넘었어.>

조사자 : 그럼 저 가보썬썬요? 캐나다에?

<그럼 저 가 보썬었어요? 캐나다에?>

제보자 : 못 가썬요 지가 멀미해가지구 흐흐. 여기 저기서 논산썬 여
기만 와두 썬 에 그래서 약사 머꾸 다니구 거기 가면 나 중는다구
양간다구 흐흐흐.

<못 갔어요 제가 멀미 해가지고 흐흐 여기 저기서 논산에서 여기만

와도 좀 에 그래서 약 사 먹고 다니고 거기 가면 나 죽는다고 안 간다고
흐흐흐.>

조사자 : 괜찬느실껍니다. 걱정 아나셔두.

<괜찮으실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제보자 : 아니요 이사 가는 우리 며느리두 절믄디 가다가 갱 죽꾸십
떠래요. 막 저기 떠러 저서 주저쓰면 조커따구 열릴곱시가늘 한번
가는디.

<아니요 이사 가는 우리 며느리도 젊은데 가다가 그냥 죽고 싶더래
요. 막 저기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열일곱 시간을 한번 가는데.>

딸 : 엄마, 엄마 모도게 할라구 그러능거예요. 며느리가 엄마 캐나다
모도게 할라구 그러능거라구.

<엄마, 엄마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엄마 캐나다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제보자 : 아녀, 개도 열릴곱시가늘 가는디 주껏드래요. 그래서 인자
고기서 또 어뜨케 해서 다시 가라 타야된대 비행기를.

<아녀, 개도 열 일곱 시간을 가는데 죽겠드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서 또 어떻게 해서 다시 갈아타야 된대 비행기를.>

조사자 : 어디 사시는데요? 캐나다에?

<어디 사시는데요? 캐나다에?>

제보자 : 그 그 이르믄 저두 잘 몰라요.

<그 그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

딸 : 위니팩 엄마 위니팩.

<위니팩 엄마 위니팩.>

조사자 : 어디요? 아 위니팩게.

<어디요? 아 위니팩에.>

제보자 : 그래 거기가 더 추 춘디래요. 처 처메 가서 사는디 아이고 엄
마 나 어러 죽꺼띠야 호호호. 그때 오십 얼마 올라 저 내려가 가지
고 사람들도 주거띠야. 거기 노픈디서는, 그 해는 근디 그 해 가써.
그래 가지고 막 추워서 그냥 죽능거가치 막 다아 그냥 그카고 사르
띠는디 지그문 그런 소리 아내유 괜차능가베 호호호. 여기서 살다
거기 가니께 그릉게벼.

<그래 거기가 더 추 추운 데래요. 처 처음에 가서 사는데 아이고
엄마 나 얼어 죽겠대요 호호호. 그때 오십 얼마 올라 저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도 죽었대요. 거기 높은 데서는, 그 해는 그런데 그 해 갔어. 그래
가지고 막 추워서 그냥 죽는 거 같이 막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괜찮은가봐 호호호. 여기서 살다 거기 가니까
그런가봐.>

조사자 : 날 따땃할때 한번 가보세요. 조썰니다 가시면.

<날 따땃할 때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가시면.>

제보자 : 아이 저는 못가요.

<아이 저는 못가요.>

딸 : 우리 엄마 교유글 어떠케 시켜길래 저러케 양간다 그래? 하하하.

<우리 엄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안 간다 그래? 하하하.>

제보자 : 내가 갈쑤가 업짜나 내가 이 저기 멀미가 나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이 저기 멀미가 나니까.>

조사자 : 비행기 생각뻘다 멀미 안 납니다.

<비행기 생각보다 멀미 안 납니다.>

제보자 : 비행기 제주도바께 안 가써요 일보나고, 제 또 간는디 그 그

때는 그래두 가차우니까 그 그걸 그르케 멀리는 열릴곱씨가늘 가.
<비행기 제주도밖에 안 갔어요 일본하고, 제 또 갔는데 그 그때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 그걸 그렇게 멀리는 열일곱 시간을 가.>

조사자 : 멀미는 안 나는데 이제 안자 계시면 허리가 좀 아프죠. 하하
하 멀미는 괜찮습니다.

<멀미는 안 나는데 이제 앉아 계시면 허리가 좀 아프죠. 하하하
멀미는 괜찮습니다.>

제보자 : 살면서 멀미가통거 몰란는디, 지그문 그르케 멀미가 나더
라구.

<살면서 멀미 같은거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멀미가 나더라
고.>

조사자 : 이 마으레 이리케 오래 사셔쓰면 이 마으레 이케 인제 이름드
리 이지 안케씀니까? 여기가 드균닌데 엔나렌 떠라고 그래씀니까?

<이 마을에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 이 마을에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득윤리인데 옛날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보자 : 득 드균니가 마자요. 이르케 이르케 윤니예요.

<득 득윤리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윤니예요.>

조사자 : 아니 그니까 뭐 무슨 옛날 말로.

<아니 그니까 뭐 무슨 옛날 말로.>

제보자 : 여기가 용산저리래유. 예 어디 저기 어디가 저리 이쨌나봐
요, 엔나레. 요 왜 그 무뇌원장네 그 거기 보며는 거기 가 보던 다아
이짜나유? 무뇌워네. 거기 채게 다 이써유. 여기두 뵈 어디구 다 책
책 으더 가지구.

<여기가 용산절이래요. 예 어디 저기 어디가 절이 있었나봐요. 옛

날에 요 왜 그 문화원장네 그 거기 보며는 거기가 보면 다 있잖아요? 문화원에 거기 책에 다 있어요. 여기도 뭐 어디고 다 책 책 얻어가지고.>

조사자 : 용산절 말고 또 뭐 요 동네 생각나시능건?

<용산절 말고 또 뭐 요 동네 생각나시는 건?>

제보자 : 하고 저짜게는 방주간, 예 저기 보건소 인는디는 지를, 차암 이상한 이름 마나유.

<하고 저쪽에는 방죽안, 예 저기 보건소 있는 데를 지를, 참 이상한 이름 많아요>

조사자 : 지를?

<지를?>

제보자 : 예 지를 호호호 지를 또 뭐라드라?

<예 지를 호호호 지를 또 뭐라고 하더라? >

딸 : 여폐 그 여폐 돌패기.

<옆에 그 옆에 돌패기.>

제보자 : 예 돌패기 다메 이 지를도 더 또 미난디 생가기 안 난다. 저기는 말무덤이구요 가는다.

<에 돌패기 다음에 이 지를도 더 또 많은데 생각이 안 난다. 저기는 말무덤이구요 가는 데.>

조사자 : 말무덤이요?

<말무덤이요?>

제보자 : 예 저기 장례식장 인는디가 말무덤이예요. 저기 장례식장 보이지? 저기 그 거기가 말무덤. 예나레 백제시대때 그 말 타고가다가 죽 주건능게며. 저기 저 저 계백짱군 저기 그런 무려베 그러니

까 마를 고기다 무더졌쥬? 고기다? 말무더미다 무더따구 말무더
미라구 하대유.

<예 저기 장례식장 있는 데가 말무덤이에요. 저기 장례식장 보이
지? 저기 그 거기가 말무덤. 옛날에 백제시대 때 그 말 타고 가다가 죽
죽었는가 봐요. 저기 저 저 계백장군 저기 그런 무렵에 그러니까 말을 거기
다 묻었겠쥬? 거기다? 말무덤에다 묻었다고 말무덤이라고 하대요.>

조사자 : 지루른 왜 지루리래요?

<지룰은 왜 지룰이래요?>

제보자 : 그렇게 저는 몰른디 무놔워네 책 하나 달라고 해서 보세유
ㅎㅎㅎㅎ. 주지 그럼 다 나와유. 그렇거까지 다 써 이쁜디 나두 무
러봐뜨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문화원에 책 하나 달라고 해서 보세요
ㅎㅎㅎㅎ. 주지 그럼 다 나와요. 그런 것까지 다 써 있던데 나도 물어봤더
니.>

딸 : 교수니른 엄마한테 듣고 시풍거지 엄마의 어너로.

<교수님은 엄마한테 듣고 싶은 거지 엄마의 언어로.>

조사자 : 아 용산절? 방주기 여기 이씨쥬요?

<아 용산절? 방주기 여기 있었어요?>

제보자 : 저기가 이씨요.

<저기가 있어요 .>

조사자 : 지금도 이씨요?

<지금도 있어요?>

제보자 : 저기 저기 저 그 보건소로 내려가면 거기 방주기 이씨요. 농
사를 저 멥는디 엔나레는 방주기대면 업썸능게벼요. 지그른 방주

간이라 궁게 방주간에서 사는 동네라는 마리 그마링저 가태유. 그러구 또 돌패기는 저쪼게 저어쪼게 더 가서 겨요. 일구에 기른 또 저 쪼게는 고기는 그냥 지금 드균 일리라만 하고 고기 그 동네는 자시 몰라요 일구는 일구 인는다.

<저기 저기 저 그 보건소로 내려가면 거기 방죽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 먹는데 옛날에는 방죽이 되면 없었는가 봐요. 지금은 방죽 안이라 그러니까 방죽 안에서 사는 동네라는 말이 그 말인 거 같아요. 그러구 또 돌패기는 저 쪽에 저 쪽에 더 가서 그래요. 일구에 가면 또 저 쪽에는 거기는 그냥 지금 득윤일리라고만 하고 거기 그 동네는 자세히 몰라요 일구는 일구 있는데.>

조사자 : 그니까 그냥 평생 특빠란닐 아나시구 자식키우구 살리마시구 그러케만 사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특별한일 안 하시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시고 그렇게만 사셨네요? >

제보자 : 예 ㅎㅎㅎ.

<예 ㅎㅎㅎ.>

조사자 : 가장 어뜨케 보면 퍼나게 사신 거실쭈도 인네요.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신 것일 수도 있네요. >

제보자 : 그르타구 봐두 되쥬.

<그렇다고 봐도 되쥬.>

조사자 : 예 고생은 특빠리 아나시구?

<예 고생은 특별히 안 하시구?>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자식들 뭐 소간 써기구 참 행복카게.

<자식들 뭐 속 안 썩이고 참 행복하게.>

제보자 : 그리구 어머니 아버지 시부모니를 잘 만나서유 저는 꾸중 한 번도 안드꼬 사라썩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시부모님을 잘 만나서유 저는 꾸중 한번도 안 듣고 살았어요.>

조사자 : 그니까 시집싸리를 안 하셔썩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안 하셨어요?>

제보자 : 예 우리 형니만티 쪼끔 해썩유. 형니미 인자 그 다으미 어르 니자나유? 저한테는? 그래 형니미 하라는 대로 했썩유.

<예 우리 형님한테 조금 했어요. 형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어른이잖아 요? 저한테는? 그래 형님이 하라는 대로 했썩요. >

조사자 : 형니미 뭘 그르케 시키시던가요?

<형님이 뭘 그렇게 시키시던가요?>

제보자 : 그 집 저 겁나게 깡드타게 조기도 하시고 자라썩요. 무슨니 리등가 하고 지비 뭐 제사든 이런이런 거든 저언부다 해 노시고 나 를 가치하자고 하셔 자라썩썩요. 근디 교통사고로 도라가셔서.

<그 집 저 겁나게 깡똥하게 저기도 하시고 잘 하썩요. 무슨 일이든 가 하고 집이 뭐 제사든 이런 이런 거든 전부 다 해 놓으시고 나를 같이 하자고 하셔 잘 하썩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조사자 : 아 예 인제 친척 분드리 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시썩?

<아 예 이제 친척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썩?>

제보자 : 예 다 도라가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도라가시고 시승님

도라가시구.

<예 다 돌아가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시숙님 돌아가시고.>

조사자 : 엔나레는 초상나면 지베서 다 모셨자나요? 그니까 요즈마고 엔나라고 이르케 초상 풍스비 좀 달라져따면 어떻게 달라져 쓸까요?

<옛날에는 초상나면 집에서 다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옛날하고 이렇게 초상 풍습이 좀 달라졌다면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제보자 : 달라져따라면 지베서 일 아나능겨, 동네 사람드리 인자 마아니 아니꼬 쪼금 인는 동네에는 마냥 이르케 보문 사라미 얼마 업짜나요. 그 저니는 사라미 와서 다아 해주야 대니까 그 동네서도 오고 이 동네서도 오고 그런디, 지금 그렇걸 앙가두 장례식짱가서 인자 인사만 하문 되자나요? 그래서 그게 더 이건 쉬운 일이라곤 생가카쥬.

<달라졌더라면 집에서 일 안 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있고 조금 있는 동네에는 마냥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 전에는 사람이 와서 다 해주야 대니까 그 동네서도 오고 이 동네서도 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 가도 장례식장가서 이제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이건 쉬운 일이라곤 생각하쥬.>

조사자 : 근데 예저넌 그게 제일 큰니리어찌 안쫘니까?

<근데 예전엔 그게 제일 큰일이었지 않습니까?>

제보자 : 예 그 이 비나 오고 그라면 얼마나 이러케 조끔씩 하는 집 살면서 오시는 분들 어따 저기 모실수도 업짜나요, 지베서. 그리고 지베서 가서 다아 해다 할라니까 힘들고 그 님드리 와서 다아 해주야하고, 밤쫘에도 밥 밤차미랑 해주야 대고 다 국쫘 끄려서 밤

고기서 거와서 안 가고 지키는 아주 거기는 초상집까든 다 지키고 장사 지낼 때까지 바메 해 줘. 그 여자들또 와서 다아 머글꺼 해서 국쭈 끄려서 매기고 다해서 그캐 해썬요. 그래 지금 그 지슬 누가 하거썬요. 지비 지비서들 내 일도 힘드려서 모타는데 호호.

<예 그 이 비나 오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조금씩 하는 집 살면서 오시는 분들 어디에다 저기 모실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집에서 가서 다해다 하려니까 힘들고 그 남들이 와서 다해서 줘야하고 밤중에도 밥 밤참이랑 해 줘야 되고 다 국수 끓여서 밤 거기서 거기 와서 앉고 지키는 아주 거기는 초상집까면 다 지키고 장사 지낼 때까지 밤에 해 줘. 그 여자들도 와서 다 먹을 거 해서 국수 끓여서 먹이고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지금 그 짓을 누가 하겠어요. 집에 집에서들 내 일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호호.>

조사자 : 거의 그런 일이 할머니까지 절믄때 하시고 요즘 절믄 분들
른 아나고 그러니까 할머니미 끄칭거썬 어뜨케 보면?

<거의 그런 일이 할머니까지 젊을 때 하시고 요즘 젊은 분들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미 끝인거썬? 어떻게 보면?>

제보자 : 예 그르썬. 저는 인자 장례식장을 다 보고 가는데 호 다른 분
드른 인자 그르썬.

<예 그렇썬. 저는 이제 장례식장을 다 보고 가는데 호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썬.>

조사자 : 꽤나 나만 고생하고 살아꾸나 그런 생가근 아나세요?

<괜히 나만 고생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제보자 : 할썬 업썬. 호호호.

<할 수 없썬. 호호호.>

조사자 : 나 이러케 해썬니까 인제 너들도 좀 해라 그러케 하시썬.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좀 해라 그렇게 하시죠.>

제보자 : 아이고 그러면 안되지요. 흐흐흐 그러케 살지 말고 지금 사람
드른 잘 들 사라야돼.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흐흐흐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사람들은
잘 들 살아야 돼.>

조사자 : 그니까 동네 이름드를 그렇게 돌패기 광석 여기가 광서기쥬
광서기면 크은 도리 이쨌나 보쥬?

<그러니까 동네 이름들을 그러니까 돌패기 광석 여기가 광석이쥬
광석이면 큰 돌이 있었나 보쥬? >

제보자 : 그런 마른 그 그런 유래는 몰라요 저는.

<그런 말은 그 그런 유래는 몰라요 저는.>

조사자 : 흑씨 이 동네든 아니면 저쪽 가야곡 구자곡 가야고기쥬 여
기가?

<흑씨 이 동네든 아니면 저쪽 가야곡 구자곡 가야곡이쥬 여기
가?>

제보자 : 저기 저 쪼기요? 예.

<저기 저쪽이요? 예.>

조사자 : 친정 동네에서나 뭐 여기서나 사시면서 흑씨 어르신드란테
드른 뭐 옛날 얘기 전설 뭐 그러거 흑씨 기억나능거 이쓰세요?

<친정 동네에서나 뭐 여기서나 사시면서 흑씨 어르신들한테 들은
뭐 옛날얘기 전설 뭐 그런 거 흑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보자 : 그러거 다아 이러버리고요 할머니께서 뭐가 어뜨케 되따고
좀 해주신는디 나중에 도라가실 때는 떠쥬 되서는 마아니 아프서
서 그냥 도라가셔쥬. 마아니 드른 그거슬 내가 기어기 업쥬. 그 지

가 어머니하고 저기 계시고 하라버지도 이따 이케 건너방에 이짜 나요? 집 하라버지 할머니 고기서 하라버지 미테서 할머니 미테서 사라썬요 저는. 그름 하라버지하고 할머니 상에는 뭐 생서니라도 마신능게 이짜나요? 어른들 공께하고 이르케 어머니 아버지 뭐 그릉거 그냥 따로 이름 안방에서 잠 잡수시고 그래썬요. 고기서 저도 그래서 할머니 하라버지 주무실 때 자고 그래서 그냥 잘 잘 머겨 썬. 할머니 하라버지만 잡썬능걸 저도 머겨쓰니까유.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요 할머니께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좀 해 주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때썬 되어서는 많이 아프셔서 그냥 돌아가셨어. 많이 들은 그것을 내가 기억이 없어. 그 제가 어머니 아버지 저기 계시고 할아버지도 이따 이렇게 건너방에 있잖아요? 집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서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상에는 뭐 생선이라도 맛있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 공께¹⁶⁾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뭐 그런 거 그냥 따로 이름 안방에서 잠 잡수시고 그랬어요. 거기서 저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 자고 그래서 그냥 잘 잘 먹었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잡썬는 걸 저도 먹었으니까요. >

조사자 : 뭘 드셔썬요 그러면?

<뭘 드셨어요 그러면?>

제보자 : 생선가통거 예 그거 이썬썬유.

<생선 같은 거 예 그거 있었어요.>

조사자 : 그때는 뭐 이르케 밤말고 간시근 이썬나요? 간식?

<그때는 뭐 이렇게 밥 말고 간식은 있었나요? 간식?>

제보자 : 간식 고기는 과일가통거 나옴게 그릉거는 머졌썬. 밤 감가

16) 공궤(供饋). 윗 사람에게 음식을 드림.

통거 그렇거 삼전 그르쵸 대추니 뭉니 복숭아도 이씨꾸요. 호두도 그렇거뚜 다해쵸요. 제가 시지보기 저네 저어기 저기만 너머가면 절라도예요. 우리 바테 저 거기가 저 차 거기까지만 드르가자나 너므 먼 절라도예요. 그런데 고기 사람드리 인자 우리 지비 우리 집 복숭아를 난 바테다 해쵸요. 아치메 나는 또 이러 나면 바블 해야자나요? 밥 머저쓰야댕게. 그 사람드리 와서 인자 복숭아를 따달라 그래요 판다고, 두리나 세시 와가지고 그걸 따서 인자 팔고, 팔고 와서 바블 할라면 또 늦쵸. 하안디 그냥 그 이쥌마드를 또 그냥 보내고 낫는디 나중에는 그르케 몇뻐 하다가 도늘 앙 가지고 와따 가따 준다 하고 앙 가지고와 앙 가지고 떼머저쵸 흐흐흐

<간식 거기는 과일 같은 거 나오니까 그런 거는 먹었쵸. 밤 감 같은 거 그런 거 삼전 그르쵸 대추니 뭉니 복숭아도 있었꾸요. 호두도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저어기 저기만 너머가면 전라도예요. 우리 밭에 저 거기가 저 차 거기까지만 들어가잖아 넘으면 전라도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집 복숭아를 난 밭에다 했어요. 아침에 나는 또 일어나면 밥을 해야 하잖아요? 밥 먹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숭아를 따 달라 그래요 판다고, 둘이나 셋이 와가지고 그걸 따서 이제 팔고, 팔고 와서 밥을 하려면 또 늦쵸.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이쥌마들을 또 그냥 보내고 놓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돈을 안 가지고 왔다 갖다 준다 하고 안가지고 와 안가지고 떼어 먹었어 흐흐흐.>

그래 그건 못 받꼬 시지봐쵸 흐흐흐. 에구 글썸 그래 그래 광주리 그저네는 뭐또 다래가통거또 별로 업써짜나요. 그저네 소쿠리 그렇거나 이씨찌 그랜는디 아이 그걸 가져가드니 먼저 가져강거까지 다오메 다 가따 준다고 하더니 그냥 떠 먹꼬 안 와쵸요. 그 절라도로 너머 가버려 흐흐흐. 그렇건 하나도 아니저버려 흐흐흐. 섭서팡거라 더 아니저버리나봐 흐흐흐.

<그래 그건 못 받고 시집왔어 흐흐흐. 에구 글썸 그래 그래 광주리 그

전에는 뭐 또 다라이 같은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전에 소쿠리 그런 거나 있었지 그랬는데 아이 그걸 가져가더니 먼저 가져간 것까지 다음에 다 갖다 준다고 하더니 그냥 떼어 먹고 안 왔어요. 그 전라도로 넘어가버려 ㅎㅎㅎ. 그런 건 하나도 안잊어 버려 ㅎㅎㅎ 섭섭한거라더 안잊어 버리나 봐 ㅎㅎㅎ.>

조사자 : 어릴 때도 지금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할아버님드리 그렇게 케 부르셔쎄요?

<어릴 때도 지금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아 뭐 아명이나 이렇건 따로 업쓰시구요?

<아 뭐 아명이나 이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딸 : 엄마 외갓집 가면 미갱이 딸 완네 미갱이 딸 완네 하자나.

<엄마 외갓집 가면 미갱이 딸 왔네 미갱이 딸 왔네 하잖아.>

제보자 : 아니 그 어떤 하라버지가 내한테 말해써. 그건 아니 그전 제 이르미 우리 할아버지께서 독 독시니루 되셔서 손자를 보고 시프셔서 그래때유. 제가 이제 엄 엄마 뱃쏘게 이출 때. 그게 아들 나라고 그르케 강이루 해때요. ㅎㅎㅎ. 손자 보실라고 그래 하라버지께서 이제 자근 아버지마고 아드님 두부나고 고모부니 한 분 삼남 삼남매셔 그래서 그래서 그러셔때요. 남자냐 그래요. 오디 가면 내 이름 보고 ㅎㅎㅎ.

<아니 그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그건 아니 그전 제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독 독신으로 되셔서 손자를 보고 싶으셔서 그랬대요. 제가 이제 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강으로 했다

요. ㅎㅎㅎ 손자 보시려고 그래 할아버지께서 이제 작은 아버님하고 아드님 두 분하고 고모 분이 한분 삼남 삼남매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셨대요. 남자냐 그래요. 어디 가면 내 이름보고 ㅎㅎㅎ.>

조사자 : 예 그러킨 하죠.

<예 그렇긴 하죠.>

딸 : 근데 미갱이는 누가 그렇거야?

<근데 미갱이는 누가 그런 거야?>

제보자 : 그랜는디 내가 인자 어려쫘 때, 인자 간는디 우리 동네 하라버지가 계셔쫘요. 이르게 이만큼 꼬부라져가꼬 그냥 이러카고 다니시는디, 애더리 마악 따라 댕기구 인자 그란는디 그 양바니 인자 그르케 생기셔쓰니 애드리 또 까부느라고 또 쫘차 댕기자나요. 그래 인자 고 고기를 한번 가 봐떠니 저건 누구여 그렇게 재강이여 그 소리를 인자 애드리 인자 한는디, 하라버지가 모다라 드꼬 미갱이? 그래 거기 가면 가기만 하면 막 지금도 그케 사람드리 골려요. 미갱이 완네 그래 ㅎㅎㅎ. 미갱이라 그래쫘 나더러 글썸 마아니 잡쉬쫘 한 팔십도 더너먼는디 하라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갔는데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렇게 이만큼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애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렇게 생기셨으니 애들이 또 까부느라고 또 쫘아 다니잖아요. 그래 이제 거 거기를 한번 가 봤더니 저건 누구여 그러니까 재강이여 그 소리를 이제 애들이 이제 했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고 미갱이? 그래 거기 가면 가기만 하면 막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골려요 미갱이 왔네. 그래 ㅎㅎㅎ 미갱이라 그랬어 나더러 글썸 마아니 잡수셨어 한 팔십도 더 넘었는데 할아버지가.>

조사자 : 그 잘 모르시고 그르케.

<그 잘 모르시고 그렇게.>

제보자 : 예 예 인자 잘 들리도 모다고 인자 그러니까, 그케 뜻바께 애
드리 똑바로 이케 해써꺼써요 또 예 지갱이유 그래쫄티지 그렇게
그러케 고래 가지고 지금두 가먼 그르케 불려요.

<예 예 이제 잘 듣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뜻밖에 애들
이 똑바로 이렇게 했었겠어요 또 예 지갱이요 그랬을테지 그러니까 그렇
게 그래 가지고 지금도 가먼 그렇게 불려요.>

조사자 : 저기 자식뜰 이르른 누가 지으써써요?

<저기 자식들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제보자 : 저기 하라버지께서 지으셨찌유. 자는 하라버지께서 지으시
고 그 저 뭐여 너 하라버지가 그케 했찌.

<저기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지요. 재는 할아버지께서 지으시고 그
저 뭐여 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찌.>

딸 : 응 우리 항녀리 석짜돌리미니까.

<응 우리 항렬이 석자 돌림이니까.>

제보자 : 예 동렬 다 느서 하라버지께서 지으써써요.

<예 동렬¹⁷⁾ 다 넣어서 할아버지께서 지으써써요.>

조사자 : 아 석짜 돌리미세요?

<아 석짜 돌림이세요?>

딸,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아명 말쓰믄 잠깐 드런는데 혹시 이러

17) 동렬(同列). 항렬이 같은 형제 사이.

케 주며네 할머님 칭구분드른 얘기 때 이르므로 그냥 불린 사람드
른 업썸나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아명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주변
에 할머님 친구 분들은 얘기 때 이름으로 그냥 불린 사람들은 없었나요?>

제보자 : 간나니도 이썸썸. 간나니 방아꼬 별거 다 이썸썸요. 흐히히
히 우리는 저때 그렇거 업꼬 저기가 이썸니까.

<간난이도 있었썸 간난이 방아꼬 별거 다 있었어요. 흐히히히 우리
는 저때 그런 거 없고 저기가 있으니까.>

조사자 : 근데 동네 애들 중에 그런 사람들 이썸꼬 사내 애들도 이썸
나요? 남자애들?

<근데 동네 애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었고 사내 애들도 있었나요?
남자애들?>

제보자 : 남자 애드른 자시 모르고 여자애드른 누가 방아꼬가 이썸
유. 근디 어떤 지비선 인자 인자 뵈러 간는데 그새 좀 명자라고 그
케 바꿨대유. 방아꼬가 명자가 돼때.

<남자 애들은 자세히 모르고 여자애들은 누가 방아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선 이제 이제 뵈러 갔는데 그새 좀 명자라고 그렇게 바꿨
대요. 방아꼬가 명자가 됐대.>

방아꼬가 옛날 방아찢는 방아 드들방 드들뺑 그거 드들 몰르 몰
르지? 옛나라는 이케 하기다가 이케 해노코 이케 방아를 찢는 이
게 이케 해서 맨드러 가지고. 그래 그걸 광광 찢짜나. 방아. 이케
찌개 된. 연자방아는 소가 도라가면 이케 찢지꼬 다시 인자 나무로
무더. 해서 해는 학도개서 하능거는 방아가 이케 해노코서 하는
여자드리 위에가 안자 이러케 만드러. 인자 방아꼬를 이케 여기
와서 이마느코 이러케 하믄 여가 인자 사라미 발블 수가 인는다,

이꼬, 아페는 인자 방아가 찌지게 하능거 해 노코서 여서 엄마들
인자 이러케 발브른 올라가 이게 이게 찌지는 거지.

<방앗고가 옛날 방아 짙는 방아 디딜방 디딜방 그거 디딜 모르 모르지?
옛날에는 이렇게 확¹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방아를 짙는 이게
이렇게 했어 만들어 가지고. 그래 그걸 광광 짙었잖아. 방아 이렇게 짙게
된. 연자방아는 소가 돌아가면 이렇게 짙어지고 다시 이제 나무로 문어.
해서 해는 확독에서 하는 거는 방아가 이렇게 해 놓고서 하는 여자들
위에 가서 앉아 이렇게 만들어. 이제 방앗고를 이렇게 여기 와서 이만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사람이 밟을 수가 있는데, 있고. 앞에는 이제
방아가 짙어지게 하는 거 해 놓고서 여기서 엄마들 이제 이렇게 밟으면
올라가 이게 이게 짙어지는 거지.>

그라고 바를 이르케 떼면 이게 이게 팡 해서 인자 찌지고, 빵구
고, 찙코, 그르구 보리쌀을 가따, 보리를 가따가 기지 그래 여기서
인자 여기 와서는, 인자 나 나무로 만드러 가지고 여기는 사람 인
자 엄마드리 바를 디딜 수 있게 이르케 사람 저기하고 또카태. 여
기가 갈라지면 여기서 하나 이꼬 하나 이꼬 두리 인제 이걸 발버서
하면 올라가따 내려가따 거기다 방아를 찌서 머저서.

<그리고 밟을 이렇게 떼면 이게 이게 팡 해서 이제 짙어지고, 빵고, 찙
고, 그리고 보리쌀을 가져다 보리를 가져다가 그렇지 그래 여기서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사람 이제 엄마들이
밟을 디딜 수 있게 이렇게 사람 저기하고 똑 같애. 여기가 갈라지면 여기서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둘이 인제 이걸 밟아서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
기다 방아를 짙어서 먹었어.>

제보자 : 학또기다 해노코 그래, 예.

<확 독에다 해 놓고 그래, 예.>

18) 방앗공이가 떨어지는 자리에 놓인 절구 모양의 우묵한 돌. 확독을 말함.

조사자 : 시소 율리 지렛대 율리처럼.

<시소 원리 지렛대 원리처럼.>

제보자 : 교수님은 그릉거 다 아시자나요.

<교수님은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

조사자 : 방아꼬, 그럼 그 친구는 아마 방앗간 여폐서 난나 보쥬.

<방앗고, 그럼 그 친구는 아마 방앗간 옆에서 낱았나 보쥬.>

제보자 : 간나니는 간나니는 쟈까나다는 뜨스로 간나니라고, 할머니
앤 앤 헨는데 간나나 이리 오너라 그래짜나. 그 그래서 그르케 간나
니가 돼써 저는 그른 이르문 안 저써,

<간난이는 간난이는 조그마하다는 뜻으로 간난이라고, 할머니 얘
는 얘는 했는데 간난아 이리 오너라 그랬잖아. 그 그래서 그렇게 간난이가
됐어 저는 그런 이름은 안 졌어.>

조사자 : 예 양반 지베션 그르케 아내썸니다. 하하 그럼 인제 바느질
가통건 아나써썸요? 옷 만들고 하시는 거는?

<예 양반 집에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하 그럼 이제 바느질 같은
건 안하셨어요? 옷 만들고 하시는 거는?>

제보자 : 저요, 마니 했썸유. 예 시지볼때 제가 다 꼬매서 해 가꼬 왔
썸 다.

<저요, 많이 했지요. 예 시집 올 때 제가 다 꿰매서 해 가지고 왔쥬
다.>

조사자 : 그럼 이러케 옷 이름드리 옛날 한복 이름드리 어떠케 되는
지 그것썸 쪽 말썸 썸.

<그럼 이렇게 옷 이름들이 옛날 한복 이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썸 쪽 말썸 썸.>

제보자 : 저고리 치마 바지 인자 위어로 임능거는 조끼 여자 인제 쪼끔 저기하는 그르쿠유. 남 남자분드른 트키 다 조끼에다 이케 담배, 하라버지 느코 다니시고 그래써유. 안경도 느쿠 다니시고 그르케 뭐 또 가끔 잘 이저써요. ㅎㅎ 쪼깁 다 더하면 저기 조응거또 만코 그런디 저 다아 지베서 솜바지 솜저고리 가튼거 해꼬 시지봐서 두 어머니 바지랑 다 해 드려써요. 저는 바느지라능거는 그냥 다제가 해써요. 예 그때 그걸 모다면 여기서 못 이써요 바느질 모다면.

<저고리 치마바지 이제 위어로 입는 거는 조끼 여자 인제 조금 저기하는 그렇고요 남 남자 분들은 특히 다 조끼에다 이렇게 담배 할아버지 넣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안경도 넣고 다니시고 그렇게 뭐 또 가끔 잘 잊었어요. ㅎㅎ 조끼로다 더하면 저기 좋은 것도 많고 그런데 저 다 집에서 솜바지 솜저고리 같은 거 했고 시집와서도 어머니 바지랑 다 해 드렸어요. 저는 바느질 하는 것은 그냥 다제가 했어요. 예 그때 그걸 못 하면 여기서 못 있어요 바느질 못하면.>

조사자 : 바지 이꼬요, 저고리 이꼬 바지 소게는 뭐 입나요?

<바지 있고요, 저고리 있고 바지 속에는 뭐 입나요?>

제보자 : 그게 면 저 모과 그 면 그걸루 저 이 무명이짜나요. 그거 해서 저기 집싸라른 해서 다 이케 제 지베서 재단해서 뺄쓰라고하고 만드려써요. 어머니드리 다 식꾸들 다 해서 했쥬.

<그게 면 저 목화 그 면 그걸로 저 이 무명 있잖아요. 그거 해서 저기 집사람은 해서 다 이렇게 제 집에서 재단해서 뺄쓰라고 하고 만들었어요. 어머니들이 다 식꾸들 다 해서 했쥬.>

조사자 : 그럼 이제 양마른 안 시느셔쑤테고.

<그럼 이제 양말은 안 신으셨을 테고.>

제보자 : 버선뇨? 예 버선 양말 저 저는 양말도 떴찌유. 이케 나무 저 대나무 꼬챙이 저 만드능거 이짜나요. 저 학생드른 알건네. 나무 나무 바늘 아내 한 번도 아내봐써? 어려쓸 때? 인제 대나 대바늘 이르케 지그른 이르케 줄 꺾가지고 이르케 실뜨개 실뜨개 그렇겠로 해서 애들뚜 자들 나서두 인제 다 떠서 마니 이퍼써요. 이케 위 바지 다 자들 그렇거 다 해 주고 손자들도 해 주고.

<버선이요? 예 버선 양말 저 저는 양말도 떴지요. 이렇게 나무 저 대나무 꼬챙이 저 만드는 것 있잖아요. 저 학생들은 알겠네. 나무 나무 바늘 안해 한번도 안해봤어? 어렸을 때? 인제 대나 대바늘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줄 꺾가지고 이렇게 실뜨개 실뜨개 그런 것으로 해서 애들도 재들 낳아서도 인제 다 떠서 많이 입혔어요. 이렇게 위 바지 다 재들 그런 거 다 해 주고 손자들도 해 주고.>

조사자 :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제보자 : 지그른 지그른 모대유.

<지금은 지금은 못 해요.>

딸 : 엄마 그거 우리 속빠지 만드려 주능거 지금도 하시자나요.

<엄마 그거 우리 속바지 만들어 주는 것 지금도 하시잖아요.>

제보자 : 그룬데 아이 모다.

<그룬데 아이 못 해 >

딸 : 솜씨가 조으세요.

<솜씨가 좋으세요>

제보자 : 그룬디 심드러서 모다. 그라고 이걸 하다가 그저니 앙가트 먼 또 틀리면 아이 호호호.

<그런데 힘들어서 못 해. 그리고 이걸 하다가 그전에 안 같으면 또 틀리면 아이 흐흐흐.>

딸 : 순서를 이제 까머그신대요.

<순서를 이제 까 먹으신대요.>

조사자 : 예저네는 그 모시가통거는 빠라서 그냥 이블쭈는 업짜나요?

<예전에는 그 모시 같은거는 빨아서 그냥 입을 수는 없잖아요?>

제보자 : 잘 잘 빠라서 풀 매겨요 풀 끄려 가지고.

<잘 잘 빨아서 풀 먹여요 풀 끊여 가지고.>

조사자 : 아 푸른 멀로 끄리나요?

<아 풀은 무엇으로 끊이나요?>

제보자 : 그저네는 인자 쌀로만 아내꾸 밀가루, 밀로 가라썬. 밀가루 이르케 인자 쫘 야카게 끄려서 고기다 인자 이르케 이르케 풀 매기고, 또 인자 너러따가 쫘옥 바썬 말리지말고, 인자 또 그 말르썬면 무를 쫘끔씩 뿌려서 그건 얼룩근 안져요. 명주는 얼룩이 지는데 그르케 해서 인자 이르케 이르케 잘 개가지고 뭐다 저기다 싸서 발버서 그르캐서 그름 환파내져 그놈 인자 대려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쌀로만 안했고 밀가루, 밀로 같았어. 밀가루 이렇게 이제 좀 약하게 끊여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풀 먹이고, 또 이제 널었다가 쫘옥 바썬 말리지 말고, 이제 또 그 말랐으면 물을 조금씩 뿌려서 그건 얼룩은 안져요. 명주는 얼룩이 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 개가지고 뭐다 저기다 싸서 밟아서 그렇게 해서 그림 판판해져 그놈 이제 다려가지고.>

조사자 : 다릴 때는 뭘로 다리시나요?

<다릴 때는 뭘로 다리시나요?>

제보자 : 지금 대릴 때는 저 처니루 덮꼬서 그냥 오그라들면 안되니까, 또 타고 잘 모다면 잘 모다면 안대고 오그라들며는 쪼끔 머니나 아니면 오그라든다고.

<지금 다릴 때는 저 천으로 덮고서 그냥 오그라들면 안 되니까, 또 타고 잘 못하면 잘 못하면 안 되고 오그라들면 조금 면이나 아니면 오그라든다고.>

조사자 : 그땐 다리미가 아주 절므셔쓸때는 지금처럼 전기다리미는 업쓰셔쓸꺼아니에요?

<그땐 다리미가 아주 젊으셨을 때는 지금처럼 전기다리미는 없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보자 : 업썩썩 수 수슬 다리미다 이르게 저 뭐여 뭐라고, 냄비를 이찌 요새 이르게 달려다가 이르게 붓짬는 냄비더리 이짜나요. 그그릉거처럼 이르게 해서 막대기를 해서, 요기는 쇠에요 쇠 수 숯뿌를 여기다가 인자 고서 부를 때서 여다 숯뿌를 다마 가지고 인자 손자 비는 요 막대깁게 갠찬차나요? 이르게 이쓰면 여기 이르게 이르게 해가지고 저짜기서 한사람 이르게 들고 뽀 버티고 이쪼게서 인자 또 이걸 이케 다리미가 올라가따 내려가따 그 어뜨가다 이 숯뿌리 요가 데면 옷이다 타요. 예 후라이판 이르게 오므라캐 생긴 이릉거요만 해요.

<없었지요 수 숯을 다리미에다 이렇게 저 뭐여 뭐라고, 냄비를 있지 요새 이렇게 달렸다가 이렇게 붙잡는 냄비들이 있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막대기를 해서, 여기는 쇠에요 쇠 수 숯불을 여기다가 이제 거기서 불을 때서 여기다 숯불을 담아가지고 이제 손잡이는 요 막대기니까 갠찮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저 쪽에서

한사람 이렇게 들고 뺀 버티고 이쪽에서 이제 또 이걸 이렇게 다리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어떻게 하다이 숯불이 여기가 닿으면 옷이 다 타요. 예 후라이판 이렇게 오므랴게 생긴 이런 거 요만 해요.>

다리미 수슬 이제 요기다 빨간 놈을 인자 담아서 인자 이케 옷을 이르케 대리고 저 저쪽에서 하나 붓잡꼬 이르케 대리미로 이르케 하다가 모다면 수시 무드면 이르케 꺾꼬 또 막 부리 드릉게 옷또 이르케 구멍 뚜러지고 막 그래쎄. 그랜디 그르카다가 그러면 어른 드란티 개앵장히 흐흐흐.

<다리미 숯을 이제 여기다 빨간 놈을 이제 담아서 이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리고 저 저쪽에서 하나 붙잡고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하다가 못하면 숯이 문으면 이렇게 검게 되고 또 막 불이 들어있으니까 옷도 이렇게 구멍 뚫어지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른들한테 굉장히 흐흐흐.>

조사자 : 근데 다리미질 말구 왜 이렇게 뭐지?

<근데 다리미질 말구 왜 이렇게 뭐지?>

제보자 : 그게 다대미질 다덤또기 이쎄요 이르케, 그릉거 안 못 보셔 쎄요?

<그게 다드미질 다듬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안 못 보셨어요?>

조사자 : 봉거갈끼도 한데.

<본 것 갈기도 한데.>

제보자 : 하얀독 하얀독뚜 이꾸 꺼떡 독뚜 그건 옥또기자나요. 그그 걸 그 다덤뚝. 이르케 찌다라케 이쎄요. 그르면 이케 이러케 뚱그라케된 방망이 이짜나요, 오슬 여기다 개서 이르케 잘 노코 그걸 이르케 다다다다 저기 테레비서 하능거 보면 알자나요. 다다다 두

리 하면 장단 되게 잘 맞추고 자라자나요. 그거를 근디 혼자루 이르게 사악 명지다 해가지고 끄테는 흥두께가 또 이썬요. 방망이보다 더 큼겨 이르게 자알 만드러놓겨 거기다 인자 이케 마라요.

<하얀 돌 하얀 돌도 있고 검은 돌도 그건 옥돌이잖아요. 그 그걸 그 다듬돌 이렇게 길다랗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된 방망이 있잖아요, 옷을 여기다 개서 이렇게 잘 놓고 그걸 이렇게 다다다다 저기 테레비에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다다다 돌이 하면 장단 되게 잘 맞추고 잘 하잖아요. 그거를 근디 혼자 이렇게 사악 명주다 해가지고 끝에는 흥두께가 또 있어요. 방망이보다 더 큰 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 이제 이렇게 말아요.>

그놈 돌돌돌돌 마라서 흥두께 마른 노물 또 두드려. 그래야 인자 이게 방망이로 할때는 이러케 접꾸 이진만 이르게 접꾸 이르게 접꾸 하믄 이르게 이르게 두드리는디, 인자 그르케하면 인자 이게 곡써니 다 우개지는게 접혀지니까 흥두께다 이르게 마르면 그 그 구끼가 업썬요. 그래서 그르케 흥두께다 다아 하는 또 그케 해서 그르케서들 옷뜰 해드리고 그래썬요. 옛날 어머니드리. 저는 그래도 마니 아내썬요. 하라버지 아버지두 그래썬 근디 그 저니는 다아 해짜나요.

<그놈 돌돌돌돌 말아서 흥두께 말은 놈을 또 두드려. 그래야 이제 이게 방망이로 할때는 이렇게 접고 이것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곡선이 다 구겨지는게 접혀지니까 흥두께에다 이렇게 말으면 그 그 구끼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흥두께에다 다 하는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들 옷들 해드리고 그랬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저는 그래도 많이 안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랬지 그런데 그 전에는 다 했잖아요.>

조사자 : 그 다드미질 하능겨 여러시 가치 해보신 적뚜 이쓰세요?

<그 다듬이질 하는 거 여럿이 같이 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보자 : 그냥 지베서는 그냥 며 시합파는거뚜 아닝게 그냥 해보긴 했
쫘.

<그냥집에서는 그냥 뭐 시합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보긴 했죠.>

조사자 : 지금 여 강경 가면 황금뺨마으리라고, 거기서는 동네할머니
들 아예 모여가지고 악따늘 만드려써요 지휘자도 이꾸.

<지금 여 강경 가면 황금빛마을이라고, 거기서는 동네 할머니들
아예 모여가지고 악단을 만들었어요 지휘자도 있고.>

제보자 : 그러쥬. 그니께 흥두깨고 다 보셨건네유?

<그렇쥬. 그러니까 흥두깨고 다 보셨겠네요?>

조사자 : 그때 가서 잠깐 봐줍니다. 근데 한복에 왜 이르케 요 하양겨
다능거 이짜나요?

<그때 가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한복에 왜 이렇게 요 하얀 것
다는 것 있잖아요?>

제보자 : 동정.

<동정.>

조사자 : 예 그거 달 때는 좀 다름걸로 하쥬? 그 대리미가 아니꼬?

<예 그거 달 때는 좀 다른 걸로 하쥬? 그 다리미가 아니꼬?>

제보자 : 예 이케 해서 요기 이쫘게서 이케 소기서 해노코 이케 뒤지
버. 요리 요기 고건만 달린 건만 이케 이케 사악 해 노코서 이 아네
에서 요기다 인자 따악 해서 이케 이케 넘기면 그러카면 동정이 돼.
요기서 그 배까티로 시리 안 나가게 그럼 이 소게서 두접 인제 요기
도 이쫘 요기도 이쓰니까 요기서 이케 또 드러가서 요기 안 보이게
해서 요까지 다 가마서 동정이 돼쥬.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속에서 해 놓고 이렇게 뒤집어. 요리 여기 그것만 달린 것만 이렇게 이렇게 사악 해 놓고서 이 안에서 여기다 이제 따악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그렇게 하면 동정이 돼. 여기서 그 바깥으로 실이 안 나가게 그럼 이 소게서 두 겹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가서 여기 안 보이게 해서 여까지 다 감아서 동정이 되죠.>

조사자 : 고게 인제 고거를 뽀뽀나게 할라면?

<그게 이제 그거를 뽀뽀하게 하려면?>

제보자 : 아니 원래 거기는 소기 드리 이썬서 예 드릉게 이썬요. 그르케서 싸악 그르케해서 해요 저 그거 마니 해썬요.

<아니 원래 거기는 속이 들어 있어서 예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싸악 그렇게 해서 해요 저 그거 많이 했어요.>

조사자 : 고거 이리케 요런데 섬세하게 뽀뽀나게 펼때는 그 뭐죠? 다리미가.

<그거 이렇게 요런데 섬세하게 뽀뽀하게 펼 때는 그 뭐죠? 다리미가.>

제보자 : 인두 인두요. 요마냥거 이짜나요 못보셔썬요? 보셔짜나요.

<인두 인두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조사자 : 저도 인제 깜빡깜빡캐서.

<저도 이제 깜빡깜빡해서.>

제보자 : 예 그게 인두예요. 그람 그저니 엔나레 어른드리 마악 호명 하실라면 인두로 이블 지저버린다나 어쩐다나 그런 소리도 드리 봐썬 호호호. 아유 지즈먼 어떡케사러 호호호 애들뚜. 그른 얘기 저기 뭐여 교수니만테 해서 어뜨카 호호호.

<예 그게 인두예요 그러면 그전에 옛날에 어른들이 막 호명하실려면 인두로 입을 지져버린다나 어쩐다나 그런 소리도 들어 봤어 ㅎㅎㅎ. 아유 지지면 어떻게 살아 ㅎㅎㅎ 애들도. 그런 얘기 저기 뭐여 교수님한테 해서 어떻게 해 ㅎㅎㅎ.>

조사자 :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라고 외썩니다. 또 뭐 더 어르신드리 야단치시던 얘기 인두로 이블 지진다? 아이구 저런 또 뭐 생각나능거 이쓰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왔습니다. 또 뭐 더 어르신들이 야단치시던 얘기 인두로 입을 지진다? 아이구 저런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보자 : 글썸 그냥 또 할머니 또 나중에 도라 가시고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 다 못드꼬 그냥 저 저 다커서 할머니 도라가셔서.

<글썸 그냥 또 할머니 또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 다 못 듣고 그냥 저 저 다커서 할머니 돌아 가셔서.>

딸 : 동네 사람들 요캐줘 엄마. 엄마 욱 안해찌만 쌍욕뜰 마니 하시자나 하하하.

<동네 사람들 욱 해줘 엄마. 엄마 욱 안했지만 쌍욕들 많이 하시잖아 하하하.>

제보자 : ㅎㅎㅎ, 아이 시러 아이 안 드르나 드르나 교수님 다 아르신니까 ㅎㅎㅎ.

<ㅎㅎㅎ, 아이 싫어 아이 안 들으나 들으나 교수님 다 알으시니까 ㅎㅎㅎ.>

조사자 : 아이 제가 안 드러봐서 잘 모릅니다. 하하하.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셔따구요?

<아이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릅니다. 하하하.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셨다구요?>

제보자 : 한 팔십 면년인가 언젠가 가쎄요.

<한 팔십 몇년인가 언젠가 갔어요.>

조사자 : 아 예 얼마 안 되셨네, 한 삼십년 다니셨네요 그러면?

<아 예 얼마 안 되셨네, 한 삼십년 다니셨네요 그러면?>

제보자 : 그렇가요?

<그런가요?>

조사자 : 그러면 사십때 마흔 너머서 다니싱거네요. 왜 갑자기 그때.

<그러면 사십대 마흔 넘어서 다니신 거네요. 왜 갑자기 그때.>

제보자 : 그냥 가고 시퍼서 가쎄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갔어요. >

조사자 : 그때부터 저 교회 다니싱거예요?

<그때부터 저 교회 다니신 거예요?>

제보자 : 예 조기 저 누구지? 저기 파란게 뭐지? 방주간, 그게 레미
콘 에 레미콘 거기 거기가 아이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할라 그래
찌? 아니 교수니미 저더러 뭐라그러셔쎄요?

<예 저기 저 누구지 저기 파란 게 뭐지? 방죽안, 그게 레미콘 에
레미콘 거기 거기가 아이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아니
교수님이 저더러 뭐라 그러셨어요?>

조사자 : 왜 마흔 너머서 쉰 가까이 돼서 교회를 가싱게 특뻘란 이유
가 이쎄션나 하구요.

<왜 마흔 넘어서 쉰 가까이 돼서 교회를 가싱게 특별한 이유가 있
셨나 하구요.>

제보자 : 아니 누가 거기를 나한테 와서 말도 하지만 자 가자고는 하는데 안 가따가 제가 가야저따 해서.

<아니 누가 거기를 나한테 와서 말도 하지만 자 가자고는 하는데 안 갔다가 제가 가야겠다 해서.>

딸 : 그저네는 엄마 할머니가 저래 다니셔짜나, 그래서 엄마가 사실 생각글 아나셔명거자나요. 그쵸? 강요는 안 해찌만 할머니가.

<그전에는 엄마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잖아, 그래서 엄마가 사실 생각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쵸? 강요는 안 했지만 할머니가.>

제보자 : 할머니 아나시지. 옴나레 그때는 점쟁이한테만 가싱게 어머니미 동네 그 성동 그 고기 저 위에 올라가면 하는 사라미 이써쵸요. 그러니까 어머니문 옴나리니까 그거바께 저기 교도가등건 모르시자나. 그래서 어머니님 도라가시기 저네는 안가쵸요. 그래 여기 와서 예.

<할머닌 안 하시지. 옛날에 그때는 점쟁이한테만 가시니까 어머니미 동네 그 성동 그거기 저 위에 올라가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문 옛날이니까 그거밖에 저기 교도같은 건 모르시잖아. 그래서 어머니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갔어요. 그래 여기 와서 예.>

조사자 : 자식뜰도 다 교회가요?

<자식뜰도 다 교회가요?>

딸 : 그 얘기 해드려 엄마 서경이가, 서경이때무네 다닝건 아니구나. 이모도 선교사고 우리 지바네 줌 만차나 엄마 사위도 목싸 모회하구.

<그 얘기 해드려 엄마 석경이가 석경이 때문에 다닌 건 아니구나. 이모도 선교사고 우리 집안에 줌 많잖아 엄마 사위도 목사 목회하구.>

조사자 : 엄마 사위가 모회를 하세요? 그러면?

<엄마 사위가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딸 : 제 남편 말구요.

<제 남편 말구요.>

제보자 : 사위가 두리에요. 호호호.

<사위가 둘이에요. 호호호.>

딸 : 엄마 둘째 딸 남편.

<엄마 둘째 딸 남편.>

조사자 : 아 둘째 사위가 모회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가싱건가요?

아니면 어느 분 겨로니 먼정가?

<아 둘째사위가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분 결혼이 먼저인가?>

딸 : 엄마가 다니싱게 먼저세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아버지 도라 가시고 다니싱거 가타요. 그냥 그때는 열씨미 안 다니셴는데 시기가 그래평거가태 그러쵸? 엄마 그래평거가태.

<엄마가 다니신 게 먼저세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니신 거 같아요. 그냥 그때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 그렇쵸? 엄마 그랬던 것 같아.>

제보자 : 그러치.

<그렇지.>

조사자 : 그럼 둘째 사위는 어디서 모회를?

<그럼 둘째 사위는 어디서 목회를?>

제보자 : 논사네서요.

<논산에서요.>

딸 : 어디 둘째 사위가 논사네 이씨?

<어디 둘째 사위가 논산에 있어?>

제보자 : 논사니라네, 서울 보고 ㅎㅎㅎ 이문동을 여기라 그러네.

<논산이라네, 서울 보고 ㅎㅎㅎ 이문동을 여기라 그러네.>

딸 : 교수님 저기 우리 어머니가 남편 얘기 나와서 흥분하싱거가태요
하하하.

<교수님 저기 우리 어머니가 남편 얘기 나와서 흥분하신 거 같아요
하하하.>

제보자 : 자가 나를 살살 골려요 ㅎㅎ하하.

<재가 나를 살살 골려요 ㅎㅎ하하.>

조사자 : 월래 따리야 엄마 골리는 재미쥬. 그 엄마 골리는 따리 조은
따립니다.

<원래 딸이야 엄마 골리는 재미쥬. 그 엄마 골리는 딸이 좋은 딸입
니다.>

제보자 : 그러쥬 따리 업쓰면 누가 골려유. 누가 놀려유.

<그렇쥬 딸이 없으면 누가 골려요. 누가 놀려요.>

딸 : 저히 지베서 지금 한달 이따 오서끼때무네 더.

<저의 집에서 지금 한 달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더.>

조사자 : 서울에서 모회를 하시능구나. 이문동에서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능구나. 이문동에서요? >

제보자 : 예.

<예.>

딸 : 이문동이 아니라 동두치니자나 엄마.

<이문동이 아니라 동두천이잖아 엄마.>

제보자 : 참 거시기 동두치니지.

<참 거시기 동두천이지.>

딸 : 이문동에 저걸 두고 이꼬.

<이문동에 적을 두고 있고.>

제보자 : 잉 바쁜 거기서 먹고 사능건.

<잉 밥은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조사자 : 모퉁회자의 살미 참 쉽지 아는데 하하.

<목회자의 삶이 참 쉽지 않는데 하하.>

제보자 : 그럼 교수니든 뭐 교 이쓰세요.

<그럼 교수님은 뭐 교 있으세요.>

조사자 : 네 저두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케 보고.

<네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제보자 : 아유 초니라 다아 노인네만 이써서 우리 노인네들 다 주그
른 굼께 생겨써. 지금 다 학생들 하나도 업써요. 애드를 안 나니까
읍써 하나도 읍써. 그리고 그 그저니는 내가 그때 기썬 때는 중고등
하꼬까지 다 해서 이쓰꺼등요? 그 고교 그 고등하꼬 가면 인자 나
간는다, 지그먼 학생 하아나도 업써 애들두 업써. 하야 다 할머니
들 쪼끔 절므따고 하야 지금 육씨비 이 육십 저누가 제일 절므 사라
미여. 지금 쉬은 념꼬 다 그러코 그러고. 월래 사라미 저그니까 여
가 사람도 적꼬 다아 노인네들만 만코 애 애드를 안 나니까 애드론
별루 읍꾸. 그래서 더 느러나기는 쉽찌 안케 생겨써요. 더 줄면 줄

지 노인네드리 더 마나요. 거진 다.

<아유 촌이라서 다 노인네만 있어서 우리 노인네들 다 죽으면 굶게 생겼어. 지금 다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그전에는 내가 그때 갔을 때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있었거든요? 그 고교 그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나갔는데 지금은 학생 하나도 없어 애들도 없어. 해야 다 할머니들 조금 젊다고 해야 지금 육십이 이 육십 전후가 제일 젊은 사람이여. 지금 쉰 넘고 다 그렇고 그리고. 원래 사람이 적으니까 여기가 사람도 적고 다 노인네들만 많고 애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애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게 생겼어요. 더 줄면 줄지 노인네들이 더 많아요. 거진 다.>

조사자 : 요즈메는 뭐 한창 농사처리라서 바쁘실텐데 여기 시골양반들 할머님도 뭐 바깥에 나가서 일 좀 하고 그러세요?

<요즘에는 뭐 한창 농사철이라서 바쁘실텐데 여기 시골 양반들 할머님도 뭐 밖에 나가서 일 좀 하고 그러세요?>

제보자 : 저요? 풀가통거 뽕바야쥬 ㅎㅎㅎ.

<저요? 풀 같은 거 뽕바야쥬 ㅎㅎㅎ.>

조사자 : 그럼 어디 저기 이라러 다니시거나 그러진 아느시고요?

<그럼 어디 저기 일하러 다니시거나 그러진 아느시고요?>

제보자 : 아 아녀.

<아 아뇨.>

조사자 : 그러시구뇨. 자손드리 다 퍼나나게 해주니까 그렇건 아니하셔도 되네요. 이 지분 얼마나 되썬니까?

<그러시군요. 자손들이 다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런 건 안 하셔도 되네요. 이 집은 얼마나 됐습니까?>

제보자 : 저는 모르쥬 여기는 지분 뿌시면 대 대들뽕에 인능게, 인능

거 보면 다 그게 이썰라는지, 그냥 그냥 와서 다아 수리를 한다고 막 전부다 이게 고칭거 떠빼늘 고칭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먼년닌지는 아마 저거 대들뽀를 보면 아를까 시픈 생가기 제 생가근 그래요. 근디 모르게써요.

<저는 모르쥬 여기는 집을 부수면 대 대들보에 있는 게, 있는 거 보면 다 그게 있을러는지, 그냥 그냥 와서 다 수리를 한다고 막 전부다 이게 고친 거 몇 번을 고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몇 년인지는 아마 저거 대들보를 보면 알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조사자 : 대들뽀에 상냥무니 어디 잇낀 할텐데 이썰려나 모르젠네요.
<대들보에 상냥문이 어디 잇기는 할 텐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보자 : 그러니까요. 엔나레나 이런 집 졌찌 지그든 안 짓짜나요 이 르케.
<그러니까요. 옛날에나 이런 집 졌지 지금은 안 짓잖아요 이렇게.>

조사자 : 자손드리 이집 헐자고 아내요?
<자손들이 이 집 헐자고 안 해요?>

제보자 : ㅎㅎㅎ 그냥 내가 살게 내비두라고 해써요.
<ㅎㅎㅎ 그냥 내가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조사자 : 자손드른 헐고 새로 짓꼬 시픈 마으미 이썰텐데요.
<자손들은 헐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제보자 : 저 저서 사랑게 괜차나요.
<저 저기서 사니까 괜찮아요.>

딸 : 저힌 조아요 저희가 사라편 지비니까.
<저희는 좋아요 저희가 살았던 집이니까.>

조사자 : 그녀가 가끔 오는 자식드란텐 추어긴데.

<그러니까 가끔 오는 자식들한테는 추억인데.>

딸 : 근데 엄마도 구지 엄마도 구지 안 지꼬 시퍼 하시니까.

<그런데 엄마도 굳이 엄마도 굳이 안 짓고 싶어 하시니까.>

조사자 : 그러쵸 사시는 동아넨, 그냥 근데 뭐 지금 건강하시니까 한참 더 사실꺼 가튼데요.

<그렇쵸 사시는 동안에는, 그냥 근데 뭐 지금 건강하시니까 한참 더 사실 것 같은데요.>

제보자 : 호호호 그건 그르쵸. 인제 그 가는 거슨 모르자나유.

<호호호 그건 그렇쵸. 이제 그 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조사자 : 손자드른 며치나 되세요? 손자손녀?

<손자들은 몇이나 되세요? 손자손녀?>

제보자 : 손자가 넷 저 저 외손자까지 다 여덜료 여더링가? 응 자네도 남매 자동생도 남매 여기 크나드리 셋 저 캐나다 간애가 딸 하나이꼬 긍게 여더링게버.

<손자가 넷 저 저 외손자까지 다 여덱이요 여덱인가? 응 재네도 남매 재 동생도 남매 여기 큰 아들이 셋 저 캐나다 간애가 딸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덱인가봐.>

조사자 : 하여튼 이제 캐나다 가시능게 제일 큰 숙제네요.

<하여튼 이제 캐나다 가시는 게 제일 큰 숙제네요.>

제보자 : 아휴 호호호 어지가나면 가쵸. 호호 쪼곰 더 젊머쓰면 가지만 못 가젠네.

<아휴 호호호 어지간하면 가쵸. 호호 쪼곰 더 젊었으면 가지만 못

가겠네.>

조사자 : 그래요, 네 제가 여쭙보고 시퐁거는 거의 다 여쭙봉거 가튼 데요, 그래도 쭈욱 말씀 드려보니까 크게 고생하싱거또 업쓰시고 펴나나게 사션네요.

<그래요, 네 제가 여쭙 보고 싶은 거는 거의 다 여쭙 봉거 같은데요, 그래도 쭈욱 말씀 들어 보니까 크게 고생하신 것도 없으시고 편안하게 사셨네요.>

제보자 : 예 그마나먼 그냥 잘 사라따고 봐야쥬.

<예 그만하면 그냥 잘 살았다고 봐야쥬.>

조사자 : 그래도 얘기도 얘기지만 옛날말도 몇까지가 툇 튀어 나오시 네요. 표주너를 안 쓰는 그런 말드리. 그러구 제일 제가 처음 드른 마른 저릅 저르비라는 마른 처음 드러쭈니다.

<그래도 얘기도 얘기지만 옛날 말도 몇 가지가 툇 튀어 나오시네요. 표준어를 안 쓰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제일 제가 처음 들은 말은 저릅 저릅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보자 : 예 저릅 저릅때기라 그래유. 그걸 삼 꺾때기 배껴 내고 나쁜 저릅때기루 이런 집 질 때 여기 거시기를 여껴서 여기다 집 진는디 다 다 이용을 해썬요. 하야니 쪽쪽 빠더서 조커든, 그걸 이케 사물 다 베껴서 말리고 나면 다아 무껴서 이케 잘 말려서 뒤따가 집 진는 데다가 이케 여껴서 이런 벼람빱¹⁹⁾ 다아 여기 그릉거네. 지금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다 막때기 느쿠 삼 베끼능거야 저 지비루 다 이떠라구 그쭈므루 그러구서는,

<예 저릅 저릅대기라 그래요. 그걸 삼 꺾때기 벗겨 내고 나면 저릅

19) 벽의 지역어.

대기로 이런 집 질 때 여기 거시기를 엮어서 여기다 집 짓는데다 다 이용을 했어요. 하얀 것이 쪽쪽 뻗어서 좋거든, 그걸 이렇게 삼을 다 벗겨서 말리고 나면 다 묶어서 이렇게 잘 말려서 두었다가 집 짓는 데다가 이렇게 엮어서 이런 벽 다 여기 그런 거네. 지금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다 막대기 넣고 삼 베끼는 거야 저 집으로 다 있더라고 그쯤으로 그리고서는,>

조사자 : 너네도 처음 드러봤찌? 벼람빻?

<너네도 처음 들어 봤지? 벼람박?>

제보자 : 벼람빻, 벼락벼 이 벽 그러니 그게 그게 사투리자나, 절라도 가면 겁나게.

<벼람빻, 벼락벼 이 벽 그러니 그게 그게 사투리잖아, 전라도 가면 겁나게. >

조사자 : 벽이 한짜고 그 벽의 순 우리 말이 배람 배람 이러니까 발찌 나드시 배람박이다 이러케

<벽이 한자고 그 벽의 순 우리 말이 배람 배람 이러니까 발전²⁰⁾하듯이 배람 박이다 이렇게>

제보자 : 벼람빠기라 그래 벼람빻. 그러니 벼락 방 바기라구 할라 그 램는디 그게 여러루 나와쓰꺼가타요 ㅎㅎ.

<벼람박이라 그래 벼람박. 그러니 벼락 방 박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리로 나왔을 것 같아요 ㅎㅎ.>

조사자 : 예 여러 가지 나옵니다. 판데 가서는 비름빻 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예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다른데 가서는 비름빻 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20) 발 전(田).

제보자 : 저기 텔레비서 보면 절라도 할머니들 가서 또 하자나 방송
구게서. 그릉거 보먼 참 재민는거뜰 만대 하하하.

<저기 텔레비전에서 보면 전라도 할머니들 가서 또 하잖아 방송국
에서. 그런 거 보먼 참 재미있는 것들 만대 하하하.>

조사자 : 하하 네 거의 머 두 시간 된는데요, 힘드신데 이러케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하네 거의 뭐 두 시간 됐는데요, 힘 드신데 이렇게 얘기해주셔
서 고맙습니다.>

4. 최*환씨 제보 내용 전사 자료

조사자 : 안녕하세요. 농사는 마니 지으세요?

<안녕하세요. 농사는 많이 지으세요?>

제보자 : 예 마니져유. 농사는 요새 하지감장가 그거 캐구 또 양파 양파두 캐구 이모자그루 모 심꾸 그럴랴구 물 잡꾸 이씨요.

<예 많이 저요. 농사는 요새 하지감자인가 그거 캐고 또 양파 양파도 캐고 이모작으로 모 심고 그럴려고 물 잡고 있어요. >

조사자 : 네 저희가 두어 시간 어르시늘 뵙꼬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드려려고 왔습니다. 말쓰마시능거를 노그물 좀 해도 괜찬케씀니까?

<네 저희가 두어 시간 어르신을 뵙고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녹음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

제보자 : 노그믄 뭐 뭇 얘기 중언부언 하는 얘기를 뭇 녹으므래?

<녹음은 뭇 뭇 얘기 중언부언하는 얘기를 뭇 녹음을 해? >

조사자 : 아니 괜찬습니다. 노그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말쓰마신 거를 노그믄 듣꼬 다 채그로 써서 채그로 만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녹음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녹음을 듣고 다 책으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요. >

제보자 : 며 하는데 채글 내실건데?

<며 하는데 책을 내실 건데? >

조사자 : 논산 무늬워네서 논사네 사시던 옛날 어르신드리 옛날엔 어떤 말든 말드를 하신나, 말씀드리 요즘 애들 쓰능 거하곤 마리 마니 다르시자나요?

<논산문화원에서 논산에 사시던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엔 어떤 말들을 하셨나? 말씀들이 요즘 애들 쓰는 거하곤 말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제보자 : 그러치유. 지금 학생드른 우리 모르는 말도 마니 쓰대.

<그렇지요. 지금 학생들은 우리 모르는 말도 많이 쓰대.>

조사자 : 그러니까요. 학생드른 어르신들 쓰는 마를 몰르고 어르신들 쓰는 마를 또 학생드리 몰르고 하지 안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늬워네서 아 이제 어르신드리 다 도라가시고 나면 옛날 말드리 하나도 안 남겠구나 그거시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장년서부터 이리케 어르신들 말쓰를 주욱 노그를 하고 이썸요. 그래서 그 소게서 옛날 마를 차자서 채그로 만들고 이썸요. 그래서 어르신드를 차자 다니면서 두어 시간 말쓰를 듣꼬 이썸니다.

<그러니까요. 학생들은 어르신들 쓰는 말을 몰르고 어르신들 쓰는 말은 또 학생들이 몰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문화원에서 아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옛날 말들이 하나도 안 남겠구나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작년서부터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을 주욱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옛날 말을 찾아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두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보자 : 허허.

<허허.>

조사자 : 말쓰를 하시는데 아무러케나 펴나나케 생강나시는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노그매도 괜차느시겠지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생각 나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녹음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제보자 : 노그미능거야 뭘 상간 이슈.

<녹음하는거야 뭘 상관 있어요.>

조사자 : 허허, 예 그래서 말쓰를 무슨 제가 뭐 질무나고 답빠나고 그렁거 보다도, 우서는 여기가 고향이싱거죠?

<허허, 예 그래서 말씀을 무슨 제가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여기가 고향이신거죠?>

제보자 : 그러쥬, 여기서 나서 여기서 지금 이 늘거 가능거여 지금까지.

<그렇죠, 여기서 나서 여기서 지금 이 늘어 가는 거요 지금까지.>

조사자 : 그니까 여기서 태어 나서서 어릴 때는 어뜨케 사르셨꼬, 하꼬 다닐 땐 어뜨케 해꼬, 뭘 그동안 사라오신 얘기 그냥 주욱 이리케 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가네 드꼬 시픈 얘기를 조금쫘끔씩 여쭙고 그러케 하겠쥬니다, 여기가 삼전닝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 나서서 어릴 때는 어떻게 살으셨고, 학교 다닐 땐 어떻게 했고, 뭘 그동안 살아 오신 얘기 그냥 주욱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중간 중간에 듣고 싶은 얘기를 조금쫘끔씩 여쭙고 그렇게 하겠쥬니다, 여기가 삼전리인가요?>

제보자 : 예 이 삼전니라는 그 마리 대부분들 지금 인삼 삼짜를 써서 삼전니 이케 생각뜰 하고 이꺼던뇨? 근디 그르치 아니리라고 생가

개요. 왜냐면 삼마 삼전이어.

<예 이 삼전리라는 그 말이 대부분들 지금 인삼 삼자를 써서 삼전리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삼마 삼전이어!)>

조사자 : 삼마 삼저니요?

<삼마 삼전이요?>

제보자 : 예, 공계 옛날 오대 입편 삼 이짜나, 지금 대마라고 하는 그 삼 농사를 이 동네에서 마니 썬따구래 옛나래. 그래서 이게 인제 삼바시 된는데 지금드른 인삼 삼짜 써서 이 인삼 사므루 이르게들 생가가고 우리 저 삼전니 삼짜도 인자 삼마 삼짜를 안 쓰고 인삼 삼짜를 써요. 그런데 지금 그건 안 만능거 가태요. 이. 옛나래 그 대마 이 삼농사 징걸로 해서 삼전니 똥걸로 아라요. 그리구 우리 우리 클때는 뭐 인자 우리가 이 해방되이라 그라쥬. 해방되고 쫓미 따가 우리가 해방되출 때가 네사리나 다섯쌀 때쯤 되꺼든, 그라고 쫓끔 열쌀 때 유기오나고, 뭐 계속 인자 날리 틈배기 사룽거여. 우리 그래 우리 자그나버지 가튼 낭반더리 인제 일본 노무자 가따 오 시고 그렇거 기어기 나 왜정 말녀네. 그래서 뭐 공부할째가 어디썬 나는 공부라능건 평생에 사년 공부항거배기 업써요.

<예 그러니까 옛날 옷 해 입던 삼 있잖아, 지금 대마라고 하는 그 삼 농사를 이 동네에서 마니 졌다 그래 옛날에. 그래서 이게 인제 삼밭이 됐는데 지금들은 인삼 삼자 써서 이 인삼 삼으로 이렇게들 생각하고 우리 저 삼전리 삼자도 이제 삼마 삼자를 안 쓰고 인삼 삼자를 써요. 그런데

1) 현재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는 한자로 '蓼田里'로 표기한다. 제보자는 이 것이 '삼밭'이라는 고유어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보자의 의견을 수용하면 이 지역은 '삼전리'가 아니고 마전리(麻田里)로 해야 함.

지금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이. 옛날에 그 대마 이 삼농사 진 것으로 해서 삼전리 된 것으로 알아요. 그리구 우리 우리 클 때는 뭐 인자 우리가 이 해방동이라 그러죠. 해방되고 좀 있다가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가 네 살이나 다섯 살 때쯤 되었거든, 그리고 조금 열 살 때 육이오 나고, 뭐 계속 이제 난리틈배기에서 살은거요. 우리 그래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은 양반들이 이제 일본 노무자 갔다 오시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나 왜정 말년에. 그래서 뭐 공부할 새가 어디 있어 나는 공부라는 것은 평생에 사년 공부한 것 밖에 없어요.>

조사자 : 사녀니요?

<사년이요?>

제보자 : 응 인제 나이를 먹따봉게 이랑녀늘 떠서 여기 인자 쪼그마 난 하거니라는 하꼬가 이써씨. 거기를 이랑녀늘 안가고 이항녀니루 드러가씨. 인자 나이가 마냥게. 이항녀니루 드러가서 에 사학년 때 또 저 구자곡궁민하꼬 지금 연무대인은 구자곡궁민하꼬 유캉녀니루 또 오 오항녀늘 띠고 또 유캉녀니루 가씨요. 그래 인자 사녀늘 인자 공부하게 되거지. 그래서 그래 구자곡궁민하꼬 유캉녀늘 이 일년 다니고 조립파구서 그해 인자 강경중하꼬를, 그때는 인자 강경중하꼬 중하꼬를 여기서 갈라면 상당히 인자 재주이꼬 실려진 사람드리 가지. 근디 참 요행이도 그때 강경중하글 내가 합껴글 해씨씨. 합껴글 헐는디 뭐 인자 가정상 어려워나 물질상 어려워는지는 모르건는디 어렵따고 그냥 하꼬 모간다고 항게, 또 으른들 마리 버빙게 그냥 안 강겨여. 그래서 인자 하꼬도 모까고 그냥 살구 이라구 살았쥬 지금까지 쭉욱 이라면서.

<응 인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일학년을 뛰어서 여기 이제 쪼그마한 학원²⁾이라는 학교가 있었어. 거기를 일학년을 안가고 이학년으로 들어 갔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학년으로 들어가서 이 사학년 때 또 저

구자곡국민학교 지금 연무대 있는 구자곡국민학교 육학년으로 또 오 오학년을 뛰고 또 육학년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사년을 이제 공부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래 구자곡국민학교 육학년을 이 일년 다니고 졸업하고서 그해 이제 강경중학교를, 그때는 이제 강경중학교 중학교를 여기서 갈라면 상당히 이제 재주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갔지. 그런데 참 요행이도 그때 강경중학을 내가 이제 합격을 했었지. 합격을 했는데 뭐 이제 가정 상 어려웠나 물질 상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그냥 학교 못 간다고 하니까, 또 어른들 말이 법이니까 그냥 안 간 거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살구 일 하고 살았죠 지금까지 주옥 일하면서.>

조사자 : 그럼 지금까지 쪽 농사만 지으셨어요? 이 동네 안 떠나시구요?

<그럼 지금까지 쪽 농사만 지으신 거예요? 이 동네 안 떠나시구요?>

제보자 : 안 안 떠나구요. 요 아래 이 동네에서 저 아버지 어머니 하고 이케 살다가 하라버지까지 그때는 계셔찌. 그케 살다가 인자 인자 이제 겨로나구서 스물 내가 스물두사레 겨로늘 해써 그래 가지고 인제 스물 세 살 먹떠내 저기 저 우리 크나드를 나쿠서는 제금나찌 요 미티 동네로. 따로 난는디 참 어렵게 나써 제그물. 집또 찌끄마 난 막 겨드러가는 지베다가 논 두마지깁가 주시걸래 그걸 가지고 제금나서 일 마니 했쪄 지금까지. 일 마니 해서 지그문 부자가 됴겨여 그때기다보면. 논 밭 해서 한 사십마지기 지꾸 소도 인자 축싸 크게 쳐서 한 오십마리 지금 매기구 그르케 쭈욱 사라용겨여 이케.

<안 안 떠나구요. 요 아래 이 동네에서 저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러게 살다가 할아버지까지 이제 그때는 계셨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제 이제 결혼하고서 스물 내가 스물 두 살에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2)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에 주민들이 세웠던 삼전공민학교를 말함.

스물 세 살 먹던 해 저기 저 우리 큰아들을 낳고서는 제금났지 요 밑에 동네로. 따로 낳는데 참 어렵게 낳어. 제금을 집도 조그마한 막기어 들어 가는 집에다가 논 두마지기인 주시기에 그걸 가지고 제금나서 일 많이 했죠 지금까지. 일 많이 해서 지금은 부자가 된 거야 그때에 비하면. 논 밭 해서 한 사십 마지기 짓고 소도 이제 축사 크게 쳐서 한 오십마리 지금 먹이고 그렇게 쪽 살아 온 거요 이게.

조사자 : 형제 부는 마느써썬요?

<형제 분은 많으셨어요?>

제보자 : 형제는 우리가 오형제고 삼 여 여동기가니 세시여. 그래가 팔남매가 살구 지금 현재는 누니미 둘 도라가시고 그라고 지금 칠남매가 참 형니마나 더 주건네. 육남매가 지금 사라 인능거여. 그 래 지금 망내만 망내만 농혀베서 근무하다가 하구 나머지드른 다 그냥 농사지꾸 사라썬요. 우리 큰 형니은 구하글 마니 하셔썬 에 어려서부터 수물 겨로나드락까지 옛날 서당이라고 이꺼든 이 거기를 사뭇 공부를 마니하셔썬 구하글 마니 하셔썬.

<형제는 우리가 오형제고 삼 여 여 동기간이 셋이여. 그래가 팔남매 가 살구 지금 현재는 누님이 둘 돌아가시고 그라고 지금 칠남매가 참 형님 하나 더 죽었네. 육남매가 지금 살이 있는 거여. 그래 지금 막내만 막내만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하구 나머지들은 다 그냥 농사짓고 살았어요. 우리 큰 형님은 구학을 많이 하셨지 에 어려서부터 스물 결혼할 때까지 옛날 서당 이라고 있거든 이 거기를 사뭇 공부를 많이 하셨여 구학을 많이 하셨어.>

조사자 : 근데 어르시는 서당도 안다니시구요?

<그런데 어르신은 서당도 안 다니시구요?>

제보자 : 그냥 나는 나름대로 그냥 도카글 해서 그냥 그 한무는 대충 대충 그냥 봐가면서 사회생활 하는디 크은 불퍼는 하지 앙케 그냥

사라왔죠.

<그냥 나는 나름대로 그냥 독학을 해서 그냥 그 한문은 대충대충 그냥 봐 가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큰 불편은 하지 않게 그냥 살아 왔죠.>

조사자 : 그래도 하꼬는 얼마 안 다니셔써두 뭐 공부는 좀 하싱걸로 제가 드린는데요?

<그래도 학교는 얼마 안 다니셨어도 뭐 공부는 좀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보자 : 예 내 뭐 마니 도카글 마니 해써요. 형니미 한무늘 마니 하다 보면 인자 한문공부 하고 또 그렇거지 뭐 뭐 이써? 그냥 이 시골 사능게 다 가감승제 참 그렇거 할 줄 알고 한문짜 며짜 보면 그냥 그렇거 쳐다보고 그냥 사능거쥬 뭐.

<예 내 뭐 많이 독학을 많이 했어요. 형님이 한문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한문공부 하고 또 그런 거지 뭐 뭐 있어? 그냥 이 시골 사는 게 다 가감승제³⁾ 참 그런 거 할 줄 알고 한문자 몇 자 보면 그냥 그런 거 쳐다보고 그냥 사능거쥬 뭐.>

조사자 : 이른 농사는 주로 어떻게 하셔써요?

<일은 농사는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제보자 : 농사는 이 인제 보카배서 헨는디 딸기를 심농년 해써 내가. 고 중가네 가치하면서 야이 담배농사 담배농사를 삼시비년 해써. 계속 인제 가치가치 영겨래서 이 연도를 따지면 참 마난디 딸기하며 담배농사도 하며 막 이러케 보카배서 해꺼던요? 그러다 봉게 그케 오래 해써 딸기도 한 심농녀나고 연초도 한 삼시비년 정도하고.

3) 가감승제(加減乘除). 산수의 기본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뜻하는 한자말.

<농사는 이 이제 복합해서 했는데 딸기를 십육년 했어 내가. 그 중간에 같이 하면서 야이 담배농사 담배농사를 삼십 이년 했어. 계속 이제 같이 같이 연결해서 이 연도를 따지면 참 많은데 딸기하며 담배농사도 하며 막 이렇게 복합해서 했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했어 딸기도 한 십육년 하고 연초도 한 삼십 이년 정도하고.>

조사자 : 그럼 지그른 담배 아나시고요?

<그럼 지금은 담배 안 하시고요?>

제보자 : 아나지 인자 한 한 오년 돼써 아난지가.

<안 하지 이제 한 한 오년 됐어 안 한지가.>

조사자 : 왜 그만 두셔써요?

<왜 그만 두셨어요?>

제보자 : 아이 너무 힘들고 연초는 참 힘드려요.

<아이 너무 힘들고 연초는 참 힘들어.>

조사자 : 그 담배도 뭐 품종이 인나요?

<그 담배도 뭐 품종이 있나요?>

제보자 : 있지유, 이 황색종이라고 노오란색 내서 찌서 이 건조기에다가 마라자면 건조기다 말리는 거시 황색견초라고 하고 양지다 말리능게 인자 버래종이라 그라거든요. 그러면 그걸 서껴서 이 마라자면 연초를 담배를 맨드능거여.

<있지요, 이 황색종이라고 노란색 내서 찌서 이 건조기에다가 말하자면 건조기다 말리는 것이 황색 연초라고 하고 양지에다 말리는 게 이제 버래종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섞어서 이 말하자면 연초를 담배를 만드능거여.>

4) 담배의 한 종류인 버어리종(Burley)을 말함.

조사자 : 보통 개이니 담배를 이러케 찌가지고 해서 피워도 되나요?

<보통 개인이 담배를 이렇게 찌 가지고 해서 피워도 되나요?>

제보자 : 그르치 찌능게 아니라 그냥 그 건조기에다 그 여를 가해서
인자 말리능거여. 저 우리 지비 건조기도 이써.

<그렇지 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건조기에다 그 열을 가해서 이제
말리는 거요. 저 우리 집에 건조기도 있어.>

조사자 : 어르신도 담배 마니 피우세요?

<어르신도 담배 많이 피우세요?>

제보자 : 담배를 마니 피다가 지금 끄는지 한 십년 정도 대여 십년 더
다 한 시비년정도 다. 인자 그르케 열씨미 살다 봉게 우리 크내가
인제 경희대하꼬 대하건 조립팔때 풍이 걸려써. 오 오하끼거든 대
하거니 오하킨디 오하끼 인자 논문 준비하고 어짜고 한다고 너무
머리를 썬나 풍이 걸려 가지고 조러블 모대써 오하끼 등로꿈까지
는 싹 낸는다. 그라고 둘째 따른 고등해꼬 조립파구서는 이 공부해
가 너무 머리아프다고 그냥 어뜨게 서울로 가서 그럭찌럭 지금 잘
사라요. 그라구 그 세째 또 따리 인는다 애드리 네신디 새째 또 딸
은 이 여기서 대하꼬 조립파구서 거냥대하꼬 대하건 마라자면 이
수 해써 셋째 따리 그 고기는 유아교육쫓그로. 그라구 저 우리 망내
아드른 또 저 머여 그 또 전문댄가 기계공학파 나와가지고 공부 더
해본다더니 그냥 말구 콤퓨터를 전문햐. 그래 가지고 그걸 열씨미
또 하드라고 그래서 콤퓨터 강사로 한 삼녀닝가 백제초등하꼬, 부
여 거기서 하다가 돈뻘리도 안되고 그래서 여기와서 농사 시자개
서 지금 소매기구 이써요 망내가.

<담배를 많이 피다가 지금 끊은 지 한 십년 정도 돼요 십년 더 돼

한 십이년 정도 돼.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큰 애가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풍에 걸렸어. 오 오학기거든 대학원이 오학기인데 오학기 이제 논문준비하고 어찌고 한다고 너무 머리를 썼나 풍에 걸려가지고 졸업을 못 했어 오학기 등록금까지는 싹 냈는데. 그리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구서는 이 공부 해가 너무 머리 아프다고 그냥 어떻게 서울로 가서 그럭저럭 지금 잘 사세요. 그리고 그 세째 또 딸이 있는데 애들이 넷인데 세째 또 딸은 이 여기서 대학교 졸업하고서 건양대학교 대학원 말하자면 이수했어 세째 딸이 그거기는 유아교육 쪽으로. 그리고 저 우리 막내 아들은 또 저 뭐여 그 또 전문댄가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공부 더 해 본다더니 그냥 말구 컴퓨터를 전문해. 그래 가지고 그걸 열심히 또 하더라고 그래서 컴퓨터 강사로 한 삼년인가 백제초등학교, 부여 거기서 하다가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농사 시작했어 지금 소먹이고 있어요 막내가.>

조사자 : 네 그럼 저기 꼬마가?

<네 그럼 저기 꼬마가?>

제보자 : 예 우리 손녀고.

<예 우리 손녀고.>

조사자 : 망내 아드님?

<막내 아드님?>

제보자 : 예 여기 큰손자 큰손자하고 손녀는 논산 시청 뒤에서 살고 이씨요. 그래서 가는 인자 인제 주저씨 자가 인자 풍 걸리고 애만 둘 나고 얼마 살다가 주저씨. 그래서.

<예 여기 큰손자 큰손자하고 손녀는 논산 시청 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는 이제 이제 죽었어. 재가 이제 풍 걸리고 애만 둘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조사자 : 저 사지니쵸?

<저 사진이죠?>

제보자 : 예 저 사진이 크나들.

<예 저 사진이 크나들.>

조사자 : 아까 제가 사진 보구서 오 어느 하꼐나 나덕다 그래떠니 경
희대학꼬엿꾼뇨.

<아까제가사진 보고서 오 어느 학교인가 낫 익다 그랬더니 경희대
학교엿꾼요.>

제보자 : 자가 자가 차암 활동을 마니 해썌요. 풍걸리고 십삼년 여기
와 살면서 겨로나고 그 보허믈 해썌 그래서 이 논산시에서는 자몰
르는 사람드리 업썌썌 하도 빨빨겨려서, 절룩절루카고 다니며. 그
래서 자근 거이니라 소리까지 듣꾸 열썌미 사라썌요 그런디 또 그
풍걸린 후유썌잉가 심장이 안 조아서 그냥 하루썌녀게 느다덱썌
주거썌. 그래서 인자 그 아드라고 따리 이썌 가지고 아드른 지금
이 겨냥대하꼬 군사학과를 가꼬 따른 썌뿔 저 썌뿔인 아니 거시기
간네 저기 상고 논산녀상 가썌.

<재가재가 참 활동을 많이 했어요. 풍 걸리고 십삼년 여기와 살면
서 결혼하고 그 보험을 했어 그래서 이 논산시에서는 재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 하도 빨빨겨려서, 절룩절룩하고 다니며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 소
리까지 듣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 풍 걸린 후유썌인가 심장이
안 좋아서 그냥 하루 저녁에 느닷없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이 있어 가지고 아들은 지금 이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를 갔고 딸은 썌뿔
저 썌뿔인 아니 거시기 갔네 저기 상고 논산녀상 갔어.>

조사자 : 아드님 이르미 떠어썌니까?

<아드님 이름이 뭇썌습니까?>

제보자 : 우리 큰아드른 최*나기고 최*나기고 그 지금 손자는 최*혀

기고 그래요.

<우리 큰 아들은 최*락이고 최*락이고 그 지금 손자는 최*혁이고 그래요.>

조사자 : 아이고 그래도 저 크나드니미 그러케 되서 마오미 마니 아 프셔쨌네요.

<아이고 그래도 저 큰 아드님이 그렇게 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 네요.>

제보자 : 아유 그람뉴 인자 가가 잘 못되믄서 우리 지비 마니 인자 흔들려쨌. 가 풍걸려쨌 때도 내가 비슬 마니 저쨌쨌요. 내껴 본다고 뭐 그냥 대한민국 머 유명한디는 다 다니믄서 그냥 하느라고 그때 비슬 마니 저따가, 또 이 소매기고 뭐 이렇거 저렇거 하면서 대충 정리를 해꺼든. 근디 인자 그 그르케 정리한 디에 또 자가 또 죽꼬 낭게 또 또 이르케 충겨글 마니 바다쨌. 내가 어려움도 마내꼬 참 이게 서울가튼디나 도시서는 애들 가르치능거 그냥 당어나게 알 지만 시골쨌는 참 어려워요. 그때 자들때만 해도 대하꼬 대하건 이 러케 가르친다능게 특히 음악대하건 다녀꺼든 그때 경희대하꼬 처메 드르갈 때 레쓰늘 한다레 사심마년씩, 여기서 서울 와따가따 통학빠까지 사심마년씩 드려서 내가 레쓰늘 가르쳐쨌 그때. 그르 니 지금 생가개 바 그때 사뱅마년씩도 지금 도니루 사뱅마년씩 드 러요. 하하 그런 도늘 대 가면서 시골쨌 애드를 가르쳐쨌요 내가.

<아유 그럼요 이제 개가 잘못 되면서 우리 집이 많이 이제 흔들렸 지. 개 풍 걸렸을 때 내가 빗을 많이 졌었어요. 날게 해 본다고 뭐 그냥 대한민국 뭐 유명한데는 다 다니면서 그냥 하느라고 그때 빗을 많이 졌다 가, 또 이 소먹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대충 정리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정리한 뒤에 또 재가 또 죽고 나니까 또 또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지. 내가 어려움도 많았고 참 이게 서울 같은 데나 도시에서는

애들 가르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알지만 시골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때 재들 때만 해도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특히 음악대학원 다녔거든 그때 경희대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레슨을 한 달에 사십 만원씩, 여기서 서울 왔다 갔다 통학비까지 사십 만원씩 드려서 내가 레슨을 가르쳤어 그때. 그러니 지금 생각해 봐 그때 사백 만원씩도 지금 돈으로 사백 만원씩 들어요. 하하 그런 돈을 대 가면서 시골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조사자 : 아유 근데 그런 아드리 잘못 되쓰니 얼마나 그르게 마리에요. 소는 매기시는데 지금 먼마리 오십마리 하신다그랜나요?

<아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잘못 되었으니 얼마나 그르게 말이에요. 소는 먹이시는데 지금 몇 마리 오십 마리 하신다 그랬나요?>

제보자 : 한 오십마리 될꺼유.

<한 오십 마리 될거요.>

조사자 : 소는 뭐 뭘 주나요 먹이를?

<소는 뭐 뭘 주나요 먹이를?>

제보자 : 주로 사료 주죠 인자.

<주로 사료 주죠 이제.>

조사자 : 옛나라곤 다르죠?

<옛날하곤 다르죠?>

제보자 : 예 지금 인제 짚 그 가으레 인자 수거한 짚 무꺼서 노코 또 주로 인제 소가 살쭈인능건 사료예요. 인제 지븐 등치가 이케 크다 봉게 이 양꾸레 채워주는 여카를 하능거지 영양까를 머꼬 사능건 다 사료고 하죠. 한다레 사료비가 몇뺑마넌씩 나와요.

<예 지금 이제 짚 그 가을에 이제 수거한 짚 묶어서 놓고 또 주로 이제 소가 살 수 있는 건 사료예요. 이제 짚은 등치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양꾸레⁵⁾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영양가를 먹고 사는 건 다 사료고
하죠. 한 달에 사료비가 몇 백 만원씩 나와요.>

조사자 : 그럼 소 말고 다른 짐승은 아니시구요?

<그럼 소 말고 다른 짐승은 안 하시구요?>

제보자 : 예 주로 소하고 또 우리 야가 에 나무를 조이하. 나무를. 그래
가지고 체리라고 아시나 모르건네 체리 체리를 마니해요. 거기 장
녀니 체리 묘모그로도 이르케 팔고 지금 밭 바티니 이런데 마니 해
나써 내녀니 팔라고 체리.

<예 주로 소하고 또 우리 야가에 나무를 좋아해. 나무를. 그래 가지
고 체리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체리 체리를 많이 해요. 거기 작년에 체리
묘목으로도 이렇게 팔고 지금 밭 밭이니 이런데 많이 해 놓았어 내년에
팔려고 체리.>

조사자 : 그 트공장물 쪼그로 관시를 마니 가지는 건가요?

<그 특용 작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가요?>

제보자 : 모르거써 인자 나무 묘목 쪼그로 그르케 관시를 마니 가떠
라구. 월래는 농장이 농 농토가 만쿠 소 매기자구 해서 오라구 행는
디. 그거 인제 내 생가기어꼬 저는 여그 와서 이제 따 땅걸 해보거따
이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이르케 노니가서 이래도 저는 저기
또 체리 그거 장녀니 겨어올네 접 부쳐 가지고 시뫼꺼든. 이케 착 울
라 옹게 인제 비 오거나 그라면 누니 똑똑 떠러지면 버리자나, 그거
세운다고 지금 하고 이써. 따로 살리매요 기는 가대로 그렇거 하고.

<모르겠어 이제 나무 묘목 쪽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갔더라고.
원래는 농장이 농 농토가 많고 소 먹이자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5) 뱃꾸레(사람이나 짐승의 배 또는 배 속을 속되게 이르는 말)의 지역어.

내 생각이었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따 다른 걸 해 보겠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지금 나는 이렇게 눈에 가서 일해도 저는 저기 또 체리 그거 작년에 겨울 내내 접 부쳐 가지고 심었거든. 이렇게 착 올라 오니까 이제 비오거나 그러면 눈이 툭툭 떨어지면 버리잖아, 그거 세운다고 지금 하고 있어. 따로 살림해요 개는 개대로 그런 거 하고.>

조사자 : 절문 사람드리 또 열씨미 공부해 가면서 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하네요.>

제보자 : 네 열씨미 해요. 근데 시골 살다보니까 인제 겨로늘 못시켜서 저 외국 매느리를 어더써. 그랜는디 영리해 가지고 말도 바로 배우고 저기 궁문도 금방 아라가지고 다 알고 하더라고.

<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골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못 시켜서 저 외국 며느리를 얻었어. 그랜는데 영리해 가지고 말도 바로 배우고 저기 국문도 금방 아라가지고 다 알고 하더라고.>

조사자 : 어디서 어등거예요?

<어디서 얻은 거예요?>

제보자 : 저기 저 라오쓰 예 라오쓰. 사라미 순지나고 하튼 매느리는 외국매느리로 잘 어더따고 이케 생가기 대요.

<저기 저 라오스 예 라오스. 사람이 순진하고 하여튼 며느리는 외국 며느리로 잘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조사자 : 어떤 저미 조팅가요?

<어떤 점이 좋던가요?>

제보자 : 어째든 사라미 막 이케 승질내고 이렇걸 잘 아내요. 참 여유 이써 보든 느그타니 머라고 하면 피식 웃꼬 그라지 막 이케 말대다 파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라마고 다르게 그렇거더라고. 이 아주 다

헐찌리 아니고 그냥 사람드리 온수내요. 내가 그저니 나도 배우도 모대찌만 내 이 매느리오 면 제일 아쉬웁게 그리 그리 아닝가 시퍼서 육개월만 가르치면 내가 궁무늘 깨우치거따해서 매느리 오자마자 내가 가르쳐꺼던뇨. 예 내가 밤먹꼬 아침 먹꼬 쫘쫘 점심 먹꼬 쫘쫘 그르케서 육개월이면 가르치는데 딱 두 달 항게 글씨를 아라 보더라고. 그래서 매느리가 시아부지데리구 그거 공부가르치능 거도 시집싸리가터서 내비뒀떠니 완저니 아라. 요즈믄 글씨두 다 쓰구 지가 다 하드라구.

<어쨌든 사람이 막 이렇게 성질내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참여유 있어 보면 느긋하니 뭐라고 하면 피식 웃고 그러지 막 이렇게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런 거더라고. 이 아주 다혈질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온순해요. 내가 그전에 나도 배우지도 못했지만 내 이 며느리 오면 제일 아쉬운 게 글이 글이 아닝가 싶어서 육 개월만 가르치면 내가 국문을 깨우치겠다 해서 며느리 오자마자 내가 가르쳤거든요. 예 내가 밥 먹고 아침 먹고 조금 점심 먹고 조금 그렇게 해서 육 개월이면 가르치는데 딱 두 달 하니깐 글씨를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부지 데리고 그거 공부 가르치는 것도 시집살이 같아서 내버려 두었더니 완전히 알아. 요즘은 글씨도 다 쓰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

조사자 : 말도 자라구요?

<말도 잘 하구요?>

제보자 : 예 말도 머 바르미 정화카진 아내두 그런대로 그냥 이러케 우리가 통화하고 그르케 생화라는디는 불편 업썬요. 음식뚜 그냥 제법 제법 하구.

<예 말도 머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그런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통화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데는 불편 없어요. 음식도 그냥 제법 제법 하고.>

조사자 : 그러쵸. 근데 혹시 그래도 또 뭐 좀 불쾌하신 저문 업쓰세요?

<그렇쵸. 그런데 혹시 그래도 또 뭐 좀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제보자 : 이 매느리에 대해서 불쾌낭건 업쵸요. 요 우리 식꾸들 약간 이러케 다혈찌리여 막 급파고 막 승질 내구 우리 안 식꾸 그러쿠 나도 그러쿠 그런디 야가 그렇건 아주 잘 그 맞춰가요 그렇게 참 조쿠.

<이 매느리에 대해서 불편한 건 없어요. 요 우리 식꾸들 약간 이렇게 다혈질이야 막 급하고 막 성질 내고 우리 안 식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얘가 그런 건 아주 잘 그 맞춰가요 그렇게 참 좋고.>

조사자 : 겨론 자라션네요 다행이시네.

<결혼 잘 하셨네요 다행이시네.>

제보자 : 월래 외국매느리를 왜 얻게 된 동기가 머냐면 나이가 한 사십 가까이 됴게 대부분 아가씨드리 또 그 또래가 인자 서늘 보게 되더라고. 근디 내가 볼 때는 여자가 한 사십되믄 이 그 참 무시칸 말로 후세 그 생사나는디도 문제가 이짜나요? 사실 사심너므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생각 아날쑤가 업쑤게, 갱장히 참 곁쩍찌그나면 서도 그냥 지들 의지하구 사르라구 가 승나글 햐. 가서 보고 오라구. 근디 그르케 사십싸리나 머근 샅씨드리 골르능게 마냐, 이것찌 것 머 요구도 망코. 그래서 야이건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드리 먼가 반성할찌를 모르능구나. 그런 여자들 또 데려와 봐 와 봐편들 그런 생가그루 사라서는 우리하고 안 만는다. 그래가지고 그 차라리 외국 아무거또 모르는 외국매느리를 어더서 우리가 한번 가르쳐 가 머 한번 사라보자. 그래떠니 저도 인자 서늘 맏뻔 봐쑤 그러더니 글케 해 보야거따 그래서 그르케 바로 그냥 어더 와쑤요. 그런디

진짜 참 며느리는 잘 어더쎄요.

<원래 외국 며느리를 왜 얻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나이가 한 사십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 아가씨들이 또 그 또래가 이제 선을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자가 한 사십 되면 이 참 무식한 말로 후세 그 생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사십 넘으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참 꺾쩍지근하면서도 그냥 자기들 의지하구 살라고 가서 승락을 해. 가서 보고 오라구. 그런데 그렇게 사십 살이나 먹은 색시들이 고르는 게 많아, 이것 저것 뭐 요구도 많고. 그래서 아이건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뭔가 반성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런 여자들 또 데려 와봐 와 봤던들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그 차라리 외국 아무 것도 모르는 외국 며느리를 얻어서 우리가 한번 가르쳐 가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저도 이제 선을 몇 번 봤어 그러더니 그렇게 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로 그냥 얻어 왔어요. 그런데 진짜 참 며느리는 잘 얻었어요.>

조사자 : 다행이시네요. 그르케 해서 또 가치 사르셔야쎄. 근데 제가 듣기로 뭐 목쭈도 좀 하셔따구요.

<다행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사셔야쎄. 근데 제가 듣기로 뭐 목수도 좀 하셨다구요.>

제보자 : 그르쥬, 예.

<그렇쥬, 예.>

조사자 : 집또 지으시고 그러셔따구.

<집도 지으시고 그러셨다고 .>

제보자 : 겹 겹쳐서 아까두 얘기 해찌만 한니리 마내요. 그래 식구가 고생을 마니해찌. 내가 여라흙쌀 머거서부터 그 이런 시골씨 쫓고 마난 허청가튼걸 지러댕겨쎄.

<겹 겹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한 일이 많아요. 그래 식구가 고생

을 많이 했지. 내가 열아홉살 먹어서부터 그 이런 시골에서 조그마한 허
청⁶⁾같은 걸 지으러 다녔어.>

조사자 : 허청이요?

<허청이요?>

제보자 : 허청이라구 인자 배까티다 진는 헛간가통거 이짜나 헛간 그
렁거. 인자 큰 목쭈들 아니더라도 지짜내유.그래 인자 그렇걸 하러
댕기다가 차츰차츰 인제 영구하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인자 이런
집또 지꾸 그르케 된는디, 고계 마흔 여덟살 먹떠내 내가 딱 그만
뒤써. 그 여라홉살 머거서부텀 그거또 여러 해 항겨여. 그걸 하다
보면 인자 그때는 새마을사어비니 머니 막 이리 마나쨌요. 이 계속
이라러 나가면 식꾸는 인자 농사 지꼬 노브더서 농사 지꾸 나는 뒷
빠라지 해 가며 그르케 사라찌.

<허청이라고 이제 바깥에다 짓는 헛간같은 거 있잖아 헛간 그런
거. 이제 큰 목수들 아니더라도 짓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걸 하러 다니다가
차츰차츰 이제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집도 짓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계 마흔 여덟 살 먹던 해 내가 딱 그만 뒤어, 그 열아홉 살
먹어서부터 그것도 여러 해 한 것이야. 그걸 하다보면 이제 그때는 새마을
사업이니 뭐니 막 일이 많았어요. 이 계속 일하러 나가면 식구는 이제 농사
짓고 농업⁷⁾ 얻어서 농사 짓고 나는 뒷바라지 해 가면서 그렇게 살았지.>

조사자 : 제가 좀 관시민능거는 인제 이런 지베 이런 이름드리거든
뇨. 기둥 용마루 이런 이름드리 쪽 이찌안쨌니까? 그런 이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지블 이러케 미테서부터 이러케 올라가며는?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집에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6) 허청(虛廳)은 헛간을 일컫는 한자말.

7) 머슴의 지역어.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팔이꾼.

기둥 용마루 이런 이름들이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집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보자 : 제일 미터 저 주춧돌 인제 이래 한시근 그려. 여기는 요 공구 리로 하능건 기스라고 하지 일본말로 기스라 그라는데 옛날 인자 옛날에는 인자 제일 처음에 지을라면 주추를 낫쥌 주추. 인자 주추를 노쿠 그랍 인자 다져서 노쿠서 인자 그다미 인자 그 지등을 세울 때 지등 세우는 그 밑 바탕을 그렁이라 그랴 그렁이 그랭이. 이 이 케 지등을 세우면 도리 울퉁불퉁 할꺼 아네유? 고 돌따라 요로오케 지구나찬데로 그 콤파스가통거 이써 요로케 장때를 대구 이러케. 쉽게 얘기하면 어트카여. 연피를 여피다 대구 미티다 지등을 대구 요로케 그리믄 지핀디는 내려갈꺼 아녀 올라 가구 이르케 그렁이를 딱 그려. 이래 그걸 끌루 파요. 고대로. 그러믄 그 딱 채우면 그냥 스야다. 나무 요마난 나무를 주추게다 고대로 그랭이 그려서 딱 세우믄 고대로 딱 스야다 응. 이제 그게 기수리여.

<제일 밑에 저 주춧돌 인제 이래 한식은 그래요. 여기는 요 콘크리트로 하는 건 기스⁸⁾라고 하지 일본말로 기스라 그러는데 옛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지으려면 주추를 낫쥌 주추. 이제 주추를 놓고 그러면 이제 다져서 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기등을 세울 때 기등 세우는 그 밑바탕을 그렁이라고 해 그렁이 그랭이.⁹⁾ 이 이렇게 기등을 세우면 돌이 울퉁불퉁 할 것 아니예요? 고 돌 따라 요렇게 깊고 낮은 데로 그 콤파스 같은 것 있어 요렇게 장대를 대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해. 연필을 옆에다 대고 밑에다 기등을 대고 요렇게 그리면 깊은 데는 내려갈 것 아니요 올라가고 이렇게 그랭이를 딱 그려 이래 그걸 끌로 파요. 그대로. 그러면 그 딱 채우면 그냥 세야 돼 나무 요만한 나무를 주추에다

8) 기초(基礎)의 일본식 발음.

9) 다림보기해서 똑바로 선 기등을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기등 밑면을 초석과 일치시키는 작업. 그랭이칼, 그랭이질 등의 단어가 있음.

그대로 그랭이 그러서 딱 세우면 그대로 딱 서야 돼. 응 이제 그게 기술이
여>

조사자 : 그러니까 도를 판파나게 하능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을 판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 : 예 나무를 파능거야.

<예 나무를 파는 거야.>

조사자 : 도른 그대로 노코 도리 들어가고 나간 올라가고 내려간 부
부네 마춰서 나무를 파가지구, 아

<돌은 그대로 놓고 돌의 들어가고 나간 올라가고 내려간 부분에
맞춰서 나무를 파가지고, 아.>

제보자 : 예를 드려 이해가 가실라나

<예를 들어 이해가 가실라나?>

조사자 :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뭔지 알겠습니다.>

제보자 : 알겠쥬?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연피리구 이게 지둥이란 마려.
그라면 요게 이르게 요로케서 인자 나무에다 대고 요로케 그린다
구. 지픈디는 내려 갈꺼 아녀 또 노픈디는 올라가고. 이게 요로케
한바꾸를 뺄 돌리면 그 돌 형체가 딱 나와 그럼 고대로 그 따라서
파든 딱 세우든 그냥 서요 그계. 제대로 파머는 이 거시기도 따악
마즈야다. 다르미라고 하거든 다름, 이 줄 이 마라자면 이 머여 이
게 우리나라 지금말로는 머냐 이 다름본다고 그라지. 이 일짜로 딱
스게 하능겠. 이 딱 마즈야다. 요기 제대로 파서 딱 세워쥬 때.

<알겠쥬?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연필이고 이게 기둥이란 말이요. 그
러면 요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나무에다 대고 요렇게 그린다고. 깊은

데는 내려갈 것 아녀 또 높은 데는 올라가고. 이게 요렇게 한 바퀴를 뺑 돌리면 그 돌 형체가 딱 나와 그림 그대로 그 따라서 파면 딱 세우면 그냥 서요 그제. 제대로 파면 이 거시기도 따악 맞아야 돼. 다리미라고 하거든 다림¹⁰⁾, 이 줄 이 말하자면 이 뭐여 이게 우리나라 지금말로는 뭐냐 이 다림본다고 그러지. 이 일자로 딱 서게 하는 걸. 이 딱 맞아야 돼 여기 제대로 파서 딱 세웠을 때.>

조사자 : 지금 그랭이 다름 그렇게 제가 딱 처음 듣는.

<지금 그랭이 다림 그런 것이 제가 딱 처음 듣는.>

제보자 : 예 그렇거 인자 학생드른 저언혀 몰르지.

<예 그런 것 이제 학생들은 전혀 모르지.>

조사자 : 저도 처음 들었썬니다.

<저도 처음 들었썬니다.>

제보자 : 이르케 이 주를 일자로 보능걸 다르미라 그라고, 미티 주추 푼 이르케 파능걸 그랭이라고 하고, 고로케서 인제 딱 세우믄 인자 위에다 인자 보라 그래요. 보 보짱을 양쪼기다 인자 걸치고 이 노마고 저 노마고 걸치고 고로케 가지고 인자 보짱위에 인자 고조 이르케 또 양쪽 이르케 세우능걸 고조 그르케 가지고 고거 고조 위에 인제 언지능 걸 또 인자 대들보 그르케 가지고 지블 그르케 진는거여. 이 여 지붕 해 이능건 연목 이 그런 정도예요.

<이렇게 이 줄을 일자로 보는 걸 다르미라 그러고 밑에 주춧돌 이렇게 파는 걸 그랭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세우면 이제 위에다 이제 보라고 그래요. 보 보짱¹¹⁾을 양쪽에다 이제 걸치고 이놈하고 저놈하

10) 다림은 건축을 할 때 수평과 수직이 잘 맞는지를 헤아려 보는 일이다. '다림 보다'라고 쓰임.

11) 보짱은 들보의 지역어.

고 걸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보짱위에 이제 고주 이렇게 또 양쪽 이렇게 세우는 걸 고주¹²⁾ 그렇게 해 가지고 고거 고주 위에 인제 없는 걸 또 이제 대들보 그렇게 해 가지고 집을 그렇게 짓는거요. 이 여 지붕 해 이는 것은 연목 이 그런 정도예요.>

조사자 :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기와 언저야 되지 안씀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기와 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보자 : 예 공기 엔나레는 인자 새우 새우라 그러거든? 새우. 이 영을 이르케 죽 여꺼 이 뭐여 그 사네서 이르케 섭타리를 찌다가 그 머나 섭타리 찌다가 저기루다가 저 머여 새끼 새끼를 죽 느려노코 인자 여꺼 사람 통해서나 다 여꺼노코 거기다가 호기루다가 새우를 쭉 바다요. 그라고 나면 새우가세는 인제 엔나렌 지그문 이르케 새마을사어방게 이렇게 나와찌 엔나렌 전부 지브루 다 해 이어써. 이영 이영 여꺼 가지고 지브루 나래라 그러지 이영을 그저니 나래 여꺼서 한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새우¹³⁾ 새우라 그러거든? 새우. 이 이영을 이렇게 주욱 엮어 이 뭐여 그 사네서 이렇게 섭타리¹⁴⁾를 찌다가 그 뭐나 섭타리 찌다가 저것을 가지고 저 뭐여 새끼 새끼를 죽 늘어 놓고 이제 엮어 사람 통해서나 동네사람들 다 엮어 놓고 거기다가 흙으로 새우를 쭉 바다요. 그리고 나면 새우 가에는 이제 옛날엔 지금은 이렇게 새마을 사업하니까 나왔지 옛날엔 전부 짚으로 다 해 이었어. 이영 이영 엮어 가지고 짚으로 나래¹⁵⁾라 그러지 이영을 그전에 나래 엮어서 한다 그러지.>

12) 고주는 건물 내부의 내진 칸을 감싸고 있는 기둥을 말함.

13) 새우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의 산자 위에 흙을 깔고, 그 위에 암키와를 깔 때에 그 좌우 또는 밑의 빈자리에 다져 넣는 진흙을 말함.

14) 섭타리는 집을 지을 때, 진흙을 바르기 위하여 짚이나 나뭇가지 등을 엮어서 만든 구조물을 말함.

15) 이영의 지역어.

조사자 : 이영하고 나래하고 다름경가요?

<이영하고 나래하고 다른 건가요?>

제보자 : 가튼건디 그저니 여기선 나래 영는다 그래서 이영을. 그니
까 이제 나래 여꺼서 지블 해 이능거여.

<같은 건데 그 전에 여기서는 나래 영는다 그랬어 이영을. 그러니까
이제 나래 엮어서 짚을 해 이는 거여.>

조사자 : 이 동네에서만 쓰능 마링가요 나래 영는건?

<이 동네에서만 쓰는 말인가요 나래 영는 건?>

제보자 : 나래영능건 거의 다 저 그 이영 영능걸 나래 영는다 마니들
해요. 시골 여기선 고 고런 말이 약간 옛날 지난 얘기 아닝가 시퍼
요. 나래 영는거니 머 그 이 하이튼 이 짚 영능걸 이영 영능걸 나래
나래 영는다고 해써 엔나래.

<나래 영는 건 거의 다 저 그 이영 영는 걸 나래 영는다 많이들 해요.
시골 여기선 그 그런 말이 약간 옛날 지난 얘기 아닝가 싶어요. 나래 영는
거니 머 그 이 하이튼 이 짚 영는 걸 이영 영는 걸 나래 나래 영는다고 했어
옛날에.>

조사자 :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니 이영 영능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니 이영 영는 거?>

제보자 : 지비 지비 요마날꺼 아녀? 그람 요만씨가게 딱딱 띠어. 그래
서 이르케 서로 지블 이르케 여꺼. 여꺼서 조옥 여끄먼 인자 이마나
게 한 다발 되자나. 그럼 푹푹 마라 가지고 집 위로 올려. 그럼 보를
펴서 지블 해 이능거여.

<짚이 짚이 요만 할 거 아녀? 그러면 요만씩 하게 딱딱 띠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짚을 이렇게 엮어. 엮어서 조옥 엮으면 이제 이만하게 한 다발

되잖아. 그럼 뚝뚝 말아가지고 집 위로 올라. 그럼 보를 펴서 짚을 해 이는 거야.>

조사자 : 그건 인제 초가지비구요?

<그건 이제 초가집이구요?>

제보자 : 예 초가지비여서 거의.

<예 초가집이었어 거의.>

조사자 : 기와 기와지분?

<기와 기와집은?>

제보자 : 에 기와지분 새마을 사업, 그렇게 오일늑 후에 웬만한 초가 집 다 때려 부시고 스티프 그때 스티프로다 지그문 스티프 인제 다 철거하잔가요? 그때 지붕개량하능거 다 스티프로 해찌 스티프. 그 때서부터 인제 내가 성면 스티프로 지그문 그거 철거시키지만 그때는 지붕개량할 때. 공계 가을되머는 그 이영 여꺼서 지패 이능게 이리어꺼든. 그때 인제 그거 가오리는 그거 하느라고 판니를 모대 써 저녀. 그렇게 인제 오일늑 후에 지붕개량한다고 뭐 그걸 막 스티프가 막 나오게 그놈 매일 마다 목쭈한다고 지붕개량하느라고 그냥 뭐 맨날 매칠 겨우리고 막 그거 해찌. 그때 떠태똥안.

<에 기와집은 새마을 사업 그러니까 오일육 후에 웬만한 초가집 다 때려 부수고 슬레이트¹⁶⁾ 그때 슬레이트로다 지금은 슬레이트 이제 다 철거하잖아요? 그때 지붕개량하는 거 다 슬레이트로 했지 슬레이트. 그때서부터 인제 내가 석면 슬레이트로 지금은 그거 철거시키지만 그때는 지붕 개량할 때 그러니까 가을 되면 그 이영 엮어서 짚 해 이는 게 일어졌거든. 그때 이제 그거 가을에는 그거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했어 전혀. 그러

16) 슬레이트(slate)를 말함. 일반적으로 '스레이트'라고도 함.

니까 이제 오일육 후에 지붕 개량한다고 뭐 그걸 막 슬레이트가 막 나오니까 그놈을 매일 마다 목수한다고 지붕 개량하느라고 그냥 뭐 몇날 몇 일 겨울이고 막 그거 했지. 그때 몇 해 동안.>

조사자 : 농사도 모타섯꼬 바쁘셔쨌네요?

<농사도 못 하셨고 바쁘셨겠네요?>

제보자 : 예 그 농사는 농사대로 또 이르게 식꾸랑 해 가면서 나는 또 일 땡기고 그래쨌. 그 이 동네 하이튼 이 동네 만치는 안치만 내 손 안 단집 별로 업써 지붕개량할 때. 그란디 내가 진 지비니 뭐니 뭐니 인자 그럭저럭 다 또 철거가 되더라고. 한 삼십년 이 집뚜 지금 삼십년 훨씬 너머쨌요. 이게 내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진 지빈디 이 지비 이거뚜 삼십년 너믜게 인자 또 다 철거하게 되더라고.

<예 그 농사는 농사대로 또 이렇게 식꾸랑 해 가면서 나는 또 일 다니고 그랬지. 그 이 동네 하여튼 이 동네 많지는 않지만 내 손 안 닿은 집 별로 없어 지붕 개량할 때. 그런데 내가 지은 집이니 뭐니 뭐니 이제 그럭저럭 다 또 철거가 되더라고. 한 삼십년 이집도 지금 삼십년 훨씬 넘었어요. 이게 내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지은 집인데 이 집이 이것도 삼십년 넘으니까 이제 또 다 철거하게 되더라고.>

조사자 : 그니까 여기서 인제 그러면 뭐 강경중하꼬 드러 가시고 이 팍캐노시고 그냥 못다니시고 여기서 그냥 농사만 쪽 지으싱거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농기구드리 마니 달랏쨌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 강경중학교 들어가시고 입학 해 놓으시고 그냥 못 다니시고 여기서 그냥 농사만 쪽 지으싱거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농기구들이 많이 달랏쨌쨌 아무래도?>

제보자 : 아이 우리 할때마내도 경웅기 한대면 그 그 동네 부잣씨비 서나 경웅기 그 소리 드끼두 어려워쨌. 딸딸딸딸 이 뭔가 해쨌쨌

요. 그러다가 인자 쪼끔 이 보그비 댕게 인제 아 그걸로 막 논도 쓰
리고 막 논도 같고 아 그래 조은 기계구나. 궁게 연나른 다 소로 해
짜녀 소로 이라자짜 해가면서 소로 다 가라찌 그러다가.

<아이 우리 할 때만해도 경운기 한 대면 그 그 동네 부잣집에서나
경운기 그 소리 듣기도 어려웠어. 딸딸딸딸 이 뭔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 보급이 되니까 이제 아 그걸로 막 논도 썰고 막 논도 같고
아 그래 좋은 기계구나 그러니까 옛날엔 다 소로 했잖아요 소로 이라짜
짜¹⁷⁾ 해 가면서 소로 다 같았지 그러다가.>

조사자 : 소로 가라도 뒤에다 머 이러케 달고 가지 소가 하능건 아니
자나요?

<소로 갈아도 뒤에다 뭐 이렇게 달고 가지 소가 하는 건 아니잖아
요?>

제보자 : 극쟁기라 그러나요? 극쟁기 극쟁기 일반 거시기는 그 저 평
쟁기 논 갈때는 평쟁기 뼈때기 받 가능건 극쟁기 그렇건 지금 우리
지비두 이 극쟁기 이쓸꺼여. 쓰덩거 극쟁기 이써.

<극쟁이¹⁸⁾라 그러나요 극쟁이 극쟁이 일반 거시기는 그 저 평쟁
기¹⁹⁾ 논 갈때는 평쟁기 비탈 받가는 건 극쟁이 그런 건 지금 우리 집에도
이 극쟁이 있을 거야 쓰던 거 극쟁이 있어.>

조사자 : 또 다른건 뭐가 이쨌나요? 지그른 뭐 안 쓰지만 그때 한참
어릴 때 쓰시던 그런.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었나요? 지금은 뭐 안 쓰지만 그때 한참 어릴
때 쓰시던 그런.>

17) 이라: 소나 말을 몰거나 끌어 당길 때 내는 말.

짜짜: 말이나 소 따위를 왼쪽으로 가도록 몰 때 내는 말.

18) 주로 밭을 갈고 잡초 제거에 사용하는 농기구인 극쟁이의 지역어.

19) 쟁기를 말함.

제보자 : 주로 저 소 부리는건 그렇거 해썌요. 쓰래 논 쓰릴때는 쓰래 라고 이르케 이르케 발 이케이케 땡긴건 쓰래. 쓰래 꼭쟁기 쟁기 그런 정도 뭐. 모도 그때는 다 소니루 찌서 소니루 찌서 이케 소니루 심꾸 재허비랑 그저네 다 연구해도 모 심능건 영구 모단다구 하 하 그걸 어뜨개서 모 심능걸 영구하건냐구 모단다구 헨는디 어느 때 어릴때 어느때 봉게 테레비서 모 심능게 기계로 나오더라구. 그게 내가 이동네서 제에일 처빠니 모심는 기계 조파라고 이썌요. 그게 상자가 드러가면 쪽 빠다가 파니다 느면 요로캐다가 찌거 내는 거 이썌 그 조파를 내가 제일 먼저 사썌.

<주로 저 소 부리는 것은 그런 것 했어요 써레 논 썰 때는 써레라고 이렇게 이렇게 발 이렇게 달린 건 써레. 써레 극쟁이 쟁기 그런 정도 뭐. 모도 그때는 다 손으로 찌서 손으로 찌서 이렇게 손으로 심고 제협이랑 그전에 다 연구해도 모 심는 것은 연구 못 한다고 하하 그걸 어떻게 해서 모심는 걸 연구하겠냐고 못 한다고 했는데, 어느 때 어릴 때 어느 때 보니까 테레비전에서 모심는 게 기계로 나오더라고. 그게 내가 이동네서 제일 첫 번에 모심는 기계 조파²⁰⁾라고 있어요. 그게 상자가 들어가면 쪽 빠다가 판에다 넣으면 요렇게 해다가 찍어 내는 것 있어 그 조파를 내가 제일 먼저 샀지.>

조사자 : 저도 테레비에서 봐도 참 싱기해요. 하나씩 뽑아다가 심는지.

<저도 테레비전에서 봐도 참 싱기해요. 하나씩 뽑아다가 심는지.>

제보자 : 예 싱기해요. 예 지금 하는 지그은 인자 산파라 그러거든? 그건 그래도 단순해요. 이 판 판이 이르케 내려가믄 딸깍 내려가믄 이르케 찌거 내리능거거든. 그저니 조파는 미티가 이르케 고무파니 이썌요 양썌게. 이르케 돌게 되이썌 이르케 그냥 딱 찌거다가 딱 내려놔 그람 구멍을 하나씩 이르케 찌거 내리구 또 딱 찌그은

20) 조파식으로 모를 심는 이양기의 일종.

또 하나씩 찌거 내구 참 싱기해유 싱기해유. 그 엔나리는 논 열마지기 정도 시믈려면 한이십명이 동네 사람들 다 나서서 하고 그래꺼든. 지그른 우리 논 한 사십마지기 인는디 하루 쪼금 더 시므른 다 시머요 ㅎㅎ.

<예 신기해요. 예 지금 하는 지금은 이제 산파²¹⁾라 그러거든? 그건 그래도 단순해요. 이 판 판이 이렇게 내려가면 딸깍 내려가면 이렇게 찍어 내리는 것이거든. 그 전에 조파는 밑에가 이렇게 고무판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들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냥 딱 찍어다가 딱 내려놓아 그러면 구멍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 내리고 또 딱 찍으면 또 하나씩 찍어내고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 옛날에는 논 열 마지기 정도 심으려면 한이십명이 동네 사람들 다 나서서 하고 그랬거든. 지금은 우리 논 한 사십 마지기 있는데 하루 쪼금 더 심으면 다 심어요 ㅎㅎ.>

조사자 : 그 추수할 때는 뭘로 하세요?

<그 추수할 때는 뭘로 하세요?>

제보자 : 다 콤바인 베는 그거. 엔나리는 다 소니루 다 벼지만 지그른 다 콤바이니루 다.

<다 콤바인 베는 그거. 옛날에는 다 손으로 다 베었지만 지금은 다 콤바인으로 다.>

조사자 : 못쭈 잘능거 이렇거또?

<못 쭈 잡는 것 이런 것도?>

제보자 : 예 못쭈 잘능거 업꼬 지그른 인제 내가 살면서도 마니 변해 썬요. 엔나레 모 썬서 이르케 못쭈 잡꼬 심따 그거또 못쭈 잘능건 쪼금 쪼금 그거또 개명해서 공무원드리 막 못쭈 잡꼬 시므라고 속 썬기구 와서 막 그 뭐 모를 뽀바 내빌구 뭐하네 항게 그거뚜 개랑뵈

21) 산파식으로 모를 심는 이앙기의 일종.

거지. 그저니는 산시기라구 산식 그라거든, 헛트러 헛트러서 심능
거여. 그냥 혼자 각자 산식 예 헛트러 그저니는 다 그냥 시며찌. 그
러다 인자 우리 한 이십 이십때 쯤 너무게 공무원드리 막 못쫓 잡꼬
시므라고 쫓차 와서 거의 해쌍게 그때는 줄 잡꼬 심게되서 공동 자
거블 그때 마니 해찌. 인자 줄 잡끼 시자카면서.

<예 못쫓 잡는 것 없고 지금은 이제 내가 살면서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모 썬서 이렇게 못쫓 잡고 심다 그것도 못쫓 잡는 것은 조금 조금
그것도 개명해서 공무원들이 막 못쫓 잡고 심으라고 속 썬이고 와서 막
그 뭐 모를 뽐아내버리고 뭐하네 하니까 그것도 개량된 것이지. 그전에는
산식이라고 산식 그러거든, 흠어 흠어서 심는 것이여 그냥 혼자 각자 산식
예 흠어 그 전에는 다 그냥 심었지. 그러다 이제 우리 한 이십 이십대 쯤
넘으니까 공무원들이 막 못쫓 잡고 심으라고 쫓아 와서 거의 해 쌍으니까
그때는 줄잡고 심게 되서 공동 작업을 그때 많이 했지. 이제 줄 잡끼 시작하
면서.>

조사자 : 아마 어르신들 세대가 그 벼뇌를 가장 마니 보신 세대일꺼
예요?

<아마 어르신들 세대가 그 변화를 가장 많이 보신 세대일거예요?>

제보자 : 마니 봤쫓 마니 봐꼬.

<많이 봤쫓 많이 봤고.>

조사자 : 산식카다가 못쫓 잡따가 이르케 나오고 인제 아프로 애드룬
지그픈 인제 그렇거 못 보니까.

<산식하다가 못쫓 잡다가 이렇게 나오고 인제 앞으로 애들은 지금
은 이 그런 거 못 보니까.>

제보자 : 논 논 농어베 대해서는 그르케 벼뇌가 업썬요. 아프로는 음
썬 왜냐면 더 이상 할 피료가 업능거지. 싸랑가마니 지금 시비마닌

십삼마년 그러는디 고기다 영구해서 머하자고 하거써. 그래서 원래 이명박 대통령때 농촌 진흥청을 읍센다구 막 한때 그래 가지구 우리가 거 데모하러 가고 그래써꺼던요. 근디 그건 참 이 농민 농어베 대해서 너무 잘 모다능거여 왜냐면, 그래도 영구는 하야 종자도 아야고 그 지능청은 진짜 한목 하거던뇨. 그룬디 쓸떼엄능거 요새 뭐 농지으냉이니 뭐 저 품질괄리위위니 그 뒤에 잔뜩 맨드러 가지고 농민들 디게 구차나게 하. 무슨 치낭경 뭐 품질 괄리한다고 뭐 와서 날마다 뭐 조사해싸코 말도 모다. 지금 농민들 드릅게 보겨요.

<논 논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는 없어 왜냐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쌀 한가마니 지금 십이만원 십삼만원 그러는데 거기다 연구해서 뭐하자고 하겠어 그래서 원래 이명박 대통령 때 농촌 진흥청을 없앤다고 막 한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 데모하러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참 이 농민 농업에 대해서 너무 잘 못 하는 거요. 왜냐하면 그래도 연구는 해야 종자도 알아야 하고 그 진흥청은 진짜 한몫하거던요. 그런데 쓸데 없는 거 요새 뭐 농지은행이니 뭐 저 품질관리위원회니 그 뒤에 잔뜩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 되게 귀찮게 해. 무슨 친환경 뭐 품질관리한다고 뭐 와서 날마다 뭐 조사해 쌓고 말도 못해 지금 농민들 더럽게 북여요.>

조사자 : 그래요 그렇게 이쓰시구뇨. 또 근데 저 그르케 하시면서 밭도 좀 하셔쫘꺼아네요 반농사?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시군요. 또 그런데 저 그렇게 하시면서 밭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밭농사?>

제보자 : 그르치 밭 논 그냥.

<그렇지 밭 논 그냥>

조사자 : 바테단 뭐 시므셔써요?

<밭에다는 뭐 심으셨어요>

제보자 : 그냥 그저니 인자 주로 담배 마니 해썩게 바튼 죄다 담배해썩.

<그냥 그전에 이제 주로 담배 많이 했으니까 받은 죄다 담배했고.>

조사자 : 딸기는 하우스에?

<딸기는 하우스에?>

제보자 : 딸기는 하우스에서 노니다 주로 하고.

<딸기는 하우스에서 논에다 주로 하고.>

조사자 : 그거 말고 또 뭐 아무래도 지베서 드실 푸성귀 하시느라고
텃바튼 좀 하셔썩꺼 아네요?

<그거 말고 또 뭐 아무래도 집에서 드실 푸성귀 하시느라고 텃밭은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보자 : 그렇건 뭐 이렇디다 요미티 아피 나와 한번 봉게 뭐 꼬추니
튀니 다 그거 이케 시머서 그냥 멍는거썩 뭐.

<그런 것은 뭐 이런 데에다요 밑에 앞에 나와 한번 보니까 뭐 꼬추니
튀니 다 그거 이렇게 심어서 그냥 먹는 거썩 뭐.>

조사자 : 그거는 인제 어르시니 하기보다는 아주머니가 하셔썩테고.

<그거는 인제 어르신이 하기 보다는 아주머니가 하셨을테고.>

제보자 : 예 식구가 마니 했썩.

<예 식구가 많이 했썩.>

조사자 : 주로 어떤 거뜰 시므셔썩어요? 그냥 시므신 거뜰 이름만 줌.

<주로 어떤 것들을 심으셨어요? 그냥 심으신 것들 이름만 줌.>

제보자 : 수짜다 모대요. 뭐 아욱 상추 썩갓 머 여기만 가바도 열까지
두 너머. 아욱써부터 뭐 썩갓 머이케 시금치 다 시머요. 머 저기 우
영도 심꼬 다 심어써 아니 머글썩 다햐. 수박또 지금 그새 중가네

수방농사 도마도 농사도 하고 별거 다 해썬요.

<숫자 다 못해요. 뭐 아욱 상추 썩갓 뭐 여기만 가 봐도 열 가지도 넘어. 아욱서부터 뭐 썩갓 뭐 이렇게 시금치 다 심어요. 머 저기 우영도 심고 다 심었어. 아니 먹을 것은 다 해. 수박도 지금 그 사이 중간에 수박 농사 도마도 농사도 하고 별 것 다 했어요.>

조사자 : 그럼 시장 장에 가서 사다 드시능게 업쥬네요.

<그럼 시장 장에 가서 사다 드시는 게 없쥬네요.>

제보자 : 별루 뭐 저 생화라는 디에서는 사 올니리 별로 업쥬. 나 머글 차뵤 수박 도마도 이렇거 오이 그렁거 인자 귀할 때는 흑씨 한 번씩 사오지만 웬마나면 주로 인제 생사내 먹쥬.

<별루 뭐 저 생활하는 곳에서는 사 올 일이 별로 없쥬. 나 먹을 참외 수박 도마도 이런 거 오이 그런 거 이제 귀할 때는 흑씨 한번 씩 사오지만 웬만하면 주로 이제 생산해서 먹고.>

조사자 : 그러시다가 인제 겨로를 하시게 되는데 아까 스물 두사레 겨로나셔따고 그러고 스물 세살 때 제금 나셔따고 그러션는데 그 겨로는 어뜨케 서늘 보셔쥬요? 어뜨케 중매를 하셔쥬요?

<그러시다가 인제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스물두 살에 결혼하셨다고 그러고 스물 세살 때 제금나셨다고 그러션는데 그 결혼은 어떻게 션을 보셨어요? 어떻게 중매를 하셨어요?>

제보자 : 중매 해따고 보야쥬, 네. 우리 그저니 여기 쪼그만 하쥬 이쥬 쥬. 고기 교장하던 부니 김용문씨라고 인는디 그부니 날 어뜨케 조 케 봤는지 그 중시를 해 준다 그래서 가서 그냥 바로 보고 그냥 바로 하게 되쥬요.

<중매 했다고 보야쥬. 네 우리 그전에 여기 쪼그만 학교 있었쥬. 거기 교장하던 분이 김용문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날 어떻게 좋게 봤는지

그 중신을 해 준다 그래서 가서 그냥 바로 보고 그냥 바로 하게 되었어요.>

조사자 : 보시니까 그르케 조으시딩가요?

<보시니까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제보자 : 아이 조코 나꼬 그냥 그저니 어른드리 겨로나라면 하고 그
라능거지 뭐.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냥 한 오십년 잘 살자나. 하하
하 부모드리 보닌보다 자식뜨를 더 생각카능거거든. 나는 그런 생
가캐요 보닌드른 내이리라 그라는디 천마네 말쓰미여 부모는 자
기 모를 희생해서 자식뜨를 위해서 하거든, 그릉게 더 철썌히 검증
하고 나 지금 생가강게 옛날 어른드리 딱 정해줘서 가능거시 더 잘
해뎡거가터 경험자드리 호호호. 이 그건 참 잘 해뎡거가태. 지금
생가캐두 그건 옛날 어른드리 참 사랑거가태.

<아이 좋고 낫고 그냥 그전에 어른들이 결혼하라면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냥 한 오십년 잘 살잖아. 하하하 부모들이
본인보다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거거든. 나는 그런 생각해요 본인들은
내 일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여 부모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식들
을 위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더 철썌히 검증하고 나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
어른들이 딱 정해줘서 가는 것이 더 잘 했던 것 같아 경험들이 호호호.
이 그건 참 잘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그건 옛날 어른들이 참 잘
한 것 같아.>

조사자 : 그 겨론 절차는 어떠케 되셔썌요? 예저네 겨로나실때.

<그 결혼 절차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전에 결혼하실 때.>

제보자 : 옛날레는 인자 구식 겨론 해썌.

<옛날에는 이제 구식 결혼 했지>

조사자 : 예 그 얘기 썌 해 주세요.

<예 그 얘기 썌 해 주세요.>

제보자 : 이 구식 겨로나고 에 겨론시근 인자 처갓집 마라자면 여자 쪽 그 마당을 빌린다 그러지. 고기가서 인자 그 구시기로 구식 지금 두 뭉 그건 또까치 하대 뭉 양쪽이 다골려 노쿠 뭉 술 따라서 이르게 돌리고 그렇거 뭉 비스다게 하더라고. 그르카면 그 칭구드리 와서 그때도 최초에 인자 그 겨론시게 칭구드리 가서 축싸 일겨주고 고 때 인자 유행이 되겨여. 그저니 축싸를 쓰면 이르게 종이를 이르게 부쳐 옛날식 저 머여 심늑찐지 요마나게 오려 조옥 오려 가지고 그럼 부쳐 가지고 퍼가면서 일꺼든 축싸를. 두루마리처럼 그르케 가지고 축싸 가서 일겨주고 추카해 주고 그때가 나 겨로날 무려빙가 그게 또 유행이 되써써요.

<에 구식 결혼하고 에 결혼식은 이제 처갓집 말하자면 여자 쪽 그 마당을 빌린다고 그러지. 거기 가서 이제 그 구식으로 구식 지금도 뭉 그건 똑같이 하대 뭉 양쪽에 닭 올려놓고 뭉 술 따라서 이렇게 돌리고 그런 거 뭉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때도 최초에 이제 그 결혼식에 친구들이 가서 축사 읽어 주고 그때 이제 유행이 된 거요. 그전에 축사를 쓰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붙여 옛날식 저 머여 심늑찐지 요만하게 오려 조옥 오려가지고 그럼 붙여가지고 퍼가면서 읽거든 축사를.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가지고 축사 가서 읽어 주고 축하해 주고 그때가 나 결혼할 무렵인가 그게 또 유행이 됐었어요.>

조사자 : 그 겨론시카러 갈 때는 뭉 옛날에는 뭉 말도 타고 그러지 아 나쭙니까?

<그 결혼식 하러 갈 때는 뭉 옛날에는 뭉 말도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보자 : 나 나는 그때 합쭙이라고 이써써. 여기는 그때 차가 안 다닐 땐디 논산 가문 마추문 그 합쭙이라는, 저 이케 지금 요기 저 쪼그

마난 차 버스 오쥬? 그 그거 비스단 합쭈이 이썬썬. 그 그거 타구 가따 와썬.

<나 니는 그 때 합승이라고 있었어. 여기는 그 때 차가 안 다닐 때인데 논산 가면 맞추면 그 합승이라는, 저 이렇게 지금 여기 저 조그마한 차 버스 오쥬? 그 그거 비슷한 합승이 있었어. 그 그거 타구 갔다 왔지.>

조사자 : 겨론시근 몇썬썬 합니까? 구식 그때는?

<결혼식은 몇시 썬 합니까? 구식 그때는?>

제보자 : 그때가 나지 해뻡거 가태요. 나지 해뻡거가태 아치미 가서 겨론시카고.

<그때가 낮에 했던 것 같아요. 낮에 했던 것 같아 아침에 가서 결혼식하고.>

조사자 : 마당에다가 차일 쳐 노코.

<마당에다가 차일 쳐 놓고.>

제보자 : 예 마당에다가 채일쳐 노코 이거 질차는 지그미랑 비스다다고 봐요. 그때두 저 위인대표라 그라거든 위인대표, 말하자면 친구드리 함도 가지고 가고 예 함도 가지고 가고 그르케 가지고 거서.

<예 마당에다가 차일 쳐 놓고 이거 질차는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때도 저 위인대표라 그러거든 위인대표, 말하자면 친구들이 함도 가지고 가고 예 함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조사자 : 함소게는 뭘 뭘 드러갑니까?

<함 속에는 뭘 뭘 들어 갑니까?>

제보자 : 옰나리 뭘 뭘 천 이거 마라자면 신부가 이블 옷까튼거 뭘 뻐물 뭘 반지 그렇거또 아파 해뻡거가타요. 그때 뭘 반지라고 하야 반지 두어 금 두어 돈짜리 하나하고 이 이브릇 두어 벌 그르케 하고

그르케 느껴 보내줄거가타요. 나는 그때도 뭐 잘 살두 모다고 항케 부모가 해 주는 대로 가져 가능정게 자세히 몰르쥬.

<옛날에 뭐 뭐 천 이거 말하자면 신부가 입을 옷 같은 것 뭐 패물 뭐 반지 그런 것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반지라고 해야 반지 두어 금 두어 돈짜리 하나하고 이 입을 옷 두어 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넣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도 뭐 잘 살지도 못하고 하니까 부모가 해 주는 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자세히 모르쥬.>

조사자 : 그때 사주도 뭐 써서 보내고 그러고.

<그때 사주도 뭐 써서 보내고 그러고.>

제보자 : 예 그저니 인자 겨론저네 사주 써서 보내고 사주 사주는 학생들 잘 알라나 몰르지만 결구젠 주소 성명이거든. 내가 아무거시가 이 저 내 주소 내 신부늘 처갓찌비 발키능거저나 사주가 그르케서 써서 보내찌. 그 사주 쓸라몬 또 글씨 잘 쓰는 사람덜한테 필적 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 형니미 인자 한문 마니 배우고 그랑케 그렁건 형니미 다 아라서 다 했찌유.

<예 그전에 이제 결혼 전에 사주 써서 보내고 사주 사주는 학생들 잘 알라나 모르지만 결국엔 주소 성명이거든. 내가 아무거시가 이 저 내 주소 내 신부늘 처갓집에 밝히는 것이잖아 사주가 그렇게 해서 써서 보냈지. 그 사주 쓰려면 또 글씨 잘 쓰는 사람덜한테 필적 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한문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님이 다 알아서 다 했지요.>

조사자 : 그러섯쨌네요. 그럼 겨론식 순서가 어떠케 되나요? 요즘 겨론시카고 순서가 좀 달라쨌텐데 뭐 실랑신부 입장 이렁건 업써쨌거 아네요?

<그러섯쨌네요. 그럼 결혼식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결혼식하고 순서가 좀 달랐을 텐데 뭐 신랑 신부 입장 이런 것은 없었을 것 아네요?>

제보자 : 예 당여니 이찌. 이 실랑이 아 나도 자세히 몰르겐네.

<예 당연히 있지. 이 신랑이 아 나도 자세히 모르겠네.>

조사자 : 하하 오십년 전 일이라.

<하하 오십년 전 일이라.>

제보자 : 예 아니 뭇 가마니를 놔 그거시 신부 인제 실랑 입짱할라면
가마닝가 뭇 세갱가 두갱가 밥꼬 너머가서 또 겨론식짱 압저니 가
면 바가지를 밥꾸 깨틀고 가라구 하더라구 대충 기억나능게 그려.
그럼 가서 새 대청에 가서 인자 이쓰믄 나중에 인자 신부 또 저쪼게
서, 이 옛나렌 신부를 양쪼게서 이 뭇여 부인드리 마라자면 찌구
나와찌. 궁게 가치 저랄때도 가치 그 부인드리 가치 실수할깜니 그
랜나 몰르겐네 그르케 저를 해썌요. 그르케 해서 하능거지.

<예 아니 뭇 가마니를 놔 그것이 신부 이제 신랑 입장하려면 가마니
인가 뭇 세 개인가 두 개인가 밟고 넘어 가서 또 결혼식장 앞전에 가면
바가지를 밟고 깨트리고 가라고 하더라구 대충 기억 나는 게 그래요. 그럼
가서 새 대청에 가서 이제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신부 또 저쪽에서, 이 옛날에
는 신부를 양쪽에서 이 뭇여 부인들이 말하자면 끼고 나왔지. 그러니까
같이 절 할 때도 같이 그 부인들이 같이 실수할까봐 그랬나 모르겠네 그렇
게 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조사자 : 그러면 뭇 겨론식 끝나고 나머는 요즘 사람드른 시논 여행
가는데 그때는 여행 그렇게 이썌나요?

<그러면 뭇 결혼식 끝나고 나머는 요즘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는데
그때는 여행 그런 것이 있었나요?>

제보자 : 여행은 업썌썌 무슨 여행이여.

<여행은 없었지요 무슨 여행이여.>

조사자 : 그럼 겨론식 끝나면 그냥 그 지베서 바로 사시능거예요?

<그럼 결혼식 끝나면 그냥 그 집에서 바로 사시는 거예요?>

제보자 : 에 나는 고기서 겨론식 끝나고 오후에 우리 지비루 와써. 우리 지비 오른 인제 신부가 차암 인제 신부 노릇 하기가 심들지. 아랜모게 안자서 따악 인제 쪽뚜리 쓰구서 아랜모기다 안쳐 노코 동네 사람들 다아 와서 구경햐. 그르기구 혼수는 뭐 해 완나 또 그렇거또 다아 막 동네 사람드리 화기나고 궁게 참 고뇨기어찌. 그날 하루가 마라자면 신부는.

<에 나는 거기서 결혼식 끝나고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왔어. 우리 집에 오면 이제 신부가 참 이제 신부노릇 하기가 힘들지. 아랫목에 앉아서 따악 인제 쪽뚜리 쓰고서 아랫목에다 앉혀 놓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해. 그렇게 하고 혼수는 뭐 해 왔나 또 그런 거 또 다 막 동네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러니까 참 곤욕이었지. 그날 하루가 말하자면 신부는.>

조사자 : 근데 보통 그러면 인제 남자드리 처갓집 가서 며칠 무그면서 뭘니까 단다그러나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처갓집 가서 며칠 묵으면서 뭘니까 단다고 그러나요?>

제보자 : 그게 인자 사밀 사미링가 사미링가 나흘 후에 좌향 좌향이 라 그러지 그 바르른 어떠케 대나 모르는디 좌향간다 그러거든. 사미링가 나흘마니 처가찌블 가게대 인자 그나른 겨론시카고 오고 사미링가 사미링가 사미릴꺼여 아파, 사밀마니 좌향가지 인자 가른 인자 그때 가른 저녁기 그냥 동네 청년드리 막 실랑단다구 와서 고생시키지 실랑 호호.

<그게 이제 삼일 삼일인가 삼일인가 나흘 후에 좌향²²⁾ 좌향이라 그러지 그 발음은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좌향간다 그러거든. 삼일인가

나흘 만에 처갓집에를 가게 돼 이제 그날은 결혼식하고 오고 삼일인가 삼일인가 삼일일꺼여 아마, 삼일 만에 좌향가지 이제 가면 이제 그때 가면 저녁에 그냥 동네 청년들이 막 신랑 단다구 와서 고생시키지 신랑 ㅎㅎ.>

조사자 : 그때 달려.보셔쎄요?

<그때 달려 보셨어요>

제보자 : 아유 심하게 달렸쥬 나는. 요 미티 사거리 야촌니 거기 식구가 와꺼든, 근디 거기마내두 여기보다 사람드리 드시지 그때마내 두 그릉게 마니 달렸찌. 막 끄시구대니며 샴이다 절두 시키구 동네 뭐 저기 인는 뭐 이쓰른 거기다 대고 막 끄시구 가서 저라고 절 시키고 막 그러더라구. 그러구서 꺼꼐로 매달고서 막 발 때리면서 사람 도둑질 해 따구 도둑놈 취그파능거지 하하.

<아유 심하게 달렸쥬 나는. 요 밑에 사거리 야촌리 거기 식구가 왔거든. 그런데 거기만 해도 여기보다 사람들이 드세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달렸지. 막 끌고 다니며 샴에다 절도 시키고 동네 뭐 저기 있는 뭐 있으면 거기다 대고 막 끌고 가서 절하고 절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서 거꾸로 매달고서 막 발 때리면서 사람 도둑질 해 갔다고 도둑놈 취급하는 거지 하하.>

조사자 : 근데 좀 어구라지 아느쎄쎄요?

<그런데 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제보자 : 뭐 어구라기는뇨. 다 또 그때는 무늬가 그렇게 또 그르케 하면서 친구를 사꺽거여 그날 그케. 인자 그 처갓찌비 가서 다른

22) 재행(再行)을 말하는 것임. 지역에 따라 풍습은 조금씩 다르나,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한 뒤 신랑과 신부는 첫날밤을 치루고 다음 날 시집으로 가는데 이것을 신행(新行)이라 함. 시집으로 온 지 삼사일 뒤에 신랑과 신부가 다시 처가를 방문하는 일을 재행(再行)이라 함.

동네 사람드라고 인제 이케 달리고 나쁜 수란잔씩 먹꺼든 처갓찌
베서 준비해서. 머그면서 인자 옛날 머 노래도 하고 막 좌담도 하
가면서 칭구를 사겨찌. 그 지금드른 저 동네 사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다능게 업써 가지고. 그때는 다 다 아라써 그냥 하룻찌너기
재밋게 노르면 그다미 오면 그냥 칭구되가지고 처갓찝 식꾸 저 칭
구들도 마니 알고 그래찌.

<뭐 억울하기는요. 다 또 그때는 문화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친구를 사권거야 그날 그렇게. 이제 그 처갓집에 가서 달리면 동네 사람들
하고 인제 이렇게 달리고 나면 술 한 잔씩 먹꺼든 처갓집에서 준비해서.
먹으면서 이제 옛날 머 노래도 하고 막 좌담도 해 가면서 친구를 사귀었지.
그 지금들은 저 동네 사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다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다다알았어 그냥 하룻 저녁에 재미있게 놀면 그 다음에 오면 그냥
친구 되가지고 처갓집 식구들 저 친구들도 많이 알고 그랬지.>

조사자 : 싱고식 가튼거네요.

<싱고식 같은 거네요.>

제보자 : 이 싱고시기여. 그 동네 싱고시기라고 생가가면 다. 다능게
그게 나쁜 뜻 아녀요. 너무 무리해서 막 실랑이 죽기도 하고 막 그
런 그릉게 잘못평거지 진짜 싱고시기여 그 참 조치유.

<예 싱고식이여. 그 동네 싱고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는 게
그게 나쁜 뜻 아녀 너무 무리해서 막 신랑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게 잘못 된 거지 진짜 싱고식이여 그 참 좋지요>

조사자 : 그럼 여기 사시면서 또 마으레 다른 분들 다라 보시기도 하
셔써요?

<그럼 여기 사시면서 또 마을에 다른 분들 달아 보시기도 하셨어
요?>

제보자 : 그르쥬 내가 마니 시마게 나는 다랴쥬. 진짜 그레 나는 조은
뜨세서 칭구를 사귀능거다 너는 여기 와서 호오되게 호늘 나보야
이 동네 칭년드리 어떤 사람드링가 알게 된다. 그레 가지고 마니
달기도 하고 했쥬.

<그렇쥬 내가 많이 심하게 나는 달았쥬 진짜 그레 나는 좋은 뜻에서
친구를 사귀는 거다 너는 여기 와서 호되게 혼을 나보아야 이 동네 칭년들
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게 된다 그레 가지고 많이 달기도 하고 했쥬.>

조사자 : 그때 그 재미로 하싱거네요 그러면.

<그때 그 재미로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제보자 : 예 재미쥬 그림 다 재미루.

<예 재미쥬 그림 다 재미로>

조사자 : 요새가트면 그레따간 뭐 싸우자고 댜빌텐데.

<요새 같으면 그랬다간 뭐 싸우자고 댜빌텐데.>

제보자 : 아이 그건 나쁜 무뇌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건 싱고식 비
스다게 하능건디 또 처갓찌비서두 당여니 이 사우가 오면 동네 사
람드라고 수란잔 이케 나누고 인사 시키능걸로 예저니는 그르케
알구 이썬썬.

<아이 그건 나쁜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건 싱고식 비슷하게
하는 건데 또 처갓집에서도 당연히 이 사우가 오면 동네 사람들하고 술
한잔 이렇게 나누고 인사 시키는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조사자 : 서로 이러케 다 어울려 사능거니까.

<서로 이렇게 다 어울려 사는 거니까.>

제보자 : 예 어울려 사능거쥬.

<예 어울려 사는 거쥬.>

조사자 : 그럼 여기 사시면서 지금 그 큰 형님두 생조내계세요?

<그럼 여기 사시면서 지금 그 큰 형님도 생존해 계세요?>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그럼 제사는 누가 모시시고.

<그럼 제사는 누가 모시시고.>

제보자 : 크녕니미 모셔유.

<큰 형님이 모셔유.>

조사자 : 그래두 그때마다 가실꺼 아니게쨌요?

<그래도 그때마다 가실 것 아니겠어요?>

제보자 : 가쥬.

<가쥬.>

조사자 : 그 제수는 어떠케 차립니까?

<그 제수는 어떻게 차립니까>

제보자 : 제수는 아무래도 인자 가까운 데라도 쪼끔 차이는 잇쥬. 어머니 아버지는 쪼끔 인자 더 신경 써서 뭐 하고, 그냥 옛날 또 우리는 사사대봉사를 하거드뇨. 근디 그 으른들 제사할 때는 그냥 그저니는 인자 한분 한분 다아 모셔서 저 뭐 제사가 열뿔 열셋 이르게 행는디, 지그믐유 요때는 딱 하루에 모시고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하라버지 할머니 네 분만 또 그래두 우때 우때 한번 모시구 그래두 다서뻘 정도는 지금두.

<제수는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데라도 쪼끔 차이는 있쥬. 어머니 아버지는 쪼끔 이제 더 신경써서 뭐 하고, 그냥 옛날 또 우리는 사사대봉사

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 제사할 때는 그냥 그전에는 이제 한 분 한 분 다 모셔서 저 뭐 제사가 열둘 열셋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요때는 딱 하루에 모시고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만 또 그래도 윗대 윗대 한번 모시고 그래도 다섯 번 정도는 지금도.>

조사자 : 거기다 명절 차리시고.

<거기다 명절 차리시고.>

제보자 : 예 명절 또 이꼬 그릉게 마나요. 지금두 지금두 마냐 그르케 마능거지. 큰지븐 이 유교로 치르는 우리집또 상당히 인자 그런 풍스블 지키는 지바니라고 해야지. 하 한문 공부를 마니 하시다 봉케 그렁겘 마니 지키시고. 우리 인자 내 동생드른 다 교회를 다니거든? 다 장노여 사촌들또 장노 내 내 바로 미티 동생도 장노. 그래도 제사 떠가튼때 불편 업써요. 그 사람드른 그 사람들대로 그냥 와서 기도하고 부모 생저니 생가가는 나링게 와서 생가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저라고 유교시기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이케 도라 가서써도 우리 지븐 그렁거 가지고 마차라거나 저녀 업써써요. 동생드른 목싸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가치 인자 이 영혼 머여 가능길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제 유교시그로 또 하고 그르케 해서 서로서로 이해항게 한번 그렁거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서로 부디쳐 본 저근 한번두 읍써요.

<예 명절 또 있고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많아 그렇게 많은 거지. 큰집은 이 유교로 치면 우리 집도 상당히 이제 그런 풍습을 지키는 집안이라고 해야지. 하 한문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지키시고. 우리 이제 내 동생들은 다 교회를 다니거든? 다 장로여 사촌들도 장로 내 내 바로 밀의 동생도 장로. 그래도 제사 때 같은 때 불편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냥 와서 기도하고 부모 생전에 생각하는 날이니까 와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절하고 유교식으로 하

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우리 집은 그런 것 가지고 마찰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동생들은 목사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이 영혼 뭐요 가는 길 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제 유교식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이해하니까 한번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서로 부딪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조사자 : 그 여기가 시고리며는 인제 이르케 뭐 명절 날되면 민속 노리가 튕겨 하고 그러시지 아니쥬까요?

<그 여기가 시골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명절날 되면 민속 놀이같은 걸 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제보자 : 예나리는 했쥬.

<옛날에는 했쥬.>

조사자 : 예나렌 언제 어떤 노리를 행는지 그런것도 쥬궁그마거든뇨.

<옛날엔 언제 어떤 놀이를 했는지 그런 것도 쥬궁금하거든요.>

제보자 : 대부분 시고레 노리라능게 에 보름 정월 보름 때 되면 윤노리, 에 또 추석때나 구정 명절 때는 풍물노리, 인자 주로 그래쥬요. 그라고 그 인자 풍물노리는 농사질 때 푸마시라고 하거든뇨 푸마시. 그 푸마시할 때 그 저 동네 풍물치는 사람 풍물치고 나머지드른 막 이라고, 그르케서 그 농아근 그른 다양하게 씨어 머져쥬. 그래서 푸마시할 때도 씨어 머꼬 명절 때 씨어 머꼬 또 이제 푸마시 그르케 해서 하믄 그때 술매기라고, 또 이 인제 농사 끝나구 나면 또 술매기 지꾸 부жат씨비서 인자 술 한통씩 두통씩 내서 인제 동네사람드라고 막 매칠씩 이제 집뺨마다 도라다니면서 놀구 그래쥬. 그런 그렇거여 그때.

<대부분 시골의 놀이라는게 에 보름 정월 보름 때 되면 율놀이, 에 또 추석 때나 구정 명절 때는 풍물놀이, 이제 주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제 풍물놀이하는 농사질 때 품앗이라고 하거든요 품앗이. 그 품앗이할 때 그 저 동네 풍물 치는 사람 풍물치고 나머지들은 막 일하고, 그렇게 해서 그 농악은 그런 다양하게 써 먹었어. 그래서 품앗이할때도 써 먹고 명절 때 써 먹고 또 이제 품앗이 그렇게 해서 하면 그때 술매기²³⁾라고, 또 이 인제 농사 끝나고 나면 또 술매기 짓고 부잣집에서 이제 술 한통씩 두통씩 내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막 며칠씩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놀구 그랬지. 그런 그런 거여 그때.>

조사자 : 요샌 그런 재미가 업쪼? 이제.

<요샌 그런 재미가 없쪼? 이제.>

제보자 : 예 재미 업쪼.

<예 재미 없쪼.>

조사자 : 풍무른 뭐머가 드러가쪼?

<풍물은 뭐 뭐가 들어 가쪼?>

제보자 : 풍무른 뭐 저 켈 췁매기 저 징 북 장구 그래요. 이게 사무리거든. 원래는 근데 그 해납 허는 사람들 이쓰면 인자 그건 쪼금 인자 고수드리 해나비라고 하거든. 인자 나팔 고거까지 하면 인자 다서 까지 가지고 하는디, 나두 그래서 장구를 마니 쳐써요. 어려서 쳐서 논산 무슨 풍물대회가서 큰 상은 못따 못빠꾸 장려상가튼건 받 끼도하고 그래써요. 나도 농아근.

<풍물은 뭐 저 제일 췁매기²⁴⁾ 저 징 북 장구 그래요 이게 사무리거든. 원래는 근데 그 해납²⁵⁾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그건 쪼금 이제 고수들이 해납이라고 하거든. 이제 나팔 그거까지 하면 이제 다섯 가지 가지고

23) 호미씻이의 지역어. 호미씻이는 음력 7월쯤에, 날을 잡아 술과 음식을 먹고 풍물을 치면서 하루를 즐기는 농가의 휴일을 말함.

24) 췁가리의 지역어.

25) 태평소의 지역어.

하는데 나도 그래서 장구를 많이 쳤어요. 어려서 쳐서 논산 무슨 풍물대회
가서 큰 상은 못 따 못 받고 장려상같은 건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도
농악은.>

조사자 : 지금도 이어지나요 이 삼전니에?

<지금도 이어지나요 이 삼전리에?>

제보자 : 예 지금 맏싸람드라고는 이게 가끔 쳐요. 뭐 행사 이쓰른 인
자 나이 머궁게 귀차녀 그거또. 그래서 아날라고 하면 막 하는 사람
업쫘게 와서 하라고 해서 가서 조금씩 해주고 그라요.

<예 지금 몇 사람들하고는 이게 가끔 쳐요. 뭐 행사 있으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귀찮아 그것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막 하는 사람 없으
니까 와서 하라고 해서 가서 조금씩 해주고 그래요>

조사자 : 다노, 옛날 어떻게 어르신 크실 때 다노는 지낸나요? 그때는?

<단오, 옛날 어떻게 어르신 크실 때 단오는 지냈나요? 그때는?>

제보자 : 다노는 가물가물란디 다노 때는 그네를 띄꺼든. 저 그 나 아
까 공부해따는 그 하거니라는디 거기 가면 소나무가 이르게 저 저
나이써썌요. 솔나무가 이르게 커 이쓰른 가쟁이가 이르게 여프로
빠든 노미 이따구 호호 그게 진짜 그네에유. 그게 거기다가 인제 옛
날 동아주리라고 이게 지블 이케 대가면서 꼬머는 동아주리 닐. 그
람 거기다가 나무 잘 타는 사라미 올라가서 동아줄로 그네를 매요.
그라면 지금 생가가면 참 그게 진짜 그네여 그네 나무가 탈리기짜
나야간 느러진 놈 그라면 막 저 그네 이케 굴러. 지금 생가가면 참
어려서 어려선디 그 우리 어려서는 그 다노날 그네를 마니 타썌유.

<단오는 가물가물한데 단오 때는 그네를 띄웠거든. 저 그 나 아까
공부했다는 그 학원이라는디 거기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저 저 나 있었어
요. 소나무가 이렇게 커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뻗은 놈이 있다고

흐흐 그게 진짜 그네예요. 그게 거기다가 인제 옛날 동아줄이라고 이게 짚을 이렇게 대 가면서 꼬면 동아줄이 돼.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올라가서 동아줄로 그네를 매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진짜 그네여 그게 나무가 탄력 있잖아 약간 늘어진 놈 그러면 막 저 그네 이렇게 굴러.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려서 어려서인데 그 우리 어려서는 그 단오날 그네를 많이 탔어요.>

조사자 : 씨름도 하시구요?

<씨름도 하시구요?>

제보자 : 예 씨름두 하고 그저니는 주로 인자 다노 저 여르미른 또래 또래찌리 으른드리 모여 노코 너히 씨르마리구 부쳐주면 또 하고, 씨르마고 그네띠고 그런 노리를 마니 했쥬.

<예 씨름도 하고 그전에는 주로 이제 단오 저 여름이면 또래또래 끼리 어른들이 모아 놓고 너희 씨름하라고 부쳐주면 또 하고, 씨름하고 그네 뛰고 그런 놀이를 많이 했쥬.>

조사자 : 요즈멘 애드리 저너 그렁길 아나니까, 네 농항기때 그러면 인제 아까 농사 지으고 나고 끈나고 술매기 하시고 그러면 대개 인제 추석 쯤 지나서겟쥬?

<요즈멘 애들이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네 농한기 때 그러면 이제 아까 농사짓고 나고 끝나고 술매기 하시고 그러면 대개 이제 추석 쯤 지나서겟쥬?>

제보자 : 아니유, 추석 저니지. 그래서 이제 엔나레 어정치럴 그러자나. 치럴따레 치럴따레 할리리 음능거야. 농사 다지꾸 수확뚜 오기 저니구. 그람 그때 이제 술매기하구 놀구 그냥 이 사람드리 그때 마니 휴시글 해찌 치럴따레. 더웁기두 하고.

<아니요, 추석 전이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정칠월 그러잖아.

칠월 달에 칠월 달에 할 일이 없는 거야. 농사 다 짓고 수확도 오기 전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술매기 하고 놀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때 많이 휴식을
했지 칠월 달에. 덩기도 하고.>

조사자 : 그럼 인제 가을에 수확 추수 다 끝나고 나면 뭐하죠? 겨우레
는?

<그럼 이제 가을에 수확 추수 다 끝나고 나면 뭐하죠? 겨우레는?>

제보자 : 그때두 나름대로 머 해똥거 가튼디유, 그때는 인자 이 이르
케 인제 머여 농기구 가튼게 마니 읍썩게 집씨기 집씨기 사며서 신
꾸. 이 저녁게 가면 매꾸리가튼거 머이찌 집끄룩가튼거 맨들구 재
미씨썩 쟁장히. 사랑뽕이라고하거든 사랑뽕이 인자 저녁 머그면
집 요만치씩 무꺼 가지고 가요. 왜 사랑뽕에 가면 그렇거 맨드능거
여 집씨기도 맹글고 새끼들 꼬고 집끄룩 매꾸리도 맨들고 그래. 내
가 그때 배운 솜씨를 농업 기술센타 거가서 최우수상 타써 헤헤헤.
그런디 내 그걸 여남게 맨드릉게 참 잘 만드러써 내 봐도 근디 아
그게 반나블 아내취 가지고 새로 맨드러야는디 맨들던 모다고

<그때도 나름대로 머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이 이렇게
인제 뭐여 농기구 같은 것이 많이 없으니까 짚새기²⁶⁾ 짚새기 삼아서 신고.
이 저녁에 가면 매꾸리²⁷⁾ 같은 것 뭐 있지 짚그릇 같은 것 만들고 재미
있었어 굉장히. 사랑방이라고 하거든 사랑방이 이제 저녁 먹으면 짚 요만
치씩 묶어 가지고 가요. 왜 사랑방에 가면 그런 것 만드는 거야 짚새기도
만들고 새끼들 꼬고 짚그릇 매꾸리도 만들고 그래. 내가 그때 배운 솜씨를
농업 기술센타 거기 가서 최우수상 탔어 헤헤헤. 그런데 내 그걸 여남은
개 만들은 것이 참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그런데 아 그게 반납을 안 해
취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도 못하고>

26) 짚신의 지역어.

27) 떡동구미의 지역어.

조사자 : 그 기술 좀 절름사람드란테 가르쳐주셔야겠네요

<그 기술 좀 젊은 사람한테 가르쳐 주셔야겠네요>

제보자 : 으 아니 저 화분 머 망태 이렇거 맨드러 가지고 논산 그 저기 농촌 지도소에 이꺼드뇨 거기 아마 아마 나 최우수상 탕거 이즐거여 에 그때 배웅거 씨어 머저씨. 그거뜨리 왜 그랜냐면 내가 경노당 여기씨. 지금 저 아라이찌만 그뻐ن 여기 이씨꺼드뇨 그때 내 경노당 총무를 봐씨요. 그래 인자 경노당에서 뭘 이르케 하면 좀 지위내 주능게 이떠라구. 그래서 인자 그그렁걸 맨드러서 출품도 하고 뭘 농사 진능거또 좀 가치 이르케 협조해서 하고 그라면 몇백마년 이르케 지위난다고 해서 그때 하느라고 그래서 상도 타고 거시기도 저 경노당 기금도 좀 맨들고 그때 그랫쥬.

<예 아니 저 화분 뭘 망태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논산 그 저기 농촌 지도소에 있거든요 거기 아마 아마 나 최우수상 탄 것 있을 거야 에 그때 배운 것 써 먹었어 그것들이 왜 그랬나하면 내가 경로여기 있어 지금 저 아래 있지만 그때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내 경로당 총무를 봤어요 그래 이제 경로당에서 뭘 이렇게 하면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그런 걸 만들어서 출품도 하고 뭘 농사 짓는 것도 좀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고 그러면 몇 백 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그때 하느라고 그래서 상도 타고 거시기도 저 경로당 기금도 좀 만들고 그때 그랫지요.>

조사자 : 이 동네 그냥 딱 뿌리내려서 사시니까 이런저런 걸 마니 하 션네요.

<이 동네 그냥 딱 뿌리내려서 사시니까 이런 저런 걸 많이 하셨네요.>

제보자 : 뭘 저 이르케 배우든 아내씨도 할께 다 해씨. 이장도 내가 삼년 삼년 한 팔개월 한나 사년 가까이 해꼬. 인제 농협 대위위니 또

추겹 대위원 사녀네다가 추겹 이사 또 사년 그르켜서 한 시버년 또 추겨베 가서 임원 활동해써꾸. 그래 인자 그 바라메 인자 추겨베 이케 활동하던 하는 바람에 인자 외국 구경도 마니가고 그래써. 머 여 유럽 팔개국 다니구 미국 호주 다 일본 다 다니구 외국뚜 마니 다녀써요 그바라메.

<뭐 저 이렇게 배우지는 안 했어도 할 것은 다 했어. 이장도 내가 삼년 삼년 한 팔 개월 했나 사년 가까이 했고. 이제 농협 대의원에 또 축협 대의원 사녀네다가 축협 이사 또 사년 그렇게 해서 한 십여 년 또 축협에 가서 임원 활동했었고. 그래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축협에 이렇게 활동하는 하는 바람에 이제 외국 구경도 많이 가고 그래써. 뭐여 유럽 팔 개국 다니고 미국 호주 다 일본 다 다니고 외국도 많이 다녔어요 그 바람에.>

조사자 : 어디가 제일 조으시던가요?

<어디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제보자 : 아유 우리나라가 켈 조치 우리나라가. 그냥 조으게 아니라 물론 머 건축가튼거 유럽 머 영구기라던지 이런디 가보면 건축가 튕건 참 놀라게 잘 저써요. 그 벼가날 해써도 차암 그 조각또 자래 노코 진짜 배울찌미 마는디, 진짜 우리나라는 그냥 성냥깍처럼 네 모 뻥뜨다게 싸아올려서 이르케 항게 참 볼푸믄 음쥬. 근디 실찌루 인제 우리나라 잘싼다능게 우리나라 한마디 무시칸 말로 따지믄 참 고자리처럼 사능거여. 그냥 바글바글 하고 인청공항이고 머 서 울시 어디가 보면 그르케 버글버글 사러두 다 밤머꼬 살자녀.

<아유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우리나라가. 그냥 좋은게 아니라 물론 뭐 건축 같은 것 유럽 뭐 영국이라던지 이런데 가보면 건축 같은건 참 놀라 게 잘 졌어요. 그 벽 하나를 했어도 참 그 조각도 잘 해 놓고 진짜 배울 점이 많은데, 진짜 우리나라는 그냥 성냥깍처럼 네모 반듯하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참 볼품은 없쥬.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잘 산다는

게 우리나라 한마디 무식한 말로 따지면 참 고자리²⁸⁾처럼 사는 거여. 그냥 바글바글 하고 인천공항이고 머 서울시 어디 가 보면 그렇게 버글버글 살아도 다 밥 먹고 살잖아.>

조사자 : 고자리요?

<고자리요?>

제보자 : 예 흐흐 예 벌레지 그거떠러 떠라 그러지 구대기보고 고자리라구 하거든. 그 이께 막 바글바글 사는디두 다 잘 살자나요. 우리나라 참 살기 존나라여.

<예 흐흐에 벌레지 그것 더러 뭐라 그러지 구더기보고 고자리라구 하거든. 그 이렇게 막 바글바글 사는 데도 다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여.>

조사자 : 고자리 처음 드러쫘니다.

<고자리 처음 들었습니다.>

제보자 : 그게 고자리라고 하면 잘 몰를꺼여. 구대기더러 고자리라고 예 구대기.

<그게 고자리라고 하면 잘 모를 거야. 구더기더러 고자리라고 예 구더기.>

조사자 : 근데 아까 사랑빵 얘기하셧는데 머 가마니도 짜고 머 이르게 하시는데 흑씨 머 투전가통거 그렇건 아나션나요? 그렇거뚜 잊찌 아나쫘까요?

<근데 아까 사랑방 얘기하셧는데 뭐 가마니도 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흑씨 뭐 투전같은 것 그런 건 안 하셧나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28) 구더기의 지역어.

제보자 : 이썬썬 그른디 인자 그 투저나고 그게 노르미라구 하죠. 잉 노르마구 그런 사람드른 또 별또어써 조금 불쌍시란 사람드리지. 그래서 논두 파라 머꼬 막 머 돼지메기던 거도 재퍼 머꼬 그런 사람드리 맏매시 이지. 근디 우리는 거기에 그르케 기피 개이블 아내 썬요.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투전하고 그게 노름이라고 하죠. 잉 노름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별도였어 조금 불성실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논도 팔아먹고 막 뭐 돼지 먹이던 것도 잡혀 먹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깊이 개입을 안 했어요.>

조사자 : 그냥 이르케 오라그로만 조금씩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오락으로만 조금씩 하셨습니까?>

제보자 : 예 그냥. 지금두 마창가지여 지금두 경로당 가면 그냥 그 돈에 구애 안 받는 그른 오라그루 지금 머 고스도비라나 그룽거 조금씩 치구 그르케 하거드뇨. 그런 오라근 지금두 계속 이어지능거여 옛날썬부터 지금까지. 노르마고 투저니는 사람드른뉴 한 동네에서 몇몇 사람드리 자기네들끼리 이르케 해 가지구 이쪽저쪽 다니면서 하구 그라더라구 사랑뽕 이런디. 그 조용한 장소 와서는 잘 아냐.

<예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경로당 가면 그냥 그 돈에 구애 안 받는 그런 오락으로 지금 뭐 고스톱이라나 그런 것 조금씩 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오락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노름하고 투전하는 사람들은요 한 동네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구 이쪽저쪽 다니면서 하고 그러더라고 사랑방 이런 데. 그 조용한 장소 와서는 잘 안 해.>

조사자 : 그러썬 다른 사람드란테 또 피해가 되니까.

<그렇썬 다른 사람들한테 또 피해가 되니까.>

제보자 :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드리 따로 이썬썬 노름꾼드리.

<예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 노름꾼들이.>

조사자 :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자카실 때 이 동네가 삼전닌테 이제 삼전니 한짜가 며 사람드리 생가카는 거랑 다르다 그런 말씀 하셔짜 나요? 이 이 근처에 그 어르신 생강나시는 옛날 이름 동네 마을 이름이나 산 이름 그렇거뜰 좀 말쓰매주세요. 옛날 지명들.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작하실 때 이 동네가 삼전리인데 이제 삼전리 한자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이 근처에 그 어르신 생강 나시는 옛날 이름 동네 마을 이름이나 산 이름 그런 것들 좀 말씀 해 주세요. 옛날 지명들.>

제보자 : 뭐 옛날 지명 뭐 특빠리 버난게 업는다.

<뭐 옛날 지명 뭐 특별히 변한 게 없는데.>

조사자 : 그니까 인제 한자로 쓰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기도 하고.

<그니까 이제 한자로 쓰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기도 하고.>

제보자 : 그른디 이걸 좀 무뇌원장하고도 그런 얘기 하고 그렇거에 대해선 무뇌원장이 갱장히 관시믄 마니 가지고 이꺼드뇨. 근디 예를 드려 이 동네가 정꿀 그라저드뇨 정꿀 그란디, 점 점꼬리냐? 마라자면 저믄 보는 점 점 마라자면 점쟁이가 마나서 점꼬리냐? 아니면 이 옹기 가통걸 이케 맨드는 마라자면 옹기점 그라자나요 옹기 점이 이썬썬 점꼬리냐? 그걸 인자 우리는 모르쥬 그냥 옛날 정꿀 그라 지그믄 그게 점꼬리여썬거 가튼디 지그믄 인자 정꿀 그래요. 정 비를 정짜 쓰나 무슨 정짜를 써 정꿀 그라 그래 정꼬리라고 하고. 요 미티 가면 인자 매찰 그라저드뇨? 응 그 인지 원래는 매차리고 미티 입꾸에 말채나무가 이썬. 그게 나 몰라떠니 저어기 공주

갑싸 갑싸 입구에 봉계 또까튼 나문디 그계 말채나무라고 표지판
니 이떠라구. 아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고모기거든요, 말채나무가
이썬서 말채울 그라지 안나 시퍼요.

<그런데 이걸 좀 문화원장하고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선
문화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동네가 정골²⁹⁾ 그러거든요 정골 그런데 점 점골이나? 말하자면 점을 보는
점 점 말하자면 점쟁이가 많아서 점골이나? 아니면 이 웅기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말하자면 웅기점 그러잖아요 웅기점이 있어서 점골이나? 그걸
이제 우리는 모르죠 그냥 옛날 정골 그래 지금은 그게 점골이었을 것 같은
데 지금은 이제 정골 그래요. 정 바를 정자 쓰나 무슨 정자를 써 정골 그래
그래 정골이라고 하고. 요 밑에 가면 이제 매찰³⁰⁾ 그러거든요? 응 그 이제
원래는 매찰이 그 밑에 입구에 말채나무가 있어. 그계 나 몰랐더니 저기
공주 갑사 갑사 입구에 보니까 똑같은 나문데 그계 말채나무어 표지판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고목이거든요, 그래서 말채나무가 있
어서 말채울 그러지 않나 싶어요.

조사자 : 말채울?

<말채울?>

제보자 : 예 근디 매찰 그라 저기도. 또 그리구 요 아네는 인자 만목
그라는데 만모근 이썬기로 도라가면 만모기라는 동네가 이썬요.
만목 그라는데 만가지 나무가 이썬서 만모긴지 요 이 절라도하고
경젠디 저가 만목째 그라거든. 궁계 여 그 만목 표지 그 만목째를
표해서 그 만모기라 그랜는지 그건 또 잘 몰르겨썬요.

<예 그런데 매찰 그래요 저기도. 또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만목³¹⁾

29) 가야곡면 홈페이지에는 점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30) 가야곡면 홈페이지에는 마차리라고 표기되어 있음.

31) 가야곡면 홈페이지에는 만목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그러는데 만목은 이쪽으로 돌아가면 만목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만목 그러는데 만 가지 나무가 있어서 만목인지 요 이 전라도하고 경계인데 거기 만목재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 그 만목 표지 그 만목재를 표해서 그 만목이라 그랬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조사자 : 예 저도 드러오다가 만모기라고 돼 이썬서 만목 만모기 먼 마렁가 그러면서 왔는데.

<예 저도 들어오다가 만목이라고 돼 있어서 만목 만목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왔는데.>

제보자 : 가끔 만모기라는 동네가 이썬유. 저 벌곡또 만모기 이꼬 요 기도 만 만모기인는데, 우리 종사니 여기가 십사정 이꺼드뇨? 거기보면 진짜 음는 푸리 업썬 음는 나무가 업꼬 차 자세히 보든 다아 이썬유. 요 우리 사네. 그래서 만가지 나무가 이따고 만모긴지도 몰르거꼬, 또 꼬트머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만모길 수도 이꺼든, 그래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재를 너머가는 만목 이라는 만모기라고 할 수도 이꼬 이꺼드뇨. 그렇건 어뜨게서 이게 나완는지는 인자 또 옛날 이르미라 잘 몰르고.

<가끔 만목이기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 벌곡에도 만목이 있고 여기도 만 만목이 있는데, 우리 종산이 여기가 십사정³²⁾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없는 풀이 없어 없는 나무가 없고 차 자세히 보면 다 있어요. 요 우리 산에. 그래서 만 가지 나무가 있다고 만목인지도 모르겠고, 또 꼬트머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만목일 수도 있거든, 그래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재를 넘어 가는 만목 이라는 만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는 이제 또 옛날 이름이라 잘 모르고.>

조사자 : 사네 그르케 나무가 마느시다구요 나무가 마능게 아니라 여

32) 14정보. 1정보는 3000평.

러가지가 이따구요?

<사네 그렇게 나무가 많으시다구요?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구요?>

제보자 : 그렇게 인제 그르지 아나두 이게 만 망가지 나무가 이따구 만모긴지도 모르거따구 그런 얘기두 내가 해써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만 만가지 나무가 있다고 만목 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내가 했었어요.>

조사자 : 그러면, 여러가지며는 그중에는 며 어르시니 이르플 아는 나무도 이썬꺼구 이름 모르능거도 이썬썬?

<그러면, 여러가지면 그중에는 뭐 어르신이 이름을 아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이름 모르는 것도 있썬썬?>

제보자 : 모르는 나무 만치유. 원래 인제 이케 바쁘게 세상 살다 봉게 이 사네 나무이름가통걸 내가 잘 몰라유. 그냥 며 혼난 나무 며 우리나라 솔 소나무 참나무 며 이렇거 며 호두나무 이렇건 대충 아는 디 그 세미라게 약초가통건 몰라 으외로. 그 고만고만 다니면서 약 초 캐고 다니고 그런 사람드리 그렁건 또 잘 알더라구.

<모르는 나무 많지요. 원래 인제 이렇게 바쁘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산에 나무이름 같은 걸 내가 잘 몰라요. 그냥 뭐 혼난 나무 뭐 우리나라 솔 소나무 참나무 뭐 이런 것 뭐 호두나무 이런 것은 대충 하는데 그 세밀하게 약초 같은 것은 몰라 으외로. 그 고만고만 다니면서 약초 캐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은 또 잘 알더라구.>

조사자 : 그러썬. 아무래도 어르시는 며 짐승에 대해선 잘 아실꺼가 꾸요 소마니 키우셔쓰니까.

<그렇썬 아무래도 어르신은 뭐 짐승에 대해선 잘 아실 것 같고요 소 많이 키우셨으니까.>

제보자 : 짐승 예 주로 소개 머 그렇거쥬.

<짐승 예 주로 소개 뭐 그런 것이죠.>

조사자 : 나무가 그러쥬. 참나무 소나무 그렇거 이제 아드니미 오셔
야 인제 새로운 나무드레 대해서 좀 더 아시젠네요.

<나무가 그렇쥬. 참나무 소나무 그런 것 이제 아드님이 오셔야 이제
새로운 나무들에 대해서 좀 더 아시겠네요.>

제보자 : 야는 인제 몰르기는 몰라도 이 체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나라에서 매째 양가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인는거 가태요. 내가
머 애들 말드꾸 살면 조치 지그믄 애들 다 컴퓨터로 다 저 전구글
이케 또 딴 세상이 이짜나요? 우리가 이케 보이는 세상하고 이 컴퓨
터에서 또 딴 세상이 이짜나요. 그 그르케 가지구 서로 또 연라가구
막 부산써도 제주도서도 막 와요. 와서 막 그 나무도 사가구 여기
와서 구경두 하구 이를 모랴, 막 어떤 때는 와서 하안시간씩 와서.

<애는 이제 모르기는 몰라도 이 체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
서 몇째 안가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애들 말
듣고 살면 좋지 지금은 애들 다 컴퓨터로 다 저 전국을 이렇게 또 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세상하고 이 컴퓨터에서 또 딴 세상이
있잖아요. 그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또 연락하고 막 부산에서도 제주도
서도 막 와요. 와서 막 그 나무도 사가고 여기 와서 구경도 하고 일을 못
해, 막 어떤 때는 와서 한 시간씩 와서.>

조사자 : 굉장히 크게 하는 모양이쥬?

<굉장히 크게 하는 모양이쥬?>

제보자 : 예 솔차니 크게 해요. 이 바티다. 그래서 그 그거또 인자 시에
서도 시에서도 우리 이 논산시 딸기 그라자나요? 논산시 체리를
한번 해 보자구 어끄저께 누가 한번 얘기까지 해써유. 그 홍보하는

그사라미 한번 만나지구 하더라고 요로케 길가에 시뭇게 체린디
그거뚜이꾸.

<예 솔참이³³⁾ 크게 해요. 이 밭에다. 그래서 그 그것도 이제 시에서
도 시에서도 우리 이 논산시 딸기 그러잖아요? 논산시 체리를 한번 해
보자고 엇그저께 누가 한번 얘기까지 했어요. 그 홍보하는 그 사람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 요렇게 길 가에 심으니까 체리인데 그것도 있고.>

조사자 : 근데 논사니 왜 딸기를 마니하게 된나요?

<그런데 논산이 왜 딸기를 많이 하게 되었나요?>

제보자 : 그때마내두 소드기 업썸게 그게 이 딸기 하믄 고소드기였지
유. 그때는 그러다 봉게 너도나도 이케 하게 되구. 처미 인자 채운
딸기 해써꺼든 채운서 채운 그 박 박머시긴가 그부니 시자개 가지
구 고소드기라 그래 가지구 인자 하기 시자개가지구 자꾸 보급대
서 그케 마니하게 대써요.

<그때만 해도 소득이 없으니까 이 딸기 하면 고소득이었지요. 그때
는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이렇게 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채운딸기 했었
거든 채운에서 채운 그 박 박모썸가 그 분이³⁴⁾ 시작해 가지고 고소득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해 가지고 자꾸 보급돼서 그렇게 많이 하게
됐어요.>

조사자 : 실제로 소드게 도우미 마니 되능거쥬?

<실제로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쥬?>

제보자 : 마니 됐쥬. 딸기가 애들 갈치고 할쥬게 다 딸기 담배 농사 저
서 애들 다 가리쳐쥬. 아까두 얘기해쥬만 그때 제 사심마넌쥬 주고

33) 상당히, 꽤의 지역어.

34) 1967년 논산시 채운면 용화리에서 처음으로 딸기 재배를 시작한 박상규씨를
말함.

레슨 가르치고 할찌게.

<많이 됐죠. 딸기가 애들 가르치고 할 적에 다 딸기 담배 농사져서 애들 다 가르쳤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제 사십 만원 씩 주고 레슨 가르치고 할 적에.>

조사자 : 머하셔씀니까? 아드니미 레슨을 딸?

<뭐 하셨습니까 아드님이 레슨을 뭘>

제보자 : 트럼펫. 에 그릉게 어뜨케 대하꼬 갈라면 레슨을 안바꼬 모 태쎸. 그때마내도 교수 새기고 갈라면 돈 주고 가능겨여.

<트럼펫. 에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교 가려면 레슨을 안 받고 못 했쎸. 그때만 해도 교수 사귀고 가려면 돈 주고 가는 것이여.>

조사자 : 트럼페시면 진짜 머 논산 대저네서는 별로 가르칠싸라미 업 썬썬텐데.

<트럼펫이면 진짜 뭐 논산 대전에서는 별로 가르칠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제보자 : 읍썬 머 머여 그릉게 우리 내 동생이 그른 마를 하더라고. 부자들 돈 돈 주체모다는 사라마고 시골썬 여기서 돈 버러서 경쟁하능건디 그게 가능하냐고 해썬썬. 그런디 가썬 그래도 우리 아드리.

<없어 뭐 뭘여 그러니까 우리 내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부자들 돈 돈 주체 못하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여기서 돈 벌어서 경쟁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고 했었어. 그런데 갔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조사자 : 이 근처에서 나는 과일드른 머 평버만 과일드리게쎸?

<이 근처에서 나는 과일들은 뭐 평범한 과일들이겠쎸?>

제보자 : 여기 과이른 주 주로 하능게 별로 업썬썬. 에 딸기 그 일부 그거또 일부지 일부. 에 복썬아도 일부 하는 사람 이꾸 그 그려유.

대충대충 크게 마니 하는 사라믄 업써요. 이 그때 한참 딸기할 때가 여기가 상당히 유명해써. 이 고냉지 딸기라고해서 당도가 높꼬 그러타고 해서 서울사람들 서울 그 상회에서 갱장이 선호해써요. 이 딸기를.

<여기 과일은 주 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에 딸기 그 일부 그것도 일부지 일부. 에 복숭아도 일부 하는 사람 있고 그 그래요. 대충대충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 그때 한참 딸기 할 때가 여기가 상당히 유명했어. 에 고냉지 딸기라고 해서 당도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 서울 그 상회에서 굉장히 선호했어요. 이 딸기를.>

조사자 : 직접 팔기도 하십니까?

<직접 팔기도 하셨습니까?>

제보자 : 아이 대부분 여기서 서울로 추라를 해찌. 그래 또 인자 오*건 그 지금 그사라미 가락동 머여 상당히 노픈 사람 대따 그러대. 그때 그 사라미 인자 여 와따가따하고 나도 서울가서 그 사람 만나고 그때 인제 내가 여기 장목반장할찌기, 나도 할께 다해바써. 담배 총대하고 딸기할 때 장목반장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그 거기서 인자 자금도 대주거든. 자금 가따가 동네 사람들 나나주고 미리 가따가 자금가따가 농사져서 또 딸기 파러 가서 띠구 그런시기여. 상회에서 대취써. 연초도 담배도 전매청이서 다 대주고 가으레 가서 이 수매하먼 거기서 띠구 그르케 해써요.

<아이 대부분 여기서 서울로 출하를 했지. 그래 또 이제 오*건 그 지금 그 사람이 가락동 뭐여 상당히 높은 사람 되었다 그러대.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여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서울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그때 이제 내가 여기 작목반장할 적에, 나도 할 것은 다해 봤어. 담배 총대하고 딸기 할 때 작목반장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그 거기서 이제 자금도 대 주거든. 자금 갖다가 동네사람들 나누어 주고 미리 갖다가 자금 갖다가 농사져

서 또 딸기 팔아가서 떼고 그런 식이여. 상회에서 대 줬어. 연초도 담배도 전매청에서 다 대주고 가을에 가서 이 수매하면 거기서 떼고 그렇게 했어요.>

조사자 : 어르신도 공부를 좀 마니 하셔쓰면 굉장이 크게 사셔쓸텐데.

<어르신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굉장이 크게 사셨을텐데.>

제보자 : 아유 나는 후회 아내유. 나는 그때 강상나와쓰믄 강중 나오고 강상 나와쓰믄 자아래서 지금까지 성공해따고 하면 머 으냉대리나 머 그렇거지 하다가 그만 뒤꺼찌. 근디 우리 사초니 나보다 한살 더 머근 사초니 에 그때 이년 선배여 나보다 그른디 강상 나오고 다 해써. 그래서 그때 살리마능거 그거 머라 그러나 공무원 교육 교육공무원으로 그거떠러 머야 그거뜰 사무보는, 선생 아니고 서무 서무짜 드러가서 평생이 저기 사무관까지 대구 정년퇴지글 해써. 그담 내 이년 선배지 공계 근디 그때는 참 퍼나게 사라찌 나는 퇴지게 이라구. 성은 그래도 공무원니 깨끄다게 살구 그랜는디 지금 봉계 나만 모다 하하. 여러가지가 나만 모다. 애들두 나는 어찌 뜬 애들 니쫓에 두른 대하건 나오고 그래두 다 가르칠만치 가르첸는데 애들두 나만치 못 가르치구 경제저그루두 나만 모다. 그래 나는 이 못빼웅거 그르케 후회는 아내요. 그러구 또 사회생활르루두 해 볼꺼 다 해봐써. 뭐 이거 저거 추겍이 논산 추겨비요 상당히 큰 사업짱예요 거가 이.

<아유 나는 후회 안해요. 나는 그때 강상³⁵⁾ 나왔으면 강중³⁶⁾ 나오고 강상 나왔으면 잘 해서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하면 저 은행 대리나 뤄

35) 강경상업고등학교.

36) 강경중학교.

그런 거지 하다가 그만 두었겠지. 그런데 우리 사촌이 나보다 한살 더 먹은 사촌이 에 그때 이년 선배여 나보다 그런데 강상 나오고 다 했어. 그래서 그때 살림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나 공무원 교육 교육공무원으로 그것 보고 뭐야 그것들 사무 보는, 선생 아니고 서무 서무과로 들어가서 평생이 저기 사무관까지 되고 정년퇴직을 했어. 그 다음에 내 이년 선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편하게 살았지 나는 되게 일하고 형은 그래도 공무원이 깨끗하게 살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나만 못 해 하하. 여러가지가 나만 못 해. 애들도 그냥 어쩔든 애들 넷 중에 둘은 대학원 나오고 그래도 다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 애들도 나만큼 못 가르치고 경제적으로도 나만 못 해. 그래 나는 이 못 배운 것 그렇게 후회는 안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으로도 해 볼 것 다해 봤어. 뭐 이거 저거 축협이 논산 축협이요 상당히 큰 사업장예요 거기가 이.>

조사자 : 추쵸 조합짱이 이*봉썩가요?

<축협 조합짱이 이*봉썩인가요?>

제보자 : 이*봉 조합짱이구 예 그때 내가 거기서 이사도 한 삼년 해썩게 다 할썩 다 해봐썩요 그래두.

<이*봉 조합짱이고 예 그때 내가 거기서 이사도 한 삼년 했으니까 다 할 썩은 다 해 봤어요 그래도.>

조사자 : 그니까 인제 고향 지키고 계시니까 그러케 예 참 대다나세요. 이러케 어르신처럼 한 이마으레도 이러케 칠십 평생 마을 지키고 사시는 분드리 썩 여럿 계싱가요?

<그니까 이제 고향 지키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어르신처럼 한 이 마을에도 이렇게 칠십 평생 마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썩 여럿 계싱가요?>

제보자 : 이마 여기 산다고 하면 맷싸람 음썩요. 다 나가따 오고 객썩 썩화라고 오거나 지금 요기 나하고 가치 나보다 한살 더 머근 윤*

붕이란 사라미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가치 살고 이꼬. 우리 인제 선배덜 선배들도 한둘 별로 업써요. 객지서 와꺼나 나가따 와꺼나 그러치 쫓오카니 이르게 이 평생을 사른 사람 만치는 아내요.

<아마 여기 산다고 하면 몇 사람 없어요. 다나갔다오고 객지 생활 하고 오거나 지금 여기 나하고 같이 나보다 한살 더 먹은 윤*붕이란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고. 우리 인제 선배들 선배들도 한둘 별로 없어요. 객지에서 왔거나 나갔다 왔거나 그렇지 주욱 이렇게 이 평생을 살은 사람 많지는 않아요.>

조사자 : 혹시 뭐 중간에 타지로 나가서 대처가서 살고 시픈 마으른 업스셔써요?

<혹시 뭐 중간에 타지로 나가서 대처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제보자 : 왜요 그건 아주 강렬해췌췌. 이 이지비루 이사올 때 저기서 딱 십년만 살고 나간다고 와췌. 근디 어뜨케 십년늘 이케 살다 봉게 자리를 잡게 되췌. 그냥 여따 땅도 사고 며하고 애들도 나름대로 그냥 뒷빠라지 해 주고 시릉게 그런대루 그냥 그러다 봉게 인자 여기 사너봐 되가지고 도로 포장도 되고, 도로포장뵈게 인자 나도 자가용도 타게 되고 그렇게 불퍼는 음꾸. 지그문 아 여가 참 조쿠나 논사니 며 저녀기 빵 먹꼬 시프면 가서 십뿌니면 사가지고 오는 노무거 뭐 내가 복자반 도시가서 천만 그를 쥐도 난 도시가서 못싼 다구 생가가는디 뭐.

<왜요 그건 아주 강렬했었췌. 이 이집으로 이사 올 때 저기서 딱 십년만 살고 나간다고 왔어. 그런데 어떻게 십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뵈어. 그냥 여기다 땅도 사고 뭐하고 애들도 나름대로 그냥 뒷바라지 해주고 살으니까 그런대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산업화 돼가지고 도로 포장도 되고, 도로포장 되니까 이제 나도 자가용도 타게

되고 그러니까 불편은 없고. 지금은 아여기가 참 좋구나 논산이 뭐 저녁에 빵 먹고 싶으면 가서 십 분이면 사가지고 오는 놈의 것 뭐 내가 복잡한 도시에 가서 천만금을 줘도 난 도시에 가서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뭐.>

조사자 : 저도 여기 붕어찜 먹으러 요 아프로 마니 다년는데.

<저도 여기 붕어찜 먹으러 요 앞으로 많이 다녔는데.>

제보자 : 예 그렇게 뭐 쪼끔 하다 이쪽 며느리나 아들보고, 야 오늘 바바기도 어설피고 항게 가서 외시카자야. 그러면 그냥 차타고 우루라니 가서 밥도 사 머꾸 오고 나름대로 그냥 사는 지여그루는 진짜 어디 부러웁지 아나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하다 이쪽 며느리나 아들보고, 야 오늘 밥 하기도 어설피고 하니까 가서 외식하자. 그러면 그냥 차타고 우루라니³⁷⁾ 가서 밥도 사먹고 오고 나름대로 그냥 사는 지역으로는 진짜 어디 부러웁지 아나요.>

조사자 : 여기가 가야공며닝가요?

<여기가 가야곡면인가요>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그 가야고근 왜 가야고기라고 하나요?

<그 가야곡은 왜 가야곡이라고 하나요?>

제보자 : 그렇게 이 가야고기라는 지명이 더러 이떠라고요. 그랜는데 이게 뭐 어트게서 가야고긴가는 몰르겨써 나도.

<그러니까 이 가야곡이라는 지명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랜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가야곡인가는 모르겠어 나도.>

37) 우루루의 지역어.

조사자 : 유기오때도 그냥 여기 계셔쎄요?
<육이오 때도 그냥 여기 계셨어요?>

제보자 : 그럼뉴.
<그럼요.>

조사자 : 그때는 뭐 여기 피해가등건 업쓰션나요?
<그때는 뭐 여기 피해같은 건 없으셨나요?>

제보자 : 피해 마냈쎄. 요기 이 이게 옥녀봉이고 저쪽이 까치봉인데, 그때 일 저기 이 이북사람드리 저기서 요기 뭐여 지리사네서 지리 사네서 본부를 노코 이르게 계속 이리 와서 전투를 해쎄요. 요 옥녀 봉 까치봉에서 날마다 인민군드리 와서 동네사람들보고 바배 달 라고 와서 바배 주고 참 그래꺼드뇨. 그때 계속 여서 전투해찌. 나 보다 한 삼년 선배드른 다 유공자대쎄 그때 전투한 기로기 이쎄서. 나보다 사년선배까지는. 그때 요기서 전투하는디 근무스고 해따 고 해서 다 유공자돼찌 그분들.

<피해 많았쎄. 요기 이 이게 옥녀봉이고 저쪽이 까치봉인데, 그때 일 저기 이 이북사람들이 저기서 여기 뭐여 지리산에서 지리산에서 본부 를 두고 이렇게 계속 이리 와서 전투를 했어요. 요 옥녀봉 까치봉에서 날마 다 인민군들이 와서 동네사람들보고 밥 해 달라고 와서 밥 해 주고 참 그랬 거든요. 그때 계속 여기서 전투했지 나보다 한 삼년 선배들은 다 유공자 됐어. 그때 전투한 기록이 있어서. 나보다 사년선배까지는 그때 여기서 전투하는데 근무서고 했다고 해서 다 유공자 됐지 그분들.>

조사자 : 그럼 어르시는 그때 구니는 앙가셔꼬요?
<그럼 어르신은 그때 군인은 안 가셨고요?>

제보자 : 예 구닌도 앙가고 그게 유공자되는 바라메 그분들 요새 한

삼십마년씩 나와요. 그분덜 괜차냐. 요새 노인들 노령연금 나오지 그놈 나오지 국민 영금 나오지 그게 머 맏쌈마년씩 타더라고 그래 나는 거기서도 빠져찌.

<예 군인도 안가고 그게 유공자 되는 바람에 그분들 요새 한 삼십만 원씩 나와요. 그분들 괜찮아. 요새 노인들 노령연금 나오지 그놈 나오지 국민연금 나오지 그게 뭐 몇 십만원씩 타더라고 그래 나는 거기서도 빠져지.>

조사자 : 뭐 이러케 재산니 마느시니까 하하.

<뭐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니까 하하.>

제보자 : 그냥 뭐 사능건 살쥬.

<그냥 뭐 사는 건 살쥬.>

조사자 : 이걸 저기 아주머니께 여쭙봐야 되능건데 옷가튼 옷 오의 종류 뭐 이렇건 잘 모르시자나요? 치마저고리 이렇건?

<이건 저기 아주머니께 여쭙봐야 되는 건데 옷 같은 옷 옷의 종류 뭐 이런 건 잘 모르시자나요? 치마저고리 이런 건?>

제보자 : 우리 시꾸한테 제일 처빠니 겨로나고 제일 처미 내가 저 감장가 멀 파라가지고 사다준 오신디 다구다라고 해평거가태요 다구다. 그게 머 시꾸가 알라나. 그때 유행해써써. 그 그 오슬 한번 내가 사준 저기 이꺼든 유행이어써써. 그게 지그미루 하자면 먼 오싱가 지금드른 오토 뭐 모냥도 안 내고 아무캐나 막 여기 아가씨들 또 여기 머여 그냥 바지만 입꾸 살자녀? 엔나렌 다 치매 저고리 그르케 이블땡게 여자드리 욱쌌 내찌. 조으놋 이캐 나오면. 별루 뭐 나한테 크게 이케 조 저 챙내는디 도움되는 마른 업쓸꺼여.

<우리 식구한테 제일 첫 번에 결혼하고 제일 처음에 내가 저 감자인 가뭇 팔아가지고 사다 준 옷인데 다우다³⁸⁾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우다

그게 뭐 식구가 알려나 그때 유행했었어. 그 그 옷을 한번 내가 사준 적이 있거든 유행이었었어. 그게 지금으로 하자면 무슨 옷인가 지금들은 옷도 뭐 모양도 안내고 아무렇게나 막 여기 아가씨들도 여기 뭐여 그냥 바지만 입고 살잖아? 옛날엔 다 치마저고리 그렇게 입을 때니까 여자들이 욕심냈지. 좋은 옷 이렇게 나오면. 별루 뭐 나한테 크게 이렇게 조저 책 내는데 도움되는 말은 없을 거요.>

조사자 :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마니 나와씀니다. 지금 하하 그 아까 그게 제일 재미써씀니다. 그 집 짓는 이야기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셔도 되구요, 그때 도구드른 어떤 도구를 썸는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하 그 아까 그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집 짓는 이야기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셔도 되구요, 그때 도구들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제보자 : 도구는 그때도 저 나 목쭈일 이랄때도 다 일본말로 써써요. 이게 월래는 이 저 대패라구하자나요? 그거뚜 일본마릴꺼고 예 그리구 저 그머여 톱 톱 이짜나 톱도 그 뭐 도스끼 며 이 각자 줄인 는 이 목수는 격자가 격자가 인자 생명이거드뇨. 이 구십또도 보고 마라자면 치수도 보고 다 그라능건디 그렇게 다 거이 일본말로 써 써요.

<도구는 그때도 저 나 목수 일할 때도 다 일본말로 썼어요. 이게 원래는 이 저 대패라고 하자나요? 그것도 일본말일거고 예 그리고 저 그 뭐여 톱 톱 있잖아 톱도 그 뭐 도스끼 뭐 이 각자 줄 있는 이 목수는 격자가 격자가 이제 생명이거드뇨. 이 구십도도 보고 말하자면 치수도 보고 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다 거의 일본말로 썼어요.>

조사자 : 그때는 다 기술자드리 일본말만 써쥬.

38) 다우다를 말하는 듯함.

<그때는 다 기술자들이 일본말만 써쫌.>

제보자 : 예 인자 연장은 트키 연장은 사러 가면 연장파는 가게에서 두 그르케 얘기를 해쫌요. 다 일본말로 또 그대로 사서 쫌게 또 그 마리 이어지고 그러지.

<예 이제 연장은 특히 연장은 사러 가면 연장 파는 가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일본말로 또 그대로 사서 쓰니까 또 그 말이 이어지고 그러지.>

조사자 : 지금 농기구 며 호미나 낫가튼거뚜 지금 여저니 쓰시자나 요? 그렇거는 만드러쫌세요?

<지금 농기구 뭐 호미나 낫 같은 것도 지금 여전히 쓰시자나요? 그런 거는 만들어 쫌세요?>

제보자 : 아이 다 사서 쫌쫌.

<아이 다 사서 쫌쫌.>

조사자 : 어디 가서 사세요?

<어디 가서 사세요?>

제보자 : 그저니 우리 어려선 인자 대정까니 이쫌쫌. 대정까네서 하다가 나중에 인자 공장에서 나오는 나시 인자 어느 정도 공계 막 시장에 내놓게 사다 쫌고 그래쫌. 그저니는 대정까네서 다 배린다 그라지 배려 허허 배려다가 쫌고 그래쫌.

<그전에 우리 어려서는 이제 대장간이 있었지. 대장간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낫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시장에 나오니까 사다 쫌고 그랬지. 그전에는 대장간에서 다 배린다 그러지 버려 허허 버려다가 쫌고 그랬지.>

조사자 : 지그른 연산장에?

<지금은 연산장에?>

제보자 : 예 연산장에 이썬요. 그래서 그전 쓰던 생가개서 가끔 거기 사와요. 우리도 호미도 사오고 수시 소시랑도 사오고.

<예 연산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전 쓰던 생각해서 가끔 거기 가서 사와요. 우리도 호미도 사오고 수시 쇠스랑도 사오고.>

조사자 : 저도 거기 가본저기 이썬니다.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보자 : 고기 가끔 가요 우리도.

<거기 가끔 가요 우리도.>

조사자 : 이 근처에 절드리 인나요? 이 근처에 머 이러케 무놌저그로 역싸저그로 가볼마난데가 어디 이썬까요?

<이 근처에 절들이 인나요? 이 근처에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 볼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보자 : 여기 머 무놌저그로는 크게 업썬거여. 무놌저그로는 업꼬 여기서 제에일 오래땡게 저기 타비라능게 이썬 탑. 그저니 인자 전 설로 얘기하면 그 타비 상당히 커요. 그니 그게 탑 둘레가 그 귀몽 나무 이썬 정자나무라 그라지 정자나무가 빈자리라. 그걸 비고 그 동네 그 장정드리 여러시 주거때요. 그래서 거기다가 타블 싸서 공을 드려라 그래서 그 타블 해 놔때 거기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뭐 문화적으로는 크게 없을 거요. 문화적으로는 없고 여기서 제일 오래 된 것이 저기 탑이라는 게 있어 탑. 그전에 이제 전설로 얘기하면 그 탑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 그게 탑 둘레가 그 귀목나무 있지 정자나무라고 그러지 정자나무가 베어진 자리라. 그걸 베고 그 동네 그 장정들이 여럿이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탑을 쌓아서 공을 드려라 그래서 그 탑을 해 놓았대 거기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사자 : 어디깁니까?

<어디 깁니까?>

제보자 : 여기서 이리케 도라 가면 저쪼기 쪼금 가면 이썬요. 예 타비 이썬요. 그게 아마 전설로는 가장 이 귀항걸꺼여 엔나레 머 그런 유명항건 음썬.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저 쪽에 쪼금 가면 있어요. 예 탑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전설로는 가장 이 귀한 걸꺼요 옛날에 뭐 그런 유명한 건 없어.>

조사자 : 그 전설 타베 대한 전설 또 뭐 이 마으레 저내지는 옛날 얘기는 업썬니까?

<그 전설 탑에 대한 전설 또 뭐 이 마을에 전해지는 옛날 얘기는 없썬니까?>

제보자 : 엔나레 저내지는 얘기 어뜨게 다 기어기 잘 안 나네 하하. 자랑이라고 하면 할껀 이썬요. 왜냐믄 이동네가 이르케 아주 산꼬리 쪼 논산시에서두 벌곡 빼 노코는 여가 두번째로 산꼬린디 인무른 안 떠러져 이 동네가 인무른 머 물론 무뇌원장도 이찌만 여기서 구 췌의워니 여러 명이 떠러져찌만 나온 사라미 이썬. 서주식씨라는 부니 구 췌의워늘 나가썬썬. 지금 서성 크나부지 서성 부장판사여 떤 서성 크나부지 인자 서성도 부장판사대꼬, 고 미티 경찰썬장장 이 그 그분 이르미 유강서니 형인디 경찰썬장도 이썬꼬. 또 유재여비 자그나버지가 국회의워늘 나가썬썬 유흥선썬이라고 그부니 인자 논 사늬썬 머 연무음썬 연산면장 이르케 하고. 또 하튼 여기가 이상하게 옛날부터 이 동네 지킬만한 부니 안 떠러지고 이썬요. 그래 지그 른 재여비가 무뇌원장으로 그냥 선비 중에 선비지. 무뇌원장은. 그

걸로 지금 시의원 두버나고 그케 지키고 이써.

<옛날에 전해지는 얘기 어떻게 다 기억이 잘 안나네 하하. 자랑이라고 하면 할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이렇게 아주 산골이죠 논산시에서도 벌곡 빼놓고는 여기가 두번째로 산골인데 인물은 안 떨어져 이 동네가 인물은 뭐 물론 문화원장도 있지만 여기서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 떨어졌지만 나온 사람이 있어. 서주식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나갔었어 지금 서성 큰 아버지 서성 부장판사였던 서성 큰 아버지 이제 서성도 부장판사 되었고 고 밑에 경찰서장이 그 그분 이름이 유강선이 형인데 경찰서장도 있었고. 또 류제협이 작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나갔었어 류흥선씨라고 그분이 이제 논산읍장 뭐 연무읍장 연산면장 이렇게 하고. 또 하여튼 여기가 이상하게 옛날부터 이 동네 지킬만한 분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제협이가 문화원장으로 그냥 선비 중에 선비지. 문화원장은. 그걸로 지금 시의원 두 번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

조사자 : 무좌원장도 이 동녕가요?

<문화원장도 이 동네인가요?>

제보자 : 예 요 바로 여폐 미테.

<예 요 바로 옆에 밑에.>

조사자 : 지금도 거기 사시나요?

<지금도 거기 사시나요?>

제보자 : 예 거기. 그리고 하튼 이방에 마니 와써 흐흐 담배 필찌기 두리 담배 피가며 옛날 얘기하고. 그저니는 머 이 경제 그 증시글 위해서 인제 쌀계라능게 이써써. 마라자면 농촌 으냉이지. 서로 이 쌀 매까마씩 내서 쌀계 이사람 타서 목똥 맨들고 저사람 타 주구 목똥 맨들고 그렇거또 하고, 그 그렇거 해서 논도 사고 그래쥬 그때.

<예 거기. 그리고 하여튼 이 방에 많이 왔어 흐흐 담배 필 적에 들어

담배 피가면서 옛날 얘기하고. 그 전에는 뭐 이 경제 그 증식을 위해서 이제 쌀계라는 것이 있었어. 말하자면 농촌 은행이지. 서로 이 쌀 몇 가마 싹 내서 쌀계 이사람 타서 목돈 만들고 저사람 타 주고 목돈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그 그런 것 해서 논도 사고 그랬죠 그때.>

조사자 : 그럼 이 동네 얘기는 머 무늬원장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럼 이 동네 얘기는 뭐 문화원장이 더 잘 아시겠네요?>

제보자 : 아유 훨씬 자랄쥬. 거긴 전문강계. 다 파고 들고 이사람 저사람만티 무러보고 여러 가지가 나보다 자랄쥬. 전무느로 그렇길 항계.

<아유 훨씬 잘 알쥬. 거긴 전문가니까. 다 파고 들고 이 사람 저사람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가 나보다 잘 알쥬. 전문으로 그런 것을 하니까.>

조사자 :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목쭈 오래 하셔쓰니까 목쭈얘기 마니드르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목수 오래 하셨으니까 목수얘기 많이 드르시라고.>

제보자 : 예 목쭈는 오래 해쥬요.

<예 목수는 오래 했어요.>

조사자 : 딸기는 어떻거뜰 주로 품종이 여러 가지쥬?

<딸기는 어떤 것들 주로 품종이 여러 가지쥬?>

제보자 : 예 그때는 우리 주로 할 때는 운천딸기라고, 그 운천딸기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이찌. 운천딸기를 일본써 처어미 그 옌나렌 재래종은 이맨씨가게 인자 울타리 미티서 이르케 키우다가 운천딸기가 이르케 막 과일처럼 이케 한거슬 가져옴거여. 궁계

그 사라미 혼자 독시글 하고 시퍼서 자꾸 혼자 마라자면 재미를 본 거여. 사뭇 공개 이우지 이장인가 누가 이러케 쳐다 봉게 아유 혼자 재미만 보거든 공개 한포기를 훔쳐다가 자기가 막 보그블 해서 지그미루 마라자면 인터네시 막 올려 버려써. 그래서 그 사라민 자기 바드시 그냥 자기만 재미 받는다 이 사라민 부자가 대따구 하드라고. 그래서 그 운천딸기가 그르케서 전국저기로 퍼지게 땡거여. 그 때 참 재미 바짜. 그래서 인자 논사니 딸기 고장이 그때 되쓸꺼여. 운천딸기 방머시 그 사라미 아유 그 사람 이르플 이저 버련네 그부니 인자 처미 시자개서 해꼬. 공개 크게 해야다 지그민 자기만 잘쌀라고 하면 규모가 자거 그건 여러시 잘쌀고 해야지.

<예 그때는 우리 주로 할 때는 운천딸기라고, 그 운천딸기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있지. 운천딸기를 일본에서 처음에 그 옛날에는 재래종은 이만큼씩 하게 이제 울타리 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운천딸기가 이렇게 막 과일처럼 이렇게 한 것을 가져 온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독식을 하고 싶어서 자꾸 혼자 말하자면 재미를 본거야. 사뭇 그러니까 이웃의 이장인가 누가 이렇게 쳐다 보니까 아유 혼자 재미만 보거든 그러니까 한 포기를 훔쳐다가 자기가 막 보급을 해서 지음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에 막 올려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빠듯하게 그냥 자기만 재미 봤는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운천딸기가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야. 그때 참 재미 봤지. 그래서 이제 논산이 딸기 고장이 그때 되었을 거야. 운천딸기 박모씨 그 사람이 아유 그 사람 이름을 잊어 버렸네 그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했고. 그러니까 크게 해야 돼 지금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면 규모가 작아 그건 여럿이 잘 살고 해야지.>

조사자 : 이 마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 절라도하고 경젼니까?

<이 마을이 조금 더 내려가면 전라도하고 경계입니까?>

제보자 : 절라도 경계여 만목재라고.

<전라도 경계여 만목재라고.>

조사자 : 그래도 월래두 여기 그래두 예저네도 여기가 충청도연나요?

<그래도 원래도 여기 그래도 예전에도 여기가 충청도였나요?>

제보자 : 아유 그럼뉴. 여기는 본토 저 여기는 본토여. 금사는 절라도
여따가 충청도대고 또 연무대 가면 황하정니라고 이꺼든? 거기도
절라도여따가 충청도대꼬 근디 여기는 애초부터 구자고기여 구자
곡 요 저 연무대 우리가 구자곡 궁민하꼬 조립패꾸 그러다가 인제
가야공며느루 제금낭거여 마라자면 구자고게서.

<아유 그럼요. 여기는 본토 저 여기는 본토야. 금산은 전라도였다
가 충청도 되고 또 연무대 가면 황화정리라고 있거든? 거기도 전라도였다
가 충청도 됐고 그런데 여기는 애초부터 구자곡이여 구자곡 요 저 연무대
우리가 구자곡 국민학교 졸업했고 그러다가 인제 가야곡면으로 제금낭
거여 말하자면 구자곡에서.>

조사자 : 제금나따라는 말 아나?

<제금났다라는 말 아나?>

제보자 : 분가하능거 분가하능거 보고 제금나따 그러지.

<분가하는 것 분가하는 것 보고 제금났다 그러지.>

조사자 : 그니까 부모 자시기 부모랑가치 살다가 자시기 커서 겨로늘
하면 이제 겨로내쓰니까 나가서 사라라 그게 분가자나 그게 제금
난다라고, 제그미라능게 어떠케 생긴마린진 모르젠는데 제금난
다라능게.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부모랑 같이 살다가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가서 살아라 그게 분기잖아 그게 제금난다라

고, 제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금난다라는 것이.>

제보자 : 인자 궁무나글 제대로 영구하고 하믄 어뜨게서 내놓거까지 알쭈도 이쭈라나 모르지만 이룬 총청도 사투리라고 보알라나 그렇게.

<이제 국문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것까지 알 수도 있으려나 모르지만 이런 총청도 사투리라고 보아야 하려나 그러니까.>

조사자 : 그 지명 서화 옛날 얘기가튼게 재민는데 기어기 잘.

<그 지명 설화 옛날 얘기 같은 것이 재미 있는데 기억이 잘.>

제보자 : 예 인자 마니또 크게 관시믈 앙가지구 살고 그래서 떠 아까 얘기한 건 이동네 이르믄 대부분 그려 그 유재 떠여 무뇌원장 사는 덴 배추간 그러거든? 배추간 근디 어뜨게서 배추간인지 그거또 또 이 해다비 잘 안 나와. 무뇌원장하고두 얘기 해 봐두 그거뚜 자란 나오고 또 요 미티 유카니 근디 어뜨게서 유카닝가 몰르거꾸.

<예 이제 많이 또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살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건 이 동네 이름은 대부분 그려 그 유재 뭐여 문화원장 사는 덴 배추간³⁹⁾ 그러거든? 배추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추간인지 그것도 또 이 해답이 잘 안 나와. 문화원장하고도 얘기 해 봐도 그것도 잘 안 나오고 또 요 밑에 육한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육한리인가 모르겠고>

조사자 : 유카니요?

<유카니요?>

제보자 : 예 유카니여 유칸 유칸.

39) 가야곡면 홈페이지에는 배추가니로 표기됨.

<에 육한이여 육한>

조사자 : 시고레 가보면 잘 모르는 말도 참 많습니다. 또 그게 진짜로 머가 이러케 되따 그래도 그게 만는지 안 만는지도 잘 모르게꾸요. 논사니 왜 논사닌지두 지금 뭐.

<시골에 가보면 잘 모르는 말도 참 많습니다. 또 그게 진짜로 뭐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논산이 왜 논산인지도 지금 뭐.>

제보자 : 논사네 대한 설도 참 여러가지 이쥬. 무늬원장도 그거 때때 뭐 여러가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렇거로 아는데. 뽀옌나레는 인제 놀뽀 그래꺼든 놀뽀장 간다고 해썬 근디 논사니 놀뽀 왜 놀뽀고 뽀 그렇거뽀 모르거썬요 잘.

<논산에 대한 설도 참 여러 가지 있쥬. 문화원장도 그뽀 때문에 뽀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뽀 옛날에는 이제 놀뽀 그랬거든 놀뽀장 간다고 해뽀 그런데 논산이 놀뽀 왜 놀뽀고 뽀 그런 것뽀 모르겠어요 잘.>

조사자 : 논산 가지고는 무늬원장하고 저하고도 뽀 계속 가치 얘기하고 가치 공부하고 인제 어지가니 인제 다뽀 나와 인는데 네 그러케 마니 하고 이쥬. 피고나지 아뽀세요?

<논산 가지고는 문화원장하고 저하고도 뽀 계속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어지간히 이제 답은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쥬. 피곤하지 아뽀세요?>

제보자 : 아니 나는 이바라뽀 참 쉬기두 하네. 트랙타 노니다 뽀두고 지금 이라다가 완는데.

<아니 나는 이 바람에 참 쉬기도 하네. 트랙타 논에다 뽀두고 지금 일하다가 왔는데.>

조사자 : 이제 지금 모내기는 다 하신거죠?

<이제 지금 모내기는 다 하신 거죠?>

제보자 : 아니 모내기는 인자 일찍 시뭇건 다 해꼬, 아까 얘기하드시
하직감자 캐고 또 양파 캐고 그렇거 인자 후자그로 또 심꼬. 월래는
마늘까지 다 해서 모심꼬 나야 끝나능거지.

<아니 모내기는 이제 일찍 심은 것은 다 했고 , 아까 얘기하듯이
하지감자캐고 또 양파캐고 그런 것 이제 후작으로 심고. 원래는 마늘까지
다 해서 모 심고 나야 끝나는 것이지.>

조사자 : 감자 캔 자리에다가.

<감자 캔 자리에다가.>

제보자 : 예 모 심꼬 양파도 캐고 심꼬.

<예 모 심고 양파도 캐고 심고.>

조사자 : 그거 계속 그러케하면 땅 시미 사라 남나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땅 힘이 살아 남나요?>

제보자 : 오히려 더 조치요. 그거 심기 위해서 거름 마니 하고 또 시뭇
게 배가 잘다.

<오히려 더 좋지요. 그거 심기 위해서 거름 많이 하고 또 심으니까
벼가 잘 돼.>

조사자 : 요새는 그 저 우렁이가튼거 해 가지고 농약 안 쓰고 치낭경
머 이러케 한다 그러던데 그건 어뜨케?

<요새는 그 저 우렁이 같은 것 해가지고 농약 안 쓰고 친환경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제보자 : 아니, 교수님보고 얘기지 나는 이 농촌에서 그 치냥경한다는
 사라는 참 골빈 사라마다 그르케 생각글 해요. 왜냐면 이 치냥경
 이라능게 소비자더리 이해를 해야 대요. 근디 채소가 구녀기 빵빵
 뿌러져써 그건 버러지가 머거서 치냥경 아녀? 저얼때 안 사먹썸니
 다. 그건 안 사머그먼 말만 치냥경이지 안 사머저. 과일 버러지 이
 케 진썸나서 울퉁불퉁 절때 안사가요. 그건 소비자드리 맨드능거
 여. 그래서 농야글 고독썸이라고 저 우리 어려서 농사지꾸 수방농
 사 지꾸 트공장물 나도 도마도도 다하고 그래꺼든? 그때는 호리돌
 파라치오니라는 그런 머그먼 그냥 날라가는 파리도 딱딱 떠러지
 는 그런 약드를 써썸요. 궁게 그거 며통 하고 나면 사람들 막 어지
 럽꼬 그래꺼드뇨. 근데 지그른 와안전 농야기 버러지도 안 주거 안
 주거. 궁게 농민들도 이래저래 중는거여. 저농약 요령거 해서 국가
 에서 이게 어느 단 뜯무리면 뜯물주썸 무슨 버러지 중는 양만 맨드
 러. 궁게 세 가지 네 가지 막 해야 그나마 썸썸 효려기 인능거여.
 농약감만 매빠 드려 가능거여 엔날보다. 그렇게서 하기 시러 주꺼
 썸. 지금 그렇게 아냐 그냥 자동저기루 치냥경이여. 매년 일녀네
 딱 농약 한번 아니면 두 번 햏. 그거또 극성시런 사라마 두번 그르
 차느면 한번 그르디 무슨 치냥경을 찬나능거여 미친놈드리지 다.
 그렇건 진짜 안 마저요. 지금 세상에 다 치냥경이여. 머 저 싸른 싸
 른 제발 썸 농약 썸 해서 잘 가꾸라 그래도 안햏 모대요 모다.

<아니, 교수님보고 얘기지. 나는 이 농촌에서 그 친환경한다는 사
 람은 참 골 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채소가 구멍이 빵빵 뚫어져서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친환경 아네요? 절대 안 사 먹습니다. 그건 안 사
 먹으며 말만 친환경이지 안 사 먹어. 과일 벌레 이렇게 진집⁴⁰나서 울퉁
 불퉁 절대 안 사가요. 그건 소비자들이 만드는 거요. 그래서 농약을 고독성

이라고 저 우리 어려서 농사짓고 수박농사 짓고 특용작물 나도 도마도도 다하고 그랬거든? 그때는 호리돌 파라치온이라는 그런 먹으면 그냥 날아가는 파리도 딱딱 떨어지는 그런 약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몇 통 하고 나면 사람들 막 어지럽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 농약이 벌레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래저래 죽는 거야. 저 농약 요런 거 해서 국가에서 이게 어느 단 뜯물⁴¹⁾이면 뜯물 죽고 무슨 버러지 죽는 약만 만들어.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가지 막 해야 그나마 조금 효력이 있는 거야. 농약 값만 몇 배 들어가는 거야 옛날보다. 그렇게 해서 하기 싫어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안해. 그냥 자동적으로 친환경이여. 매년 일 년에 딱 농약 한번 아니면 두 번 해. 그것도 극성스런 사람이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번 그런데 무슨 친환경을 찾느냐는 거야 미친 놈들이지 다. 그런 것은 진짜 안 맞아요. 지금 세상에 다 친환경이여. 뭐 저 쌀은 쌀은 제발 좀 농약 좀 해서 잘 가꾸라 그래도 안 해 못 해요 못 해.>

조사자 : 아 그래요 약값시 마니 드러서요?

<아 그래요 약값이 많이 들어서요?>

제보자 : 약값또 마니 들고 힘 드러. 그렇게 우리 저 망내가 한 일녀네 야 임마 농야가야 그래두 재수할 거야. 하는 마리 아이구 쪼금 들 먹꾸 마라요. 심드러 모다. 그 아냐 아냐 나도 인자 나이 머꾸 모다 구 내가 서울사람들도 오머는 진짜 우리나라 쌀미는 백프로 치농경이다 제발 국가에서 하라고 하라 그래도 하는 사라미 음씨. 그 백프로 싸른 치농경이고, 또 과일도 그려요. 과일도 다 지금 저 농야기라 그냥 그냥 그냥 머그먼 쪼금 피해 이쓸라나 몰라 다 까꺼 머꼬 씨쳐 먹짜나 아무 상관 업씨 뱅날 천날 머거도 그걸로 피해는 안 본다고 장다매요 내가.

40) 물건이 터지려고 가느다랗게 벌어진 금이나 틈. 진물이 날 정도의 흠집.

41) 진땀물의 지역어.

<약값도 많이 들고 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저 막내가 한 일 년에 야 임마 농약 해야 그래도 재수할거야⁴²⁾ 하는 말이 아이구 조금 덜 먹고 말아요. 힘 들어 못해. 그 안해 안해 나도 이제 나이 먹고 못 하고 내가 서울 사람들도 오면 진짜 우리나라 쌀만은 백 프로 친환경이다 제발 국가에서 하라고 하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백 프로 쌀은 친환경이고, 또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다 지금 저농약이라 그냥 그냥 그냥 먹으면 조금 피해 있으려나 몰라 다 깎아 먹고 씻어 먹잖아 아무 상관없어 백 날 천 날 먹어도 그걸로 피해는 안 본다고 장담해요 내가.>

조사자 : 그니까 농약이 그러케 개량이 뿔건데.

<그러니까 농약이 그렇게 개량이 된 건데.>

제보자 : 예 개량이 되버려써.

<예 개량이 되 버렸어.>

조사자 : 사람한테 조은데 농사 짓는 분드란테는 힘드네요.

<사람한테는 좋은데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힘드네요>

제보자 : 예 사람 주거든요. 그르타구 해서 지금 버리지 더럭더럭간 채소 가따 파라 바요 안 사가 주거도 안 사가. 그런데 치낭경?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안잔능거여 이 농민들 주길라고 하능거지.

<예 사람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벌레 더럭더럭한 채소가져다 팔아 봐요 안 사가 죽어도 안 사가. 그런데 친환경?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 농민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조사자 : 도시에서 사는 사람드른 치낭경 그러면 퍼나난데 직쩍 하시는 분드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친환경 그러면 편안한데 직접 하시는 분들은.>

42) 제대로 수확한다는 의미.

제보자 : 그게 참 멍청한 사람드리에유. 치낭경 며빼씩 주고 사다 멍는 사라미. 물론 그 사람들 머 우리보다 한 일년 이년 더 살찌는 몰라. 나도 인제 널모레 팔시빈디 그르케 농약 도칸낙카고 지금 이르게 함부로 사라도 강 오래 사러. 그라구 또 나는 그르케 생가개 인생을 재미게 사르야댄다고 바 만조카게 사르야 하구. 그거 그거 자꾸 그냥 금방 주글꺼가치 사르면 부란해서 못싸러 안주거 호호호. 나 그라자나요 처미 시골써 사능게 참 어구래서 도시도 나가구 십년만 이따 나간다구 핸는디 여기서 오래 상게 지그른 여기보다 조은 디가 업따 이거여. 내가 논상가서 바블 사며꼬 시프면 못 사며거? 저녁 머꾸두 머 사고 시풍거 이쓰른 논산 시보부니면 가따 오는디 삼십뿌니지, 가는디 십오분 삼십뿐 가따 옹게. 머 이케 시고 리조용한데 얼마나 조야. 포장 잘 대가지고 맘대로 차타고 다니고 조차나. 내가 이르게 만조칸디 멀 저 도시서 벅쩍벅쩍칸디가 사능게 머하냐 그래써.

<그게 참 멍청한 사람들이예요. 친환경 몇 배씩 주고 사다먹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들 뭐 우리보다 한 일년 이년 더 살지는 몰라. 나도 인제 널 모레 팔십인데 그렇게 농약 독한 약하고 지금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그냥 오래 살아.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고 봐 만족하게 살아야 하고. 그거 그거 자꾸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이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 안 죽어 호호호. 나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골에서 사는 것이 참 억울해서 도시도 나가구 십년만 있다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래 사니까 지금은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다 이거요. 내가 논산 가서 밥을 사 먹고 싶으면 못 사 먹어? 저녁 먹고도 머 사고 싶은 것 있으면 논산 십오 분이면 갔다 오는데 삼십분이지, 가는데 십오 분 삼십 분 갔다 오니까, 뭐 이렇게 시골이 조용한데 얼마나 좋아, 포장 잘 되 가지고 맘대로 차타고 다니고 좋잖아, 내가 이렇게 만족하는데 멀 저 도시서 북적북적한 데 가 사는 게 뭐 하나 그랬어,>

조사자 : 이라시다가 쉬실 때는 머 특빠리 따로 머 하시능게 이쓰세요?

<일하시다가 쉬실 때는 뭐 특별히 따로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보자 : 읍씨요 그냥 겨우레는 내가 채글 쫘 조아하는 퍼니예요. 그냥 머 그걸 그냥 한문자래두 써 보구 영어다너래두 하나씩 외보고 십꼬 머 그라다 봉게 늘 모지랴 시가니. 그라구 또 저러케 채글 또 늘 느러노면 애드란티 공부가 대자냐. 손자 손녀드리 다 공부들 자래요. 우리 하라버지는 늘 저러케 책 퍼노코 공부하는 하라버지 흐흐. 예 그릉게 그릉거뚜 내 자신 해서 애드란티 가르칠껀 업꾸 보여 주능거지 그냥 우리 하라버지는 늘 책 퍼노코 공부하는 하라버지 히히.

<없어요 그냥 겨울에는 내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그걸 그냥 한문자라도 써 보고 영어 단어래도 하나씩 외워 보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늘 모자라 시간이. 그리고 또 저렇게 책을 또 늘 늘어 놓으면 애들한테 공부가 되잖아. 손자 손녀들이 다 공부들 잘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저렇게 책 퍼 놓고 공부하는 할아버지 흐흐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자신해서 애들한테 가르칠 것은 없고 보여 주는 거지.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늘 책 퍼 놓고 공부하는 할아버지 히히.>

조사자 : 아이, 제일 조은 교유기죠.

<아이, 제일 좋은 교육이죠.>

제보자 : 예 그래서 애드리 참 다 바르게 커씨요. 외손자 친손자털 오면 다 와서 거시기 하구.

<예 그래서 애들이 참 다 바르게 컸어요. 외손자 친손자들 오면 다 와서 거시기 하고>

조사자 : 흑씨 뭐 아주머니하고 가치 여행 다니시고 그런 기어기 이

쓰세요?

<혹시 뭐 아주머니하고 같이 여행 다니시고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제보자 : 마니 다녀쫓 외국 갈때마다 가치.

<많이 다녀쫓 외국 갈 때마다 같이.>

조사자 : 외국 갈때 가치 가시고요?

<외국 갈 때 같이 가시고요?>

제보자 : 예 아이 저 유럽가튼디 갈 때는 천마년씩 그르케 내구 가쑤.

그릉게 돈 마니 들지.

<예 아이 저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천만 원씩 그렇게 내고 갔어.

그러니까 돈 많이 들지.>

조사자 : 아이 대다나시네요 가치 가시면 조아하시쑤?

<아이 대단하시네요 같이 가시면 좋아 하시쑤?>

제보자 : 아이 심드러요. 나보다 한 살 더 머거쑤. 그른디 나이 한 사리 더 머거서 그런지 어짤지 늘 어디 가면 문미더요. 그냥 부란해 주 쑤쑤. 나는 이런디 잘 도라다니고 자라는디 양 불아냐 늘 모시구 대니능거여 어디 가면.

<아이 힘들어요.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 그런데 나이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늘 어디 가면 못 믿어요. 그냥 불안해 죽겠어. 나는 이런데 잘 돌아 다니고 잘 하는데 그냥 불안해 늘 모시고 다니는 거야 어디 가면.>

조사자 :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사셔야쑤. 예 이르케 바쁘신데 갑 짜기 차자 와서 옛날 얘기하라고 자꾸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사셔야쑤. 예 이렇게 바쁘신데 갑자기 찾아 와서 옛날 얘기하라고 자꾸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보자 : 아니 머 도움 딸니리 업쓸거가타서요 거저를 할라고 해서. 아이 내가 딸 시골써 배운거또 업꾸 머가 도우미 되건냐고 그랜는디, 한번 저 무뇌원장이 얘기하더라고. 그저니 아저씨 목쭈일 하게 댐 워닌써부터 목쭈일 이라는디 머가 조튼지 나쁘다든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라라고. 그라고 이런 지명가튼건 무뇌원장이 참 전문가여 그냥 이 점골하면 왜 점고리 된나 이리저리 무러보고 파보고 해서 우리 열배는 아러. 그렁길 잘 아를꺼여. 그라고 목쭈일 가튼거에 대해서는 내가 쯤곰 무뇌원장보단 날쭈도 이찌. 나는 평생 한 이십면년동안 그걸 해쭈게.

<아니 뭐 도움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거절을 하려고 했어. 아이 내가 뭘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고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그랬는데, 한번 저 문화원장이 얘기하더라고. 그전에 아저씨 목수 일 하게 된 원인에서부터 목수 일 할 하는데 뭐가 좋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라고. 그리고 이런 지명같은 것은 문화원장이 참 전문가요 그냥 이 점골하면 왜 점골이 되었나 이리저리 물어보고 파보고 해서 우리 열배는 알아. 그런 것을 잘 알거요. 그리고 목수 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쯤곰 문화원장보단 날 수도 있지. 나는 평생 한 이십 몇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조사자 : 이제 이러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시면 또 이라러 가셔야 되젠네요?

<이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시면 또 일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제보자 : 예 눈에 물 이르케 대뇌쭈게 그 이제 노타리 치구 그래야쭈.

<예 눈에 물 이렇게 대 뵈으니까 그 이제 로타리 치구 그래야쭈.>

조사자 : 요새 시골도 로타리라는 기계 업쓰면 아무거또 모탈꺼가태요.

<요새 시골도 로타리라는 기계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제보자 : 궁게 너무 조아졌쥬. 옛날에 쟁기로 갈고 쓰래로 쓰리고 하다가 지그른 머 혼자 타구서 늘그니두 이르게 타구 다 손만 까딱까 따가면 다 하는디 멀. 그릉게 팔썸 노인도 농사 지꼬 하쥬.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쥬. 옛날에 쟁기로 갈고 써레로 썰고 하다가 지금은 뭐 혼자 타고서 늙은이도 이렇게 타고 다 손만 까딱까딱 하면 다 하는데 멀. 그러니까 팔썸 노인도 농사짓고 하쥬.>

조사자 : 예전에 사시던 분들 참 고생 마니 하셧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전에 사시던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셧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Ⅲ

논산 지역 언어의 특징

Ⅲ. 논산 지역 언어의 특징

1. 논산 지역 언어의 위상

언어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

언어는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언어의 기원에 관한 이러한 질문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모습으로든 언어는 있어 왔을 것이고, 그것이 현재까지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현재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이다.

언어의 기원을 인류의 공동체 생활과 동일한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속성에 바탕을 둔 견해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언어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약속된 기호(sign)의 체계라는 점이다. 결국 이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수렴하여 살펴보면 언어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을 위한 약속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면 그 구성원 사이에 통용되는 언어도 달라지게 된다.

언어적 측면에서 가장 큰 공동체의 단위는 민족이다. 민족을 규정하는 데에는 역사와 풍습, 지리적 특성 등의 동질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런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특성이 바로 언어적 동질성이다. 언어철학자들은 인간이 내적 사유체계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적 대상과의 연결통로로 언어를 정의하기도 한다. 즉 인간은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이나 객관적 사상을 인식하고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언어가 달라지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유체계나 행동 양식이 함께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구성원 사이에는 이러한 사유체계의 간극이 없으므로 사상적 공통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은 언어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민족은 한반도 안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주,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걸쳐 생활하고 있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울타리에 포함되는 것이다. 민족 단위와 달리 국가는 언어적 공동체의 단위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최근 들어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생활하게 됨으로써 단일민족 국가의 정체성이 다소 상실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내의 언어적 혼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언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혼란은 겪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하게 된다. 또 어떤 경우는 한 민족의 언어가 여러 국가에 걸쳐 사용되는 사례 또한 그리 낯선 경우가 아니다.

지역어의 종류와 가치

그러나 비록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생활하는 지역이나 사회적 속성이 달라지면 언어의 내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언어체계 내부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하위 언어체계를 지역어라 부른다. 지역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역에 따른 구분(Regional Dialect)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계층에 따른 구분(Social Dialect)이다. 지역에 따른 구분은 언어의 하위적 변화가 지리적 경계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났을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지리적 경계란 교통과 통신 수단이 덜 발달되어 있던 시절, 지역 간의 교류에 장애를 일으키는 바다나 산맥, 강 등의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상호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로 인해 거주 지역을 단위로 하여 언어체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경계는 바다이다. 현재에도 제주도 지역어는 육지의 다른 지역어들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말의 경상지역어, 충청지역어, 전라지역어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그 변화가 사회적 계층이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이유로 일어났을 때는 사회계층에 의한 구분이라 부른다. 남자와 여자의 말이 다르고 노인과 아이들의 말이 다르다거나 특수한 분야의 용어들을 다른 분야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표준어 교육의 확대와 매스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지리적 경계에 의한 언어의 분화는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있다. 반면 사회의 다원화와 급속한 기술의 발달, 특수화 전문화된 분야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분화는 더욱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어와 언어의 차이를 가르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또 한국어와 일본어 등 언어 간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한 언어의 지역어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이다. 물론 지역어의 차이로 인해 대화 초기에 의사소통이 다소간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로 들어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정착 초기에는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다소간 소통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남한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지역어의 차이에 의한 다소간의 소통 장애는 충분히 극복될 만한 것이므로 지역어 간에는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방언은 표준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표준어가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지방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방언은 변두리의 언어 또는 고급스럽지 않은 언어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표현의 기능이 새로이 인식되면서 지역어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이에 따라 지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통합하고 지역문화를 대변하는 콘텐츠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논산 지역어의 위치

한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단일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 내부에서는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몇 개의 지역어권으로 나뉘어져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어 지역어를 나누는 일반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 | | | |
|---------|---------|---------|
| ① 평안지역어 | ② 함경지역어 | ③ 중부지역어 |
| ④ 전라지역어 | ⑤ 경상지역어 | ⑥ 제주지역어 |

한국어의 지역어를 크게 6개의 지역어권으로 나누는 이러한 분류는 한반도를 셋으로 나누어 북부의 평안과 함경지역어, 중부지역은 서울, 경기권을 포함하는 중부지역어, 남부지역은 전라와 경상지역어로 나누고 제주지역어를 독립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충청지역어와 강원지역어가 독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강원지역어는 행정구역으로서의 강원도와 지역어적 특징으로서의 강원도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어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는 강원지역어는 태백산맥 동쪽지역 즉 영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어이며 그 서쪽 지역인 영서지역의 지역어는 경기지역의 지역어와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위의 분류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충청지역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충청지역어의 특징으로 어휘적 관점에서 ‘~유’로 끝나는 어말어미, 느릿하고 온화한 말투, 차분한 억양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반인의 인식이고 지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충청지역어는 경기지역의 중부지역어, 전라지역어, 경상지역어들처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지역어로 인식되어 있다. 나아가 충청권으로 통칭되는 충북의 지역어는 더욱 중부지역어와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충청지역어 특징은 충청지역

전반에 걸친 것이라기보다는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말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충청지역어를 충청남도의 북부와 남부를 갈라 북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어권으로 편입시키고 남부는 전라지역어권으로 소속시키거나 아니면 충청지역어 전체를 지역어구획에서 배제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렇게 지역어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 지역어권 경계의 수립이 불분명한 지역으로는 앞서 살펴본 강원도, 충청도와 함께 황해도 지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이 충남지역어의 독자적인 형태에 주목하여 충청지역어를 독자적인 지역어권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학자는 충남대 명예교수로 논산 출신인 도수희교수이다. 그는 충청도지역어를 다른 지역어권, 특히 경기지역어권에 예속시킨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의 논지는 충청지역어 특히 충남지역어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이 지역어의 뿌리가 전북지역어와 거의 같으면서 그 줄기는 나뉠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충청지역을 차령산맥을 분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의 서북부와 이남의 동남부로 나눈 뒤 다시 하위 구분을 통해 충청지역어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A 지역 서천, 보령, 부여, 청양, 공주, 논산, 대덕, 대전, 금산, 옥천, 영동

B 지역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

C 지역 천원, 천안, 청원

충청지역어를 세 개의 지역으로 하위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후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언어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청지역어의 독자성 확보는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니다.

충청지역어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논산지역어의 특성 또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그동안 이 지역의 언어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이 지역의 언어가 전북지역과의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였던 박병채교수는 전북지역과의 연관성을 논하면서 ‘무’의 지역어형인 ‘무수’가 전북의 무주, 전주와 충남의 강경, 논산, 서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 그리고 ‘가을’에 대한 지역어형 ‘가슬’이 이 지역과 전북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남부지역의 지역어적 공통성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이 두 지역의 지역어 형태는 음운이나 어휘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두 지역에 유사한 언어현상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수희 교수는 종래 충청지역어가 전라지역어와 서로 다른 언어로 존재하다가 전라지역어의 영향을 받아 유사해졌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 두지역의 언어는 본디부터 하나의 뿌리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문화적 뿌리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하나의 지역어권이 이후 행정구역의 설정이라고 하는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조치에 의하여 전북과 충남으로 나뉘었을 뿐 언어적 경계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특히 논산지역의 경우 같은 충남 지역인 서산이나 당진 지역보다는 전북 지역이 지리적으로더 가깝고 비슷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과의 지역어적 유사성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논산 지역 언어의 특징

논산 지역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다란 차원에서는 충남보다 전북 지역어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표준어와 비교했을 때 논산 지역어의 특징인지를 살펴보고 하겠다.

이 부분의 집필에 사용된 자료는 필자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채록한 4분의 제보자의 구술 내용을 주 자료로 하고, 보조 자료로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연산면과 은진면 등 관내 8개 면의 지역어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논산군지(2000년)에 수록한 필자의 글과, 논산의 지역어에 대하여 연구한 관련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2.1. 논산 지역 언어의 소리

2.1.1. 자음의 특징

가. 구개음화

구개음화란 주로 ‘ㄷ, ㅌ’ 등의 소리가 ‘ㅣ’모음이나 ‘ㅣ’로 시작되는 ‘ㅑ, ㅓ, ㅕ, ㅗ, ㅛ’ 등의 모음 앞에 올 때에 ‘ㅈ’으로 소리가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굳이’가 ‘구지’로 소리 나거나 ‘같이’가 ‘가치’로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실제 지역어 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름’이 ‘지름’으로, ‘길’이 ‘질’로, ‘형님’이 ‘성님’으로 소리 나는 것도 구개음화로 설명된다. 결국 구개음화란 ‘ㅣ’모음, 또는 ‘ㅑ, ㅓ, ㅕ, ㅗ, ㅛ’와 같은 모음 앞에 오는 소리가 ‘ㅈ, ㅊ, ㅉ’ 등으로 바뀌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구개음화현상이란 세계 모든 언어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논산 지역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표준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인정된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의 단어들이다.

- 굳이→구지, 곧이→고지, 맏이→마지, 미달이→미다지, 여달이
 →여다지
- 같이→가치, 벌이 (따갑다)→벼치, (다리) 밑이 (시원하다)→
 미치, (포스터를) 붙이다→부치다

이러한 경우에도 표기는 소리가 바뀌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이 현재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그러나 ‘ㄱ→ㅈ, ㅎ→ㅅ’ 등에서 일어나는 소리 변화는 아직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며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
 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어적 현상으로만 다루어진다. 논산지역의 언어
 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1) ㄱ→ㅈ의 경우

- 김치→짐치, 기둥 → 지둥, 기미→지미, 기름→지름, 옛기름
 →옛질금
- 겨우→제우, 곁에→저테
- 요긴하게→요지나게, 깊은 데→지픈 디, (물을) 끼었고→찼지구,
 길다랗게→찌다랗게, 기울다→찌올다

2) ㅎ→ㅅ의 경우

- 형님→성님, 휴지→수지, 힘줄→심줄, 흥→승
- 흥척하다→송척하다, 흐지부지→시지부지

나. 경음화

경음화는 본래는 부드러운 소리의 자음이 된 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부드러운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언어학적 이유로는 단어가 놓이는 위치와 앞뒤에 있는 소리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개의 단어가 합하여져서 하나의 단어가 될 때 그 사이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꽃’과 ‘밭’이 합쳐져서 ‘꽃밭’이 되면 그 소리가 ‘꽃빨’으로 바뀌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는 소리를 좀 더 세게 함으로써 표현의 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거나 표현을 분명하게 하려는 심리적 현상의 일환으로 된소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어두경음화 즉 단어의 첫소리가 경음화되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주’를 ‘쏘주’라고 하거나, ‘중국’을 ‘쭙국’, ‘과자’를 ‘까자’, ‘장어’를 ‘짱어’라고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명되는 현상 이외에 매우 다양한 변이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언어학자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은 대부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대어에서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은 ‘꾸기다’, ‘뚜드리다’, ‘똥그랑다’, ‘쪼그맣다’, ‘쪼금’, ‘쪼다’ 등에 머물고 있다.

한편 논산 지역어에서도 된소리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지역어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어휘들이 수집되었다.

- 가지→까시, 개구리→깨구리/깨구락지, 고패집→꼬패집, 들판→뜰판이, 고린내→꼬린내, 시래기→씨라구, 소나기→쏘내기, 조각→쪼가리
- 조금→쪼끔

- 갑갑하다→깁깁하다, 부순다→뿌신다, 속인다→씩인다, 작다→작다, 적다→족다

다. 옛 소리의 보존

지역어가 국어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그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옛말에는 존재하다가 현대에서 사라진 소리를 간직하고 있어서 표준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옛말의 흔적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논산지역어에도 이러한 흔적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자.

(1) ‘ㅅ’음의 보존

이 현상은 국어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우리말의 역사에서 모음 앞에 놓이는 ‘ㅅ’소리는 고대국어 시기에는 온전히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점차 소리가 약화되어 ‘ㅅ’소리로 바뀌었다가 그 후 아주 사라져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견해는 표준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ㅅ’소리가 지역어에 나타나는 것에서 그 존재를 짐작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표준어 ‘가위’의 지역어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새, 가세, 가시개, 까시개’ 등이고, ‘가을’의 지역어는 ‘가슬, 가실’ 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ㅅ’소리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옛말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논산지역어에도 이러한 ‘ㅅ’소리가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ㅅ’소리는 경상지역어나 전라지역어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충청지역어에서는 흔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를 통해서도 논산지역어의 지리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 가위→가새, 과일→과실, 그을음→끄스름, 무→무수, 여우→여수, 애벌빨래→아시빨래, 아우→아수

○ 그어→그서, 이어→이서, 저어→저서

(2) ‘ㅂ’음의 보존

‘ㅂ’도 ‘ㅅ’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라진다. 다만 ‘ㅂ’은 뒤에 따라 오는 모음이 ‘ㄱ’나 ‘ㄷ’인 경우에 주로 사라진다. 현대국어에서는 동사에 등장하는 ‘ㅂ’은 표준어에서는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꽃이) 곱다→고와서’, ‘(고기를) 곱다→구워’, ‘(침대에) 눕다→누워라’ 등과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현재도 경상지역어에서는 ‘고기를 구버 먹다’, ‘침대에 누버 자라’와 같은 지역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논산 지역어에도 이와 같은 ‘ㅂ’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 종류는 매우 적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다음의 경우가 발견된다.

○ 또아리→또바리, 새우→새뱅이

○ 다르다→달롭다

라. 기타 변화

앞서 살펴 본 구리말의 일반적 변화와 달리 지역어적 특징으로 나타나 는 소리의 변화들도 관찰이 된다. 이러한 소리를 묶어 사례로 제시한다.

*약음화

경음화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발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소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라지역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보인다.

○ 솔깃하다→솔고다다, 어떻게 할래→어치깁래, 못하고→모다고, 이만씩하게→이맨씨가게

○ 보니까→봉게

2.1.2. 모음의 특징

가. 전설모음화

전설모음화란 ‘ㄷ, ㅅ, ㅈ’ 따위의 소리 뒤에 오는 ‘-’나 ‘ㅌ’ 또는 다른 소리가 ‘ㅣ’로 바뀌어 나는 현상을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소리에 서만 주로 나타났으나 점차 세월이 흐르며 이러한 변화의 경우들이 다른 모음에도 영향을 주어 소리의 변화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전설모음화는 단어의 첫소리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 소리 이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국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래가 깊은 현상으로 오래전에 바뀌어진 말들은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골’→‘시골’, ‘숯다’→‘싫다’, ‘츄’→‘취’, ‘(하는)쫓’→‘짓’과 같은 말들이 이에 해당한다. 논산 지역어에서 볼 수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등겨→딩겨/딩계, 스님→시님, 샘→시암, 넷째→닛째, 내일→니알, 명절→명질, 제사→지사, 되게→디게, 좋은 데로→죤디로, 다드미→다디미, 머슴→머심, 보습→보십, 무슨→무신, 송충이→송칭이, 셋→싯
- 듣기 싫다→디끼 싫다, 들여다보니→디다 보니, (바지를) 누벼→니벼, (구멍을) 메우고→미고, (칼에) 베어서→비서, 쓸데없는→싯데없는
- 하여튼→하이튼

나. 우믈라우트(Umlaut)

우믈라우트 현상이란 우리말을 비롯하여 세계 모든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리 변화 현상의 하나인데, ‘ㅏ, ㅑ’ 또는 ‘ㅓ, ㅕ’ 등의 모음이 앞이나 뒤에 있는 ‘ㅣ’모음의 영향을 받아 ‘ㅘ, ㅙ, ㅚ, ㅛ’ 등의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남비→냄비’, ‘자미→재미’, ‘한길→행길’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변화가 오랜 단어는 표준어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은 지역어적 특징으로 간주된다. 논산지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나타난다.

- 다리미→대리미, 장가→장개, 참빗→참빏, 치마→치매, 남편 →
냄편, 다니다→댕기다, 만들다→맨들다/맹글다, 토박이→토배기,
바깥→배깥, 시멘트→세멘, 노가다→노가대
- 며느리→메누리/매느리, 벼→베, 벼락→베락, 등겨→딩게, 동서
→동세
- 고기→괴기, 도련님→되련님, 소죽→쇠죽, 모밀→뫼밀/메물

다. ‘ㅡ’모음화

‘ㅡ’모음이 ‘ㅡ’모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가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상지역어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지’→‘그지’, ‘더럽다’→‘드럽다’, ‘썰다’→‘쓸다’와 같은 변화는 이미 널리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소리 변화의 한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는 중이다. 논산지역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자주 보인다. 다음에 그 사례를 제시한다.

- 거지→그지, 거짓말→그짓말, 서산→스산, 덩치→등치, 성질
→승질, 어른→으른, 끼니→끼니, 서석→스석, 점심→즈심
- (빨래를)빨아야 → 빠르야, 어떻게 할려고→어츄갈라고, 언다
→은다, 없다→읍다. 적다→즉다, 선보다→슨보다.
- 그런데→그른디, 그런가봐→그릉게벼, 천천히→츄츄히

그런데 소리의 변화를 살펴다보면 반드시 하나의 흐름으로만 소리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점심’→‘즘심’의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홀다’→‘헛트리다’와 같이 변화의 방향을 거스르는 현상도 나타난다. 언어의 관찰과 설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

라.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소리를 내는 ‘ㄱ’나 ‘ㄷ’ 따위의 모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원순모음화란 이러한 모음이 아닌 소리가 ‘ㅁ, ㅂ, ㅍ’과 같은 소리의 아래에서 ‘ㄱ’, ‘ㄷ’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표준어에서는 역사적으로 진행되다가 현재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프랑스’→‘푸랑스’, ‘브라질’→‘부라질’처럼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논산 지역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단어가 이런 현상으로 발음되고 있다.

- 아버지→아부지, 어머니→어무니, 읍내→웁내, 드럼통→도라무통, 메밀→메물, 블록→보로꼬, 처남댁→처나무댁, 덤프트럭→담뿌트럭
- 가볍다→개볍다→개볶다, 없다→웁다→웁다
- 어디→오디, 어따→오패

마. 기타 변화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소리 변화 현상에 비추어 논산지역어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런데 논산지역어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잘 맞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소리 변화를 묶어 기타 변화로 정리해 본다.

* 저설모음으로의 변화

소리를 내는 데에는 입 속에서 혀의 앞뒤 위치와 높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입속의 공간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혀의 움직임이 예민하지 않으면 때로 다른 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저설모음화란 혀의 위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소리가 바뀌는 현상이다.

- 재봉틀→자방틀, 새댁→새닥, 선생→선상, 삼우제→삼오제, 도배지 → 대배지, 곡식 →곡석, 음식→음석, 양식→양석, 아직 →아적, 아들→아덜 그쪽→그짜, 이쪽→이짜,
- 깨끗이→깨갓이, 그런데→그란디, 어찌구→어짜구, 해야지요 →하야지여

* 단모음으로의 변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등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던 것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등의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도 많이 발견된다.

- 계란→겨란, 대궐→대굴, 사위→사우, 외손자→오손자, 외손녀 →오손녀, 회사→해사, 쇠스랑→소시랑
- 꿩매다→꼬매다, 상의하다→상의하다, 수월찮다→술찮다
- 아니면→아니모, 굉장히→깁장히, 몇몇이→맏매시, 샘에다→샤미다

2.2. 논산 지역 언어의 어휘

2015년과 2016년의 조사는 조사방법과 제보자의 선정이 이전의 조사와는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도 이전의 결과와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필자가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논산시 관내 8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어 조사는 단어 위주의

질문지를 활용한 방식이었고, 제보자 역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지역어를 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는 지역어 조사에 걸맞는 제보자의 선정은 물론 질문의 방식도 단어 위주가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자유발화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질문지 형식의 조사에 비해 자유발화는 조사자가 조사하려고 하는 항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는 단순히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지역어를 조사하려 하기 보다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지역어의 수집과 확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유발화의 형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 채록된 자료를 읽어보면 지역어 그 자체보다는 이 지역에서 70~80여년간 살아오면서 겪어 온 어른들의 가족사, 살면서 경험한 관혼상제나 자식을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 농사와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는 논산 지역어에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의 단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거나, 표준어와 대비하여 상당히 다른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저릅, 틈배기, 평쟁기, 흘태, 왕채, 이영(영), 극쟁기, 나래, 다름, 좌향, 제금, 선재, 새우, 보짱, 뼈때기, 섭타리, 목자, 드들뽕, 그렁이, 고조, 다덤또기, 다름, 고자리, 가마이, 꼬자기, 꼬패짚, 날맹이, 담박질, 도맛때, 뜰팡이, 매물/메물, 모이/뫼이, 무수, 보새기, 비지공기, 소창, 수릿뜯, 수죽끼, 시암, 여수, 연갑, 토배기, 호구, 흘태, 짚새기, 메꾸리, 뽕메기, 술메기, 해납
- 간중거리다, 대간하다
- 역뿌루, 오굴오굴, 오로로롤

다음의 어휘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영어가 변형되어 우리 사회에 침투한 흔적이 드러나 보이는 단어들이다.

- 누벨, 세멘, 담뽀트릭, 다우다, 베루도, 윗둥, 공구리, 스티프, 도라무통, 쓰봉, 자브라

특히 일본어의 영향이 담긴 외래어의 흔적으로 보이는 어휘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 다마스리, 갑빠, 샌베

이들 외에도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단어들 가운데 주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벼쿰, 멀국, 새참, 감밥, 타름박, 곁데기, 벼국질, 투가리, 흰무리, 나락, 불저분, 뿌라지, 죽가래, 열개미, 오약손, 장팡, 도구통, 도구대, 호맹이, 꽃염

3. 마무리

지금까지 논산 지역의 언어에 나타나는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한 지역의 언어는 그 지역 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언어적 특징을 살핀다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논산 문화의 다양한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갈래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궁극의 목표를 위한 작은 출발점은 이루었으나 목표 지점에 온전히 도달하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제보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논산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 논산의 지역어는 지역적으로 전라지역어와 충청지역어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명확한 구획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당부분은 전라지역어의 여러 특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어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일한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논산 지역 주민들은 관념적으로는 전라지역어권과의 연계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논산의 성립과정을 보면 멀리는 삼국시대 백제의 범위가 공주, 부여와 익산을 포함하는 지역에 걸쳐 있었고 근세에서는 논산군의 일부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편입되어 온 점, 현재도 행정구역상으로 전북과 경계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역사적으로 전북지역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

앞으로 논산지역어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논산 문화의 특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지은이 정경일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문학박사
한국어학회, 우리어문학회 회장 역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위원 역임

논산지역의 언어

초판 인쇄 2017년 11월 15일

초판 발행 2017년 11월 20일

지은이 : 정경일

발행인 : 류제협

발행처 : 논산문화원

주 소 : 32994 충남 논산시 관촉로 113-16

전 화 : (041) 732-2395

펴낸곳 : 문경출판사

전자우편 : mun9668@hanmail.net

등록번호 : 제 사 113

<비매품>

ISBN 979-11-951599-7-0 0370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논산문화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논산시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